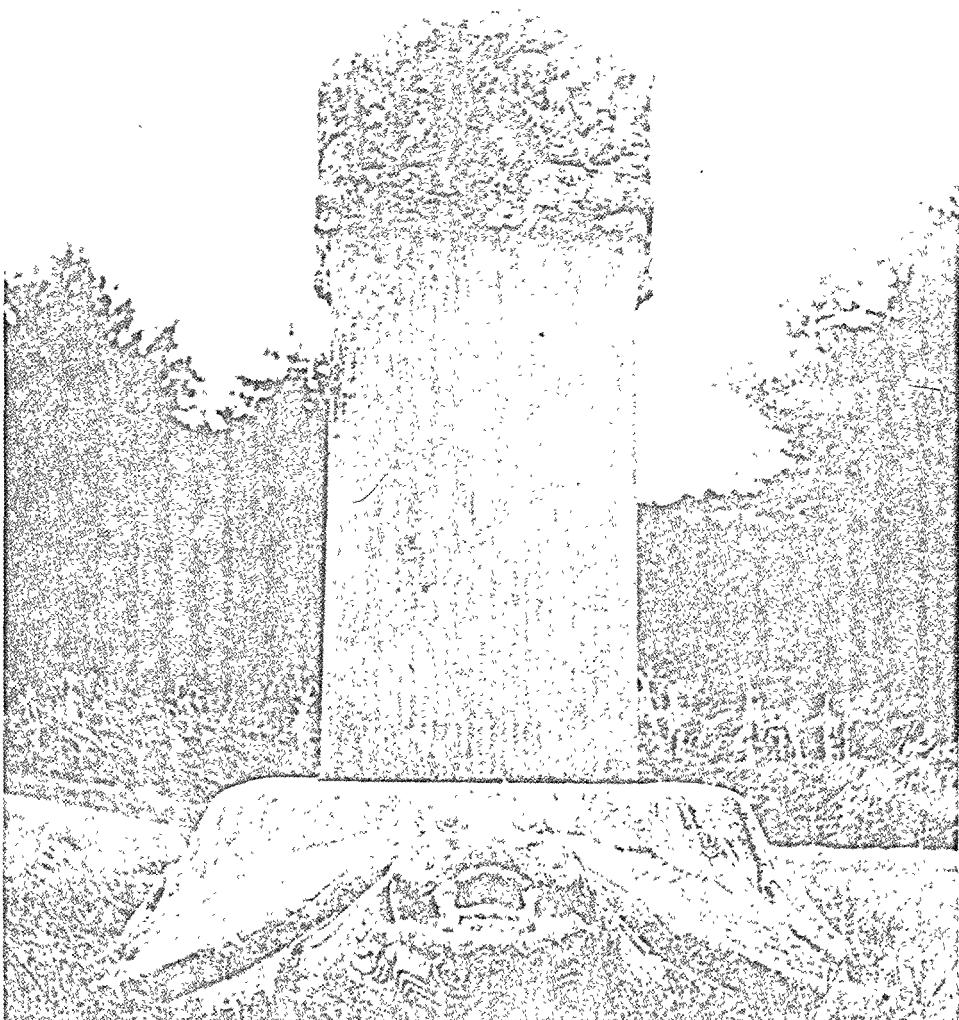


## 第2編 歷史와 文化的 香氣



## 第1章 고장을 빛낸 사람



## 1. 楊州 人脈의 形成

楊州의 豐壤趙氏는 朝鮮時代 세도가문의 대표적 一脈을 이루고 있다.

楊州趙氏로는 高麗가 망하자 楊州에 낙향한 3대 杜門臣의 한 사람인 趙誼가 있다. 道峯山 望國峰에 초막을 짓고 開城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楊州趙氏의 中興을 이룬 것은 그의 세 아들 趙末生·從生·啓生이다.

趙末生은 高麗 공민왕 19년(1370)에 태어났으며 字는 謙初, 號는 華山이다. 朝鮮朝 태종 1년(1401)에 增廣文科에 장원하여 監察·正言·獻納을 역임하였으며 태종 3년(1403) 登極使의 書狀官으로 명 나라에 다녀와 태종 7년에 文科重試에 급제하고 興農寺副正이 되었다. 다음 해 掌令을 거쳐 藝文館直提學 判繕工監事를 역임하였고 태종 18년 吏曹參判이 되었다가 이 해 다시 刑曹判書로 진급하였고, 이어 兵曹判書가 되었다. 趙末生은 태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항상 측근에서 보좌했고, 世宗이 즉위하자 奏聞使로 다시 明 나라에 다녀왔다. 世宗 15년에는 咸吉道觀察使 兼 咸興府尹으로 부임하여 野人 우디거가 침입하자 이를 막아 싸웠다. 世宗 17년에는 判中樞府事가 되고 이어 경상·전라·충청 3도의 都巡問使로 築城을 감독했다. 世宗 21년(1439) 凡杖을 하사받고 耆老所에 들어 갔으며 世宗 28년 領中樞府事가 되었다. 趙末生의 아들이 내외 典籍에 통달한 신진학풍의 學者로 명성을 떨친 觀察使 趙璉이다. 趙末生의 5대손이 明宗朝의 青白吏인 判書 趙彥秀이다.

趙彥秀는 선조들이 青盲으로 치조 있는 처세를 한 것처럼 青聾으로 저항한 유명한 선비이다. 韓末의 名臣 趙秉世도 楊州趙氏의 人脈이다.

楊州에서의 西教徒 殉教人脈이 金伯淳이다. 金伯淳은 大報壇祭와 忠良科의 영예로운 유혹을 집념으로 배제한 용기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丙子胡亂 때 王족을 시중하고 江華로 들어갔다가 江華城이 함락되자 江華南門에서 장렬하게 火藥으로 自爆한 金尚容의 후손이다. 金伯淳은 大報思想을 등졌고 理氣論爭의 性理學에도 회의하였으며 老壯哲學에도 환멸을 느꼈다. 그가 기존 學問을 저주하자 사람들은 그 사고방식이 邪教로 위협시했던 西教나 다를 것 없다고 비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西教가 그의 정신적 욕구좌절을 충족시켜 줄 것이 될지도 모른다고 禁書를 손에 냈다. 天主學輩라 하여 그의 친구들은 絶交를 하고 가문에서는 破門을 하였으며 가족과도 유리하여 살았다. 그는 당대에 있어 현대적 기질 때문에 철저히 소외되었으며 가장 고독한 상황에서 殉教하였다. 그의 영향으로 西教의 정신이념을 실천한 이가 친척 아우인 楊州에 살던 金健淳이다. 金健淳은 金尚容의 아우인 金尚憲의 후손으로 가장 西教를 배척하던 老論 가문에서 난 유일한 西教道이다. 金健淳은 英祖 52년(1776)에 태어났으며 字는 正學 號는 嘉橘이다. 教名은 『요시라』로 正祖 21년(1797) 清나라 신부 周文謨

의 지도로 天主教에 입교하여 가문에서 파문되어 金尚憲의 종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었으며 그는 거지 행장으로 방랑하면서 救貧事業을 벌임으로써 자기의 사상을 실천하였다. 더구나 그는 老論 가문으로서 사교를 믿었다 하여 보다 가혹한 고문을 받아 純祖 1年(1801) 辛酉迫害 때殉教했다. 이 老論 西教人脈은 李喜永·李中培·李鉉으로 뻗어 난다.

楊州에는 안동김씨의 位土로 유지해온 楊州 石室書院의 石室人脈이 다양하다. 石室山人이란 金尚憲의 號이고, 그의 손자가 영의정 金壽興·金壽恒이다. 金壽恒은 楊州에 살았으며 그의 아들이 名學者인 金昌集·昌協·昌翕이다. 이들은 退溪學說과 栗谷學說을 철충하는 李端相의 門下로 折衷學脈을 이어 내렸다.

李端相은 字는 幼能, 號는 靜觀齋·西湖로 대제학 明漢의 아들이다. 仁祖 26년 (1648) 進士試에 장원하였으며 이듬해 庭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副修撰·校理 등을 거쳐 吏曹·兵曹의 正郎을 지내고 孝宗 9年(1658) 應敎가 되었다. 그 후 仁川府使가 되었으나 곧 爭退, 楊州에서 學問研究에 힘쳤다.

방랑시인 金笠도 楊州出身의 안동김씨이다. 本名은 炳淵이고, 字는 性深, 號는 蘭臯이다. 宜川府使 金益淳의 孫子로 純祖 11年(1811) 洪景來에게 降伏한 罪로 廢族이 되고 子孫들의 벼슬길이 막히자 그는 全國을 방랑하면서 재치있는 詩句로써 世上을 풍자했으며, 도처에 諧謔과 풍자가 담긴 많은 作品을 남겼다. 아들로부터 여러차례 歸家를 勸誘 받았으나 방랑을 繼續, 客死하였다. • ---

淑明人脈의 주인공 李貞淑도 楊州 出身이다. 李貞淑은 아버지가 李海錫이고 그의 10대조는 시문으로 유명한 李春英이다. 哲宗 9年(1858)에 楊州에서 태어났으며 1875년에 貞夫人에서 貞敬夫人에 올랐다. 甲申政變 때 남편을 잃고, 1906年 嚴妃의 후원으로 그의 시고모가 되는 趙大妃가 살던 龍洞宮에서 淑明學校의 전신인 明新女學校를設立하였다. 그는 30年間 女性教育에 盡力하여 많은 재원을 길러냄으로써 비비추(鈴蘭)人脈을 形成하였다.

楊州에는 五忠二才라는 말이 있다. 五忠이란 朴榮臣·文夢軒·任鉉·李壽崑·金同을 말하고 二才란 崔灝·崔有海父子를 말하는 것이다.

朴榮臣의 字는 仁輔이고 본관은 密陽이다. 宣祖 38年(1605)에 무과에 及第하여 熊川縣監이 되고, 光海君 6年(1614)에 光海君이 永昌大君을 죽이려는 것을 反對하여 珍島에 流配되었다. 光海君 15年 仁祖反正으로 五衛將이 되고 慶源府使를 거쳐 豊川府使가 되었으나 이듬해 李适의 亂 때 포로가 되어 끝내 그들에게 協力を 하지 않아 慘殺되었다. 兵曹判書에 追贈되었으며 謚號는 忠壯이다.

文夢軒은 壬辰倭亂時 많은 戰功을 세우고 戰死하였으며, 任鉉은 본관이 豊川이고,

字는 士愛 號는 愛灘이다. 李珥, 成渾의 문인으로 宣祖 16年(1583)에 庭試文科에丙科로 及第하여 承文院正자가 되고 宣祖 24年(1591) 持平에 在職中 西人 鄭澈의 일당이라는 東人們의 彙劾으로 파직 당했다. 이듬해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江原道都事로 기용되고 春川에서倭兵을擊破하여 그 공으로 淮陽府使에 升進하였고 宣祖 27年 吉州牧使가 되었다. 宣祖 30年(1597) 丁酉再亂에 南原府使로서 함께 城을 守備하던 明나라 將軍 楊元이 도망한 뒤 繼續 분전하다가 戰死했다. 左贊成에 追贈되고 시호는 忠簡이다.

李壽崑은 宣祖 25年(1592) 壬辰倭亂 때 北으로 避難하는 王을 따라 개성에 이르러 廟社의 神主를 그 곳 穆清殿에 봉으라는 王命을 反對하여 宗廟署提調가 되어 이를 모시고 避難하여 보전케 하였다. 博川에 이르러 分朝의 計劃이 서자 司饔院提調로서 伊川 成川 등지에서 光海君을 補佐했고, 이듬해 적군이 남쪽으로 퇴각하자 光海君을 따라 兩湖의 군사를 按撫하는데 힘썼으나 적군이 繼續 영남지방에 진을 치고 있음에 울분을 참지 못하던 끝에 이듬해 병사했다. 뒤에 忠臣孝子旌門이 세워졌다. 扱聖功臣 3등에 추록되고 節愼君에 進封되었으며 시호는 忠孝이다.

金同은 燕山君에 의해 주인이 죽게 되자 대신 죽은 忠奴이다.

崔灘은 明宗 22年(1567) 수 崔汝雨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號는 楊浦이다. 본관은 海州로서 李珥의 문인으로 시문에 뛰어나고 梅花·鳥類를 잘 그렸으며 글씨는 楷書草書에 능했다. 특히 그의 詩文遺集은 明나라에서 刊行되어 絶讚을 받았다. 그의 아들 有海는 號가 默守堂이고 光海君 9年(1617) 平安都事が 되었으나 大北派에 의해 削職되었다. 光海君 15年 仁祖反正으로 등용되어 安邊府使로 咸鏡道 管餉使를 兼任했다. 그 후 楊州牧使를 지낸 후 副修撰에 오르고 다시 同副承旨에 이르렀다. 醫藥·天文·地理 등 많은 면에 精通했다. 地方官으로 있을 때 善政을 베풀어 頌德碑가 세워졌다.

이제 楊州郡 出身과 또는 楊州郡과 關聯이 있는 歷史上의 人物을 時代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 2. 時代別 人物

### 1) 조 의(趙誼)

高麗때 中顯大夫로 書雲觀正이 되었다. 祇王때의 政治紀綱의 문란함을 개탄하고 관직을 떠나 서울 鄉校洞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었던 중 고려조가 망하고 李太祖가 즉위후 漢陽에 都邑을 정함에 家族을 거느리고 미아리쪽으로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러

나 마음속에는 항상 世稱之義와 人臣之節을 지켜 朝鮮王朝에서 벼슬을 하지 않았다. 날마다 三角山에 올라 開城쪽을 바라보며 해가 질 때까지 통곡하므로 사람들은 그 山을 가리켜 望國峰이라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李太祖는 誠의 높은 절의를 듣고 感歎하며 趙浚을 보내어 예로 맞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듣지 않고 벼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 家族에게 遺言하기를 나는 亡國의 大夫로서 내 눈으로 高麗宗社가 망함을 보고도 곧 죽지 못하고 70 歲가 넘었다. 내가 죽거든 이곳에 묻되 墳形도 高麗制度로 할 것이며 碑도 세우지 말고 다만 조각들에다가 高麗中顯大夫 書雲觀正 趙誼之墓라고 써서 亡國賤俘라 쓰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후 朝鮮王朝 때 判中樞院事를 증직하자 子孫들이 朝鮮王朝의 贈職卿으로 墓碑를 세웠는데 벼락이 떨어져 贈判中樞院事의 여섯자만이 破損되어서 다시 高麗朝의 職卿으로 써서 碑를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서도 趙誼의 高麗王朝에 대한 忠節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

## 2) 권 흥(權弘 : 1360~1446)

高麗末·朝鮮初의 文臣이며 書藝家로 字는 伯道이고, 號는 松雪軒이다. 1382年(우왕 8)文科에 及第하였으나 諫官으로서 鄭夢周의 일파로 몰려 流配되었다. 朝鮮 정종 때 司憲府侍史, 成均館 樂正 등을 역임하고, 딸이 太宗의 嫔이 되자 永嘉君에 봉해졌다. 1410年 知議政府事, 1415年 判敦寧府事, 이듬해 禮曹判書, 判漢城府事를 지내고 1419年(世宗 1) 進賀使로 明나라에 다녀왔다. 1423年 領敦寧府事를 지낸 후 이듬해 사임했다.

文學에 뛰어나고 隸·篆의 書體에 능하였다. 시호는 文順이며 墓所는 州內面 山北里에 있다.

## 3) 백 장(白莊)

南面 梅谷里에서 出生한 白莊은 高麗末의 守節臣<sup>3)</sup>이다. 白莊의 字는 明允이고, 號는 靜慎齋이며 본관은 水原이다. 鄭圃隱에게 배워서 16 歲에 진사가 되고 20 歲에 원나라에 과거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公民王朝에 匡政大夫 吏部典書 寶文館 大提學을 지냈는데 그 때 조정이 문란하자 공은 처자를 거느리고 雉岳山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여 여생을 마치었다. 李太祖가 人品을 높이 여겨 벼슬을 주어 불렀으나 받지 아니하여 海美로 귀양을 보

냈는데 太宗이 登極하여 특명으로 불러 李朝判書를 제수하였으나 『忠臣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忠臣不事二君), 열녀는 두번 시집가지 않는다(烈女不更二夫)』는 굳은절개를 지켜 역시 거절하였다. 謚號를 忠肅이라 하고 竹林書院에 배향하였다.

#### 4) 유만수(柳曼殊 : ?~1398)

高麗・朝鮮朝의 文臣으로 字는 得休, 본관은 文化이다.

공민왕때 寶馬陪行首가 되고, 將軍을 거쳐 典法判書를 지내고, 우왕 초 密直副使로 倭寇擊退에 공을 세웠다. 1379年(우왕 5) 同知密直으로서 楊伯淵의 獄事에 연루되어 合浦로 流配되었다가 뒤에 풀려나와 1383年 同知密直使사로서 慶尚道 元帥 兼 合浦都巡問使가 되었다. 1388年(우왕 14) 이성계를 따라 威化島에서 回軍하던 중 개경 송인문에서 崔瑩에게 敗戰했으나 回軍의 공으로 知門下府事가 되었다. 1389年(공양왕 1) 節制使로서 이방원과 함께 海州에서 왜구를 擊退하였고, 우왕이 폐위되자 尹虎등과 함께 폐위된 우왕을 江陵으로押送했다. 1390年(공양왕 2) 門下評理商議가 되어 鷹揚軍 上護軍을 兼했으며, 門下贊成事에 이르러 流配되었다.

1392年 朝鮮이 開國되자 開國原從功臣으로 判開城府使, 이듬해 回軍功臣 1등에 추록되고 門下侍郎贊成事에 升進하였으나 1398年(太祖 7) 第1次 王자의 난 때 방원에게 斬殺당했다. 墓소는 南面 庚申里에 있다.

#### 5) 박영춘(朴永春)

3.1 運動 때 活躍한 獨立 有功者이다. 大統領 表彰을 받았으며 遺族이 南面 莘山里 185番地에 있다.

#### 6) 조영무(趙英茂 : ?~1414)

朝鮮朝 太宗 때의 大臣으로 號는 休巖이다.

漢山 伯世珍의 아들로 朝鮮朝 開國의 功臣이다.

#### 7) 윤자운(尹子雲 : 1416~1478)

朝鮮의 文臣으로 字는 望之, 號는 樂閒齋, 본관은 茂松이다.

1438年(世宗 20) 進士가 되고, 1444年 式年文科에 及第하여 檢閱이 되었다. 1450年(文종 즉위) 集賢殿 副修撰으로 修史官이 되어 『高麗史』編纂에 參與했다. 이어 吏曹佐郎을 거쳐 1456年(世祖 2) 大護軍, 知司諫院事가 되고, 佐翼功臣 3등에 올랐으며,

同副承旨를 거쳐 1460年 都承旨에 升進하여 申叔舟와 함께 野人 토벌에 출전하였다. 다음해 吏曹參判으로 奏聞使가 되어 明나라에 다녀온 후 仁壽府尹, 京畿 忠淸 全羅 慶尚道 都巡察使를 지냈다. 兵曹와 刑曹의 判書를 역임하고, 1467年 左參贊으로 平安 道 堤堰牧場給田使가 되어 判義禁府事를 兼했고, 다시 慶尚左道 軍容體察使로 나갔다. 같은 해 右贊成으로 咸吉道 都體察使, 都撫管을 兼職하여 李施愛의 난을 토벌, 이듬해 茂松君에 봉해지고 八道軍籍使가 되었다. 1469年(예종 1)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고, 1470年(성종 1) 영의정에 升進했으며, 이듬해 佐理功臣 1등이 되어 茂松府院君에 진봉된 뒤 사직하였으나, 이듬해 다시 우의정으로 禮曹判書를 兼했다. 시호는 文憲이며 墓所는 白石面 弘竹里에 있는데 神道碑가 있다.

#### 8) 흥 응(洪應 : 1428~1492)

朝鮮의 文臣이며 書藝家이다. 字는 應之이며, 號는 休休堂이고, 본관은 南陽이다.

1451年(文宗 1) 增廣文科에 장원하여 左正言을 거쳐 賜暇讀書한 후 集賢殿 校理, 弼善, 輔德을 역임했다. 1463年(世祖 9) 都承旨로 永膺大君과 함께 『明皇誠鑑』을 國譯하고 1466年 拔英試에 及第하였다. 1468年(예종 1)에는 南怡의 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翩戴功臣 3등이 되고 知中樞府事에 올라 孟城君에 봉해졌다. 1471年(成宗 2) 다시 佐理功臣 3등이 되어 孟城府院君에 進封되고 1479年 우의정에 升進, 1485年 京畿·忠淸·全羅·慶尚의 4道 巡察使를 지낸 후 좌의정이 되었다.

文名이 높았고 글씨를 잘 썼으며 模刊한 筆跡이 많이 남아 있다. 成宗의 廟庭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忠貞이다.

#### 9) 박 전(朴槿 : 1434~1509)

朝鮮朝의 文臣으로 본관은 密陽이며, 凝川君 仲孫의 아들이다.

1453年(단종 1) 식년문과에 及第 集賢殿修撰, 校理, 司正을 지냈다. 1455年(世祖 1) 佐翼原從功臣이 되었고 舍人, 右副承旨 등을 거쳐, 1468年 守全羅道觀察使가 되었다. 이듬해 漢城府右尹에 오르고 1472年(成宗 3) 進賀副使로서 明나라에 다녀온 후 호조참판을 거쳐 1477年 同知中樞府事, 병조참판을 지냈다. 1479年 黃州 宣慰使, 이듬해 伴送使, 1483年(成宗 14) 千秋使로 明나라에 다녀온 후 평안도 관찰사, 대사현, 爰知中樞府事, 漢城府判尹, 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1495年(연산군 1) 우참찬으로서 知春秋館事를 兼하여 성종실록 편찬에 參與했고 刑曹判書, 우찬성을 거쳐 좌찬성으로 世子貳師를 兼했다.

1504年(연산군 10) 폐비 尹氏의 追謚를 反對하다가 함경도 관찰사로 좌천되고, 1506年 判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朴元宗·成希顏 등과 反正에 參與 중종을 추대하여 靖國功臣 3등이 되고 密山君에 봉해졌으며, 이듬해 府院君으로 진봉되었다. 뒤에 좌찬성, 領經筵事를 지냈다. 시호는 恭簡이며, 墓所는 長興面 日迎里 山 73번지에 있다.

## 10) 어유소(魚有沼 : 1434~ ? )

### (1) 女眞 征伐

魚有沼는 世宗 16年(1434)에 楊州(現 東豆川邑 紙杏里)에서 魚得海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字는 子游이다. 문종 원년에 內禁衛에 보직되고 세조 2년에 武科에 장원하여 司僕寺 直長·監察을 역임하였다. 世祖 6년에 女眞征伐에 공을 세워 通禮門通贊이 되고, 世祖 9년에는 會寧府使가 되었다.

世祖 13년 5월에 함길도에서 李施愛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左大將이 되어 李施愛의 반군을 토벌하였다. 李施愛는 일찌기 會寧府使를 지냈으며 그의 아버지 李仁和는 判永興大都護府使를 지냈고, 그의 할아버지는 檢校門下府事를 지낸 吉州의 호족이었다. 그는 裝을 당하여 會寧府使를 退任하고 집에 있다가 아우 李施合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李施愛는 처음 “本道節度使가 여러 鎮將과 함께 반란을 음모하고 있다”고 하여 兵馬節度使 康孝文과 길주목사 薛澄新을 죽인 뒤 조정에 대하여는 “兵馬節度使 강효문 등이 中央의 韓明 · 申叔舟 일파와 결탁하여 함길도의 군사를 이끌고 모반하려 하였다”고 변명하였다. 또 그 黨人으로 하여금 “지금 각읍의 백성들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뜬 소문이 분분하다”고 상소하게 하고 한편, “본도인으로써 각읍의 守令을 삼을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각읍에는 “지금 南道의 군사가 바다와 陸地 양면으로 쳐 올라와서 함길도 군민을 다 죽이려 한다”고 선동하였다.

그리하여 함길도의 州郡은 다투어 守令을 죽이고 이에呼应하였으며, 觀察使 申渺(申叔舟의 아들)는 함흥에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조정에서는 亀城君 浚을 4도 道撫使, 호조판서 조양문을 副撫使, 許悰을 함길도 節制使로 삼고, 강순·어유소·남이를 대장으로 삼아 6도병 3만을 징발 함흥에 집합하게 하여 李施愛의 반군을 토벌하게 하였던 것이다. 강순·어유소·남이는 앞으로 나아가 洪原·北青을 들파하고 利原의 蒙嶺에서 반란군의 主力部隊를 깨뜨렸다. 李施愛는 吉州로 패도하여 재화를 싣고 여진으로 도망하려 하였으나 길주인 許惟禮 등이 그를 포박하여 투항함으로써 난은 진압되었다. 魚有沼는 이 공으로 구성군·조양문 등과 함께 精忠敵愾功臣 1等이 되고 藥城君에 봉해졌다.

그런데, 魚有沼 등이 李施愛의 반란을 토벌하려고 복상하였을 때, 마침 明은 建州

衛의 李滿住를 토벌하고자 朝鮮으로 하여금 공격할 것을 요청하여 왔기 때문에 강순·魚有沼·남이 등은 世祖의 命으로 1萬餘 군을 이끌고 길주에서 바로 압록강을 건너서 元彌府(홍경부근)의 진주위본거지를 공격하여 李滿住와 그의 아들을 죽이는 등 큰 전과를 올리고 돌아왔다. 세조가 이 勝利를 明에 통고하니, 朝·明간의 어려운 問題였던 女眞問題가 解決을 보게 되었다.

## (2) 對女眞·對明關係

高麗時代에 자주 變更을 어지럽히던 女眞族이 金帝國을建設하였으나, 13世紀부터는 蒙古에게 征服되어 그의 지배를 받았는데, 女末에 元·明의 劢力이 交叉되기始作하자 만주는 高麗·明·북원 3勢力의 戰점으로 되었었다. 그러나, 明이 妥동으로 進出하여 高麗와 북원의 連絡을 끊고 女眞을 復屬시켜 만주에서의 明의 动力を 確固한 것으로 만들었다. 明은 만주지배에 있어서 독특한 군정을 實施하였으니 일정한 占領地域에 「衛」를 設置하고 駐屯軍의 長이 군정관이 되어 병사와 원주민·來降者 等을 군적에 편입하였으며, 뒤에 이들 제위를 總括하기 위하여 妥동에 定遼都衛(뒤에 遼東都指揮使司로 改稱하였다)를 두고, 遼西에는 廣寧에 遼王府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明의 劋力은 開原 以南 압록강 以西의 妥동평야에서 넘지 못하였으니 朝鮮과 明의 支配圈 外의 廣大한 地域의 女眞은 자주적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明은 朝鮮 太祖 4年에 大規模로 女眞征伐을 행한 후 만주경략을 계속하였는데, 특히 女眞의 首長에게 이권을 줌으로써 이를 復屬하게 하는 懷柔政策을 써서 入貢하는 추장들에게는 그 勋力圈 안에 「衛」 또는 「千戶所」를 두고 그의 都督 또는 指揮等으로任命하여 明의 支配體制속에 편입시켰다. 이리하여 진주여진의 「建州衛」·「建州左衛」와 「毛憐衛」 등 約 180位가 形成되고 있는 것이다.

朝鮮에서는 明 諸衛의 劋力이 미치지 못하는 境外 女眞에 대하여 일면으로는 征服하고 일면으로는 懷柔하는 政策을 써서 내공하는 추장에게는 벼슬과 日用品 등을 주었으며 太宗 6年에는 鏡城과 慶原에 貿易所를 두어 그들의 우마와 이곳의 철을 교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太宗 9年부터는 女眞族들이 북경에 侵入하기始作하여 내구가 그치지 않았는데, 世宗 15年에 김종서를 함길도 都節制使로 삼아 북경을 開拓하게 하니 金宗瑞는 世宗 16年부터 6鎮을 開拓하고 남방의 백성들을 移住하게 하여 世宗 31年까지에는 약간의 地域을 除外하고 두만강 이남이 모두 朝鮮의 領域으로 確保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6鎮 設置에 압도된 女眞族들은 대부분이 압록강 방면의 동가강 부근으로 移住하여 建州本衛都督인 李滿住와 合流하게 되었다.

압록강방면의 女眞은 동가강방면으로 남하하여 온 이만주를 추장으로 진주본위를 세운 바 있는 兀良哈(우량하)族이 자주 朝鮮에 侵犯하였다. 世宗 15年에는 이만주가

4백여 騎를 거느리고 閩廷의 서남부로 침구하므로 최윤덕을 평안도 道節度使로 삼아 女眞族을 征伐하게 하였고, 世宗 19年에는 평안도 道節度使 李歲을 보내 다시 女眞을 征伐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4군을 設置함으로써 압록강방면의 경영도 일단락이 되었으나 4군은 交通이 不便하고 방위하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女眞과의 衝突이 잦아 世祖 때에 이르러서는 4군을 撤廢하고 말았다.

그런데, 世祖 4년에 이만주의 아들 古納哈(고나하)와 전주좌위독 童倉(동산)이 귀순하면 世祖가 그들에게 관직을 주었는데, 明에서는 朝鮮이 전주와 潛通한다 하여 從來의 沈默을 깨뜨리고 「그 女眞人們은 이미 明廷의 官職을 받고 있는데, 朝鮮이 또 임의로 官職을 주는 것은 明廷에 항거하는 것」이라 하여 항의를 보내왔고 앞으로 女眞人에게 官職을 주는 것은 嚴禁하였다. 그리하여 朝鮮에서는 전주위와의 교통을 끊고 때로 滿浦鎮에서 女眞人の要求에 따라 약간의 食料品을 내어주는데 그쳤다.

이로써 經濟的 要求를 滿足시키지 못하게 된 女眞人们이 자주 變更을 침구하게 되고 朝鮮이 女眞에 대하여 強硬策을 쓰게 되었을 때, 女眞에게 자주 요동의 침구를 당하던 明이 협공을 要求하여 오게 되어 마침내 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魚有沼와 강준·남이 등이 압록강을 건너 전주위의 본거지를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魚有沼는 女眞征伐에서 돌아온 후 예종 元年에 함경북도절도사가 되었으며, 成宗 2年에는 佐理功臣 4등이 되고 이어 영안북도절도사를 지냈다. 成宗 7年에는 우찬찬이 되고 도총관을 兼任하였으며, 다음 해에 병조판서를 거쳐 성종 9年에는 우찬성에 올랐다. 그런데, 성종 10年에 明나라의 要請으로 다시 전주위를 토벌하게 되자 魚有沼가 西征 大將이 되어 1萬의 군사를 이끌고 만포진에 이르렀으나, 압록강의 해빙으로 작전이 困難하다는 理由를 들어 回軍하고 말았다. 이때 朝議는 대체로 이것을 認定하였으나, 영의정 韓明澮 등은 明의 要求를 기부함을 두려워하여 西征을 力請하였기 때문에 좌의정 윤필상이 都元帥가 되어 4천병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女眞의 본거지를 무찔렀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그리고 明의 報復을 두려워 한 대신들의 주장으로 魚有沼는 양근으로 流配되었다. 이듬 해에 풀려나와 도총관이 되었으며, 이어 吏曹判書·同知中樞府事·永安道巡察使 등을 역임하고 성종 19年에는 판중추부사 兼 도총관을 지내다가 성종 20年에 世上을 떠나니 시호를 貞莊이라 하였다. 墓所는 東豆川市 廣岩洞에 있다.

## 11) 조익정(趙益貞 : 1436~1498)

朝鮮朝의 文臣으로 字는 而元, 본관은 豊壤이고, 공조좌랑 安平의 아들이다.

1465年(世祖 11) 式年文科에 及第하여 承政院 注書가 되었다. 1468年(예종 즉위) 南怡의 獄을 다스리는데 공을 세워 翅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春秋館 修撰官으로 世

祖實錄 編纂에 參與했다.

이듬해 世子侍講院 文學을 거쳐 持平이 되어 漢平君에 봉해지고, 1491年(성종 22) 大司憲, 廉尚右道 兵馬節度使, 禮曹參判을 역임했다. 1495年(연산군 1) 漢城府 左尹을 거쳐 公조와 吏曹의 參判을 지내고, 1497年 副撫管이 되었다. 墓所는 州內面 廣沙里에 있다.

#### 12) 신승선(慎承善 : 1436~1502)

朝鮮朝의 文臣으로 號는 仕止堂, 본관은 居昌, 觀察使 詮의 아들이다.

臨瀛大君(世宗의 3男)의 딸과 結婚하여 1454年(단종 2) 司馬試에 합격하였다. 敦寧府丞이 되고 1456年(世祖 2) 漢城府 右尹을 거쳐 兵曹參知로 文科重試에 장원하고 이해 다시 拔英試에 3등으로 及第했다.

이듬해 吏曹와 公조의 參判, 1468年(예종 즉위) 다시 兵曹參判이 되어 翅戴功臣 3등이 되고, 居昌君에 봉해진 후 다음해 兵曹參判 兼 예문관 제학을 지냈다. 1471年(성종 2) 佐理功臣 3등이 되었으며, 1476年 千秋使로 明나라에 다녀오고, 1479年 平壤 宣慰使를 거쳐 1481年 行同知敦寧府事, 公조판서를 역임하였다. 聖節使로 明나라에 다녀왔으며, 知義禁府事를 지내고, 1484年 賓客을 兼職하여 2年 후 兵曹判書로 特進官을 兼하였다.

1487年 딸이 세자인 연산군의 嫡에 책봉되면서 左參贊에 升進하고 이어 行 예조판서, 四所大將, 吏曹判書, 1494年 우의정에 올랐다. 1495年(연산군 1) 山陵看審使를 兼職, 領春秋館事로 成宗實錄을 編纂했으며,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고, 1497年 居昌府院君에 進封되었다. 시호는 章成이며, 墓所는 長興面 日迎里에 있다.

#### 13) 송 질(宋軼 : 1454~1520)

朝鮮朝의 文臣으로 字는 可仲, 본관은 砈山이며, 都正 恭孫의 아들이다.

1477年(成宗 8) 生員試, 進士試에 합격하고, 이듬해 謁聖文科, 1482年 進賢試에 각각 及第하여 刑曹參判, 京畿道 觀察使, 우찬성, 吏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1513年(중종 8) 우의정 뒤에 영의정에 이르렀다. 中宗反正 때는 靖國功臣 3등이 되고, 砈原府院君에 봉해졌으며, 그 후 영의정이 된 이듬해에 兩司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시호는 肅靖이고, 墓所는 隱縣面 仙岩里 山 15번지에 있다.

#### 14) 성희안(成希顏 : 1461~1513)

朝鮮朝의 文臣으로 號는 仁齋이고, 본관은 昌寧으로, 敦寧府 判官 璞의 아들이다.

1485年 別試文科에 及第하여 正字, 副修撰 등을 거쳐 吏曹參判 兼 副檢官을 지냈다. 1504年(연산군 10) 吏曹參判에 있을 때 楊花渡놀이에서 王의 橫暴를 풍자하는 시를 써 바침으로써 미움을 받아 武臣職으로 좌천되었다. 그 후 政治가 점점 문란해지자 朴元宗·柳順汀과 協議, 1506年 中宗反正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하고 중종을 추대하는데 공을 세워 靖國功臣 1등에 刑曹判書가 되었다.

이어 昌山府院君으로 봉해지고 奏請使로 明나라에 가서 反正의 경위를 납득시켜 중종의 즉위를 認定받았고, 歸國 후 우의정을 거쳐, 1513年(중종 8) 영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忠定이며, 중종묘정에 배향되었다. 墓所는 長興面 日迎里 山 62번지에 있다.

### 15) 남 곤(南袞 : 1471~1527)

朝鮮의 文臣·書藝家로 字는 士華이고, 號는 知足堂·止亭, 본관은 宜寧이다. 金宗直 門下에서 文名을 떨쳤으며, 1489年(成宗 20) 生員試·進士試에 모두 합격하고, 1494年 別試文科에 乙科로 及第, 檢閱을 거쳐 賦暇讀書했다. 1504年(연산군 10) 甲子土禍 때 西邊에 流配되었고, 1506年(중종 1) 朴耕 등이 모반했다고 무고하여 그 공으로 吏曹參判, 大司憲, 知中樞府事, 右參贊이 되어 大提學을 兼했다. 1518年 奏請使로 明나라에 가서 宗系를 辨誣하고 돌아와 예조판서가 되었다. 1519年 煦舊派大臣으로 沈貞 등과 함께 己卯土禍를 일으켜 趙光祖 등 新進 士類들을 肅清한 후 좌의정이 되고, 1523年 영의정에 올랐다.

文章에 뛰어나고 글씨에도 능했다.

### 16) 정감손(鄭甲孫 : ?~1451)

朝鮮時代의 文臣이며 清白吏였다. 字는 仁仲이며 시호는 貞節公이다. 東萊鄭氏로 中樞院事 欽之의 아들이다. 먼저 그의 관직을 보면 1417年(太宗 17) 式年文科에 及第한 후 承文院副正字, 監察, 兵曹佐郎, 獻納 持平 등을 거쳐 知承文院事에 올랐다. 1435年(世宗 17) 世宗에게 강직한 性格으로 認定받아 左承旨로 拔擢된 뒤 知刑曹事 예조 參判을 역임하고 1438年 全羅道 都觀察使가 되었다. 1441年 大司憲이 되어 臺綱을 바로잡아 더욱 世宗의 신임을 받았고 경기도와 함길도 都觀察使, 中樞院事, 判漢城府事, 예조판서, 右參贊을 거쳐 1450年(文宗即位年) 左參贊 兼 吏曹判書에 이르렀다. 말딸이 世宗의 후궁으로 들어가 昭容(內命婦 正三品)이 되었다. 중종 때 清白吏에 올랐던 것이다.

이제 鄭甲孫의 清白吏에 뽑힌 內容과 그의 精神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鄭甲孫은 언제나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강개하고 性品이 곧은 것으로 자부하였다. 그의 동생인

鄭昌孫도 清白吏로서 용모와 몸가짐은 물론 人格과 인간미가 넘쳤으며 權勢家를 두려워하지도 않아 조정에서도 중히 여겼다.

鄭甲孫과 鄭昌孫은 世宗 때 대신인 鄭欽之의 아들로 甲孫 麟孫 興孫 昌孫 喜孫 六孫의 6 형제중의 두 사람이다. 鄭欽之는 기밀을 관장하는 직무를 맡아 기단없이 모든 사건을 處理하여 나갔다. 한때 世宗이 철원에서 武藝를 닦고 訓練을시키고 鳥類를 많이 잡는 사람에게 벼슬로서 시상할 것을 제의하자 대신들이 모두 贊成하였다. 그러나 欽之가 흘로

「새를 많이 잡는 자에게 벼슬을 준다면 戰功을 세운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賞을 줄 것인가」하면서 이를 反對하였다.

鄭甲孫은 太宗 때에 과거에 及第하였다. 언제나 충성스럽고 청렴할 뿐만 아니라 강개하고 또 性品이 아주 곧은 것으로 자부하였다. 朝廷에 나아가서는 언제나 특출한 절개가 있었다.

大司憲으로 재직시 흘린 것을 물리치고 맑은 것을 드러내게 하며 吏道刷新과 기강確立에 크게 기여하였다. 곧은 道義가 조금도 혼들리지 않고 風節이 늘름하였으므로 사람들은 鄭甲孫을 가리켜 「흘로 내치는 매(獨擊鶻)와 같다」고 비유까지 하였다.

한번은 吏曹에서 사람을 잘못 천거하여 벼슬을 주었다. 그때 河演이 兼判書이고 崔府가 判書였기 때문에 모두 같이 入侍하였다. 그런데 鄭甲孫은 그 자리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崔는 말할 것도 없고 河는 조금 事理를 아온데 그 자리 마땅하지 않는 사람을 썼으니 鞠問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世宗은 빙긋이 웃는 얼굴로 양편을 화해시켰다고 한다.

이렇게 한 뒤에 밖으로 물러 나오자 두 사람은 땀을 줄줄 흘렸다. 그러나 甲孫은 태연하게 빙긋이 웃으며

「각기 자기의 직무를 다한 것이지 감히 서로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한 다음 사람을 불러서

「두 분께서 매우 더우신 모양이니 부채질을 해 드려라」

라면서 서두르지 않고 침착한 모습으로 조금도 후회하거나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大司憲으로 있으면서 언제나 紀綱確立에 주력하여 남의 모범이 되었음을 그의 言動에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性品이 맑고 충실하여서 아들들도 감히 사사롭게 일을 부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강개하고 곧은 말을 잘하여 權勢家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조정에서도 중히 여겼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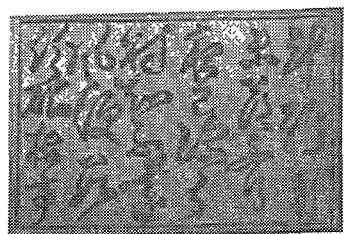
### 17) 清白吏 白仁傑( 1492~1579)

백인결(白仁傑)은 1497(연산군 5)년 수원백씨 왕자사부(王子師傅) 익견(益堅)의 아들로 태어났다. 백인결은 둑도 지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삼바느질을 하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조선시대의 유학자로 대성하였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그의 어머니가 방을 빌려 살면서 밤을 새워 바느질을 하였는데 꼭 모시고 앉았다가는 어머니가 자는 것을 보고서야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다. 이에 어머니는 불을 항상 켜놓고 자는 체 함으로써 아들이 먼저 잠이 들게 한 후 다시 일어나 바느질을 했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글읽기를 좋아하였을뿐 아니라 영리하고 하는 행동이 의젓하여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가 8살때의 일이다. 연산군이 황단하여 민가를 철거시키라는 명을 받고 궁중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을 혈고 있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백인결의 집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궁중에서 나온 사신을 보고 백인결이 너무도 의젓하고 어른처럼 행동을 하므로 사신은 이를 기특히 여김은 물론 범사인물이 아님을 알고는 “내가 너의 집만은 혈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두번째로 사신이 바뀐 뒤에 결국 그의 집도 혈리게 되었던 것이다.

1519(중종 14)년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스승과 동지를 모두 잃고 너무도 마음이 아파 금강산에 들어가 세상을 등지고자 하였으나 이와 같이 나라가 어지럽고 민심이 동요됨을 안타까이 생각, 나라의 장래를 근심한 나머지 곧 하산하여 1537(중종 32)년 과거에 급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성균관에 오래 머무르며 여러 벼슬을 거치며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증진코자 사력을 다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오리(汚吏)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 1545(명종즉위)년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윤원형(尹元衡) 등 소윤(小尹)의 미움을 사서 파면되고 1547년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다시 연루되어 안변(安邊)에 유배되었다. 1551(명종 6)년 귀양살이로부터 풀려나와 오랫동안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윤원형이 죽자 복직되어 1567(명종 22)년 71세때에 교리(校理)가 되었다. 선조때 대사간(大司諫) 대사현(大司憲)을 거쳐 공조참판으로서 동지경연사, 동지의 금부사등을 겸임 하였고 다



白仁傑의 筆跡



休庵 白仁傑의 神道碑

시 대사현이 되어 권신(權臣)들을 논핵하다 사임했다. 1578(선조 11)년 우참찬(右參贊)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이듬해에 동서분당(東西分黨)의 폐단을 논하고 군비 강화(軍備強化)를 강조했다.

이제 백인결의 청백리정신에 빛나는 그의 정신을 가다듬어 보기로 하자. 청백리란 오늘날의 모범 공무원을 말하는데 고려 때는 양리(良吏)라고 하던것이 조선시대에 와서 청백리로 바뀐 것이니 청(淸)의 뜻은 정수(澄水)인 양 티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요, 白자는 모든 빛깔의 기본적인 빛으로서 떼묻지 않은 광명의 뜻이다. 리(吏)는 다스리는 사람이란 뜻이니, 청백리는 청관(淸官) 청정(淸正)의 뜻인 것이다. 곧 청렴결백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민중을 사랑하고 들보며 국血脉(國脈)을 유지하고 또 영속시키는 사람들이니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며 민심이 곧 천심임을 깨닫고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근본이념으로 삼아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밀거름이 되는 인간상을 말한다. 어느 시대고 청백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부강해질 수 있으며 오리(汚吏)가 많으면 반대로 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인결은 양주목사(楊州牧使)로 재직하면서 정치를 공명하고 엄정하게 하였으며, 백성들에게는 어질고 용서하는 덕으로 다스리니, 아전들은 조금도 부정을 하거나 공무(公務)를 게을리 하지 못하고 항상 두려워 하였으며, 백성들은 공을 칭송하며 선정(善政)에 감사하며 집집마다 그를 위해 축수(祝壽)를 올리면서 노래를 불렀으니 “흰눈의 흰빛은 임파 같이 희도다. 마음속으로 사랑 하노니 어찌 결이 아닐소냐(白雪之白 與君同白 心乎愛矣胡不爲傑)”라는 백설가(白雪歌)로 백성들의 축수를 받았으나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미움을 사서 20년간이나 파문혀 지낸적이 있는데 그가 양주를 떠난뒤 백성들은 그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선정기념비를 세워주기까지 하였다. 선조대왕은 청렴결백한 그에게 대사현에 임명코자 하였으나 극구 사양하는지라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에 임명하였다. 대사현이란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최고의 직책으로서 중요한 직책인데 지금의 감사원장과 같다. 백인결이 그토록 사양하자 선조는 친히 글을 써서 그에게 보내기를 「공의 충성은 해와 달을 뛰어올만 하고 절의는 얼음과 서리를 능가할만하니 빨리 부르는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밀하였다. 그래서 할수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 대사현에 올랐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 사람들과 관료들은 백인결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대대적인 선풍이 닥칠 것으로 여기고 「공은 장차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들을 탄핵 하리라」하면서 야단들이었다. 이 말을 들은 백인결은 「내가 벌써 물려나지 못한것이 한이 되는 일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벼슬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무렵의 우리나라 사정은 사화(土禍)가 겹쳐 서로 모함하고 혈뜯고 있어서 사회정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자칫하면 화를 당하는 어려운 시기였다. 그 때문에 국가의 일을 바로 처리하기가 어려

웠고 자기 일파에 소속되지 않으면 고관이 되는것을 시기한데서 더욱 헐뜯는 일들이 계속 되었다. 고고한 선비정신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인결과 같은 청렴하고 바른 사람이 행동하기 어려운 때였다. 그래서 백인결은 大司憲이라는 중요한 직책에서 미련없이 물러나고 말았다. 백인결은 허자(許磁)와 이웃에 살아 두 사람 사이에는 우의가 깊었다. 허자는 자기 집에서 새로 만든 음식이나 별식이 있으면 반드시 백인결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백인결이 가난하게 사는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화가 대단히 심해지고 있을 때였다. 한번은 윤원형이 大司憲과 대사간에 비밀지령을 내리고 있었으므로 그 행동을 해아릴 수 없어 선비들은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때 허자는 백인결의 일신상에 변화가 올것을 걱정하며 그를 초청해다가 상을 차려놓고 「내일 대간(臺諫)의 비밀지령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자네는 노모가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는가」하고 말했다. 이때 백인결은 「별써 이 몸을 임금님께 바쳤으니 어찌 개인의 사정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허자는 여러가지로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듣지 않고 말았다. 허자는 탄식을 하면서 「내일이면 자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백인결이 작별인사를 하고 나오자 허자는 그의 손을 잡으며 「내일 자네는 군자가 되고 나는 소인(小人)이 되는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권세에 따라 좌우되는 속에서도 백인결은 꿋꿋하게 선비로서 자기의 의지를 지키며 권력에 조종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굳히며 사는 선비의 기질을 잘 보여주었다. 백인결은 나이 80세가 되는 노경에 이르러서까지도 학문에 힘쓰며 학자들과 함께 토론과 분석을 계속 하면서도 이를 낙으로 삼았기 때문에 밤중까지 자지도 않으며 피곤한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반드시 어질고 착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를 좋아하여 벗을 사귀는데 있어서도 아무나 사귀지 않았으며 당시의 이름있는 선비들이 모두 모여들어 문 밖에 신이 가득했고 난초향기가 온 집안에 풍기었다 한다.

백인결은 이이(李珥)와 함께 학문을 토론하기도 했다. 누구보다도 백인결을 잘 알고 있는 율곡(栗谷)이이는 백인결을 보고서 「나이가 80세인데도 학문을 연구하기에 힘쓰며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이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백인결은 학문에 관해서도 말도 많이 하지만 남에게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율곡의 이 한마디는 바로 남을 헐뜯거나 남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백인결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같은 청렴결백한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도 하겠지만 정철(鄭澈)이 지은 만사(挽詞)를 보면 더욱 그의 인간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의로운 충성은 일대에 둘도 없는 선비요 현납(獻納)으로 재직하면서 밤중이라도 혼자서 말씀을 올리던 사람이었다.

산악의 정기로 이 노인이 태어 났으니 하늘에 돌아가서도 응당 빛나는 별이 되리로다」

이렇게 지은 것이다. 백인결은 임금의 행동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펴서 반대 하였다. 이 때문에 문정왕후의 노여움을 사서 옥에 갇힌 경우도 있었으나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다. 백인결은 선조재위(宣祖在位) 때 청백리에 뽑혔으며 시호(諡號)는 처음에 충숙공(忠肅公)이라 했다가 후에 문경공(文敬公)으로 내려졌다.

1579(선조 22)년 백인결이 83세를 일기(一記)로 영원히 눈을 감으니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모두 슬퍼하였으며 향리와 이웃들은 부모상(喪)을 당한듯 하였다. 지금도 광적면 덕도리에 그의 선정비가 서 있으며 효촌리 184번지에 신도비가 있고 전방 200m 지점에 백인결선생의 묘가 있는데 1981년 4월 22일자로 경기도 지방기념물 제 58호로 지정 되었다.

#### 18) 신출귀몰의 의적 임꺽정(林巨正)

임꺽정은 의적으로 유명하다. 그는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마치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작중인물, 혹은 전설적인 인간으로 되어버린 느낌이 있다. 그는 우리 정사(正史)에 기록되어 있는 엄연한 실제 인물이며 1562(명종 17)년까지 살아있던 피지배층의 한 사람이었다. 이조시대의 정사에 양반계급 아닌 평민층 이하의 출신으로서 더구나 아무 관직도 없었던 한 개인으로서 임꺽정 만큼 많은 지면을 차지했던 사람도 없다. 그러나 기록은 그의 사상, 생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출귀몰하는 그를 체포하는 과정의 것이다. 때문에 그의 내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그의 이름마저 조선왕조실록등에 임거질정(林巨叱正) 혹은 임거정(林巨正) 등으로 일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며, 그의 신분 및 생업에 관해서는 더욱 불분명하다. 그런데 유명한 실학파 학자인 이익(李翼)은 「임꺽정은 본래 양주(楊州) 사람이다」 하였고, 안정복(安鼎福)은 「임꺽정은 양주에서 도우업(屠牛業)을 하던 자이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임꺽정은 도적이 되기 전까지 양주 지방에서 백정을 하던 상인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그가 도적으로 화하게 된것은 양반 관료의 수탈과 지방양반·즉, 토호들의 행패로 인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때문에 고향을 떠난 백성은 비단 임꺽정만이 아니었다. 전국 도처에서 많은 민란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왕권의 탈취를 꾀한 것이 아니라 탐관오리 또는 토호들의 재물을 탈취, 살륙 하였던 점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다. 조정에서는 응진, 장연, 풍천등 4~5 고을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의 본거지를 공격했으나 도리어 판군이 패했다고 전하며, 이익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3년간 동원된 군대는 수개 도의 군대를 총동원한 셈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왕족에 대해서는 동정적 이었다. 일찌기 단천현령 주경(周卿)이 그들에게 납

치된 바 있었는데, 그가 왕족인 것을 알자 곧 석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사히 귀가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보호 조치를 해주었다는 일화도 있다. 임꺽정 일당은 빼앗은 재물은 모두 가난하고 학대 받는 민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당시 탐관오리 중에는 대농토를 소유한 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전진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던 임꺽정은 그의 침보인 서림(徐林)의 배반으로 남치근(南致勤)에게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 19) 정영(鄭旼 1506~1549)

조선조의 학자로 호는 北窓이고, 본관은 溫陽이며, 順朋의 아들이다. 1530년(중종 25) 司馬試에 합격하였다. 음률에 밝고 玄琴에도 정통하여 掌樂院主簿로서 歌曲의 장단을 지도하였으며, 또한 천문, 의술에도 조예가 깊어 觀象監, 惠民署教授를 지냈다. 뒤에 抱川縣監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임하고 深山을 전전 약초를 구하면서 요양했다. 항상 자연을 사랑하는 나머지 산길을 걸을 때면 일부러 짚신을 느슨하게 삼아신고 산에 들었다고 한다. 딱딱한 신바닥으로 성스러운 산체(山體)를 아프게 할 수 없다는 섬세한 산악사상의 발로인 것이었다. 유교 도교 불교는 물론 卜筮, 漢語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통했으며, 문장·산수화에도 능했다. 提學에 追贈되었으며 시호는 章惠이다.

저서에는 北窓集, 東垣珍珠囊, 劉氏脈訣, 北窓秘訣이 있으며, 묘소는 州內面 山北里에 있다.

#### 20) 홍처양(洪處亮 : 1607~1683)

조선조의 문신으로 호는 北汀, 본관은 南陽으로, 司宰監 前正 命顯의 아들이다. 1637년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奉教, 正言을 지내고, 1642년(인조 20) 進賀使의 書狀官으로 清나라에 다녀왔다.

1646년 文科重試에 급제 후 吏曹正郎, 司諫, 承旨를 지내고, 1656년(孝宗 7) 대사간이 되었다. 그 후 대사성, 예조참판, 開城府留守, 대사헌을 거쳐 이조, 예조의 판서를 지내고, 숙종 때 提學, 左參贊, 判中樞府事를 역임했다. 시호는 貞靖이고, 저서에는 北汀集이 있으며, 묘소는 南面 湘水里 산55번지에 있다.

#### 21) 이택(李鐸 : 1508~1576)

조선조의 문신. 호는 藥峰이며, 본관은 全義이고, 군수 昌亭의 아들로, 1535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檢閱, 正字, 舍人을 거쳐 執義에 올라 權臣 李芑를 탄핵하다가

좌천되었다. 1551년(명종 6) 直提學이 되고, 이어 同副承旨, 副提學, 都承旨를 역임하였다.

1559년(명종 14) 임꺽정(林巨正)의 무리가 창궐하자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 치안 유지에 노력했다. 그 후 이조참의, 대사간을 지내고 1565년 대사헌으로 대사간 朴淳과 함께 尹元衡을 탄핵·추방케 했다. 이 해 공조판서에 전임되었고, 이어 호조, 예조 판서를 거쳐 선조초 右贊成, 이조판서를 지냈다. 1571년(선조 4) 우의정에 승진 이듬해 영의정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직 行判中樞府事로 죽었다. 시호는 貞肅이며, 묘소는 南面 閑山里에 있다.

### 22) 송찬(宋贊 : 1510~1601)

조선시대의 文臣이다. 호는 西郊이며 자는 治叔, 本貫은 鎮川이고 司紙 世曾의 아들이다. 1537년(중종 32) 生員試에 합격하였으며 1540년에 式年文科에 乙科로 급제한 다음 正字를 거쳐 1567년(명종 22)에 陳慰使로, 다시 1573년(선조 6) 進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경기도 관찰사, 右贊成을 역임했으며 중종, 인종, 명종, 선조의 4대에 걸친 重臣으로 清白吏에 올라 있다. 경험많은 重臣이었다.

### 23) 이희겸(李希儉 : 1516~1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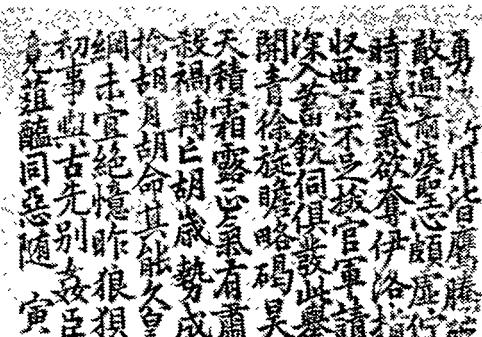
조선조의 문신으로 호는 東臯, 菊齋, 본관은 全州이며, 敬寧君 旣의 현손이고 李暉光의 아버지이다.

1546년(명종 1) 增廣文科에 급제하여, 正郎, 校理등을 역임하고, 承旨, 五衛將을 거쳐 司諫에 이르렀다. 이 때 왕실의 인척임을 기화로 횡포를 부리는 李樸을 탄핵했다가 도리어 長湍府使로 좌천되었다. 1572년(선조 5) 進賀副使로서 明나라에 다녀왔고, 이어 우승지, 병조참의, 대사헌, 호조, 형인조, 병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知經筵事를 지냈다. 저서로는 東臯集이 있고, 묘소는 長興面 三下里 산90번지에 있다.

### 24) 송인(宋寅 : 1515~1584)

朝鮮 宣祖 때의 學者이며 名筆이다. 자는 明仲이며 호는 頤庵으로 영의정 軼의 손자이다.

10세때 中宗의 세째 딸 貞順翁主와 결혼하여 研城尉가 되고 大臣들에게 우대를 받았다.



宋寅의 筆跡

詩文에 능했으며, 李滉·李珥·成渾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했다. 글씨에도 능하였는데 특히 楷書를 잘 썼으며 山陵의 誌에서 士大夫의 碑碑에 이르기까지 많은 글을 썼다. 필적으로는 模刊한 것이 전해오며 시호는 文端이다. 「頤庵集」이라는 저서가 있으며 묘소는 隱縣面 仙岩里에 있다.

#### 25) 백유양(白惟讓 : 1530~1589)

조선조 선조때의 문신으로 자는 仲謙이고, 본관은 水原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로부터 대사성, 吏曹參議 등을 거쳐 병조참의, 부제학에 이르렀다. 1589년 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 아들이 사형 당하자 사직, 西人의 탄핵으로 유배 杖殺되었다. 숙종 16년에 伸冤復官되었고, 묘소는 廣積面 孝村里에 있다.

#### 26) 구사맹(具思孟 : 1531~1604)

조선시대의 文臣이며 清白吏이다. 호는 八谷이고 시호는 文懿이며 자는 景時로서 綾城具氏이다. 贈領議政 淳의 아들이다. 柳希春 李滉의 門人이며 1558년(명종 13) 式年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注書를 거쳐 正言, 兵曹佐郎, 司諫, 校理 등을 지냈다.

1563년(명종 18) 書狀官으로 明나라에 다녀왔다. 吏曹正郎, 舍人, 司宰監正 등을 거쳐 1569년(선조 2)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1576년에는 冬至使로 明나라에 다시 다녀오고 1592년(선조 25년) 吏曹參判이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王子를 호종하여 義州에 갔고 1594년에는 王妃를 海州로 모시고 이듬해에 朝廷으로 돌아와 工曹判書가 되었다.

1597년 丁酉再亂 때에도 王子와 後宮을 시종하여 成川으로 피난하였다. 그 후 左參贊, 右參贊, 이조 판서를 역임하고 1601년 左贊成에 이어 判中樞府事, 知經筵事를 지낸 후 1603년 老所에 들어갔다.

평소의 생활에 청렴결백하여 權勢家들과의 접촉을 회피했으며 詩文에 뛰어났었다. 그의 다섯째 딸이 仁獻王后이다. 후에 綾安府院君에 追封되었다. 저서로는 八谷集이 있다.

#### 27) 정석(鄭碏 : 1533~1603)

조선의 학자로 자는 君敬, 호는 古玉이다. 본관은 溫陽으로 神人으로 불리우는 鄭礪(北窓)의 동생이다. 그의 아버지 順朋이 乙巳土禍에 가담하여 판작이 삭탈되었으므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다가 宣祖때 佐郎을 지냈다. 학문에 정진했으며 술을 즐겨 酒仙이

라 불리었다. 詩名이 높았고 글씨에도 뛰어났는데 특히 草書와 隸書를 잘 썼으며 의학에도 조예가 깊어 1596년(선조 29) 「東醫寶鑑」 편찬에 참여하였다. 墓所는 州內面 山北里에 있다.

#### 28) 송익필(宋翼弼 : 1534~1599)

조선조의 학자로 호는 龜峰, 玄繩이며, 본관은 砯山이다. 祀連의 아들로 수동면 松川里 113에서 태어났다.

서출로서 벼슬은 하지 못했으나, 李珥, 成渾등과 교제하며 性理學을 논하여 통달했고 禮學에도 뛰어났다. 문장에도 능하여 李山海, 崔慶昌, 白光弘, 崔峴, 李純仁, 尹卓然, 河應臨 등과 함께 8 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손꼽혔으며, 시와 글씨에도 一家를 이루었다.

高陽의 귀봉산 기슭에서 후진을 양성, 문하에서 金長生, 金集, 鄭暉, 徐澗, 鄭弘溟, 金槃등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김장생은 그의 禮學을 이어 大家가 되었다. 持平에 추증되고, 시호는 文敬이다. 저서로는 龜峰集이 있다.



宋龜峰의 筆跡

#### 29) 이해수(李海壽 : 1536~1598)

조선조의 문신으로 호는 藥圃, 敬齋이며, 본관은 全義로, 영의정 鐸의 아들이다. 1563년(명종 18) 謁聖文科에 급제하여 檢閱, 說書, 奉教, 應教, 同副承旨, 戸曹參議, 병조와 공조참의를 역임한 후 1582년(선조 15) 聖節使로 明나라에 다녀와 都承旨가 되었다.

1585年 東人의 세력이 커지자 여주목사로 좌천되었다. 1587년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다시 대사간이 되고, 1591년 여주목사로 부임했으나, 이 해 西人 鄭澈의 建儲問題에 연루되어 鐕城에 유배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풀려나와 왕을 의주로扈從, 대사간이 되고 1594년 大司成을 거쳐 1596년 예조참의가 되었으며 이어 홍문관 부제학에 이르렀다. 성격이 단아하고, 詩와 隸書에 뛰어났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저서에는 藥圃集이 있으며, 묘소는 南面 閑山2里에 있다.

#### 30) 권율(權慄 : 1537~1599)

권율(權慄)은 1537(중종 32)년에 영의정을 지낸 권철(權轍)의 아들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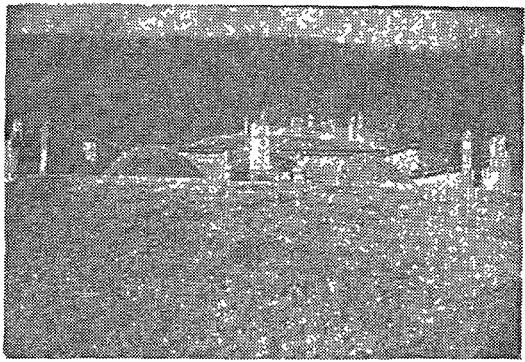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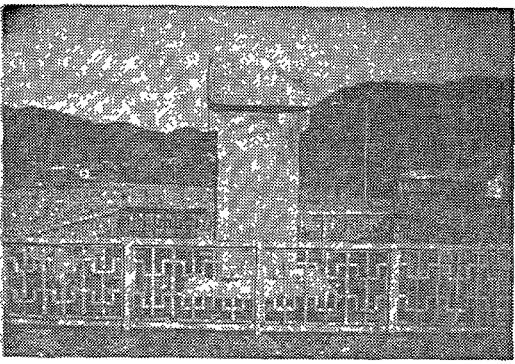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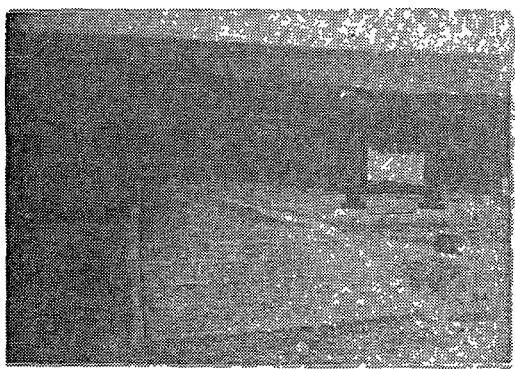
권율은 사관(史官)으로 있다가 그의 곤은 성격 때문에 좌천되자 벼슬을 버린 적도 있었는데 1537년에 다시 사관으로 복직이 되어 이때 권율이 태어난 것이다.

권율은 어려서부터 학업에 뛰어났으나 나이 40이 넘도록 과거를 보려하지 않다가 46세 되던 1582(선조 15)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1592(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권율은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있으면서 전라도 순찰사(巡察使) 이광(李光)과 방어사(防禦使) 곽영(郭榮)이 4만여 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곽영의 휘하에 들어가 중위장(中衛將)이 되고 북진하여 용인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나 패하였다. 그리하여 광주로 되돌아가 남원에 주둔하면서 1,500여명의 의용군을 모집하여 다시 복상하였다.

권율은 이치령(梨峙嶺)에 진을 치고 금산을 노략한 적이 전주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

7월에 적의 대군이 금산을 떠나 이치령을 공격하여 왔다. 이 때 권율은 동복현감(同福縣監) 황진(黃進) 등과 적을 가로막고 종일 토토록 격전을 벌였는데, 황진이 적 탄을 맞고 물려서자 군사들이 사기를 잃고 일시 불리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권율이 칼을 빼내들고 큰소리로 호령하며 앞장서서 싸우

니 아군의 사기가 중천하여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용감히 싸워 적을 물리쳤다. 적은 금산성으로 도망쳐 전라도 침공을 단념하게 되었다. 이 전공으로 권율은 나주목사로 임명 되었다가 전라도 순찰사로 다시 승진되었다. 순찰사가 된 권율은 황은에 보답하기 위하여 방어사로 하여금 이치령을 지키게 하고 전주에 이르러 도내의 군사 1만여명을 거느리고 다시 복상하였다. 이 때 적군은 이미 평양을 함락시키고 주력부대가 서울에 주둔하면서 군사를 사방으로 풀어 서로(西路)를 끓어 버렸으므로 우리 군



사들이 모두 강화도로 들어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권율은 선조가 의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선 서울을 탈환할 목적으로 수원의 독산성(禿山城)으로 들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사자를 파견하여 상방검(尚方劍)을 내리면서 분부하기를 「모든 장수들 가운데 명령을 쫓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칼로써 처결하라」고 하였다. 이때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적군은 권율의 군사가 수원 부근에 웅거함으로써 후방연락이 위협 받는 것을 꺼려 수만의 군사를 3진으로 나누어 오산등지에 진을 쳐놓고 권율군을 유인하여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권율은 굳게 성을 지키며 맞싸우지 않고 적의 약한 틈을 보아 날랜군사로 하여금 불시에 습격하게 하니 적은 하는 수 없이 독산성 성중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끊고 성중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폈다. 그리하여 성중에는 물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게 되었으나 권율이 물을 가장한 쌀로 밀을 씻기는 기지를 써서 적을 물려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경기도내에 퍼져 있던 적군이 차례로 서울로 들어감으로써 의주에 이르는 길이 트이게 되었다.

권율은 더욱 서울에 접근하여 적을 견제할 목적으로 1593(선조 26)년 2월에 행주산성을 쌓고 이곳으로 진을 옮겼다. 행주산성은 다른 산성과는 달리 야전용으로 급조한 산채의 일종이었다. 그러나 이 산성은 그리 높지는 않으나 동남쪽으로는 한강이 굽이치는 절벽이고, 서북이 트여 파주, 문산, 벽제관까지 내다볼 수 있는 지점으로서 적은 병력으로 싸우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이때 명나라의 구원병은 이미 평양을 수복하고 남하 중이었으므로 평안도와 함경도방면의 적군들이 서울로 집결하여 그 위세가 대단하였다. 처음 적들은 권율이 행주산성에 웅거하여 서울을 엿보는 것을 두려워 하였을뿐 아니라 이치(梨峙)와 독산성에서 패배했던 전세를 만회하려고 왜장 총수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는 「내 눈앞에 그대로 둘 수야 있겠느냐」며 우리나라에 침입한 이래 처음으로 진두(陣頭)에 나서 7개부대 3만여명을 거느리고 행주산성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 1진은 평양에서 패퇴한 소서행장(小西行長)의 부대로 조총을 쏘면서 성책으로 다가왔다. 권율은 왜군이 가까이 접근하기를 더뎠다가 일제히 공격을 명하는 북을 울리자 화살, 총통, 수차석포, 진천뢰를 일시에 퍼부으니 소서행장 부대는 성책 앞에서 궤멸 후퇴하였다. 제 2진 석전삼성(石田三成) 부대도 역시 화포와 화차의 공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우리군의 강한 공격 앞에 사람과 말이 서로 엉키어 퇴진하고 말았다. 이 때 왜장 전야장강(前野長康)은 우리군의 화살에 흉부가 꾀여 중상을 입고 물러났다. 제 3진 흑전장정(黒田長政)은 성책 앞에서 긴사다리위에 누대를 만들어 올리고 그 위에서 우리 성안에 총격을 하였다. 이 때, 조방장 조경은 포를 쏘아 누대를 깨트리고 포전(砲箭)에 칼을 끊어 왜병이 맞으면 즉사케 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우희다수가는 제 4진을 진두에서 지휘 그의 부장 호천달안(戸川達安)은 제 1 성책을 넘어 제 2 성책으로 접근할 때, 우리군의 화차공격으로 우

희다수가는 부상을 입고 물려났다. 제 5진 길천광가(吉川廣家) 부대는 풀더미를 몰아다가 제 2성책에 불을 지르고 밀어 닦쳤으나 우리군은 미리 준비했던 물로 불을 끄며 왜군에게 집중공격을 퍼부어 길천광가는 죽어가며 퇴진 하였다. 제 6진의 모리원취(毛利元就), 소조천수포(小早川秀包)의 부대는 성의 서북쪽 완만한 비탈로 쳐들어 왔다. 이때, 승장 최영은 1천여명의 승군을 진두 지휘하여 물밀듯이 몰려드는 왜병을 격퇴하였다. 우리군이 공격해 나가면 말려나는 왜군은 제 1진에서 제 6진까지의 전병력을 일시에 돌격케 하였다. 제 7진의 왜장은 60세의 맹장인 소조천룡경(小早川隆景)으로 제 6진의 뒤를 이어 승군이 지키고 있던 서북쪽을 뚫고 몰려들었다. 왜군이 성책둘레로 일제히 몰려들자 우리군은 돌을 굴리고 재를 담은 주머니를 풀어던져 적의 눈을 못뜨게 하며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권율장군은 필사항전의 돌격명령을 내리고 베고 자르는 처참한 접근전 속으로 뛰어 들었으니 우리의 다른 군대는 앞에서 몰려드는 왜병에게 집중사격으로 말과 사람은 화살과 총포탄의 화염속에서 쓰러져갔다. 이 행주대첩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왜적을 물리친 대승첩으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한산대첩과 김시민장군의 진주대첩과 아울러 길이 빛나는 임진왜란 3대첩중의 하나이다.

이 전투에는 남녀노소 할것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왜군을 무찌른 총력전이었는데, 적은 군대와 훈련되지 않은 백성일지라도 구국의 일념으로 뭉쳐 싸우면 어떠한 강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위대한 교훈을 후세에 전하였으며, 연약한 부녀자들도 치마폭에 돌을 날라 손에 붉은 피가 맷히도록 석전을 전개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나라지킨 위대한 증표가 되고 있으며, 오늘날 그치마를 행주치마라 전하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행주산성 전투는 1593년 2월 12일 새벽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계속된 전투로 침략군의 대세를 꺾고 그들의 전의마저 말살시켰으며, 구원 나온 명군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침략자를 쳐부신 것이다. 이 전투에서 적사살 1만명, 무기노획 727점의 큰전파를 올린 것이다. 후세의 학자들은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고려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과 같이 구국의 대승인 행주대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권율장군의 이 행주대첩의 전공으로 전군을 지휘하는 도원수(都元帥)가 되었으며 7개성상(星封)에 결친 국난극복의 공이 지대하여 선무 1등(宣武一等) 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정유재란을 치르고 전후의 민심수습에 전력하다가 1599(선조 32)년에 노환으로 판직을 사임하고 이해 7월에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니 선조는 그에게 영의정을 추증하고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을 추봉 하였다. 시호를 충장(忠莊)이라 하였는데 행주산성 경내에 충장사를 비롯하여 대첩비각, 대첩기념관등 각종 시설물등이 정

화되어 있다.

지금도 長興面 石峴里에 장군의 묘소와 신도비등이 경기도 지방 기념물 제 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역으로 조성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 31) 한 호 (韓濩 : 1543~?)

한 호 (韓濩)는 1543(중종 38)년에 개성출생(開城出生), 정랑(正郎) 벼슬을 지낸 한관(韓寬)의 손자로 태어나고 호를 석봉(石峰)이라 하였다. 한석봉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재주가 비범하였다 한다.

워낙 집이 가난하여 책과 지필묵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꼭 성공시키려고 정성을 쏟았다. 그의 어머니는 떡장사를 하여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들의 공부를 위하여 학용품을 사서 대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엄한 훈계로 달래고 또 격려하였다. 석봉은 집에서 30리쯤 떨어진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였는데, 명절때나 옷을 갈아입을 때 이외에는 집에도 오지 못하게 하였다. 어느날 밤 석봉이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불을 끄고 깜깜한 방에서 떡을 썰면서 석봉에게 글씨 쓰기를 명하였다. 이윽고 어머니는 등잔에 불을 켰다. 석봉은 어머니의 솜씨에 감탄하였다. 어머니는 석봉이 쓴 글씨를 보고 「너도 어두운데서 이 만큼 썼으니 대견하다마는 아직도 내솜씨에 따르려면 멀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오래 되풀이하여 익히면 안되는 것이 없다 너도 눈을 감고서 잔글씨를 쓸 수 있을때까지 힘써 공부하여라」라고 하였다. 석봉은 어머니의 교훈에 감격하여 기어히 성공하고 말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만이 자기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가장 큰 효도라고 다짐하였다.

서당에서 공부할때 선생은 석봉에게 「너는 장차 명필이 될 터이니 글씨 공부에 더 힘을 쓰거라」하고 찬양하면서 그를 격려하였다. 그리하여 석봉은 글씨 공부에 열중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지필묵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석봉은 감나무와 떡갈나무의 넓은 잎을 따서 글씨를 쓰곤 하였다. 그러나 나뭇잎은 여름과 가을철밖에 이용할 수 없었고 또한 잔글씨 외에는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다음에는 큼직한 반석으로 된 돌다리의 표면을 갈아서 거기에 글씨를 썼다. 「이 돌종이가 다 맑도록 쓰면 내 글씨도 어머니 떡씨는 칠재주만큼 늘겠지」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는 돌다리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독의 표면을 이용하였다. 석봉은 글씨를 신희남(愼喜男)에게 배우고 서법은 왕희지(王羲之)와 안진경(顏真卿)을 본받아서 공부하였다. 그러나 석봉은 거기서 더 나아가 모든 명필의 좋은 바탕을 본받아서 통달하고 다시 그 서체와 서풍을 초월하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독창적인 한국적 서풍을 세움으로써 비로

소 중국 모방의 오랜 전통을 깨트렸다.

석봉은 1567(명종 22)년에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1599(선조 32)년에야 천거로 벼슬에 올라 가평군수(加平郡守), 존숭도감(尊崇都監), 서자관(書字官) 등을 역임 하였으나 벼슬보다도 명필로 이름을 떨쳤으니 명나라 사신으로 왔던 주지번(朱之蕃)이 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글씨를 보고 「석봉의 글씨는 마땅히 왕희치와 안진경에 견줄만하다」고 중국의 서성(書聖)들과 나란히 평하였다. 석봉의 글씨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기는 임진왜란때 구원군을 거느리고 온 이여송(李如松)에 의하여 소개되면서부터이다. 이여송은 그의 글씨를 보물로 가져갔고, 유구국의 사신도 귀중한 선물로 얻어갔다. 석봉의 글씨가 널리 명나라에까지 알려지자 그는 사신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자주 명나라에 가게 되었고 또 명나라에서 오는 사신을 맞을 때 접빈관(接賓官)의 서장관으로 활약하였다. 그가 명나라의 서울 연경(燕京)에 갔을 때 이러한 일화가 전하고 있다. 당시 연경에는 서화수집으로 이름난 부호가 있었는데 하루는 서화가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저기 걸린 족자의 글씨와 겨누어서 똑같이 쓴 사람에게는 후한 예물을 드리겠소」하였다.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말석에 앉아 있던 석봉이 나서서 붓을 잡았다. 좌중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으므로 모두 비웃는 눈길이 쏠릴 뿐이었다. 석봉이 붓에 먹을 담뿍 찍어서 금가루를 뿌려 만든 족자에 글씨를 쓰려고 할 때에 옆에서 킁킁거리고 웃는 소리가 났다. 석봉도 약간 흥분하여 주저하는 사이에 먹물이 종이 여기저기에 떨어졌다. 주인이 노기를 띠고 그를 훌겨 보았다. 그러나 석봉은 「여러분 이 먹물을 뿌긴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미리 글씨자리를 잡아 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하고 붓을 놀리기 시작하였다. 붓끝은 여기저기 뿌었던 먹물 자국을 교묘하게 흡수하면서 글씨가 이어져 나갔다. 종이위에 떨어졌던 먹물은 하나도 없이 묘한 글씨의 회과 점으로 화해 버렸다. 그제서야 깜짝놀란 좌중에서 탄성이 나왔다. 처음에 노했던 주인이 병글병글 웃으면서 석봉의 손을 잡고 새삼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다. 석봉이 「소생은 이번에 사신과 함께 귀국에 온 조선의 한석봉이라는 사람입니다」하니 주인이 「한석봉! 소문에 듣던 한공이 바로 당신이오. 아까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하고 공손히 사과의 술잔을 들어 권하였다. 이 이야기가 연경에 퍼지자 그의 글씨를 청하는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고 한다.

선조는 석봉의 글씨를 몹시 아꼈다. 그리하여 언제나 그의 글씨를 서재에 걸어 두고 조석으로 감상하였다. 석봉이 63세로 병석에 눕자 선조는 약을 내려 위문 하였으나 1605(선조 38)년에 세상을 떠나자 후한 부의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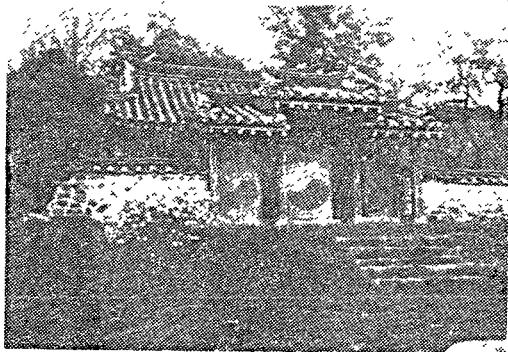
석봉의 필적으로는 석봉천자문(石峰天千字文) 등 모간(模刊)된 것이 남아 있으며 楊州에 소재한 碑文에는 李公楨碑, 朴世榮碣등이 있다. [文獻] 韓國人名大事典

## 32) 李準(1545 ~ 1624)

조선조의 문신으로 호는 懶眞子, 西坡이고, 본관은 全州이며, 德泉君 厚生의 후손이다.

1568년(선조 1) 증광문과에 급제, 正言, 獻納, 義州牧使등을 지냈다. 1589년(선조 22) 鄭汝立의 모반을 다스리는데 공을 세워, 1590년 平難功臣 2등으로 全城君에 봉해지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運餉使가 되어 明軍의 군량조달을 맡았다.

그 뒤 漢城府 左尹, 春川府使, 예조참판, 병조참판을 지내고, 1600년(선조 33)에 대사간으로 洪澄諄의 일파로 몰려 한때 파직되었으나 그후 안동부사, 경주부윤 등을 거쳐 광해군 때 좌참찬, 형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615년(광해군 7)에 開城府 留守가 되었고 吏曹判書에 이르렀으나, 大北의 亂政으로 은퇴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肅憲이며, 묘소는 南面 莘山里 웃말에 있다.



全城君(李準)의 祠宇

## 33) 이수곤(李壽崑 : 1546~1594)

조선 왕조 때 大臣이다. 자는 景老이며 본관은 全州이다. 臨瀛君 穆의 아들이며 節愼·正에 봉해졌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하는 선조를 따라 開城에 이르러 廟社의 神主를 그곳에 있는 穆清殿에 봉우라는 王命에 반대하여 宗廟署提調가 되어 이를 모시고 피난하여 보전케 하는데 공을 세웠다.

博川에 이르러 分朝의 계획이 서자 司饔院提調로서 伊川, 成川 등지에서 광해군을 보좌하였다. 선조 26년 왜군이 남으로 도망하자 광해군을 따라 兩湖의 군사를 위로하였으며 왜군 격퇴의 지연됨에 화가 나서 병사하였다.

뒤에 忠臣孝子旌門이 세워졌다. 扈聖功臣 3등에 追錄되고 節愼君에 進封되었으며 시호는 忠孝이다.

## 34) 백유함(白惟咸 : 1546~1618)

조선조의 문신. 자는 仲悅, 본관은 水原으로 대사헌 仁傑의 아들이다.

1576년 式年文科에 급제, 承文院에 등용되고, 이조정랑에 승진하였으나, 이 때 李珥가 죽고 조정에 당쟁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龍安에 내려가 제자들을 가르쳤다.

1589년 鄭汝立의 모반사건 때에 서울로 돌아와 獻納이 되고, 이어 이조정랑을 거쳐 檢詳, 舍人을 지냈다. 1591년 建儲問題로 鄭澈 등 西人들이 몰려날 때 慶興으로 유배되었으나,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풀려나와 왕을 義州로扈從, 직제학에 임명되었다가 明나라 군사의 군량조달의 임무를 맡았다. 1594년 同副承旨, 左副承旨를 역임. 1597년 丁酉再亂 때에 護軍으로 明使 龍仁에 放還되었다가, 1617년(광해군 9) 伸冤되어 開城에서 죽었다.

### 35) 임현(任鉉 : 1549~ 1597)

조선시대의 文臣이다. 호는 愛灘이며 자는 士愛이다. 豊川任氏로 牧使를 지낸 夢臣의 아들이다. 李와 成渾의 문인으로 1583년(선조 16) 庭試文科의 丙科로 급제하였다. 承文院正자가 되고 1591년 持平에 재직 중 西人 鄭澈의 일당이라는 東人们的 탄핵을 받아 파직되기도 하였다.

이듬해에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강원도 都事로 기용되고 春川에서 倭兵을 격파하여 그 공으로 淮陽府使에 승진되었으며 1594년 吉州牧使가 되었다. 1597년(선조 30년) 丁酉再亂 때 南原府使로서 함께 城을 수비하던 明나라 장군 楊元이 도망한 뒤 계속 분전하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다. 뒤에 左贊성이 추증되었으며 광해군 때 忠烈祠에 제향하였다. 시호는 忠簡이다.

### 36) 황치경(黃致敬 : 1554~1927)

조선조의 문신. 호는 夢竹이며, 본관은 昌原. 대호군 大任의 아들로서, 1580년(선조 13)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持平·執義를 지낸 뒤, 1591년 聖節使의 書狀官으로 明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權徵의 종사관으로 군량미 조달에 힘썼으며 1594년 파주목사가 되었고, 1600년 철산군수, 1604년 부평부사, 다음해 남원부사, 안주목사가 되었다.

1608년(선조) 文科重試에 丙科로 급제하여 호조, 공조참의, 현감, 부사 등을 지낸 뒤 함길도 병마절도사로 추천받았으나 大北派의 방해로 임명을 못 받고 그들의 모함으로 체포되었으나, 沈喜壽의 변으로 석방되었다. 1624年(인조 2) 李适의 난 때 春川府使로 군사를 이끌고 솔선 왕을 호송했으나, 난이 평정된 후 무고로 연안에 유배, 그 해 겨울에 풀려나왔다. 1627년 정묘호란 때 복직되어 京畿號召使로서 의병을 소집했다. 묘소는 長興面 釜谷里 山 31의 3에 있다.

## 37) 조수운(趙守倫 : 1555~1612)

조선조의 문신으로 호는 風玉軒, 晚歸이며, 본관은 豊壤이고, 應教廷機의 아들이다. 1579년(선조 12) 司馬試에 급제하여 廉基殿參奉, 大興縣監을 지냈으나 1612년 김직재의 詆獄에 연루되어 옥사했다. 인조반정후, 좌승지, 병조참판에 추증되고 舒川에 建岩書院에 제향되었으며, 묘소는 州內面 廣沙里에 있다.

## 38) 구성(具成 : 1558 ~1618)

조선시대의 文臣이다. 호는 草塘이고 자는 元裕이며, 本貫은 綾城으로 左贊成 具思孟의 아들이다. 1585년(선조 18) 司馬試를 거쳐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한 뒤 예조正郎을 거쳐 1589년 正言으로서 己丑獄事를 다스릴 때 연루자 崔永慶의 獄死로 사건의 전말을 짓지 못해 파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때는 선조를 호종했으며 변란의 책임이 영의정 李山海에 있다고 주장하여 平海에 유배가 되었다.

이듬해에 同副承旨, 左副承旨를 지내고 1596년 戸曹參判으로서 奏聞使가 되어 明나라에 다녀온 후 判決事が 되었다. 海州牧使를 거쳐 1601년에 大司成에 승진되었으며 鄭仁弘에게 己丑獄事 때의 잘못을 追論당하여 洪川에 유배되었다. 1604년 부친상으로 석방되어 扈聖功臣 2등에 책봉되고 綾海君으로 봉해졌다. 1618년(광해군 10) 廢母論이 일어나자 庭請에 참여하지 않아 유배의 논의가 있을 때 병사하였다. 1623년 仁祖反正 후 廐母의 庭請에 참석하지 않은 공으로 영의정에 追贈되었으며 시호는 忠肅이라 했다. 저서로는 草塘集이 있다.

## 39) 이담(李談 : 1553~1619)

조선시대의 文臣이다. 아버지는 進士 植孝이며 祖父는 安東府使 瑙이다. 沃川郡守를 비롯하여 懷德 金浦 咸興 長城 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通政大夫 승정원 左承旨 겸 經筵參贊을 증직 받았다. 청렴결백하였다.

## 40) 한순(韓樞 : 1555~1593)

조선시대의 武臣이다. 字는 士閑이며 本貫은 清州이고, 都事인 克謙의 아들이다. 선조 16년(1583년)에 武科에 급제하였으며 宣傳官을 지내고 平壤判官을 거쳐 선조 23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전에 南平縣監으로 부임하여서는 공적을 남겼다. 우선 迷信을 타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이고 지방민의 풍속을 순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城을 수축하여 해이된 民心을 가다듬으며 軍糧米를 준비하는

등 치적을 쌓았다.

1592년(선조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軍士를 거느리고 錦山으로 나갔으나 이미 高敬命 등이 전사한 후여서 倭軍과 싸울 수 없음을 알고 다시 작전계획을 세워 약 20일간 倭軍과 대치하여 싸우다가 군사력의 부족으로 전사하였다.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서 旌門이 세워졌고 兵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毅壯公으로 내려졌는바 여기서도 그의 멋벗하고 의연하고 충성스러움을 알 수가 있다.

錦山의 종용사에 배향되었다. 한평생을 청렴하게 살았으며 평양과 南平에도 그의 송덕비가 세워진 데서 그가 地方官으로서 훌륭한 치적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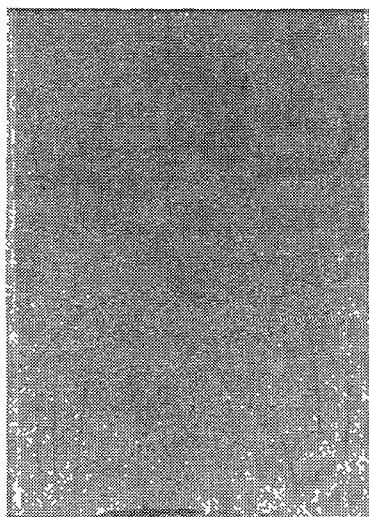
#### 41) 김상용(金尙容 : 1561~1637)

조선왕조 때의 文臣이다. 자는 景擇이며 호는 仙源 또는 風溪이며 本貫은 安東이다. 克孝의 아들이며 영의정 金尙憲의 형이다. 그는 일찌기 牛溪 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1582년(선조 15)에 進士가 되고 1590년 增廣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檢閱에 등용되어 재상인 鄭澈과 판서 金瓊의 從事官으로 있었다. 兵曹佐郎, 正言, 修撰, 應敎 등을 역임하고 都元帥 權慄의 종사관으로 湖南地方을 왕래하였다. 1598년(선조 31)에 承旨가 되었으며 그 해 겨울에는 聖節使로 明나라에 갔다가 이듬해에 귀국하였다. 그 후 大司成을 거쳐 定州, 尙州牧使를 역임하였고 光海君때 都承旨, 大司憲, 戶曹判書를 지냈다.

1623년 仁祖反正후 집권당인 西人의 한 사람으로 判敦寧府事를 거쳐 禮曹, 吏曹判書를 역임하고 1627년(인조 5) 丁卯胡亂 때는 留都大將으로 있었다. 1630년 耆老所에 들어가 노령으로 관직을 사퇴하려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1632년(인조 10) 관직에서 물러나려고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고 右議政에 임명되자 거듭 사임을 청하여 마침내 허락이 되었다.

1636년 丙子胡亂 때 왕족을 시종하고 강화도로 피난갔다가 이듬해 강화성이 함락되자 화약에 불을 질러 자결하였다.

김 상용은 글씨에 뛰어났고 그 글씨체는 二王體를 본뜨고 篆은 衆體를 겸했으며 時調로 遺稿에 五倫歌 5편, 訓戒子孫歌 9편, 그밖에도 歌曲源流 등 여러편이 있다. 그의 위국 충절을 기리기 위해 강화에 忠烈祠, 揚州의 石室書院, 尚州의 西山書院,



金尙容

安邊의 玉洞書院, 定州의 鳳鳴書院에 모셔져 있다. 시호는 文忠公이다. 著書에는 仙源遺稿, 讀禮隨抄 등이 있고 作品에는 글씨로서 崇仁殿碑의 篆額, 豊德에는 郡市 長麟禎碑의 篆額등이 있다.

#### 42) 조 즈(趙 澤 : 1568~1631)

조선시대의 文臣이다. 호는 花川이고 자는 得和이다. 贈吏曹參判인 守元의 아들이며 郡守인 宗敦의 증손이다. 文科에 급제하여 弘文館 典翰을 거쳐 嘉善에 오르고 예조참판이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咸昌의 花川에 가서 조용하게 지냈다. 仁祖反正 후에 聖節使로서 海路로 明에 다녀왔다.

그후 承旨가 되었다. 인조는 「歷代七邑 清白著聞」이란 여덟자를 써서 하사한데서도 그의 清白吏精神을 엿볼 수가 있다. 丁卯胡亂 때는 형조 참의로서 강화도에 인조를 호종하였으며 그 공으로 宣武從勳으로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1668년(고종 5년)에 兩湖儒生 宋煥能 등의 상소와 영상 金炳學의 건의에 의하여 清白과 忠節로 이조판서에 특별 증직되었다.

#### 43) 송도남(宋圖南 : 1576~1627)

조선시대의 忠臣이다. 호는 西村이고 자는 萬里이며 本貫은 鎮川이고, 司瞻寺奉事應一의 아들이다. 1609년(光海君1) 生員試에 합격하여 活人署別提와 義禁府都事を 거쳐 1615년 式年文科 乙科에 급제하였다.

1623년 仁祖反正 뒤 평안도 宣諭御史, 江原道都事에 이어 兵曹正郎에서 갑자기 義州判官에 임명되자 부임을 기피하여 永柔縣令으로 좌천되었다. 1627(인조 5) 丁卯胡亂 때 安州에서 後金의 군대를 맞이하여 兵馬節度使 南以興, 牧使 金浚과 함께 분전 끝에 전사하였다. 安州의 忠愍祠에 제사지내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忠愍公이다. 墓所가 前柴苑面 祝石嶺에 있으며 碑石도 있다.

#### 44) 박영신(朴榮臣 : 1578~1624)

조선시대의 武臣이다. 자는 仁輔이며 本貫은 密陽이고 兵曹參判 宗男의 아들이다. 1605년(선조 38)에 武科에 급제하여 宣傳官을 거쳐 熊川縣監이 되고 光海君 6년(1614) 光海君이 永昌大君을 죽이려는 것을 반대하다가 珍島에 유배되었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五衛將이 되고 慶原府使를 거쳐 豊川府使가 되었으나 이듬해 李适亂 때 그들에게 끝까지 협력하지 않다가 희생당하였다. 후에 兵曹參判에 추증되었으며 金川의 忠愍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忠壯公이다.

#### 45) 이성신(李省身 : 1580~1651)

조선시대의 文臣이다. 호는 筠巖이며 자는 景三, 本貫은 全義로서 영의정 鐸의 증손이며 勸의 아들이다. 金長生의 문인으로 1605년(선조 38) 進士試에 합격하고 光海君 때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 鄭造, 尹訥, 李偉卿 등이 仁穆大妃를 시해하려던 사건이 있었다. 이 때 李安眞 등 360여명의 성균관 유생들과 궁궐 앞에 엎드려 음모자의 처벌을 상소했으나 大怒한 王에게 쫓겨나서 故鄉으로 은퇴하였다. 1623년(인조 1) 庭試文科 甲科로 급제 檢閱을 거쳤다. 이듬해에 李适의 난 때 史官으로서 仁祖를 모시고 公州로 피난하였다.

그후 獻納, 副修撰, 持平, 修撰, 校理, 掌令 등을 역임했다. 1627년 丁卯胡亂 때는 後金(淸)과의 和約을 반대하다가 강화회의가 성립되자 관직을 떠나 낙향하였다. 1633년 司諫으로 기용되어 執義를 거쳐 1638년 同副承旨를 지냈으며 10년간 清白한 자리만을 역임한데서도 그의 청렴한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 46) 흥명형(洪命亨 : 1581~1636)

조선시대의 文臣이다. 호는 無適堂이고 자는 李通이며 本貫은 南陽이고, 進士 永弼의 아들이며 관찰사 命元의 동생이다.

1609년(광해군 1) 進士試에 합격하여 1612년 式年文科에 壮元으로 급제하였으며 1618년 鏡城判官을 거쳐 1623년(인조 1)에 正言과 掌令을 역임하였다. 그후 刑曹參議를 지내고 1634년(인조 12) 冬至副使가 되어 明나라에 다녀왔는데 중국에서 사사로이 副摠兵 程龍과 만났다하여 파직되기도 하였다. 1636년 承文院副提調가 되고 이 해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江華로 피난했을 때 적병이 다다르자 金尙容과 함께 화약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그 후 資憲大夫 吏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강화도의 忠烈祠에서 제사지내고 있으며 시호는 義烈이다. 그의 墓所는 南面 湘水里 山 55번지에 있으며 文集이 있다.

#### 47) 실학의 선구자 지봉 이수광(李醉光 : 1563~1628)

이수광(李醉光)은 1563(명종 18)년에 병조판서 이희겸(李希儉)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태종의 6대손이고 호를 지봉(芝峰)이라 하였다.

그는 재질이 우수하고 총명하며 기억력이 뛰어나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1583(선조 18)년에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1597(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 방어사 조경(趙敬)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임명되어 급히 임지로 떠나 금산에 이르렀으나 이미 관군이 패한 뒤였

으므로 그길로 선조를 쫓아 의주로 갔다. 이수광이 의주에 머물고 있을 때 일본군이 함경도에 까지 친격하여 민심이 크게 동요하였으므로 그가 선유어사(宣諭御史)가 되어 함경도 각읍을 선유하면서 민심을 안정시켰다. 선조가 환도하자 선조를 따라 환도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1597(선조 30)년에 명나라에서 궁중 화재 사건이 벌어지자 이수광이 위문하는 사신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 왔는데, 이 때 연경에 머물고 있던 안남(安南) 사신과도 교섭을 가졌다. 그후 한때, 안변부사(安邊府使) 등 외직을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므로 암행어사가 「안변부사 이수광만은 인자하게 부민을 다스리고 호령도 번거롭지 않아 경내의 백성들이 모두 잘 살게 되었다」고 왕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안변땅에는 연꽃이 없었는데, 양사언이 부임하여 연못을 파고 연을 심은 것이 최초이다. 그후 수십년동안 없어졌다가 이수광이 부임하자 다시금 소생하여 부민들은 이수광이 선정을 베풀 때문이라고 기뻐하였다 한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수광은 도승지, 대사간등을 역임하고 1611(광해군 3)년에는 세자의 관복을 주청하는 사신의 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 왔다. 이 때 이수광은 유구(流球오끼나와), 섬라(暹羅태국)의 사신과도 교섭을 가졌다. 광해군이 생모인 공빈(恭嬪) 김씨를 추존하려 하자 이수광은 그의 불가함을 상소 하였고, 광해군이 술사(術士)들의 말을 듣고 도읍을 교하(交河)로 옮기려고 하였을 때에도 이수광이 상소하여 술사들의 요사스런 주장을 막았다. 이 때 술사들이 서울은 국운이 쇠퇴하였으니 길지(吉地)인 교하로 천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진언한 바 있는데, 광해군이 그 말을 쫓아 도읍을 옮기려고 하였던 것이다.

광해군이 대북(大北) 일당의 농간으로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외할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을 죽이고 영창대군 또한 강화로 유배하였으며 선왕의 구신들을 방축하는 옥사가 벌어지자 이수광은 사직하고 두문불출하였다. 1616(광해군 8)년 순천부사(順天府使)로 임명되어 부임하게 되자 옥사의 와중에서 벗어 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선정을 베풀는데에만 전념하다가 열마후 사직하고 다시는 관계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1623(광해군 15)년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수광은 도승지로 기용되었다. 1624(인조 2)년에 이팔(李飴)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를 모시고 공주로 난을 피하였으며 돌아와서 대사헌, 공조판서 등을 역임 하였는데, 1627(인조 5)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다시 인조를 모시고 강화도로 난을 피하였으며 환도 후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수광은 젊어서부터 시와 문장에 몰두하여 그의 시문은 격조가 높은 것으로 정평을 받았다. 그러나, 만년에 접어 들면서는 「일찌기 문자의 그릇된 바 되어 평생을 헛되이 보내다가 늦게 서야 성현의 말씀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고 성리학에 몰두하였다. 그러면서도 그가 학문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폭이 넓고 비판을 가하는 면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의 저서로는 지봉집 (芝峰集) 과 지봉유세 (芝峰類說) 등이 있다. 지봉집 가운데서는 그가 북경에 사신으로 가서 안남국 사신을 통하여 알게된 그 나라의 풍속, 제도, 왕실의 연혁, 기후, 국토의 넓이 등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유구국 사신을 통하여 알게된 그 나라의 넓이, 풍토, 기후, 국왕의 성씨, 유교, 불교, 과거제등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섬라국의 위치, 거리, 산업, 기후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학문적 방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봉유세이다. 지봉유세는 일시에 집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을 두고 기록한 백과전서적인 책이다. 그러므로 그의 학문적 넓이를 알 수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괴기한 것은 수록하지 아니하고 고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봉유세의 특이한 내용으로는 안남, 유구, 섬라, 석란(씨일론) 등 동양각국에 관한 소개와 아울러 유럽의 영국, 프랑스에 관한 것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 관하여는 위치, 기상, 생활양식, 군함의 구조, 무기 등이고, 프랑스에 관하여는 무기인 불랑기 (佛狼機, 대포)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더우기 명나라 말기에 중국으로 건너온 선교사 마테오 렛치의 천주실의 (天主實義)를 소개하면서 천주교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고 거기에 천주교의 교리와 교황에 관한 것을 소개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는 실마리를 만들고 있다.

이와같이 이수광은 학문의 바탕을 성리학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의 학문은 실학과 연결되어 실학발전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수광은 한평생 향기를 내지 않고 촛불도 켜지 않았으며 연회를 베푼일도 없었다. 의복은 항상 베옷만 입고 한벌의 잣옷을 15년 동안이나 입었다고 하니 그의 검소한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이수광은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하였다가 환도한 후,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이듬해인 1628(인조 6)년에 세상을 떠나니 뒤에 영의정이 추증되고, 시호를 문간(文簡)이라 하였다. 장흥면 삼하리 산 90-1번지에 그의 묘소가 있고 묘소앞에 신도비등 비 3기가 비각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 지방 기념물 제 49호로 지정되어, 1981년도 문화재 복원공사로 지금은 성역화되어 묘소를 찾는 이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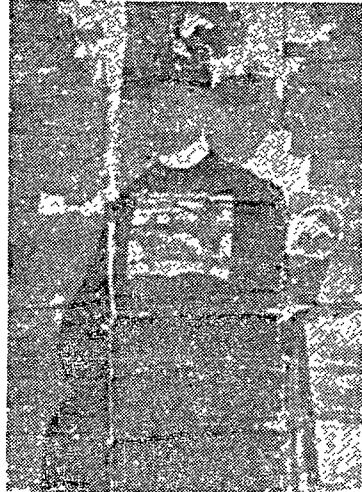
#### 48) 박엽(朴燁: 1570~1623)

조선의 文臣으로 자는 叔夜이고, 호는 菊窓, 본관은 潘南이다.

1597년(宣祖 30)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正言, 兵曹正郎, 直講, 海南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때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城池를 수축, 방비를 굳게 했고,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國防을 튼튼히 함으로써 재직 6년간 外侵을 당하지 않았다. 朴燁은 나면서부터 축명하여 말을 하면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어려서 “燈”자를 넣어서 詩를 지으라고 하니 「燈이 방에 들어오니 밤은 밖으로 나간다」라고 즉시 글을 지었다. 觀察使로 재직시에는 敵將胡虜가 東으로 몰래屯兵을

江北에다 집결하였으나, 我軍의 군사를 즉시 配置하니  
적장이 朴燁이 配置시킨줄 알아차리고는 우리는 遊獵  
하기 위해 왔다고 변명하였다. 또한 偵探하는데도 뛰  
어나서 敵들은 神과 같다고 말하고 재직시에는 마음대  
로 侵入하지 못하였다.

1623년 仁祖反正 때 勳臣들에 의해 虐政의 죄로 사형  
당했다. 묘소는 南面 篁芳里에 있고, 影幀이 傳한다.



#### 49) 문몽현(文夢軒)

壬辰倭亂 때 왜군과 싸우다가 戰死하였다.

朴燁의 초상화

#### 50) 흥명달(洪命達)

史曹參議가 추증되었다. 名臣인 이조참의 春鄉의 증손이며 중신 義烈公 命亨의 종제  
이다. 나이 24세 때 柳孝立의 亂을 만나 討逆을 倡義하였으며 定社原從功臣錄에 실려  
있다. 1636년 丙子胡亂時 나이 32세로 徒兄 義烈公과 함께 활약하였다.

#### 51) 한유혁(韓惟赫)

丙子胡亂 때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墓所가 隱縣面 雲岩里 卦點에 있다.

#### 52) 조관빈(趙觀彬 : 1691~1757)

조선시대의 文臣이다. 호는 晦軒이며 자는 國甫, 本貫은 楊州이고 우의정 趙泰采의  
아들이다. 1714년(숙종 40)에 增廣文科에 丙科로 급제한 뒤 이듬해에 檢閱이 되고 이  
어 副修撰 修撰 典籍을 역임하였다. 台諫의 탄핵으로 한때 파직되었다가 吏曹參議로  
기용되었으며 1719년 都承旨가 되었다. 1723년(경종 3) 辛壬土禍 때 화를 당한 아버  
지에 연좌되어 興陽縣에 귀양갔다가 1725년(영조 1) 풀려나와 提學에 등용되고 이어  
서 同知義禁府事에 올랐다. 1727년 同知敦寧府事로 金昌集 등 老論 四大臣을 罪籍에  
서 삭제할 것을 상소하였다. 1731년 대사헌에 재직 중 辛壬土禍의 전말을 상소하여  
少論의 영수 李光佐를 탄핵했다가 당파심에 의한 私感으로 大臣을 배척했다는 죄로 大

靜縣에 유배되었다.

다음 해에 풀려나왔으나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1740년 비로소 戸曹參判에 임명되고 1742년 평안도 판찰사를 역임한 뒤 1744년 호조 판서로서 영의정 金在魯와의 불화로 면직되었다. 이듬해에는 多至使로 清에 다녀온 뒤에 1746년에 예조판서에 전임되었다. 1753년에 대제학을 겸하다가 이해 竹冊文의 製進을 거부하여 尙州牧使로 좌천되었고 이어 三水府에 암치된 후 곧 端川으로 이배되었다가 풀려나와 知中樞府事가 되었다. 그후 우의정 尹蓍東이 清白吏로 추천한 바 있으며 시호는 文簡이라 내렸는데 저서로는 晦軒集이 있다.



趙觀彬

#### 53) 조직(趙澤 : 1592~1645)

朝鮮朝의 文臣이며 畵畫家로 자는 止源이며 호는 止齋이다.

1613년(光海君 5) 廢母論을 반대했다가 親鞫(임금에 의해 訊問당함)을 당하고 南海에 安置되었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기용되어 호조좌랑이 되고, 형조좌랑을 거쳐 형조정랑, 군수 등을 역임했다.

山水畵를 잘 그렸으며, 대사헌에 추증되었다. 묘소는 州內面 廣沙里에 있다.

#### 54) 조속(趙漣 : 1595~1669)

朝鮮의 書畫家로 자는 希溫이다. 호는 滄江, 滄醜, 醉醜, 醜翁 등이며 본관은 豐壤이다.

1623년 仁祖反正에 가담하여 功을 세웠으나 한사코 勳名을 사양했고, 孝宗 때 侍從으로 뽑혔으나 역시 사양했다.

翎毛, 梅竹을 잘 그렸으며, 읍보로 등용되어 掌令, 進善에 이르렀다. 廣州의 秀谷書院, 果川의 虎溪書院, 舒川의 建巖書院, 金堤의 白石祠에 제향되었다. 그럼으로는 墨梅圖, 枝上雙禽圖, 老樹棲鵠圖 등이 있고 글씨로는 趙淮陽恩廉碑(林川), 左贊成李繼孟碑(金堤) 등이 있으며, 묘소는 州內面 廣沙里에 있다.

#### 55) 이춘영(李春英 : 1563~1606)

조선의 文臣, 문장가로 자는 實之, 호는 體素齋, 본관은 全州이며 肇祖의 아들이다.

成渾의 문인으로 1590년(선조 23)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겸열로 재직중 같은西人인 鄭澈이 建儲問題로 유배될 때 이에 연루되어 三水에 귀양갔다. 1592년에 풀려나와 禮曹正郎에 등용되고 持平, 掌令을 거쳐 奉常寺僉正이 되었다. 시문에 능했으며 「海東辭賦」에 그의 詩歌가 수록되어 있다.

#### 56) 홍서봉(洪瑞鳳 : 1572~1645)

조선조의 文臣이다. 자는 輝世, 호는 鶴谷, 본관은 南陽으로 도승지 天民의 아들이다. 1590년 司馬試에 합격하였고 1594년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吏曹佐郎, 校理, 司成, 應敎를 역임하고, 1608년에 賜暇讀書, 1609년에 文科重試에 甲科로 급제했다. 1633년 예조판서, 1635년 大提學, 이듬해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승진, 世子師傅를 겸했고 1639년 府院君에 進封, 이듬해 영의정에 올랐다가 1644년 좌의정으로 전직되었다. 문장과 시에 능했고, 글씨도 뛰어났다. 靑丘永言에 시조 한수가 전한다. 墓所는 南面 湘水里 山 55에 있다.

#### 57) 유철(俞澈 : 1606 ~1671)

조선조 현종 때의 文臣으로 호는 醉翁이며, 본관은 杞溪이다. 1633년 문과에 급제하여, 檢閱을 거쳐 司諫으로 재직 중 親清派으로 明나라를 피하고 清나라에 事大하는 것이 禮라고 견의하여 시행케 했고, 병자호란 때 清人에게 피살된 吳達濟, 尹集, 洪翼漢 등 三學士의 처자에 대해 恩恤을 베풀게 했다. 1652년(효종 3) 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 58) 최효건(崔孝騫 : 1608~1680)

조선 宣祖 때의 文臣으로 호는 何山이며 본관은 隨城이다. 1636년(仁祖 14)에 別試에 장원하였고, 1644년 殿試에 합격하여 典籍, 사헌부감찰을 역임하였다. 詩書에 능하여 文章으로 이름을 날렸다. 墓所는 檜泉面 凤陽里에 있다.

#### 59) 고언백(高彦伯 : ? ~ 1609)

조선조의 文臣으로 본관은 濟州이다. 喬桐 鄉吏로서 武科에 급제하여 邊將, 軍官을 역임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寧遠郡守로 中和, 大同江에서 적을 방어했으나 패배

하고, 그후 楊州牧使가 되어 利川에서 승리하고 京畿道防禦使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明나라 군사의 攢導로서 서울 탈환에 공을 세웠다. 이어 慶尙左道 병마절도사에 승진하여 양주, 울산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고, 丁酉再亂 때(1597) 다시 경기도 방어사가 되어 참전하여 난이 끝난 후, 1604년 宣武功臣 2등으로 濟興君에 봉해졌다. 1609년 광해군에 의해 臨海君과 함께 살해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儉岩山古壘는 의병장 고언백이 1592년(선조 25)에 쌓은 것이라 되어 있다. 그런데 宣祖實錄 第 39 卷에 고언백이 왜적 42명을 斬首한 곳이 楊州地方으로 되어 있으니 양주지방은 바로 검암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60) 흥명일(洪命一 : 1603~1651)

朝鮮朝의 文臣이며 書藝家로 자는 萬初, 호는 葆翁, 본관은 南陽이다.

1630년(仁祖 8) 進士가 되고, 1633년 增廣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待教, 吏曹正郎 등을 지냈다. 1636년 文科重試에 丙科로 급제하고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金尙憲, 鄭蘊 등과 함께 斥和論을 주장하였다. 난이 끝난 후 이를 斥和論者의 치별이 논의되자 應敎로 李漑 등과 함께 그들을 변호했다.

글씨를 잘 썼으며 寧安君에 襲封되고 영의정에 追贈되었다. 묘소는 南面 湘水里에 있다.

#### 61) 조흡(趙渙 : ? ~ 1661)

朝鮮의 武臣으로 자는 游如, 본관은 豊壤이다.

광해군 말에 등용되어 承文院 正字가 되었고, 1623년 金瑬, 李貴 등과 反正을 꾀하여 伊川에 가서 防禦使 李重老와 군병을 모아 功을 세웠다. 그 공으로 靖社功臣 3등이 되었고, 여러 벼슬을 거쳐 1651년 漢城府 左尹, 工曹參判을 지내고 豊安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景穆이며 묘소는 州內面 廣沙里에 있다.

#### 62) 서필원(徐必遠 : 1614~1671)

조선조 현종 때 文臣으로 호는 六谷이며, 본관은 達城이다.

1643년(인조 21) 昌陵參奉이 되었다가 사옹원봉사로 승진되었다. 1648년 문과에 급제 여러 벼슬을 거쳐, 1671년 병조판서를 지냈다. 왕에게 直言을 잘하기로 이름이 있어 李尙眞 등과 함께 세칭 五直으로 불리었다. 시호는 貞憲이며, 저서로는 六谷遺稿

가 있다. 묘소는 廣積面 廣石里 광릉촌에 있다.

### 63) 구지정(具志禎 : 1647~1713)

조선의 文臣이며 詩人이다.

「海東歌謠」와 「青丘永言」에 전해지는 그의 시조는 淸貧을 내세우고 勢道의 부패를 풍자했다. 숙종 때 南九萬의 추천으로 임용되어 公州, 黃州 등지의 牧使를 지냈다.

墓所는 和道面 墨峴 1里에 있다. 「青丘永言」에 다음의 시조가 전해오고 있다.

『취찬 소로기들아 배부르노라 자랑마라  
淸江 여원 鶴이 주리다 부를소냐  
내 몸이 閑暇하야 마는 잘 못찐들 어여리』

### 64) 백시구(白時耆 : 1649~ 1722)

조선조의 武臣으로 자는 德老이며, 본관은 水原이다. 1680년(숙종 6) 무과에 급제하여, 1684년 선전관으로 北路의 烽燧를 조사하여 허술한 곳을 수축케 하였다. 草溪郡守를 거쳐, 1708년 황해도 병마절도사, 1717년(숙종 43)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고 뒤에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이르렀다.

1721년(경종 1) 金一鏡 등 少論일파가 金昌集 등 老論 4대신을 誣告하여 辛壬土禍를 일으키자 여기에 연루,杖殺되었다.

1741년(영조 17) 관작이 복구되고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忠莊이며, 묘소는 南面 梅谷里에 있다.

### 65) 이교악(李喬岳 : 1653~1728)

조선조의 文臣으로 호는 惜陰窩, 본관은 龍仁이며, 後望의 아들이다.

1696년(숙종 22) 司馬試를 거쳐 順安縣令을 지내다가, 1705년(숙종 31) 謁聖文科에 장원하여 持平이 되었다. 1710년 3월에 持平 李邦彥과 함께 崔錫鼎을 攻斥하여 그의 관작을 삭탈케 하고 그의 저서 禮記類篇을 불사르게 했다. 儒生 郭景斗가 최석정의 유배를 상소하였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자, 洪禹瑞, 李澤 등과 함께 곽경두를 옹호하다가 安州에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나왔다. 이어 正言, 황해도 관찰사, 승지, 대사간, 충주목사, 수원부사 등을 역임하고 1720년 冬至副使로 清나라에 다녀와서 다시 대사간, 승지 등을 지냈다. 이때 少論의 尹拯이 老論을 탄압하고 송시열의 祠院을 철폐하자 이를 통탄하여 항변하다가 慶山에 유배, 이어 東萊에 移配되었다. 1725년(영조 1) 老論

의 집권으로 풀려나와 同知義禁府事, 漢城府 右尹, 都承旨, 대사간, 형조와 예조의 參判을 거쳐 대사헌이 되었다. 1727년 丁未換局 때 소론이 재기용되자 쫓겨나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1728년(영조 4) 소론의 일파인 李麟佐가 난을 일으키자 울분 끝에 病死했다. 묘소는 州內面 빙고동에 있다.

#### 66) 조태채(趙泰采 : 1660~1722)

조선조의 文臣으로 호는 三憂堂, 본관은 楊州이며, 郡守 禧錫의 아들이다.

1686년(숙종 12) 別試文科에 급제하여 修撰, 校理, 公州牧使, 正言, 同知經筵事, 戶曹參判 등을 역임하고, 1703년(숙종 29) 호조판서에 올랐다. 1713년 知中樞府事로 冬至使가 되어 清나라에 다녀오고, 1715년 공조판서,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1717년 우의정이 되었다. 이듬해 判中樞府事로 전직하고, 1720년(경종 즉위) 謝恩使로 다시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하였다. 金昌集, 李健命, 李頤命 등과 함께 老論 四大臣의 한 사람으로 世弟(英祖) 책봉을 건의, 이를 실현시켜 세제로 하여금 代理聽政을 하게 했으나 趙泰考, 柳鳳輝 등 少論의 반대로 代理聽政의 명이 철회되자 사직하고, 이어 少論의 과격파 金一鏡의 사주를 받은 睽虎龍의 告變으로 珍島에 유배된 뒤 賜死되었다. 1725년(영조 1) 復官되고, 果川 四忠書院, 珍島의 凤岩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忠翼이고, 저서로는 二憂堂集이 있다.



趙泰采

#### 67) 홍우서(洪禹瑞 : 1662~1716)

조선조의 文臣으로 자는 仲熊, 호는 西巖, 본관은 南陽이다.

1702년에 謁聖文科에 丙科로 급제, 說書, 檢閱, 修撰, 副校理를 역임하였고 1712년에 殷栗縣監이 되었다. 1714년 대사간에 승진 다음해인 1715년에 동부승지 우승지가 되었다. 詩文에 能하고 당대 名筆로서 특히 隸書에 능했다. 墓는 南面 湘水里에 있다.

#### 68) 홍호인(洪好人 : 1674~?)

조선조의 文臣으로 호는 老圃이고, 본관은 南陽이며, 이조판서 處亮의 손자인데 尚

度에 入養하였다.

1706년(숙종 32) 庭試文科에 장원 후 正言,持平을 거쳐 鎮海縣監, 強善, 執義, 同副承旨를 지냈다.

1721년(경종 1) 辛壬土禍로 削職되었다가, 1725년(영조 1) 右副承旨로 발탁되고, 충청도 관찰사, 경기도 수군절도사, 좌부승지를 지냈다. 1734년 함길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1744년(영조 20) 漢城府 判尹을 지내고 耆老所에 들어갔다. 묘소는 南面 湘水里 山 55番지에 있다.

#### 69) 흥계적(洪啓迪 : 1680~1722)

조선조의 文臣으로 호는 守虛齋, 본관은 南陽이며, 이조참판 禹錫의 아들이다.

1708년(숙종 34) 式年文科에 급제, 正言, 世子侍講院, 說書 등을 지낸 뒤 江華留守, 대사헌, 도승지, 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1721년(경종 1) 대사헌으로 老論의 선봉이 되어 世弟의 代理聽政을 주장하여 少論과 대립, 이 해 辛壬土禍로 黑山島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역모에 가담했다는 죄로 서울로 압송되어 문초를 받다가 육사했다. 영조 즉위 후 伸冤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毅簡이었으나 뒤에 忠簡으로 되었고, 저서는 守虛齋遺稿이며, 묘소는 南面 湘水里에 있다.

#### 70) 유춰기(俞拓基 : 1691~1767)

조선조의 文臣으로 호는 知守齋이며, 본관은 杞溪이다.

1714년(숙종 40) 增廣文科에 급제하여 檢閱·正言을 지내고, 1721년(경종 1) 世弟(英祖)를 책립하자 冊封奏請使의 서장관으로 請나라에 다녀왔다.

1725년(英祖 1) 老論이 집권하자 吏曹參議, 대사간을 역임하였고 이듬해 승지로 參贊官을 겸임했다가 경상도 관찰사로 나갔다. 그 후 楊州牧使, 함경도 관찰사, 도승지, 元子補養官, 世子侍講院賓客을 거쳐 평안도 관찰사, 호조판서를 지냈고, 1739년 右議政에 올랐다. 辛壬土禍로 죽은 金昌集, 李頤命 두 대신의 復官을 전의하여 伸冤시켰으나 少論의 대신 柳鳳輝, 趙泰耆 등의 죄를 엄중히 다스리라고 주청했다가 실패하자 사직했다.

그 뒤 수차 임관에 불응하여 1755년 削職당하고 田里에 방축되었다. 1758년 용서되어 領議政이 되고 곧 사직하였으나 1760년 다시 등용되어 領中樞府事가 되고, 이어 奉朝賀가 되어 기로소에 들어갔다.

당대의 名筆이었고, 시호는 文翼이며, 저서로는 知守齋集이 있다. 글씨로는 魯隱洞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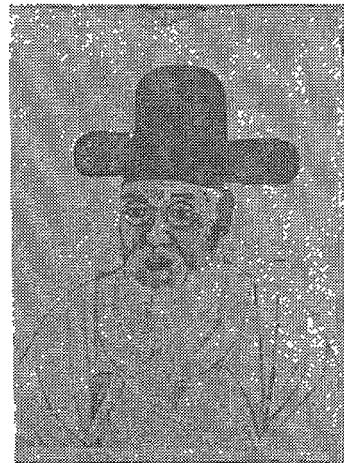
生遺墟碑(洪州), 三印臺事蹟碑(淳昌), 神懿王后齊陵神道碑(豐德), 新羅始祖王墓碑(慶州), 萬東廟碑(清州), 統制使崔櫨事蹟碑가 있으며, 양주목사로서의 善政碑가 舊官衙 遺址인 州內面 維楊里에 있다.

### 71) 金炳淵(김립 : 1807~1863)

김립(金笠)은 1807년(순조 7)에 김안근(金安根)의 아들로 양주(楊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김병연(金炳淵)인데, 본명 보다도 김립(김삿갓)이라는 속명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나이 스무살되던 해에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 하였는데, 이때의 시 제목이 홍경래(洪景來)의 난때, 순절한 가산군수(嘉山郡守) 정시(鄭蓍)의 충절을 논하고 홍경래군에 항복한 선천부사(宣川府使) 김익순(金益淳)의 죄를 개탄하라는 것이었다. 김병연은 김익순이 그의 할아버지인줄 모르고 칼날 같은 봇끝을 휘둘러 김익순을 규탄함으로써 장원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의 어머니는 얄궂은 운명에 암담한 생각에 잠기면서 그에게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하여 주었다.

1811년(순조 11)에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홍경래는 조정에서 평안도 사람에 대하여 차별대우 하는 것에 불평을 품고 있던 차에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아래 관리들의 노략질이 심하고 흥년이 들어 백성이 살기 어렵게 되자 이들을 타서 김사용(金士用), 우군칙(禹君則), 이희자(李禧著), 김창시(金昌始)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가산, 선천등 청천강 이북의 8읍을 석권하고 박천 송림리(松林里)에서 관군과 싸우다가 패하자 이듬해에 정주성(定州城)으로 집결하여 항전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되고 난이 평정 되었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김익순은 선천부사로 부임 한지 석달밖에 안되었다. 어느날 그는 일을 마친뒤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잠들어 있었는데, 반란군의 기습을 받아 그가 깨어났을 때에는 이미 반란군에게 꽁꽁 결박을 당한 뒤였다. 그리하여 김익순은 만대에 췄지 못할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 난이 평정될후 사형에 처해졌으며 그 일가는 멸문(滅門)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 이때 김병연의 나이 다섯살이었다.

그후 김병연의 아버지 김안근이 횃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종의 고향인 황해도 곡산(谷山)에 숨어 살게 되었다. 김병연은 어릴때부터 시짓는 재주가 뛰어나 흘어머니의 자랑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집안의 내력을 숨기고 오로지 김씨



俞 拓 基

가문의 중흥을 그에게 결고 살아왔다. 그러나, 김씨 일가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난것이 아니었다. 하필이면 그가 응시한 과거의 시제목이 할아버지 김익순을 규탄하는 것이었으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장난이었다. 청춘의 뜻은 산산이 무너지고 울분과 체념만이 남게 되었다. 이제 그에게는 이 가혹한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김립(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등지고 방랑의 길을 더듬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금강산의 웅장한 절경과 구월산의 선경을 찾아 나섰다. 「나는 청산을 향하여 가는데, 녹수야 너는 어디서 흘러 오느냐」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청산과 녹수뿐, 그를 대하는 인심은 냉혹할 따름이었다. 「해가 저물어 두어집 문을 두들겼으나 주인은 번번히 손을 내저어 가라고 한다. 두견새조차 이 야박한 인심을 아는 듯, 수풀을 떠나 돌아가라고 울어대누나」

이와같이 인심이 사나워진 것은 당시 세도정치의 학정과 천재지변으로 흥년이 잇달아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삿갓이 각道를 방랑하면서 하룻밤씩 묵을 집이 대개 이처럼 구차한 살림을 하고 있었다. 「네다리 소나무 소반에는 죽 한그릇 놓였는데, 푸른하늘 흰구름의 그림자가 속에 어른거리는 구나. 주인이여 미안하게 여기지 마오. 나는 청산이 거꾸로 물에 비쳐오는 것을 사랑한다오」

김삿갓의 차림이 위낙 초라하였기 때문인지, 부자들은 그를 팔시하기 일쑤였다. 안변으로 가는도중 그는 어느마을 부잣집에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다. 「신선이 있으되 그는 부자만 알고, 인간에게 죄가 있다면 가난뿐이로다. 부자와 가난이 따로 없나니, 빈자도 부자되고 부자도 빈자될 날 있으리라」

개성에서도 이곳 못지않은 푸대접을 받았다. 「고을 이름은 성을 연다고 하였는데 어찌 문을 닫으며, 산 이름이 소나무산인데 어찌 나무가 없다 하느냐. 날은 저물었는데 손님 쫓으니 사람인사 이럴수가 있는가. 여의 동방에 이곳 너 혼자만이 진시황이로구나」

진주에서도 푸대접을 받고 쫓겨났다. 「진주 원당리서 과객이 저녁밥을 빌었도다. 종놈 나와서 아무도 없다더니 아이놈 나와 집안에 변고있다 평계로구나 조선땅에 처음 보는 인심이요, 경상도서 제일갈 고약한 집이려라. 동방에 이름높은 예의의 우리나라, 이곳은 세상 인심이 아니로구나」

김삿갓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양반들의 부패한 모습을 직접 목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풍부한 해학으로 양반들의 행패를 꾸짖고 그들의 비행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저 양반 이 양반하고 양반타령이니 도대체 무슨반이 양박인고, 朝鮮엔 世性이 그 종 양반인데, 내 김가는 가락에서 제일가는 양반 이렷다」

김삿갓은 민중의 사랑속에 해학과 풍자로 팔도강산을 방랑하다가 1863년(고종 3)에

57 세를 일기로 전라도 화순군에서 객사하였다.

자는 성심(性深), 호는 난고(蘭臯)라 했으며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노래로 고인의 넋을 위로하기도 한다.

## 72) 조병세(趙秉世 : 1827~1905)

朝鮮 高宗 때의 大臣으로 자는 碩顯이고, 본관은 楊州이며, 有淳의 아들이다.

1859년(哲宗 10) 文科에 급제하여 1889년(高宗 26) 中樞院議長·領議政이 되었다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加平에 은거하였다.

1905년 乙巳條約이 체결되자 閔泳煥·沈相薰 등과 함께 궐내에 머물러 여러 날동안 울면서 條約의 폐기를 상소하였으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遺書와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글을 쓰고 表勳院에서 음독자살하였다. 시호는 忠正이며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重章을 받았다.

## 73) 김병시(金炳始 : 1832~1898)

조선조의 文臣으로 호는 蓉庵이고, 본관은 安東이며, 판서 應根의 아들이다.

1855년(철종 6)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1860년(철종 11) 教理, 1862년에 이조참의 등을 지내고 摳戎使, 御營大將, 御營都統使 등의 무관직을 역임했고, 1870년(고종 7)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조, 호조의 판서를 거쳐 壬午軍亂후 대원군이 잠시 재집정했을 때는 知三軍府事가 되었다.

1884년(고종 21) 金玉均 등의 개화당 인사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사대당원으로서 이들과 대결 清나라의 세력을 끌어들여 개화당을 몰아내고 사대당 중심의 내각을 조직 外務衙門 督辦이 되어 全權大臣으로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고, 1894년(고종 31)의 東學革命 때 清日 양군의 개입을 극력 반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革命 후 폐정개혁을 적극 주장하여 校正廳 설치를 보게 하고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사임하고, 軍國機務處 督辦에 취임하였고 이것이 후에 중추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그 의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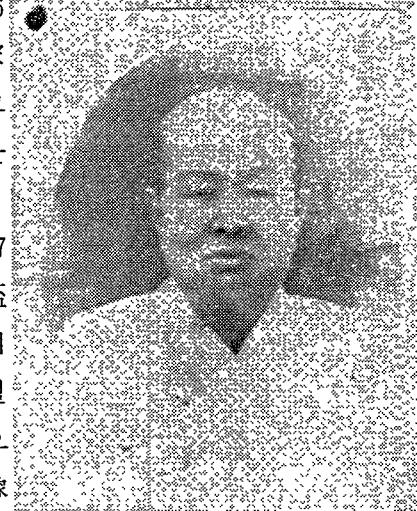
1896년(건양 1) 俄館播遷으로 왕과 왕세자가 러시아 공관으로 들어간 직후 親露派 중심의 내각이 조직되어 내각총리대신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사대당 보수파로서 끝까지 개국을 반대했고, 1895년에 斷髮令에도 特進官으로 있으면서 반대했다. 시호는 忠文이고, 묘소는 廣積面 石隅里에 있다.

## 74) 백낙연(白樂淵 : 1850~?)

朝鮮朝의 관리로 1871년(高宗 8) 鐵山府使로 재직중 미국의 商船 제너럴 셔어號(General Sherman)가 통상을 요구하며 만행을 부리자 朴珪壽와 의논하여 불태웠다. 1881년 領選使 金允植의 官辨이 되어 軍器製造를 연구할 유학생들을 이끌고 清나라에 다녀왔다.

## 75) 여류교육가 이정숙(李貞淑)

李貞淑은 楊州가 낳은 유일한 여성교육가이다. 1858년(哲宗 9) 5월 3일 廣積面 孝村里 효제동에서 李海錫의 2女로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천성이 고매하고 活達大道하여 당시 세인이 우러러 보던 규수였다. 1873년 16세 때 趙寧夏에게 출가하여 翼宗王妃 趙大妃의 親家姪婦가 되었다. 高宗 12년(1875)에 貞敬夫人이 되고 갑신정변 때 남편을 잃었다. 1906년 嚴妃의 후원을 얻어 明新女學校・淑明學校를 설립 교장이 되었다. 1924년 학무국에서 교육공로자로 표창을 받았고 1927년 東亞日報社로부터 민간교육공로자에게 주는 銀盃을 받았다. 이듬해 또다시 조선여자교육 보급진작의 공으로 학무부로부터 은배를 받았다. 1935년 5월 4일 임종직전에 퇴직금 전액을 숙명학원 장학기금으로 회사했다. 1976년 5월 22일 여사의 銅像 : 胸像이 숙명여자중・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졌는데 李殷相이 글을 짓고 金忠顯이 글씨를 썼다.



李貞淑 女史

## 76) 조중회(趙重晦 : 1711~1782)

조선조 영조, 정조 때 文臣으로 字는 益章, 開城留守 榮福의 아들이다.

1736년(영조 12) 문과에 급제하여, 說書 등을 역임하였다. 1751년 書狀官으로 清나라에 다녀와 부수찬, 兼弼善 등을 여러번 지내고, 1753년 承旨를 거쳐, 1757년 대사간이 되었다. 1759년 大司成에 이어 승지, 병조참의, 楊州牧使 등을 역임하고, 1762년 다시 승지로서 王世子(莊獻世子)가 뒤주에 갇혀 죽을 때 極諫하다가 茂長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漢城府 右尹, 도승지에 이어 1772년 이조참판이 되고, 다음해 대사헌을

거쳐 예조판서에 올랐다. 1775년 이조판서를 거쳐 1776년 예조판사가 되었으며, 1779년(정조 3) 공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퇴판했다. 그의 사위 洪樂彬이 势道家 洪國榮의 속부였으므로 그에게 아부하려는 사람이 많았으나, 성품이 고결하여 이를 모두 배척, 지조를 지켰다. 시호는 忠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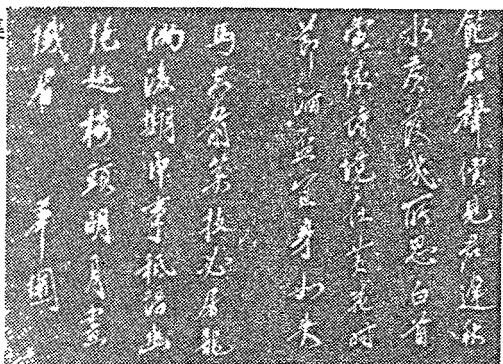
#### 77) 최동환(崔東煥 : 1794~?)

최동환의 자는 華叔이고 호는 莘圃이며 1794년(正祖 18) 白石面 福池里(莘池)에서 태어났다.

천성이 강직청렴하고 문장과 시에 능하였다. 科舉에 뜻을 두지 않고 後進養成에 專念하였으며 文集으로는 莘圃晚錄이 있다. 楊州·坡州·抱川의 세군에 그의 詩가 愛誦되었으며 道學者로 유명한 能波 金炳弼과도 교유하였다 하여 특히 그의 梅花詩와 練光亭 板上詩 등은 당대의 名文이었다. 1862년(哲宗 13)에 68세로 죽었으며 墓는 白石面 福池里 弘福洞에 있다.



趙重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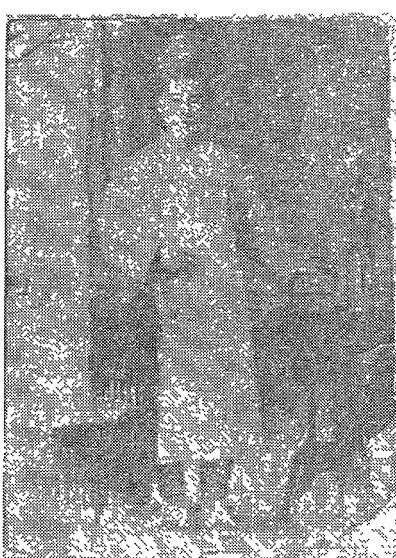
崔東煥의 筆跡

#### 78) 정용대(鄭用大)

鄭用大的 병장의 출생지는 南面 庚申里로 본관은 光州이며 1882년 음력 2월 18일 독립투사 鄭斗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鄭斗煥은 1895년 일본이 閔妃를 시해함(乙未事變)에 분기하여 동지를 규합 일본군과 싸우다가 주내면 구읍리에서 순국한 독립투사이다. 정용대 의병장은 선친의 우국충정 정신을 이어받아 유년시절부터 기백과 인품이 남달리 뛰어났었고 18세 때에 적성군 적성읍 명륜당에서 수학하며 儒林과 교우 학문을 닦았다.

1905년 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자 積城倡義府 左軍將이 되어 왜군과 투쟁하는 한편 肅菴稿를 작성, 伊



정용대 의병장

藤博文에게 公函書를 보내 일본의 식민지정책을 통렬히 헐책 하였고 항일투쟁에 앞장설 의병의 응모와 협조를 부탁하는 詛衆文을 배포하여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였다.

또한 소위 헌병보조원에게는 檄告文을 보내 경고하는 등 활약을 하였으며 동료 의병 대장 李殷贊, 尹仁淳, 姜基東, 延起羽장군 등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강원도 원주로부터 서해안 연평도에 이르는 경기, 강원, 황해도 각 郡 邑面 里의 우국지사를 규합하여 일본관헌과 투쟁,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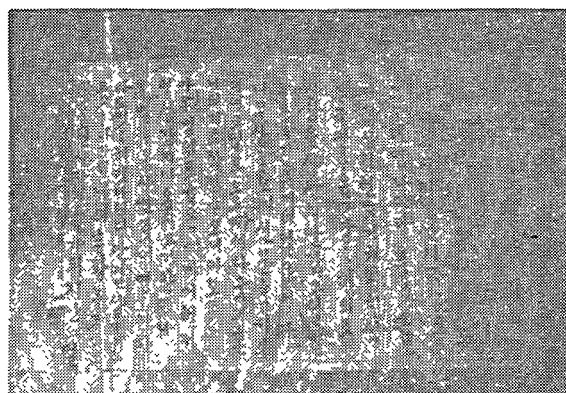
특히 1907년 1월 17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있었던 연평도, 견산도 전투에서 李根守 의병장이 전사하고 또한 동년 3월 17일 양주군 남면 신산리와 석적면 석우리전투에서 양주출신 尹仁淳의 병장이 전사하고 1908년 3월 李殷贊대장이 체포되자 경기도 의병대장이 되었다. 1909년 6월 광적면 덕도리에서 일본 관헌과 교전중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였으나 굴하지 않았다. 또 법정에서 『비굴하게 생을 도모코저 함은 興皇復朝에 손상인바 臣者の 도리가 아니므로 순절할 것을 결심했다.

대한의 국권회복을 위하여 싸우다 죽는다 일제는 내정에 간섭치말라』고 통렬히 반박하여 일본인 법관도 장군의 인격과 우국충정에 감탄하였다 한다.

1909년 10월 28일 京城地方裁判所 제 1심에서 内亂罪의 두목이라는 죄목으로 교수형을 언도받았고 1910년 1월 12일 高等法院刑事部 제 2심에서 역시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며 1910년 1월 27일 京城控所院 제 3심에서 교수형이 確定되어 동년 12월 16일 刑이 집행됨으로써 28세의 젊은 나이로 천추의 한을 품은채 순국하였다.

1977년 12월 13일 장군이 순국한지 69년만에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建國勳章 國民章(第 479 號)을 추서받았다.

1978년 3월에 鎮魂祭가 장군의 墓所에서 각계인사의 참여로 베풀어졌는데 당시 郡誌편찬위원 白仁鉉翁은 다음과 같은 詩로써 장군의 忠烈丹心을 추모하였다.



遺　書

忠烈丹心救國盟	忠烈의 一片丹心이 오직 救國을 盟誓하여
起兵抗敵世人驚	군사를 일으켜 敵을 치니 世上 사람이 놀라도다
將軍戰史千秋赫	장군의 싸운 歷史 千秋에 赫赫하고
政府勳章白日明	政府가 주신 勳章 白日에 밝았도다
撫劍悲歌湘水月	칼을 어루만지며 湘水달에 슬퍼 노래하고
歸魂深睡玉樓城	돌아가신 靈魂 玉樓城에 깊히 잠드셨네
出師未捷身先逝	출사타가 未捷하고 몸이 먼저 가시니
都使後生淚濕纓	도무지 後生들의 눈물이 잣끈을 적시나이다

## 79) 윤인순(尹仁淳)

舊韓末의 의병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여러편의 招諭文을 발표하여 우리 民族이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文化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倭賊과 싸워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많은 倡義檄文과 曉諭文 그리고 告示文 등을 발표하였는데 그檄文에 담긴 民族意識을 보기 위해 다음에 게재한다.

먼저 1907년 丁未년에 발표된 招諭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招諭文

尹仁淳

竊惟義者。天之經地之紀人之綱也。孟子序五倫之教。有曰君臣有義。又曰未有義而後其君。夫人而無義。則是無君也。人而無君。則是亂賊也。夷狄也。此春秋所以以攘夷狄討亂賊。爲千萬世國家大一統之義也。嗚呼。今夫所謂日本者。卽東南海島中一夷種。而虺場成性。無上下之等。豺狼作羣。而無內外之別。粵在龍蛇之



尹仁淳 義兵將의 招諭文

年。敢肆蜂蠶之毒。蹂躪我城邑。殺戮我民人。以至邠駕勞千里之遠。漢寢。被一坏之禍。此誠我國不一天之讐。而至今三百年如當日者也。嗚呼。挽近以來。彼酋之奸謀譖計。日滋月長。陰懷非戰非和之術。釀成百毀百伐之機。始云通商。而終以攫利。外稱保護。而內實脅制。己秋之禍。酷於二陵。祜宮之蹕。迫於灣駕。萬國公法。自食盟言。五事劫約。如入虛室。此正爲人臣子沫血飲泣鞠庠拼亂之不暇食息。而奈之何五賊雄唱於前。七凶雌和於後。以賣國爲長技。以欺君爲能事。視秦瘠而忘國讎。授楚柄而移主權。典章法度。束之高閣。斷髮文身。稱以開化。汰武備而無一兵之護宮城。廢太學而無一儒之讀經傳。以變夏從夷。謂之時務。以剝民聚財。謂之政教。十部之腸肚相連。而包藏禍心。一黨之手脚盡露。而構

成亂墮。軍務財政。並藉寇而齊盜。道察邑並。宰譯胥則髡徒。棄正音而習侏儻。矇前經而雜俚諺。廟堂之令。降爲演詭。冠冕之服。翻作左衽。朝廷一變。君子在野。國勢板蕩。民志離散。噫嘻痛矣。古之賊臣。挾天子以令諸侯。今之賊臣。挾夷狄以劫主上。是可謂文明之世。禮義之邦乎。第念士者。國之元氣也。列聖朝培養扶植。殆五百年之久。忠臣烈士碩德名儒。往往輩出。崇正學而闢邪說。過人欲而存天理。還則有壬辰之倡。丙子之殉。代不乏人。近則有趙相國之抗疏。閔忠正之絆血。崔參政之間罪。有辭於天下。此皆烈烈一氣。配義與道。亘萬古而不死也。至若燕趙悲歌。東漢清流。逸在草野。懷抱利哭。澄清之志。夙抱於攬轡之前。興復之計。預定於躬耕之初。則其於逆順之分。存亡之幾。必有講之熟辨之明。而百侯不惑者。亦有智勇兼備。赴湯蹈火。而九死靡悔者。此則有待於今日者也。噫。環東土數千里之地。一草一木。莫非先王之遺澤。一邱一壑。無非我國之封壘。則雖愚夫愚婦之微。皆知所以忠君愛國之誠。而况世祿之家。忠孝之門。讀書而爲士者。不思所以沐浴請討之聖訓乎。夫一人倡之。十人應之。十人倡之。百人應之。其義一故也。苟能父詔其子。兄勉其弟。責以臣道。勗以國憂。忠信以爲甲冑。禮義以爲斧鉞。寸舌強於萬師。衆星環以太乙。擊楫誓清。心心祖逖。請劖斬佞。手手朱雲。則何患乎國讎之不能報。亂賊之不能誅。夷秋之不能逐也。惟我此舉。只以秉彝之天。當此危急之秋。竊附春秋人人誅之之法。以死王事。爲熊魚之辨。以靈國耻。爲犬馬之效。不揆樗散。爰興義旗。召集則有聞風之行。糾合則有指日之會。傑豪雄英。盡入志殼之中。魑魅罔兩。莫逃號令之下。□□備啓行之資。士有宿飽。銃鎗待擊刺之用。人皆蓄銳。成敗利鈍。一聽祚宋之天。節制方略中藏小范之甲。師道爲壯。出豈無名。民隱是恤。按如故。庶幾萬口同辭。八域應聲。東南劖氣。長滿三尺。西北砲響。號稱一字。軍辭動而冥祲散。陣勢合而正路通。前無螳臂之敢拒。後無狐威之或假。進可以掃除奸離。廓清區宇。退可以率由蕉童。同享泰平。茲備披腹瀝肝。敷陳大義。仰惟銘肺矢心。興起吾黨焉。

丁未冬千月日 京畿道 楊州鎮東倡義府右軍將 尹仁淳

다음에는 1909년(隆熙 3년)에 발표된 尹仁淳의 曉諭文을 보면 楊州郡邑內面面長 李秀鳳의 집에 尹口首로부터 送付된 것이다.

먼저 번역문을 살고 그 원문을 뒤에 붙이기로 한다.

### 曉諭文

「倡義元帥部右軍將 尹仁淳은 巡撫斗 補助員에게 告示한다」

「무릇 우리 국민된 자는 倭賊을 소탕하고 국가를 멸망으로부터 구제하고 백성의 복리를 짜하여야 옳은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아! 슬프다. 어리석은 무리들도 忠義를 잊지 않으며 짐승도 주인의 원수를 갚을 줄 아는 법이다. 하물며 사람으로서 왜

적이 우리의 원수됨을 모르는 자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深思熟考 해보라.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으로서 이러한 환경을 달갑게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강토는 너희가 출생하고 너희 祖上이 묻힌 곳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만 祿俸을 위하여 그 몸을 팔며, 正義를 배반하여 왜적의 노예가 되고, 창을 거꾸로 들어 우리를 공격하려는 자가 너희들이 아니냐. 왜적이 너희를 앞잡이로 삼아 무슨 일을 시키면 어떠한 참혹한 일도 거리낌없이 행하니 이를 어찌 볼 수 있으랴.

하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우리 국민으로서 임금의 온혜를 배반하고 왜적에 內應하여 賣國의 행동을 恣行하는 一進會의 무리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왜적이 跋扈했던 露日戰爭 때에 우리동포로서 그 兵役에 사역되어 목숨을 잃은 자 그 수효를 해아릴 수 없으며 또 乙巳年 (광무 9년)에 우리 국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宣言을 함에 대하여 가장 감사하게 알고 그후로는 횡포와 학대가 더욱 심하여 得意揚揚한 것이다.

너희들은 과거의 허물을 悔悟하고 正義에 나아가 서로 경계하고 서로 의논하여 각기 왜적을 베고 그 머리를 바치면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후한 賞을 내릴 것이요, 또 군기와 탄약을 가지고 오면 상을 주어 그 수고를 사례할 것이며, 軍事의 기밀을 탐지하여 보고하면 그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상 3 가지 일에 성의를 다하면 국민된 본분을 다하는 것이니 너희들의 옳고 그른 갈림길은 오로지 이에 달려 있다. 만일 그릇되어 邪에 빠지면 살아서는 죄인이 되고 죽어서는 지옥의 餓鬼가 될 것이니 빨리 꿈속에서 깨어나 즉시 우리 軍陣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隆熙 3年 己酉 2月 日 倡義元帥部 右軍將 尹仁淳 賞〉

- 一. 왜적의 머리를 베어오는자. 한 사람 앞에 2만냥.
- 一. 군기・탄약을 가지고 오는자. 한 사람 앞에 1만냥.
- 一.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보고하는 자, 한 사람 앞에 5천냥.

다음에는 위에서 본 尹仁淳의 曉諭文의 原文을 보기로 한다.

國讐之不可不報。民族之不可不救。疆土之不可不復。大概已悉於諸陣檄文矣。且有耳目其所然。瞻聆則固不必橫豎說去矣。蓋因亡國之根由。究解復國之基礎。譬如病人之元氣脫落。外邪闖入。膏肓之極。雖有扁鵲。猝難下手。然爲人子者。其亦不可袖手俟命。只將百方救護。希望回甦道理誠然矣。今日所謂秉國政者類。皆甘鳩而吐羊。談韶而悅鄭。禁不得自庇阱陷。則亦無如之何矣。至於社會學校。愛國爲名者。亦不過歸楊歸墨。侮聖蔑法之科。則志向(一字不明)趣互相矛盾。亦不免郢書燕說矣。迨此時也昧如仁淳者。忠奮所激。不顧利鈍矣。略分烏合之軍。協成蜂起之勢然一勺之水。不能救車薪之火。一掬之土。不能撐孟

津之波。故首尾三年。少無成就。自多偵誤。背汗面辭。無容措之所。將何修而可答。至尊眷顧之萬一也哉。仰想今日。八路義旅。似不下十萬其數。而衣食軍物。雖使國財需用。有所不贍。况又度支內帑。沒入彼賊。又掌握戶布結稅。盡歸彼賊之資糧矣。鄉遂云稍饑者畏懼受害於義陣。屏跡賊藪。自安姑息。此不可以國民待之矣。只以窮部編戶區區營業圖生者。擔任不可擔之事。如蚊負山。急如星火。民情安得不噓噓。巷說安得不咻咻哉。自茲以往。普合必情。協議事勢。體察萬殊一本之理。莫虧一簣九仞之功。則復國救民之漸。不日挽回矣。切願憲尊。勿以人微言輕。恕有者前愆。導誘百新。誓今捨生於義陣。切勿徵福於賊藪。期圖鼎生於青邱。莫作咸沒於墨海之地。千萬幸甚。

X                    X                    X

#### 尾附節目

- 一. 軍人中有三五作隊。討索民間者。自洞中奪軍物軍衣。結縛納送于本陣事。
- 一. 勿論何地方。器械隱匿者。軍人之逃躲者。自洞長以下。至於領住洞民。這這查實是矣。  
如或掛於彼賊是去羅。拘於顏私。隱匿該洞。與賊同律事
- 一. 無論場市村落。如有彼賊之干連。自該洞民。毀家出送。或結縛來納。以待本陣之勘。  
處以絕萌芽是矣。如或同惡相濟。一切掩匿。斷當先倭賊而剿滅 該洞事。

己酉 正月 初三日

倡義元帥部右軍將 尹 仁 淳 印

#### 80) 이원상(李源商)

이 원상은 광적면 효촌리 효제동에서 이 해석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여류교육가 李貞淑과는 남매간이다. 蔭職으로 楊口 天安 安山 竹山 군수를 역임하였다. 1907년 丁未년에 義兵을 일으킨 허위(許薦:旺山)의 심복비서로 있던 安堯俊과는 평소부터 친교가 두터웠는데 고종황제의 밀조를 받고 의병을 모집하여 항일무력투쟁에 선봉이 된 허위의 軍資金으로 竹山郡守 재직시 세금 30만량을 내놓아 의병활동을 크게 도왔다. 한일 합방 후에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광적면 효촌리에서 두문불출 하면서 오직 排日思想과 우국지심으로 세월을 보냈다. 말년에는 전직관료에게 주는 은사금도 거절하여 晚節을 빛냈으며 겸정옷 입은 일본인들이 마을 동구에만 들어서도 병을 핑계로 드러누워 면접을 거절한 排日의化身으로 일생을 보냈다.

#### 81) 조소昂(趙素昂)

趙素昂의 본명은 鐮殷이고, 字는 敬中이며 1887년 4월 8일 南面 篁芳里에서 태어났다.

16 세까지 漢學을 공부하였으며 18 세 때 官費로 日本에 유학하였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각종 구국학생단체를 조직하였다. 1913년 대학졸업후 귀국하였다가 上海로 망명하였으며 1918년 滿洲 吉林省에서 동지 39인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1919년 상해에서 임시정부조직에 참여, 國務院秘書局장을 역임하고 그 해 歐洲에서 열린 제2 국제사회당대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승인문제를 36개국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922년 北京에서 汎韓獨立黨축성회를 조직하였고 1940년 광복군 창설, 독립당 당수로 建國綱領을 저술하여 臨時政府國是로 결정하였다.

광복후 사회당을 조직 黨首에 추대되었으며 5.10 선거에 당선되기도 하였으나 6.25 事變時 납북되었다.

### 82) 임봉순(任鳳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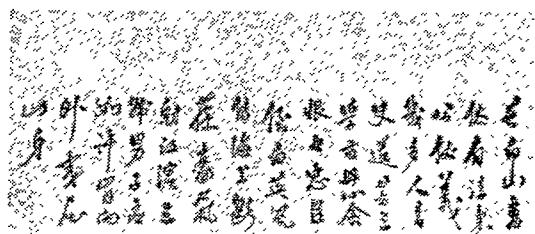
회천면 울정리에서 1897년 출생하였다. 中央學校 재학중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에 가담하였고 등사관을 이용하여 독립신문을 인쇄 배포하다가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 후 일본에 건너가 早稻田대학에 입학하여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한 후 귀국하여 일제식민지 정책에 신음하는 민족을 위하여 사회운동에 헌신하였다. 1926년 동아일보사에 입사 필봉으로 민족의 자각을 촉구하였고 「보나로드」운동의 방안을 마련 농촌체동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에는 부인 黃信德여사와 함께 학교법인 私溪學園을 설립 중앙여자중·고등학교를 경영하였다.

### 83) 홍종현(洪鍾憲)

舊韓末의 志士로 본관은 南陽이다.



趙素昂



趙素昂의 親筆詩

썩썩하고 장엄한 장백산 정기타고 나신 忠義烈士는 몇몇 분이드냐. 青史에 芳名을 떨친 三學士와 丹心으로 恨을 품으신 七忠臣 있네. 石川을 박살시킨 英風은 中韓을 휩쓸었고 伊藤을 깨꾸러뜨린 豪氣는 四海를 경동했네 우리의 大韓 男兒가 이러할진 대 어찌하여 倭賊에게 몸을 굽힐소냐!

天道教의 楊州接主가 되어 義兵의 軍服과 火繩을 보급하였고 3.1 운동에는 주동적인 역할을 하여 洪秉俊, 尹真鉉, 洪鍾珏 등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3월 20일 『독립만세』를 외치던 중 일본 현병들의 무차별 사격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

#### 84) 조용하(趙鏞夏)

獨立運動家로 1882년에 태어나 1937년에 사망하였다. 趙素鼎의 弟으로 舊韓末 프랑스와 독일주재 공사관의 參事官을 거쳐 竹山 利川 麻田郡守를 역임했다. 그후 1905년 北京에 가서 韓薩林을 조직하고 만주의 農學社와 연락하여 抗日運動을 전개하였다.

1913년 하와이로 건너가 韓國獨立團, 韓人協會 등을 조직했고 1921년 新韓民報를 발간했다. 그후 萬國平和會議, 국제사회당 대회 등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우리의 사정을 호소했다. 1932년 韓中聯盟의 강화를 위해 上海로 가던 중 일본 神戶에서 체포되어 복역하다가 1937년 痘으로 보석되어 痛死했다.

#### 85) 최성모(崔聖模)

獨立運動家이며 3.1 운동 때 33인 중의 한 사람이다. 1873년에 태어나 1936년에 죽었다. 1919년 上京하여 3.1 운동 때 民族代表의 한 사람으로 선언서에 서명하고 체포되어 2년刑을 선고받았다. 그 후 滿洲로 亡命하여 奉天省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1962년 大韓民國 建國功勞勳章複章을 받았다. 평생을 통해 기독교도로서 착실한 教人이기도 했으며 協成神學校를 졸업하고 北監理教 牧使가 되어 海州의 南本町 교회에서 교회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그의 墓所는 長興面 橋峴里에 있다.

#### 86) 조시원(趙時元)

獨立運動家로서 1904년 南面에서 出生하였다. 일제 치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義政院 幹部로 일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2代民議員에 당선되었다. 1965년 광복회 상임부회장, 1968년 尹奉吉義士 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 1971년 光復會長 등을 역임했다.

## 第2章 孝子·孝婦·烈女

### 1. 孝子

#### 1) 효자 이육(孝子 李煜)

양주의 옛 통덕탕 李煜은 선조때 명신 李廷馨의 5대손이다.

이육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섬김이 어른들에 못지 않았다. 부모가 병 환에 계심에 斷指하여 회생케 하고 그 후 상을 당하여 예로써 초종을 마치고 시묘 3년에 눈비를 가리지 않고 하루같이 슬퍼하니 출천대효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조정에서 이를 포상하고 정문을 하사하였으나 지금은 그 위치는 알 길 없고 三綱錄에 기록만이 남아 있다.

#### 2) 효녀 유씨(孝女 柳氏)

양주 옛 장사랑 金泌의 처 柳氏는 효녀이며 효부였다.

유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병환이 들어 낫지 않아 웅소(熊蔬)를 먹고자 함에 주야로 하늘에 哀訴하며 기도하였더니 훌연 웅소가 마당가에 나서 아버지 병환이 나았다고 한다.

또 출가하여 그 시부상을 당하매 지극히 애통하여 두 귀와 입과 코로 피를 흘려 귀가 먹는다 이르렀으니 지나치게 애통한 소치라 그 소문이 나라에 이르자 조정에서 효녀 효부의 정문을 내리었으니 위치는 자세하지 않고 三綱錄에 기록만이 남아 있다.

#### 3) 효자 박炯(孝子 朴炯)

양주 전 감역 朴炯은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지극하였다.

모친 병환이 위독하매 斷指出血하여 약을 드리고 시묘 3년을 하루같이 애통하였다.

또 그 아우가 전염병으로 죽자 몸소 염습하고 또 아우가 병환에 죽자 죽음을 무릅쓰고 시체를 거두니 칭송이 자자하여 조정에서 정문을 내리었으나 그 위치는 역시 알 수 없고 三綱錄에만 기록이 남아 있다.

#### 4) 효자 이斗성(孝子 李斗星)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 유학 李斗星은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였다.

평소 부모를 모심에 지성껏 섬기었고 부모상을 당하여 장례 후 묵하에 움을 파고 시묘하는데 조석으로 상옷을 벗지 않았다. 하루 세 번씩 성문함에 비바람을 가리지 않고 죽과 간장만 먹고 과일도 먹지 않았다.

제모상을 당하여서도 시묘와 죽을 먹는 일을 생모와 같이 하였다.  
조정에서 정문을 하사하였다.

### 5) 효자 한진(孝子 韓震)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의 옛 학생 韓震은 효성이 지극하여 노모의 병환이 위독하여 회춘기 어려움을 알고 손가락을 자르고 다리살을 베어 약으로 드리니 하늘이 감동하여 회생하였다고 한다. 그 후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을 죽을 먹으며 조석으로 성묘하며 하루같이 애통하니 눈비에도 폐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정문을 하사하였으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위치도 未詳이다.

### 6) 효자 이수(孝子 李燭)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 옛 통덕랑 李燭는 천품이 효우하고 행의가 범상하여 평생 일념이 오직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드리는 것 뿐이었다.

친환이 있어 시탕하는데 친히 약을 달여 맛보아 드리며 반년동안 판복을 벗은 일이 없고 환후 위독함에 단지하며 회생케 하였다. 그 후 상을 당하여 예로써 마친 후 조석으로 성묘함에 눈보라치는 아침과 비바람치는 저녁에도 한번도 그친 일이 없었다. 그 소문이 나라에 이르자 조정에서 정문을 내리었다.

### 7) 효자 서명재(孝子 徐命載)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의 옛 통덕랑 徐命載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모친 병환이 위독함에 대변을 맛보아 병환을 짐작하고 겨울철에 강물고기를 구하려고 낚시를 빌려 가지고 강을 찾아 열음구멍에서 생선을 낚아 공경하였다.

또 부친이 등창이 심하여 의원도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구정살이 박한 것을 한달동안을 입으로 빨아 독근을 제거하여 완치케 하였다. 부친상을 당하여 60년은 늙은 몸으로도 집상제절이 과인하여 조정에서 포상하고 정문을 하사하였다.

### 8) 효자 이복운(孝子 李復運)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의 李復運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온 집안이 전염병에 걸리자 부친을 모시고 먼 곳으로 피접하였으나 결국 병에 걸리니 집에 돌아와 시탕하는데 몸소 죽을 쑤어 먼저 맛을 보아 올리고 봄마다 북두칠성에게 기도하여 부모 대신 자기가 죽기를 빌었다.

부친장례 때 함께 죽을려고 결심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모친이 또 전염되니 한 배개에 같이 누워 지성껏 시병하였다. 효행이 과인하여 조정에서 포상하고 정문을 내리었다.

#### 9) 효자 이현석(孝子 李玄錫)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의 李玄錫은 10세 소년으로 효성이 지극하였다. 모친이 등창이 심하여 백약이 무효한 것을 주야 3일을 입으로 뺏아 발근하여 쾌유케 하였고 20시절에는 모친 병환에 鷄黃을 써야한다는 의원말에 천신만고끝에 계황을 써서 회춘케 하였다. 그 후 모친상을 당하여 애통이 지극하니 눈물이 다하여 피를 이복구비로 흘리고 한 달만에 따라 죽었다 한다. 이 소문을 들은 조정에서 상양하고 정문을 하사하였다.

#### 10) 효자 이탁(孝子 李濯)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 士族 李濯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친이 오래도록 병환에 계시어 시탕하는데 한번도 옷끈을 풀지 않았고 부친이 식사하지 않으면 따라서 먹지 않고 간호하다 부친상을 당하여 애통하기를 지극히 하였다. 또 모친병환이 위독하여 밤새도록 밖에 서서 하늘에 기도하고 대변을 맛보아 달고 쓴 것으로 병환의 경증을 정험하였다. 모친상을 당하여 때가 마침 엄동이라 석달을 거쳐에 있으면서 호곡하니 잠깐 몸을 덥히라고 거적밑에 돌을 달구어 깔았더니 울며 거절하고 하루같이 애통하며 삼년간 조석성묘에 임하였다. 모친병환 때 청어를 드리지 못하였다 하여 생전에 청어를 먹지 않고 청어를 보면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었다.

#### 11) 효자 여광억(孝子 呂光億)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 선비 呂光億은 판서 爲載의 증손이고 동지중추 必時의 애들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모친의 병이 위독함에 단지하여 약을 썼다. 상을 당함에 애통하여 예를 다하고 어머니의 贈爵하는 교지를 받자 대성통곡하여 吐血을 많이 하여 눈이 떨어 일년을 지나지 못해 사망하였다.

#### 12) 효자 김성오(孝子 金聲五)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 통역랑 金聲五는 어려서부터 효행이 지극하였다. 부모 생존시 가세가 주빈하여 구걸을 하여서도 부자에 못지 않게 봉양을 하였다. 겨울에 친환이 있어 물고기를 잡듯고 싶어함에 몸소 가서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구하여 바쳤다. 부모상을 당하여 지극히 애통하고 예를 다하여 삼년을 하루같이 집상하였다. 효행의 칭송이 자자하여 조정에서 정문을 하사하였다.

### 13) 효자 이만석(孝子 李晚錫)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 옛 통덕랑 李晚錫은 7세에 안맹하고 10세에 부친을 잃어 글과 예절을 배우지 못하였으나 초종장례를 애통으로 마치니 그 범절이 어른과 같았다.

또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을 하루같이 산길을 더듬어 성묘를 하니 산골에 길이 생기고 앞에는 무릎자국이 패였다. 70이 넘어 기력이 쇠진하여 성묘가 불능하니 사당에 매일 부복하였다. 죽을 때는 유언하기를 어버이의 머리카락과 입으시던 옷을 널속에 넣으면 지하에서 부모를 뵈인다 하니 같이 묻어 달라고 하였다. 지극한 효행이 조정에 알려지자 효자표창을 하고 정문을 내리어 매호 부역을 면제하는 復戶의 恩典을 하사하였다.

### 14) 효자 임홍기(孝子 任弘紀)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의 任弘紀는 재주와 행실이 구전하고 효심이 지극하여 昏定晨省을 몸소 행하였다. 출타하였다가 새로난 과일을 보면 손수 가지고 와서 봉친을 하였다. 친환에 대변을 맛보아 환후의 경중을 경험하고 밤마다 북두칠성에게 기도하여 자기 몸으로 대신 죽음을 빌었다. 친상을 당하여 애절함이 과인하게 상을 치르고 3년간을 피눈물로 세월을 보내 마침내 병에 걸렸다. 효행이 나라에 알려지자 조정에서 정문을 내리어 포상하였다.

## 2. 효부 · 열녀(孝婦 · 烈女)

### 1) 효부 박씨(孝婦 朴氏)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 宋繼商의 처 朴氏는 효성이 지극하여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상을 당하여 애통으로 3년집상을 하루같이 치루었다.

박씨의 효행이 나라에까지 알려지자 조정에서 포상하고 모든 출역을 면제하여 주는 특전을 하사하였다.

### 2) 효부 열녀 이씨(孝婦 烈女 李氏)

삼강록에 의하면 양주 呂光億의 처 이씨는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기고 부덕이 아름다워 모범이 되었다. 남편이 사망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솜옷을 입지 않고 自盡하였다. 사망후 남편은 혼자요 아내는 열녀라 효와 열이 쌍으로 이루었다고 칭송이 자자하여 조정에서 정문을 하사하였다.

### 3) 열녀 조씨(烈女 趙氏)

양주의 士族 尹東尙의 처 趙氏는 名臣의 후손이다.

조씨가 윤동상과 결혼한 지 몇년후에 과부가 되어 따라 죽으려고 식음을 절제하니 그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가 간절히 타일려 만류하였다. 그러자 친정과 시집에서 자결할까 염려하여 감시가 심해지니 친정에 가서 두어 달 지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안도시키고 시가에 와서 감시가 누그러진 틈을 타서 음독자살하였다.

조정에서 그 장한 뜻을 기리어 정문을 세웠으나 그 위치는 미상이고 다만 三綱錄에 기록되어 있다.

### 4) 열녀 조소사(烈女 趙召史)

楊州 鄉吏 咸四壽의 처 良女 趙召史는 일찍 과부가 되어 수절하던 차 접탈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 항상 장도를 품고 어느때든 욕을 당하면 자결할 결심으로 지내던 중 하루는 이웃에 악한이 있어 강간하려 함에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조정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정문을 내리어 그 뜻을 기리었으나 위치는 미상이고 삼강록에 기록만이 남아 있다.

### 5) 열녀 우씨(烈女 禹氏)

楊州 故 學生 李重峴의 처 禹氏는 천성이 부드럽고 순하여 말과 행동이 별도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늙고 병들고 집이 가난하여 우씨가 방아풀을 팔아 봉양하여 왔다. 어느 해에 온 집안이 전염병에 걸려 시어머니가 먼저 사망하고 남편 역시 숨이 끊어 질듯한 상황에 우씨가 병든 몸으로 지팡이에 의존하여 늙은 여종과 같이 시어머니를 염하고 장사지냈다. 그런지 수일만에 또 남편상을 당하니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지내고 卒哭祭祀를 끝낸 뒤 성묘하려 간다고 조용히 집을 나가 남편 무덤곁에서 치마끈으로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조정에서 그 소문을 듣고 정문을 내리었으나 그 위치는 역시 미상이고 삼강록에 기록이 남아 있다.

### 6) 열녀 조씨(烈女 曹氏)

양주의 옛 선비 洪善泳의 처 曹氏는 17세에 출가하여 직접 방아풀을 팔아가며 정성껏 시어머니를 섬기었다. 그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는 밤낮으로 약을 썼으며 대변을 맛

보며, 목욕재제하여 하늘에 기도하여 대신 죽기를 원하였다. 결국 남편상을 당함에 친히 수의를 짓고 염습과 초종사를 겸찰하고 지휘하며 장사지내는 전날 새벽에 상식을 올리고 시어머니에게는 진지상을 차려올린 다음 몰래 골방에 들어가 약을 먹고 남편의 뒤를 따랐다. 이 소문을 조정에서 듣고 정문을 내리었으나 그 위치는 역시 미상이고 삼강록에 기록만이 남아 있다.

#### 7) 열녀 효부 목씨(烈女 孝婦 睦氏)

楊州 進士 金鼎和의 자부 睦氏는 혼인한 지 3일만에 남편 金浣을 잃었다. 또 시어머니가 이에 상심한 탓으로 병이 되어 목씨가 侍病한 지 2년만에 죽으니 애통하여 장례를 마치고 시아버지를 효성으로 섬기었다.

또 그 남편의 뒤를 이을 자손이 없음을 한탄하니 시아버지가 “네 시동생이 둘이나 있으니 아들을 나면 네 뜻으로 정하겠다”하고 위로하였으나 뜻과 같지 않음에 남편의 허리띠로 목을 졸라 자결하였다. 그때가 炎天임에도 얼굴빛이 산 사람과 같고 3개월을 빙소에 두었으나 냄새가 나지 않아 誠孝와 貞烈의 극치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소문이 조정에 들리자 정문을 내리었으나 그 위치는 미상이고 삼강록에만 기록이 남아 있다.

#### 8) 열녀 이씨(烈女 李氏)

白石面 福地里에 거주하던 崔爾賢의 처 李氏가 있었다. 그 남편과 함께 洪福山에 갔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홀연 큰 호랑이가 나타나 남편을 채어가니 이씨가 사람살리라고 아우성을 치며 따라갔다. 호랑이가 드디어 시체를 놓고 물려 앉았다. 이씨가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니 호랑이가 어흥거리며 이씨마저 물려 하였는데 시종 시체를 안고 人家 근처에 와서 마을사람들의 구원으로 살아났다. 마을사람들이 시체를 놓고 들어가라 하니 남편이 여기 있는데 어찌 차마 버리고 가겠느냐 하고 통곡하며 듣지 않고 시체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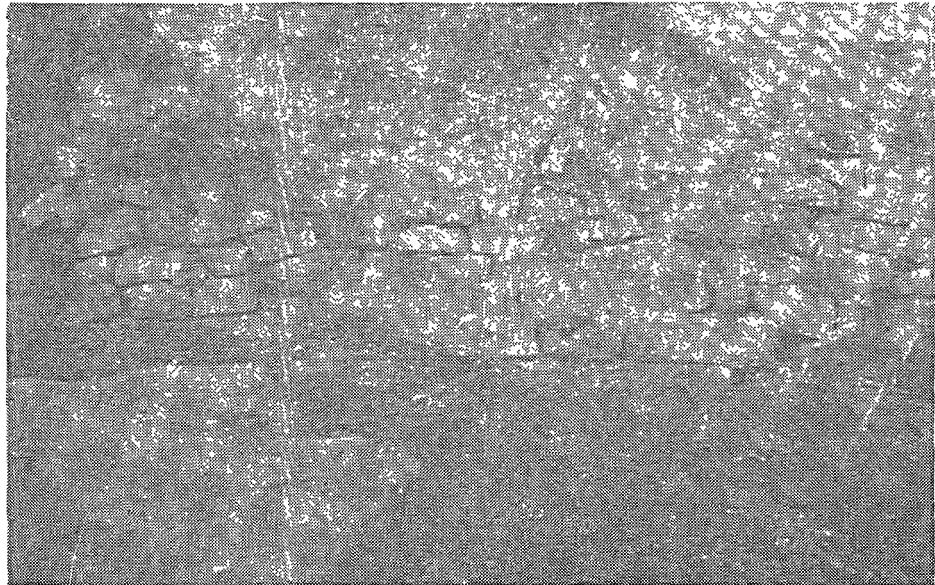
조정에서 이 소문을 듣고 열녀 정문을 내리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삼강록에만 기록이 남아 있다.

#### 9) 효부 김현식(孝婦 金賢植)

효부 金賢植은 1917년 慶州金氏家에서 태어났다. 남편 일찍 여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老母를 극진히 봉양하여 1963년 9월 경기도 지사의 孝行表榮을 받은바 있다.

회천면 덕정리 147번지내에 현재는 딸 이상오가 살고 있다.

### 第3章 현장의 발자취



## 1. 行政區域의 沿革

본군은 한강 연안에 위치한 관계로 예로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으로 요지였다.

三國時代에는 삼국의 영토확장의 標的이었고 朝鮮王朝時代에는 줄곧 도읍으로서 국 가와 그 盛衰를 같이 하였다.

명칭도 府·牧·州 등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그 판할 구 역도 변동이 많았다.

### 1) 古朝鮮·三韓時代

古朝鮮의 변천과정에서 漢族의 侵入을 받아 108년에 王儉城이 함락되고 漢四郡이 설치되는 등 변화가 생겼다. 한편 漢江流域과 이 남에는 辰이 있었는데 이무렵의 本郡은 정확히 알 수 없다.

### 2) 百濟時代

고조선이 멸망한 후 흘어져서 남하해 온 여러 流移民集團은 目支國 지배권 내의 많은 부족국가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고대왕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백제인데 제7대 古爾王 때 馬韓의 전지역을 지배하게 되어 고대왕국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본군은 백제의 땅에 소속되게 되었다.

### 3) 高句麗時代

백제가 한강이북을 점유한 지 105년만인 蓋鹵王 말년(475) 고구려의 長壽王은 南征을 감행하여 漢水北方은 물론 한수남방의 牙山·天安·忠州·淸州·竹嶺·鳥嶺을 연결하는 선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 新占領地에서 새로운 郡縣制度가 실시되었는데 이때 본군은 買省郡이라 불리게 되었다(일명 昌化라고도 함).

### 4) 新羅時代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얻은 지 75년 후인 신라 眞興王 12년(551)에 한강유역을 둘러싼 지배세력의 교체를 보게 된다.

백제와 신라의 연합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백제는 南北漢山을 포함한 6郡을 수복하였고, 신라는 죽령이북 高峴이남 10여郡을 탈취하여 양주는 다시 백제에 귀속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에 신라가 백제와의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백제의 東北部(漢江流域)를 점령하여 이 곳에 강력한 군단을 주둔시키고 이를 관할케 함으로써 552년 양주는 신라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 景德王(第35代) 16년(757)에는 서울을 漢陽郡, 양주를 來蘇郡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하자 고구려는 失地 회복에 노력하게 되는데 溫達장군의 逸話은 당시 삼국간의 각축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말해 준다. 즉 그는 출진하기에 앞서 맹세하기를 『鷄立峴과 竹嶺以西의 땅을 회복치 못하면 生還치 않겠다』고 하고 한강선을 돌파하려다가 阿旦城下에서 벌어진 격전에서 전사한 것이다.

현재 九里邑 峨川里 廣壯津 北岸에 있는 峨嵯山 古城址는 삼국 쟁패전의 일대 關門이며 영토확장의 要衝地로서 地理的 가치를 保全하였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 5) 高麗時代

고구려의 太祖 王建은 한양군을 양주로 고침과 동시에 來蘇郡이었던 양주는 見州라고 개칭하고 양주에 知州事를 두어 견주까지 관할하게 하였으며 顯宗 9년(1018)에 견주는 양주에 편입되었다. 고려 제 11대 文宗은 서울(漢陽 : 楊州)을 南京이라 하여 新宮을 造營하였으며 제15대 肇宗 4년(1099)에는 남경에 都城을 축조하고 南京留守官으로 陞稱하였다가 제 25대 忠烈王 34년(1308)에는 漢陽府로 改稱하였다.

## 6) 朝鮮王朝時代

太祖 3년(1394) 10월 28일에 開京(開城)으로부터 한양부로 遷都하고 漢城府로 개칭하였으니 조선조의 한성부는 곧 고려때의 양주로 양주고을의 범위안에 都邑을 정하고 그자리만을 한성부라 하였다. 한편 양주의 府治(行政官署)는 이때 東村(楊津西方峨嵯山南方)인 大洞里로 이전하였으며 知楊州知事로 陞稱하였다가 동 4년인 서기 1395년에 府로 다시 승격하여 府使를 배치하였다. 그후 태조 6년(1397)에 府治를 다시 見州(一名縣州) 古基(州內面 古邑里)로 이전하고 계속하여 양주라고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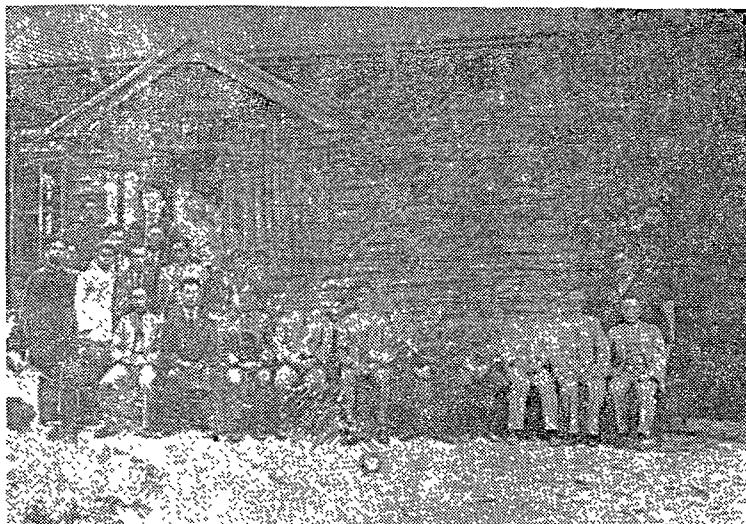
그후 부치를 舊邑(州內面 維楊里)으로 옮기고 太宗 10년(1410)에 양주부를 牧으로 陞改하였다가 동 13년(1413)의 例改時 1千戶 이상인 규정에 따라 다시 都護府로 고치고 見州(州內面 地域), 沙州(東豆川 隱縣地域), 豊壤(榛接·眞乾地域)의 3 고을을 屬縣으로 두었다. 世宗 12년(1430)에 牧으로 승격되어 楊州牧이 되는 동시에 鎮을 두었다. 屬縣으로 풍양현이 있고 鎮管에는 州가 한 고을, 郡이 한 고을, 縣이 5 고을로 州는 坡州, 郡은 高陽, 縣은 永平·抱川·積城·交河·加平이었다. 燕山郡 10년(1504)에는 楊州牧을 없애고 고을을 비어두어 일부는 임금이 遊幸하는 곳으로 정하였다.

다〔廣積面 佳納里까지 경계〕. 나머지 지역은 이웃 고을에 예속시키었다가 中宗 6년(1511)에 다시 楊州牧으로 복구시켰다.

輿地圖書에 의하면 양주는 牧의 서열에 있었으며 坊里로는 『邑內面, 古州內面, 檜岩面, 於等山面, 泉川面, 陳奮面, 縣內面, 伊淡面, 山內面, 青松面, 嶺斤面, 石積面, 廣石面, 白石面, 長興面, 神穴面, 柴北谷面, 茴夜面, 內洞面, 別非谷面, 接洞面, 榛伐面, 乾川面, 眞官面, 金村面, 上道面, 下道面, 瓦孔面, 禿音面, 龜旨面, 古楊州面, 忘憂里面, 蘆原面, 海等村面』의 34개면이었다. 高宗 32년(1895)에는 漢城府 소속의 군이 되었다가 다음해에 경기도의 유일한 一等郡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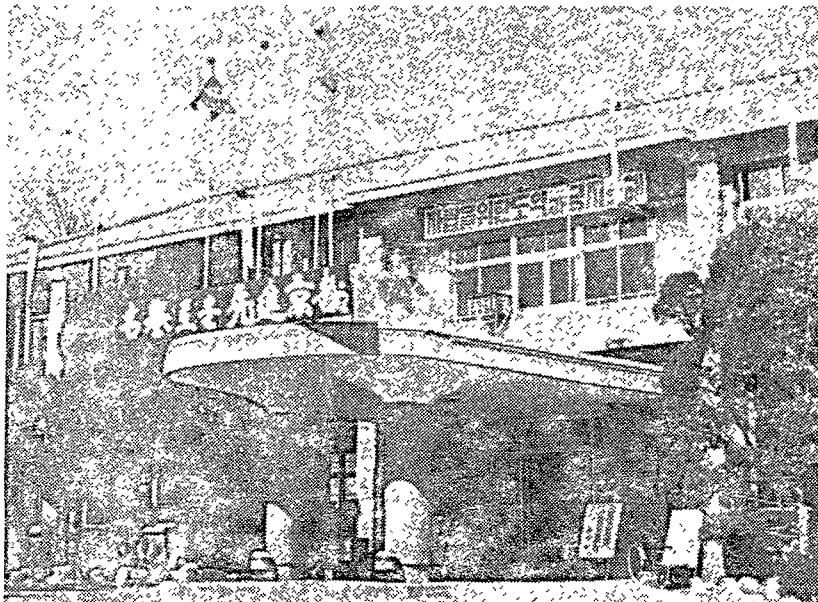
### 7) 日帝侵略下의 楊州

1912년 5월 23일에 공포된 地方行政區域 명칭 일람 京畿道편<sup>2)</sup>에 의하면 32면 343동리로 되었다. 당시 양주군의 면은 『邑內面, 泉川面, 古州內面, 檜岩面, 於等山面, 默隱面, 縣內面, 嶺斤面, 石積面, 廣石面, 白石面, 長興面, 柴北面, 茴夜面, 內洞面, 別非面, 榛伐面, 接洞面, 乾川面, 眞官面, 上道面, 下道面, 草阜面, 瓦孔面, 漢陰面, 金村面, 九旨面, 忘憂里面, 古楊州面, 蘆原面, 海等村面』이었고 1913년에 단행된 지방행정 관할구역조정시에 「嶺斤面」은 漣川郡에, 「古楊州面」은 高陽郡에 편입되고 나머지 면은 다음해인 1914년에 16개면 148리로 폐치·분합되었다.



舊楊州郡廳舍 (1922~1950)

- |        |       |       |       |       |       |        |       |
|--------|-------|-------|-------|-------|-------|--------|-------|
| ○ 柴北面  | > 柴苑面 | ○ 内洞面 | > 别内面 | ○ 榛伐面 | > 榛接面 | ○ 乾川面  | > 真乾面 |
| ○ 范夜面  |       | ○ 别非面 |       | ○ 接洞面 |       | ○ 真官面  |       |
| ○ 上道面  | > 和道面 | ○ 草阜面 | > 瓦阜面 | ○ 漢陰面 | > 漱金面 | ○ 九旨面  | > 九里面 |
| ○ 下道面  |       | ○ 瓦孔面 |       | ○ 金村面 |       | ○ 忘憂里面 |       |
| ○ 蘆原面  | > 蘆海面 | ○ 伊淡面 | → 伊淡面 | ○ 白石面 | → 白石面 | ○ 長興面  | → 長興面 |
| ○ 海等村面 |       |       |       |       |       |        |       |



楊州郡廳舍 (1954.10.17 建立)

면 時雨里가 외부면으로 행정구역이 각각 바뀌었다.

1922년 10월 1일 郡廳舍가 州內面 維楊里에서 柴苑面(현 의정부시 의정부1동)으로 이전하여 6·25 사변전까지 집무하였으나 전란시에 소실되었고 [사진참조 p. ] 해방 이후 1954년 10월 7일 現在의 청사가 미국의 군사원조로 신축되었다. 1913년 지방행정구역 조정이후 1945년 해방되기까지는 일부面의 명칭만 변경되었다. 미군정 기간중에도 일부변동이 있었으며 6·25 사변후 제반상황 변동에 따라 행정구역의 재조정과 升格 등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9년 이전에 관해서는 「경기사전 1959년판」에 의거하였다.)

- 1938년 柴苑面이 楊州面으로 개칭
- 1942년 楊州面이 議政府邑으로 승격
- 1946년 2월 5일 坡州郡 南面이 楊州郡에 편입
- 1963년 1월 1일 議政府邑이 市로 승격(법률 제 1176호)
- 1963년 1월 1일 伊淡面이 東豆川邑으로 승격(법률 제 1177호)

이상과 같이 면이  
폐합될 때 일부洞  
里도 그 소속이 변  
동되었는데 즉 蘆原  
面 葛梅里가 구리면  
으로, 蘆原面 佛岩  
里는 별내면으로,  
別內面 內谷里가 진  
접면으로 되었고 廣  
州郡 초월면에 소속  
되었던 陵內里가 와  
부면으로 편입되었  
으며 上道面 好坪里  
는 미금면으로, 하도

- 1963년 1월 1일 和道面 3개리, 棟接面 1개리, 加平郡 外西面 3개리를 합하여  
水洞面 신설(법률 제 1175 호)
- 1963년 1월 1일 蘆海面과 九里面 5개리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법률 제 1172 호)
  - (1) 州內面(9개리)  
維楊里 · 南坊里 · 於屯里 · 山北里 · 麻田里 · 廣沙里 · 晚松里 · 古邑里 · 三崇里
  - (2) 檜泉面  
德亭里 · 高岩里 · 悔亭里 · 德溪里 · 檜岩里 · 栗亭里 · 王井里 · 凤陽里
  - (3) 隱縣面(7개리)  
龍岩里 · 上牌里 · 下牌里 · 仙岩里 · 雲岩里 · 凤岩里 · 道下里
  - (4) 南面  
華山里 · 神岩里 · 梅谷里 · 龜岩里 · 杜谷里 · 庚申里 · 湘水里 · 笠岩里 · 閑山里 · 篦芳里
  - (5) 廣積面(7개리)  
佳納里 · 石隅里 · 德道里 · 孝村里 · 廣石里 · 遇古里 · 比岩里
  - (6) 白石面(8개리)  
梧山里 · 防城里 · 弘竹里 · 蓮谷里 · 靈場里 · 基山里 · 加業里 · 福池里
  - (7) 長興面(9개리)  
鬱垈里 · 釜谷下里 · 石峴里 · 二牌下里 · 三牌下里 · 二牌上里 · 三牌三里 · 釜谷上里 · 橋峴里

## 2. 面 行政區域의 變遷

### 1) 甲午更張 이전

양주군의 각 面을 개별적으로 고찰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邑面의 연혁을 3기로 나누어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 真平王 13년(591)에 南山城에다 一代面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成宗 8년(989)에 東北面과 西北面을 두고 兵馬使制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여기의 면은 말단행정구역의 개념을 가진 오늘날의 면과는 相異한 것 같다.

그리고 邑이라는 명칭은 중국식의 州郡制가 실시된 신라의 智證王 6년(505)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梁書 新羅傳에 의하면 중국의 郡縣制와 같은 52邑勅制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적 형태를 띤 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현재의 읍과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朝鮮朝時代에 이르러 里統과 더불어 3단계의 말단조직을 이룬 面은 경국대전에서 볼 때 勸農官을 파견하여 農蠶에 관한 사무를 동일방면의 數個里를 의미하는 「勸農官配置方面」에 그 발생의 源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 면은 1개군현 아래 20~3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명칭은 道에 따라 坊(평안·황해도 지방) 또는 社(함경도 지방)라고 불리었고 면에는 都尹 1인과 副尹 1인씩을 두어 그 지역의 조세징수와 法令訓諭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면장아래에는 郡衙의 鄉廳에서 추천으로 임명되는 風憲·約正·勸農이라는 보조집행 기관을 두고 있었다. 풍헌은 公錢을 領收하고 약정은 軍布錢을 수납하며 권농은 農形을 사찰하고 각종의 使役에 종사했다. 면에는 이것 이외에도 호적과 田結 등을 취급하는 別有司와, 군과 면 사이의 문서전달의 임무를 맡은 面主人이 있었다.

면의 경비는 면민이 釀出하여 충당했는데 그 각출방법은 춘추로 나누어 봄에는 春租라 하여 麥 1되 내지 1말을, 가을에는 秋租라 하여 쌀이나 옥수수 1되 내지 1말을 각戶로부터 징수한 곳도 있고 각호에 地稅인 結稅의 1/100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또 춘추 2기로 각호에 일정한 租를 부과시킨 곳도 있다.

## 2) 甲午更張 이후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탈취한 일본은 같은 해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 관제와 지방관제를 제정공포하여 지방제도에 새 국면을 열어 놓았다. 종래 군현과 洞里와의 중간연락기관에 불과했던 면을 기초적인 행정단위로 성격을 변화시켰으니, 지방관제에 「各郡島에 면을 두고 면에는 면장을 두어 刑任官의 대우를 하며 군수 島司의 지휘감독아래 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10월에 공포된 총독부령 제8호인 「면에 관한 규정」은 종래의 社·坊·部 등의 모든 명칭은 면으로 통일하고 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例에 의하여 면장은 道長官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의 면은 4,322개였다.

행정구역은 그 지역의 인구·재정 등의 현격한 차이로 面民間의 부담이 고르지 않아, 1914년 4월 1일 府郡과 더불어 면은 면적 약 4方里 호구 약 800호를 최저기준으로 한 구획의 폐합정리가 있어 2,521개의 면이 되었다. 면이 최하급 지방행정기관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사무를 처리케 된 것은 1917년 6월에 제정된 面制가 시행된 1917년 10월 1일부터였다. 이 면제는 1920년의 개정에서 면을 指定面과 보통면으로 구

분하였는데, 前者가 오늘날 邑의 前身이다. 지정면은 총독이 지정하게 되어 있었으며, 그 자격기준은 첫째, 주로 상공업지로서 공공적 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며 둘째, 호구 1,500 이상으로 그 1/2 이상이 집단으로 있는 곳 세째, 協議會員 선거권을 가진 자가 100인 이상이며 네째, 面賦課金을 1호당 평균 7엔(円) 이상 부담할 수 있는 곳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정면은 副長 1인을 두고 起債能力을 인정하고 면협의회원을 선거하는 것 등이 보통면과 다르다. 이러한 지정면은 당초에 2개로 되어 있었다.

이 면제는 1930년 개정으로 읍면제로 공포되어 1931년부터 실시되었으니 읍의 공식적인 지위와 명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종래의 지정면을 읍이라 하고 의회 기능에 많은 차이를 두었다. 읍에는 邑會를 두고 면에는 面協議會를 설치하였는데, 전자는 의결 기관인데 후자는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했다. 읍회는 의장인 읍장과 읍회의원으로 구성되고 면협의회는 의장인 면장과 면협의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선거직인 이들 읍회의원과 면협의회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었다. 읍면장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제25조에 의하여 읍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집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待遇官吏였다. 1931년 당시의 읍면수는 41읍 2,403면이었다.

그 후 면의 읍승격과 면구역조정으로 해방당시의 전국 읍면수는 107읍 2,243면이었고 정부수립 당시의 남한의 경우 73읍 1,456면이었다.

### 3) 建國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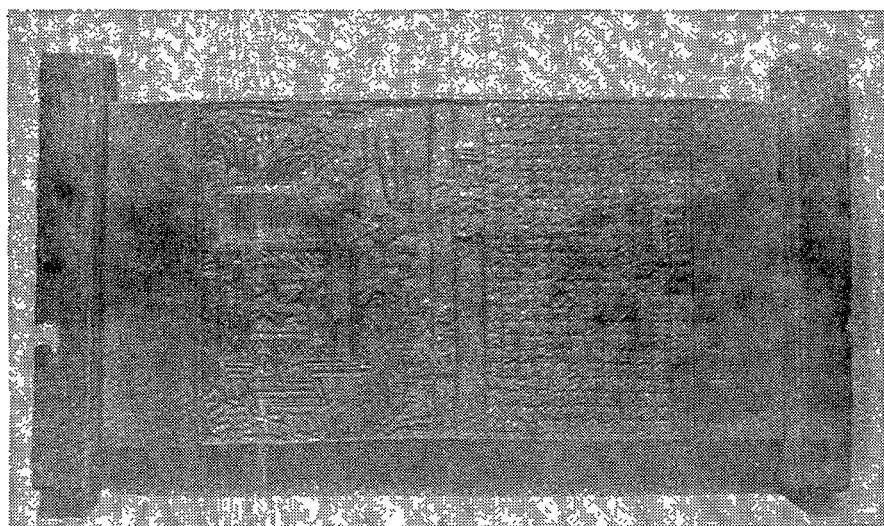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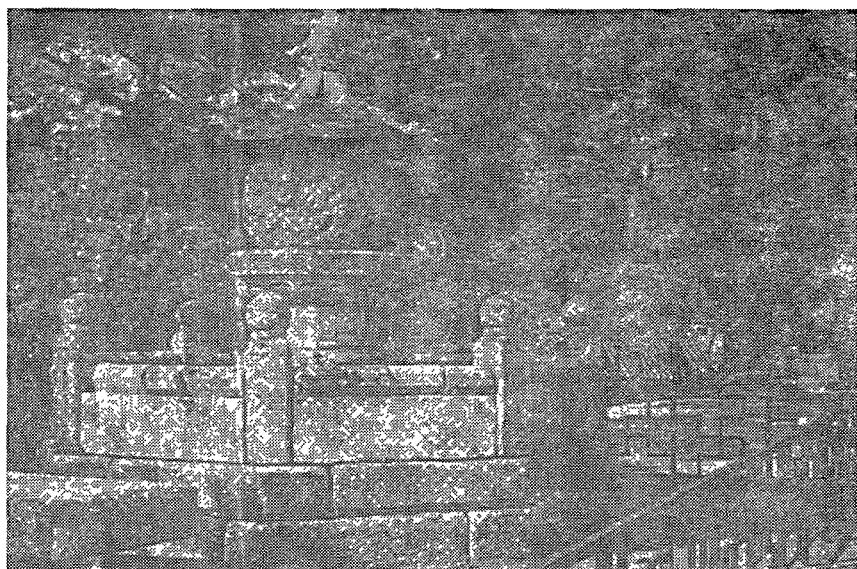
대한민국 정부수립 1년 후인 1949년 7월 4일에 법률 제32호로 제정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된 최초의 지방자치법은 읍면을 市와 함께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였다. 읍면에 의회가 처음 생긴 것은 1952년이었고 두번째는 1956년, 세번째는 1960년에 구성되었다. 자치단체기관으로서의 읍면장은 처음에 읍면의회에서의 간접 선거에 의한 선임방법을 택했으나 1956년에는 주민의 직접 선거제로 바뀌고 1958년에는 국가임명제로 개정하였다가 1960년에는 다시 주민의 직접선거제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러한 약 10년간에 걸친 시읍면자치가 끝난 것은 1960년 9월 1일이었다. 즉 이 날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읍면대신에 종래 국가기관이었던 郡을 기초적 자치단체로 하고 읍면은 군의 하부보조기관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읍면장은 군수임명제로 되었으며 처음에는 일반적 지방공무원으로 補하다가 1963년 12월부터는 별정직으로 그 직위를 변경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자료 : 읍면 행정실태조사 종합보고서 (내무부, 1968) p. 1~4.]

## 第4章 遺蹟·遺物의 모습



## 1. 指定文化財

### 1) 文化財의 分布

보통 文化財라고 하면 人類의 文化活動에 의하여 이루어진 事物・事象으로서 文化的 價值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文公部가 發行한 冊子에 의하면 文化財를 “保存할 만한 價值가 있는 民族文化의 遺產”이라고 하고 있다.

改正文化財保護法(1973年2月改正)의 定義에 의하면(第2條) 文化財를 크게 有形文化財・無形文化財・紀念物・民俗資料의 넷으로 區分하고 있다.

(1) 有形文化財는 建造物・典籍・書籍・古文書・繪畫・彫刻・工藝品 其他 有形의 文化的 所產으로서 우리 나라의 歷史上 또는 藝術上 價值가 큰 것과, 이에 準하는 考古資料를 말한다.

(2) 無形文化財는 演劇・音樂・舞蹈・工藝技術 其他 無形의 文化的 所產으로서 우리 나라의 歷史上 또는 藝術上 價值가 큰 것을 말한다.

(3) 紀念物은 貝塚・古墳・城址・宮址・窯址・遺物包含層 其他 史蹟地와 景勝地・動物・植物・鑽物로서 우리 나라의 歷史上・藝術上・學術上 또는 觀賞上 價值가 큰 것을 말한다.

(4) 民俗資料는 衣食住・生業・信仰・年中行事등에 관한 風俗習慣과 이에 使用되는 衣服・品具家屋 其他의 物件으로 國民生活의 推移를 理解함에 不可缺한 것을 말한다.

文化財는 指定文化財와 非指定文化財가 있는데, 指定文化財는 文公部長官이 文化財委員會의 諮問을 얻어 指定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法律로 定하고 있다.

(1) 有形文化財 中 重要한 것을 實物로(第7條1項), 實物 中 人類文化의 見地에서 그 價值가 크고 類例가 드문 것을 國寶로 指定한다(第7條2項).

(2) 無形文化財 中 重要한 것을 重要無形文化財로 指定하고(第8條第1項), 當該 無形文化財의 保有者(技能保有者; 人間文化財)를 認定한다(第8條 第2項).

(3) 紀念物 中 重要한 것을 史蹟, 名勝 또는 天然紀念物로 指定한다(第9條).

(4) 有形의 民俗資料 中 重要한 것을 重要民俗資料로 指定한다(第10條).

以上 指定된 文化財 以外의 文化財 中 鄉土文化 保存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것은 이를 地方文化財로 指定할 수 있으며(第54條 第2項; 1970年 新設) 地方文化財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が 이를 指定하여 文公部長官에게 報告하도록 되어 있다.

## 2) 寶 物

### ① 檜岩寺 禪覺王師碑

指定番號：寶物 第 387 號

所 有：檜岩寺

位 置：檜泉面 檜岩里

크 기：높이 3.06 m, 폭 1.6 m

材 料：花崗岩

時 代：高麗時代

題額은 「禪覺王師碑」, 碑額은 「高麗國王師大曹溪宗師禪教都摠攝勳本智重興祖眉福國祐世普濟尊者諡禪覺□□□□□□□□」并序로서 8자가 缺如되어 있다. 撰文은 李檉 權仲和書이다. 이 碑는 輿地勝覽 楊州牧 佛字條에 의하면 麗末에 創建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實際는 麗末 普濟尊者的 重建이었던 것 같다.

禪覺은 麗末의 僧으로 忠肅王 7년에 出生하였으며 忠惠王 復位 5년에 檜岩寺에 이르러 畫夜로 豔로 앉아 開悟하였고 忠穆王 4年(1348) 元나라에 가 燕都에서 指空을 만나 教理問答으로 서로 契會하였다. 忠定王 2年에는 南方을 歷遊하였으며 또 同 3年 봄에 洛迦山의 부처님과 觀音菩薩을 禮拜하고 指空을 다시 만났다.

指空은 禪覺에게 法衣拂者 梵書를 내렸고 元順帝는 師를 燕都의 廣濟寺에 住居케 하였으며 恭愍王 年開堂法會를 열고 遺使하여 金欄袈裟와 幣帛을 賜하였다.

恭愍王 7年 指空을 辭하고 東遷 臺山에 들어갔는데 同 10年 王京으로 迎入하여 安要를 說할 것을 請하였으며 同 11年 山에 들어갔으므로 內侍 金仲孫을 보내어 還京을 請하였고 14年 詣闕退할 것을 請하여 龍門, 元寂 등 諸山을 歷遊, 翌年 金剛山에 들어갔다. 後에 檜岩寺에 들어가 寺宇를 크게 造營하였다. 福王 2年 4月(1376)에는 落成宴을 크게 세워 京邑의 士女의 來往이 끊이지 않아 或 業을 廢하는 形便이었으므로 그를 密州瑩原寺에 住居케 하기 위하여 움켜가던 中 驪州神勒寺에서 示寂하였다.

字徑 2.1 cm ~ 2.4 cm의 隸書, 題額은 篆書이다. 造形은 復古期를 나타낸 唐碑形式이며, 龜趺는 巨石을 略化한 彫拔로서 多少 抽象的으로 다루어서 龜甲周緣은 基壇으로서 가질 수 있는 最小限의 容積이 確保되어 있을 뿐이다. 螭首는 別石彫造하지 않았으며 地臺와 1石인 龜趺의 拙朴함과 螭首身石의 精麗함이 異例的이다.

### ② 檜岩寺址 浮屠

指定番號：寶物 第 388 號

所 有：檜岩寺

位 置：檜泉面 檜岩里

材 料：花崗岩

時 代：朝鮮時代

天寶山 檜岩寺는 現在 廣大한 地域에 碩石만이 남아있다. 이 西北崗에 新築된 小規模의 佛宇가 檜岩寺의 寺號를 繼承하고 있는데 그 東側 積線 위에 指空, 頸翁, 無學 세 和尙의 浮屠가 차례로 있다. 八角丹堂形을 基本으로 삼았고 높은 八角基壇위에 세워져 있다. 基壇은 8枚式을 長大石으로 2段을 築成하였고 上段 下側에는 副椽形이 模刻되었다. 이 위에는 各 隅角마다 頂上에 寶珠形이 있는 石柱를 세우고 밑으로 石柱 사이에 長大石을 嵌入하였고 이 위에 童子柱를 세우고 欄竿石을 橫架하였다. 이 基壇 中央에 浮屠가 造營되었는데 上中下臺의 臺石 위에 塔身屋蓋가 重積되었다. 下臺는 伏蓮石으로 瓣內에 고사리文 같은 文樣이 裝飾된 蓮花 16葉이 있고 各隅角에는 귀꽃을 表示하려는 意圖가 보이나 萎縮되어 花瓣에 密着되었다. 上面 中央에 몰딩 1段이 있어 中石을 받았는데 中石은 배가 부른 8角鼓腹形으로 各 面에는 方框을 돌린 속에 隅角이 內入된 方形眼象이 있고 그 안에 各面마다 形態를 달리하는 花紋이 彫刻되었다. 上臺는 仰蓮石으로 伏蓮石에서와 같은 樣式의 蓮花 8葉이 彫刻되었고 위의 8面에는 各 面마다 唐草文이 彫刻되었다.

塔身은 圓球形으로 그 表面에 雲龍文이 全面에 彫刻되었으며 屋蓋石은 8角으로 塔身과의 接續位置에 斜拱의 退化된 形株가 模刻되고 隅角을 향하여 檻木이 無意味하게 떨어 있다. 추녀는 平薄한 평이고 隅角은 反曲되었으며 居上의 傾斜는 急한데 8條의 隅棟이 굵게 내려왔다. 屋蓋頂上에는 寶珠를 얹었다.

이 浮屠는 無學의 浮屠로 推定되고 있다.

### ③ 檜岩寺址 雙獅子石燈

指定番號：寶物 第389號

所 有：檜岩寺

位 置：檜泉面 檜岩里（檜岩寺境內）

크 기：전체높이 2.5m 竿石높이 68 cm 火舍石높이 40.7 cm

材 料：花崗岩

時 代：朝鮮時代

이 石燈은 上·下臺와 火舍 및 屋蓋石이 모두 方形이고 中臺만이 雙獅子形이다. 方形의 均臺石上에 下臺를 彫出하고 全 8瓣의 伏蓮을 돌렸는데도 蓮瓣은 單葉으로 瓣內에 三山形의 귀꽃文이 彫飾되었으며, 下臺 上面에는 1段의 角形반침을 刻出하여 中臺石을 받치고 있다. 中臺는 서로 相對하여 앉은 두 마리의 獅子를 1石으로 造成해 놓

고 上臺를 받치게 하였는데, 後尾部를 下臺위에 닿게 하고 後足으로 의지하게 하였으며, 頭部는 뒤를 향하여 굳게 다문 口唇部로 上臺를 떠받치고 있는 形象이다. 1石으로 된 上臺는 下面에 1段의 角形 괴임이 刻出되었고 側面에 이르면서 8瓣의 仰蓮이 彫刻되었으며, 넓은 側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는데, 上面은 각 모서리를 줄이면서 治石하였다. 火舍石은 2石으로 되었고 火窓이 2處 뿐이며 二字形의 部材를 左右에 놓았는데, 사이를 띄웠으므로 側面에는 窓口가 없으며 前·後面에만 通窓이 생기게 된 것이다. 四隅에는 圓柱를 模刻하였고 通窓左右에는 周緣에 얇은 흄이 隱刻되었다.

屋蓋石은 그 위에 寶珠까지 同一石으로 造成되었는데, 그 下面의 諸構造는 大造建築物의 屋蓋形과 같은 것으로서, 屋蓋받침 대신 平枋形과 뾰木形을 表現하였다. 그리고 추녀와 사례形도 나타내고 있으며 사례가 시작되는 兩部分을 延長하는 部分에서 1段을 刻出하고 있다. 落水面은 重厚하여 朝鮮朝時代의 特徵을 잘 나타내고 있고 四隅全角은 추녀마루를 이루고 있으며 轉角은 屋蓋의 曲線과 잘 어울리게 反轉되었다. 屋蓋石頂面에는 높고 낮은 8段이 3角形이나, 高麗時代에 들면서 方形이고 變形된 例도 여러개 있으며 이러한 形式은 곧 朝鮮時代까지도 傳承되었다.

### 3) 史蹟

#### ① 檜岩寺址

指定番號 : 史蹟 第 128 號

所 有 : 中央女子高等學校

位 置 : 檜泉面 檜岩里

時 代 : 高麗末期

檜岩寺는 僧 指空에 의하여 建立된 寺刹로 그 正確한 建立 年代는 알 수 없다. 그 후 懶翁과 世祖妃에 의하여 重三創되어 麗末鮮初에 있어 서의 最大規模를 갖는 寺刹로서 繁華했었으나 明宗朝 普雨大禪師가 失脚함으로써 衰退하기 시작하여 19世紀 初에는 이미 完全히 廢墟가 된 寺刹이다. 寺址에는 8段의 階段狀으로 築臺를 쌓아 그 위에 各種 建物을 세웠던 痕跡이 뚜렷이 남아 있다. 또 寺址 北쪽 丘陵 積線에는 三和尚의 舍利塔이 있으며 그 積線 西쪽 골짜기에 現 檜岩寺가



檜岩寺址楚石

있다. 寺址 南麓은 높이 約 1.5m의 築臺가 東西로 100m餘나 築造되었고 이 築臺中央에는 좀 西便으로 全幅 9m의 石階段이 施設되었다. 第 2 段의 築臺 사이의 廣場에는 石階 東쪽에 異形의 幢竿支柱가 있을 뿐 아무런 建築遺構가 보이지 않는다. 第 2 段과 第 3 段의 築臺 사이는 約 40m나 되고 이를 築臺도 100m나 된다. 역시 3 幅의 石階段이 各各 一直線上에 配置되어 있으며 약간의 石材外에는 特別한 遺構는 보이지 않는다. 第 3 段과 第 4 段의 築臺 사이는 約 50m나 되며 4 段의 築臺 石階段 위에 門址

로 보이는 碩石이 남아 있으며 그 左右에 廻廊地로 보이는 碩石이 두 列로 露出되었다. 그 밖에 적어도 3 棟의 建物址 · 石槽 · 石床 등 遺物이 露出되어 있다. 第 5 段의 築臺는 約 170m에 達하며 第 4 段과의 거리는 40m 内外이다. 第 5 段 築臺의 大階段 밑에는 한 개의 石床이 遺存한다. 또한 이



楳岩寺址

段의 築臺 위에는 이 寺刹中心 法堂인 普光殿址로 보이며 巨大한 建物 基壇이 遺存하고 그 上面에는 正面 7間, 側面 4間으로 짐작되는 楚石이 남아 있다. 第 6 段의 築臺는 第 5 段의 築臺에서 約 40m, 第 7 段의 築臺는 約 20m 北으로 떨어졌으므로 築臺는 約 15m 幅을 남기고 岩壁이 된다. 第 8 段의 臺地 東北隅에는 無名 舍利塔이 있다.

## ② 溫陵

指定番號 : 史蹟 第 210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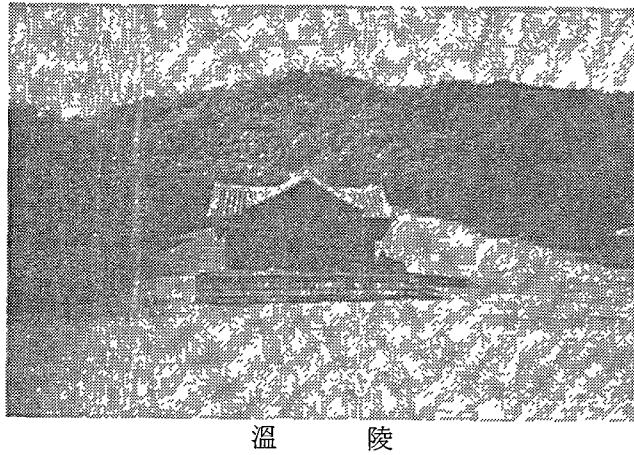
所 有 : 國有

位 置 : 長興面 日迎里 山 15 의 1

時 代 : 朝鮮朝 英祖 15 年 (1739)

第 11 代 中宗 元妃 端敬王后 慎氏의 陵이다. 王后는 燕山朝 때 左議政이요, 燕山君의 妻南인 慎守勤의 女로 燕山 5 年 13 歲로 晉城大君(中宗)과 嘉禮를 올렸고 反正으로 大君이 王位에 오르자 王妃로 冊封되었다가 不過 7 日만에 私第로 나아가게 되

었다. 反正 과정에서 主體勢力이 妃父 慎守勤을 殺害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王께 強勸하여 廢出시켰던 것이다. 王后는 明宗 12年 私邸에서 春秋 71歳로 升遐하여 慎家墓域에 묻혔다.



溫陵

明宗은 長生殿 棺木을 내려 1等의 禮로 葬事지내게 하였고 慎守勤의 孫思遠의 집에서 奉祀하게 하였다. 肅宗 24年 申奎가 올린 魯山君 復位의 빌미가 된 問題의 上疏에서 慎妃의 無辜함도 아울러 呼訴하였으므로 慎妃의 復位 問題가 論難된 끝에 王命으로 延慶宮 옛터에 祠堂을 지어 奉祠하게 하였고, 英祖 15年 마침내 復位가 이루어지게 되어 翱號를 端敬, 陵號를 溫陵이라 올리게 되었다. 陵의 象設制度를 보면 陵 뒤에 曲牆을 두르고 陵안에 石羊·石虎各 2匹로 護圍하게 하며 屏石과 欄干없는 圓墳앞에 魂遊石을 놓고 兩端에 望柱을 세웠다. 中央에 4角屋形 長明燈을 세우고 兩側에 文石과 石馬를 配置한 形式이다. 望柱과 長明燈이며 文石이 모두 肅宗年間의 陵石物의 時代的 特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 (1) 慎妃의 愛馬

中宗大王의 王妃이면서 中宗이 즉위하자마자 本家로 쫓겨나야만 했던 비운의 王妃인 端敬王后는 슬픈 여생을 벽지에서 보내야만 하였다.

燕山君의 악정은 그야말로 극에 달하여서 이에 대한 일반의 감정이 매우 惡化되고 있을 때 義가 있는 臣下들은 晉城大君(中宗)을 맞아들이고 燕山君을 廢하려 하였다. 특히 成希顏·朴元宗·柳順汀 등 세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때마침 호남지방의 柳濱·李顥 등이 晉城大君擁立의 鑑문을 전함에 이를 기회로 훈련원에 장사를 모아 광화문 밖에 있던 王妃 慎氏의 父 慎守勤과 아우 守英 등을 殺害하여 宮中の 側近者를 없애 다음 윤대비(成宗繼母)의 하명을 받고 燕山君을 廢하고 晉城大君을 王으로 擁立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當初 이 일을 모의한 成希顏 등은 영의정인 益昌府院君(慎守勤)을 찾아가서 도움을 請하였으나 매부를 칠 수 없다 하여 거절하였다. 이들 3명은 일을 成事시키기

위하여 晉城大君의 악장(岳丈)이지만 암살하고 일을 成事시킨 것이다. 비록 中宗이 즉위는 했으나 成希顏·柳順汀 등은 中宗妃 慎氏가 두려웠다. 왜냐하면 자기 親父를 죽인 그 원한만은 慎氏의 가슴속에 깊이 맷혀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3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慎氏를 廢位시키려고 中宗께 갖가지 모함을 하여 결국 慎氏는 廢位되고 말았다.

中宗은 慎氏를 극진히 사랑하였다. 불안과 초조에 억눌려 있던 中宗反正의 그늘에서 항상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希望을 안겨주던 그녀를 廢位시키려는 마음은 정말 추호도 없었으나 이제 막 즉위한 자기에게는 이를 뿐리칠 만한 實權이 없었다. 中宗은 생각다 못해 남산사저(치마바위)에 침소를 정하게 하고 가끔 密會를 할 생각으로 廢位를 許諾했으나 3大臣은 慎氏를 親家인 楊州로 축출하였다. 이 때 慎氏의 가슴은 오죽 하였겠으랴마는 때가 오기를 참으며 기다리기로 하였다. 慎氏는 親家 근방에다 雙溪寺라는 절을 짓고, 오직 나라의 隆盛과 聖壽萬歲를 기원하면서 남편 中宗의 마음이 돌아서기만을 바랐던 것이다. 한편 中宗은 中宗대로 婦人 慎氏의 무심함을 원망하였으니 3大臣의 모략인 줄 모르는 王은 慎氏가 女僧이 되어 행방을 감추어 찾을 길이 없다는 보고를 믿은 것이었다. 3大臣의 악랄함은 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밀사를 시켜 雙溪寺에 放火까지 하였다.

中宗大王은 사랑하는 慎氏의 모습을 그리면서 꿈에 조차 한번 보이지 않는 慎氏가 애속했다. 그런데 慎氏가 나간 後 慎氏의 愛馬가 점점 마르기始作하더니 결국 병이 들었다. 하는 수 없이 이 愛馬를 내다 버렸는데 愛馬는 단지 한 번 밖에 가본 적이 없는 慎氏의 처소를 용케 찾아간 것이다. 慎氏는 용케 찾아온 병든 愛馬를 불들고 한없이 울었다. 그날부터 慎氏는 愛馬를 기르는 것을 유일한 樂으로 삼아 열심히 간호하자 愛馬는 本來의 모습을 되찾고 위용을 뽐내게 되었다. 愛馬와의 쓸쓸한 나날이 계속 흘러가 慎氏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숨을 거둘 때까지 그리운 님을 한번도 만나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죽거든 친정 山에 묻어주고 말이 죽거든 장사를 지내주오”하고 慎氏는 숨을 거두었다. 실로 恨많은 餘生이었다. 慎氏가 죽은 後 健康하던 愛馬도 차츰 衰弱해지더니 곧 뒤를 따라 죽었다. 恨많은 慎氏의 원을 풀게 된 것은 約 220年 後인 英祖때에 이르러서였으니 英祖大王은 特命을 내려 慎氏의 墓를 수축하고 陵號를 溫陵이라 稱하고 陵參奉을 두어 陵을 지키게 하였는데 陵參奉은 반드시 慎氏 문중에서 擔當하도록 指示를 내리었다. 英祖大王의 위대한 業績과 善行은 물론 영조대왕 自身의 탁월성에 基因하였겠지만 恨많은 慎氏의 원을 다소나마 풀어준 英祖大王의 恩惠를 지금도 村老들은 말하고 있다.

#### 4) 無形文化財

##### ① 楊州別山臺놀이

指定番號：無形文化財 第 2 號

位 置：州內面 雜陽里

時 代：朝鮮朝 前期

우리 나라 中部地方(서울·京畿)에 分布·傳承되고 있는 탈놀음을 一名 山臺놀이라 부르고 있다. 이 地方에 傳承되어 오던 山臺놀이로는 애오개(阿峴里), 碌磻, 社稷골, 舊把撥, 退溪院, 거문돌(玄白里), 노들(鷺梁津), 松坡, 議政府 등지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世稱 本山臺라고 부르는데 反하여 楊州에 傳承되어 내려오는 것은 別山臺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約 150 年前 楊州 사람 李正丑이 서울의 社稷골 「딱딱이 패」로 부터 배워 楊州땅에 定着 소화시킨 「楊州山臺」를 두고 别山臺라고 하게 된 것에 유래한다. 楊州牧은 서울 北方 要塞地의 하나여서 많은 官衙의 相當數의 官屬과 閑良들이 봄夙면 곳이므로 民衆놀이로서 别山臺外의 山臺놀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壬辰亂以後 연기되지 못하고 있다가 朝鮮朝 末期 居士와 閑良들에 의하여企劃 再現됨으로써 别山臺란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 것이다.

놀이는 대개 陰曆 4月 8日, 5月 端午, 6月 流頭, 7月 百中등의 大小名節 때 演戲되었는데 보통 밤 10時頃에 시작되면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으며 形便에 따라 3 ~ 4時間으로 출이는 수도 있었다. 楊州山臺놀이의 <춤사위>는 우리나라 탈춤 中에서 가장 分化·發展되어 있는 것으로 몸의 마디마디 속에 멋을 집어 넣는 염불장단(거드름춤)과 그외는 對照의인 打令장단의 <깨끼춤>으로 區分되어 몸짓내지 동작의 演劇的 約束이 가장 잘 나타난다. 伴奏樂器는 三絃六角, 즉 피리, 젖대, 해금, 장고, 북으로 構成되어 있고 이밖에 팽가리를 追加하는 수도 있다. 놀이는 앞놀이로 시작되는데 <서낭대>와 탈들을 앞세우고 風物을 울리며 마을을 돈다. 낮동안 주로 富裕한 집에 들러 춤과 德談을 베풀어 興趣를 돋우다가 밤에 탈놀음이 시작되기 이전에 <탈고사>를 지내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놀음의 構成은 8마당 9거리로 짜여 있다.



가면제작장면

## (1) 歷史的由來

楊州 山臺놀이는 서울 중심의 京畿地方에서 演戲되어 온 山臺都監劇의 一分派로 「楊州別山臺놀이」라고도 일러왔다. 오늘날 山臺놀이라고 하면 楊州別山臺놀이를 가리킬 만큼 唯一한 것으로 남아오다 本山臺라고 한 碌磻·阿峴 등지의 山臺놀이와 어떻게 다른지 지금의 本山臺가 다 없어져 알 길이 없으나 本山臺를 본받아 만들어졌다고 하는 楊州別山臺놀이와 大同小異한 것이었다고 일러온다.

山臺都監劇은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속칭 「산대도감놀이」·「산디도감」·「산지도감」·「산두놀이」·「산디놀이」·「산지놀이」·「산대놀이」·「산두나례도감」·「산두」·「나례도감」등의 別稱이 있고 懈稱으로는 「딱딱이패」라고 하였다.

山臺都監劇의 기원에 대하여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몇 가지 意見 중에서 對照的인 것은 李惠求씨의 伎樂과의 同一起源說과 趙東一씨의 <서낭굿> 起源說일 것이나 이것은 假面起源과 그 發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土着的인 假面戲에 大陸傳來의 假面戲가 影響되어 오늘의 山臺都監劇의 發生을 가져온 것을 說明하는 起源說의 基本의 인 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의문은 우리가 물려 받은 오늘의 山臺都監系統劇의 드라마, 즉 그 內容은 언제 어떻게 成立되었을까 하는 問題이다.



楊州 別山臺놀이

이 問題에 대하여 在來의 그 形成時期로는 朝鮮 仁朝 12年(1634)의 公儀廢止 이후에 연희자들의 地方定着과 전적인 民間依存으로 現存하는 것과 같은 民俗劇으로 形成되었으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崔常壽씨는 難禮의 假面과 驅難舞가 그 바탕으로 作用되어 山臺假面劇이 發生되었으리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그 일부의 說明은 되나 전반적인 說明은 못되며 金學主씨는 “山臺劇은 신라시대 輸入된 雜戲가 고려, 조선을 통하여 難禮와 함께 民間에 계승되는 사이에 形成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梁在淵씨는 보다 明確하게 山臺戲가 公儀로서 停廢된 뒤 形成되었다고 하였다.

金東旭씨도 이에 대하여 “山臺都監系統의 假面戲는 共通된 肝種一難禮雜戲廣大笑謔之戲에서 分化한 民俗劇인 것은 確實하다”고 하였다. 柳得恭(1749 ~ ?)의 京都雜志에 의하면 難禮都監에는 山戲와 野戲의 兩部가 屬하였다고 하였는데 李惠求씨는 “難禮 즉 山戲는 山臺劇 즉 野戲와 함께 비록 같이 難禮都監에 속하지만 각각 다른 것이며 難禮는 山臺劇과는 關係없는 別物이요 山臺劇은 伎樂과 同系統의 것임을 의심할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은 高麗末에 發生한 것이 아니고 늦어도 百濟時代에 있었을 것이며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中國(吳)에서 배워서 들여온 것”이라고 하고 難禮의 具體的인 例로서는 牧隱의 七귀나 「驅難行」과 樂學軌範과 成倪의 觀難詩의 内容 등을 들었다.

그러나 山臺劇의 伎樂과의 同一起源說은 重要한 示唆를 주나 山臺劇과 先行藝能과의 影響 關係를 무시한 점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京都雜志에는 山戲로 「만석중놀이」를 野戲로서 「扮唐女小梅舞」를 들고 있어 山臺劇의 唐女와 소무(小梅?)와의 관係을 示唆하고 있다. 難禮는 驅難部와 雜戲部로 나뉘는데 물론 이 때의 難禮는 難禮雜戲 또는 難禮百戲의 略稱이며 文宗實錄에는 難禮를 規式之戲와 笑謔之戲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러므로 李朝實錄 其他의 文獻에서 言及한 難禮는 山戲나 規式之戲만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實錄에서 몇 가지 例를 이미 인용한 바 있지만 燕山君日記의 「難禮則皆是俳優之戲，無一事觀，且優人群聚京城剽竊爲盜，自今物設難禮以草舊幣云云」이라는 대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難禮가 雜技百般을 指稱한 山臺雜劇과 關係있는 이른바 規式之戲만이 아니고 俳優之戲 즉 笑謔之戲도 包含되며 이 笑謔之戲 속에서 山臺劇形成의 契機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趙元康씨는 “迎使의 難禮에는 百戲 또는 雜戲와 戲謔之事만을 上演하였지 假面舞劇은 上演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이 戲之事 즉 笑謔之戲가 破戒僧에 대한 풍자와 양반이라는 特權계급에 대한 嘲弄과 모욕, 남녀간의 갈등이나 庶民生活을 보이는 民俗劇으로 發展할 肝種을 충분히 내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선 鄭顯奭의 教坊諸譜가 중요한 시사를 보여주고 있다.

璞園 鄭顯奭(高宗時人, 官至黃海監司)이 壬申年(1872)에 撰한 「교방제보」(서울

대학교 도서관본)에는 總目에 舞로서 14 種을 들고 있다.

「六花隊, 蓮花臺附鶴舞, 獻仙桃, 鼓舞, 抛球樂, 劍舞, 船樂, 項莊舞, 義岩歌舞, 牙拍舞, 韶韶舞, 黃昌舞, 處容舞, 僧舞」이 중에서 승무는 산대놀이의 「노장」의 원형과 같은 것으로 신장사와 취발이놀이를 합한 내용이다. 또 雜戲로서 다음의 6種을 들고 있는데 그중에 山臺가 들어 있다.

「雜戲 皆無倫卷, 舍堂男唱女和, 風角 蕭笛行乞, 焦爛 假面金目, 山臺 土與僧美人皆假面, 郭禿 設棚戲木人, 醉僧 機動蹈舞」

산대는 土與僧美人皆假面이라고 하여, 목종과 소무와 샌님(兩班)이 그 등장인물들임을 추측케 하며 취승은 취발이놀이로 생각된다.

僧舞는 六花대 이하 14종의 教坊諸舞 중 레퍼터리의 하나로 들어있을 뿐더러 그것은 假面을 着用하지 않은 雜戲로 上佐·老長·小巫·취발이 등장하여 춤과 팬터마임(pantomime)으로 進行되는 노장과장놀이임이 주목된다. 이 「산대」와 「醉僧」과 「僧舞」가 하나의 테두리 속에 묶여진 것이 오늘의 산대놀이의 주요 등장인물과 노장과장의 내용임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百濟의 伎樂이 산대놀이와 동일보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대가 隔하여지고 國情이 달라짐에 따라 전래하는 여러 先行藝能의 影響속에서 특히 雜禮(雜戲)의 笑謔之戲 속에서 오늘의 산대놀이의 드라마가 임태형성되었다고 하여도 서로 당착되는 이야기는 아니될 것이다. 雜禮를 廣·狹義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점과 연극발달의 경로를 좀 더 넓혀서 보느냐 안보느냐에 따라 의견의 差異가 생긴다고 본다.

① 四千年前昔殷의 桀紂가 女禍氏의 祠堂에 一年春秋二回舉動하았읍니다. 女禍氏則天下一色이라 그 畫像을 보고 紂가 欽慕하야 內心에 曰吾平生에 頗娶此之女하야 作配同居하았으면 하니 女禍之神이 怒而欲懲此忘想하야 命九尾狐曰方今蘇哥之女妲己가 一色인 즉 彼必求婚于此女矣리니 汝가 妲己를 잡아먹고 그 形容을 뒤집어 써서 嫁彼後 守吾之命하야 作萬般之禍하라. 紂聚妲己하니 妲己請紂作諸般惡事하여 殺忠臣하니 比干이 諫而死가 赤此時也라 寥死諸魂이 化爲妖鬼하야 作亂이 莫甚하니 姜太公이 此를 制禦카爲하야 做天地殺星等하야 戲遂妖鬼하았나니 此가 遠因이고

② 高麗末年에 僧逐曉이 道僧이 되랴 할 時에 百姓中好事者等이 謗謗曰此何道僧고 必以女色으로 試而罷其工夫하리라 하고 以少巫堂으로 惑케 하니 無干伐之木이라 辛의 放蕩이 無所不至하니 此則少巫堂等이 誘之曰道僧과 妾等이 雖有如何動作이나 他人이 不得見則從心志之所樂이 未有不可라 하야 或은 衆人會合之席에 作醜態하며 或은 携至汚川曰此則清勝之地라 하야 於山於水에 放慾回遊하니 小巫堂은 妲己의 行勢를 하고 道

僧은 約의 行勢를 하였다.

③ 本國李朝丙子胡亂에 屬于支那하야 移御嘉禮時에는 上府使가 必來하야 願見金剛山  
하니 有見識之宰相等이 相議案出山臺都監遊戲하야 以代金剛遊覽하니 此則省弊之精神  
이라 清使來時에 山臺役人等 舞鶴峴에서 迎而前陪入城하니 此 李朝尙有山臺都監遊戲之  
原因也요 後에 清使가 此를 보기 쉽다고 하는 者 있어 山臺代錢之例로 有之。

이러한 口傳들은 물론 附會說에 불과한 것이지만 첫째 이야기에서는 가면이 갖는 群  
邪性에 대한 민간신앙을 엿볼 수 있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산대놀이가 갖는 태마 중에  
서 破戒僧놀이가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만석중놀이」의 발생설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만석중놀이는 松都名妓 黃眞伊에게 유혹당한 知足禪師 즉 萬石중을  
풍자하기 위하여 發生되었다고 하였다. 세째 이야기는 산대놀이가 中國使臣迎接 같은  
국가적 행사에 연희되었음을 시사하는 이야기다.

迎使 외에 儺禮都監(後에 山臺都監)에서 관장한 儺禮 또는 山臺儺禮는 庵廟還宮時  
各種行幸時 安胎時와 宴樂歡娛 등의 궁중행사에 동원되었음을 실록 기타의 여러 문헌  
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儺禮戲子 즉 演戲者에게 米·布 등을 恒例로서 지급한 기록도  
보인다. 그리고 成宗實錄에 보면 그들은 유사시에만 불려들였고 평상시엔 주로 가까운  
京畿一圓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凡優人本不業農乞糧而食」한다고 하였는데 「乞糧而食」이 다름아닌 契房의 圖印을 내어 주어 생계를 보조하였다는 사실을 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契房의 유래는 다음과 같이 전해 온다.

「山頭役員等 生活費로 하기 爲하야 生한 者니 道·郡·面·洞, 店幕·浦口·寺刈(배  
추령갓치)에 稅納과 如히 金品 或은 穀物을 收斂하니 國으로부터 許可憑考品은 卽圖書  
(印)也。 春에는 蟬印, 秋에는 虎印을 用하야 此印을 捺去側少兒에게라도 추령을 出給  
한다. 級數는 當時 該郡守가 定함。」

다시 이를 傍證할만한 것으로 凤山탈춤 제7과장 미얄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영감대  
사를 들 수 있다.

「땡장이 통을 사서 걸어메고 다니다가 산대도감을 만났더니 산대도감의 말이 인왕  
산 모르는 호랑이가 어디 있으며 산대도감 모르는 땡장이가 어디 있느냐? 너도 세금  
을 내라고 하기로 세금이 얼마나 물은 즉 세금이 하루에 돈 팔푼이라고 하기로 이 세  
금이 빼근하구나 벌기는 하루에 팔푼 버는데 세금은 하루에 한 돈 팔푼이면 한 돈을 보  
태야 하겠구나. 그런 세금 난 못내겠다 하니까 산대도감이 달려들어 의관탈파 당하여  
어디 머리에 쓸 것이 있더냐……。」

산대놀이 연희자들은 宮中賤役에 종사하던 俘人(편놈)들로 서울 문밖에 살았고  
仁祖朝 이후 公儀로서의 산대연희가 緘止되자 이들은 분산하여 제각기의 거주지를 중

심으로 산대놀이 단체(契)를 모으고 제각기 경향각자를 순회한 결과 碣磧里山臺, 애오개(阿峴) 산대, 驚梁津山臺, 退溪院山臺, 사직골(社稷) 딱딱이 패 등이 생겼다 한다.

楊州 별산대놀이의 分派形成에 대하여 서는 다음과 같은 由來說이 전해온다.

양주골에서는 200年 전부터 해마다 주로 四월 초파일과 五월 단오에 한양 사직골 딱딱이 패(白丁, 상두꾼, 전달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를 초청하여 산대놀이를 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지방순회 기타로 공연약속을 어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불편을 느낀 나머지 양주골에서 신명이 과한 자들끼리(주로 관아의 하리배 즉 아전) 사직골 딱딱이 패를 본떠 가면 기타를 제작하고 實演한 결과 그 성과가 나쁘지 않아 의외의 성공을 거두고 그 뒤부터 發展시켜 내려온 것이 楊州別山臺 놀이이며 당시의 중심인물은 李乙丑이라는 사람이며 그는 楊州의 최초의 假面製作者라고도 전한다.

楊州舊邑은 南으로 漢京, 北으로 湘水驛—積城—麻田—連川方面, 東北으로 東豆川—永平方面, 東으로 松隅里—抱川方面으로 통하던 교통의 네거리이며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이 되어 최근까지 주막이 즐비했고 이곳에는 楊州牧使가 주재하던 곳으로 한강이 북에서는 제일 큰 고을로 維楊八景, 寺刹, 鄉校 등 古蹟과 塔, 碑石, 乘鶴橋, 門樓 등 유적이 남아 있고 林巨正 전설도 구전되어 온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속에서 民間娛樂化된 楊州山臺놀이는 牧使가 주재하던 客門洞을 중심으로 소위 「본바닥」 사람들만이 출수 있는 독특한 탈춤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곳 주민들은 대개 유희, 오락을 좋아하고 胥吏, 衙前的 성격이 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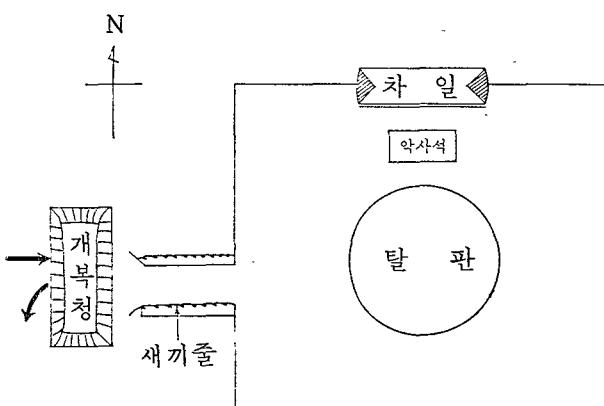
양주목이 있던 「楊州舊邑」·「楊州邑內」는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州內面 維陽里이며 朝鮮時代에는 계속 郡行政을 집행하던 곳이었고 韓日合邦 후 1922년에 군청이 議政府로 옮겨지고 6.25 사변 후에는 면사무소와 경찰파출소마저 南坊里로 이전하여 現在는 面行政單位의 작은 마을에 불과하며 몰락한 舊邑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 점은 朝鮮時代 관아에 속하였던 下吏輩가 탈춤을 전승하여온 鳳山舊邑의 경우와 동일하다. 5개동으로 나누이는 유양리는 총인구 862명이며 훗수는 客門洞 37호, 東部洞 35호, 水庫洞 22호, 院隅洞 55호, 총 149호로 그 중 남아있는 瓦家는 네채뿐이며 한창시절에 3,000여호가 되었다고 하는 과거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한 没落相이며 平均 1호당 7.5마지기 (1,500坪)의 土地에 年所出 白米 15가마가 될까말까한 貧村이다. 지금도 大母山城터가 남아 있지만 마을은 城으로 둘러싸였고 客門洞 東側에 紅門이 있어 「꽃방아 타령」 또는 「취발이 노래」란 것이 전한다. 동네에는 세군데 「부군당」이 있었는데 들은 客門洞에, 하나는 東部洞에 있었으며 國師堂은 神山만 佛谷山에 남아 있고 동부 동동쪽에 「서낭당」이 있고 산신당은 6·25 사변 전까지 남아 있었으며 社稷堂은 50여 년 전에 없어졌는데 이곳은 「새젖골」이라 부르며 양주산대놀이의 놀이터(野外舞臺)

가 있었던 자리이다.

양주산대놀이는 사월 파일, 오월 단오, 팔월 추석에 주로 연희되고 대소명절 외에, 旱天의 祈雨祭같은 때에도 연희되었는데 제례식대로 하면 놀이전의 告祀에는 제주(조라)와 떡과 삼색파일 외에 소머리며 돼지다리 등 푸짐한 祭物이 올라야 하고 그 제물과 제주를 飲福하여 醉氣가 돌아야 놀이가 시작되었다. 除夕에는 가면을 쓰고 東軒을 비롯하여 六房을 돌아 逐邪하고 초청에 응하여 他地方으로 순회하여 應分의 錢穀이나 주식의 대접을 받았었다. 놀이비용은 마을 有志들과 富家나 商人們이 주렴하고 연희자는 원칙적으로 무보수였다고 한다. 최근까지 행하던 놀이로서 사월 파일의 「관등놀이」가 유명한데 1년 중 제일 화려한 축전으로 觀燈놀이때는 온 마을이 등으로 장식되고 특히 乘鶴橋에 「굴등」을 달아 장관을 이루었다. 굴등은 줄을 매고 몇 개의 등을 그것에 달아 놀이고 등 사이에는 불꽃이 튀게 하는 燃燒體를 단 것이다. 이때 사직골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전에는 장작불이었으나 근래에는 솜방망이를 석유에 담가서 불을 붙였다) 산대놀이가 시작된다. 양주산대놀이터는 주로 마을 북서쪽 불곡산 아래의 사직골이었고 여기에는 당집이 있어 놀이의 가면과 諸道具를 보관하여 왔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년에 와서 사직당도 없어지고 사직단 앞 놀이터가 경작지로 바뀐 뒤부터는 마을 뒷산 송림속의 잔디밭에서 놀고 최근에는 鄉校 外三門 안마당에서 놀기도 하며 거의 주간에 연희된다.

사직골 놀이터는 佛谷山 기슭의 비탈진 곳에 판객들이 앉게 되고 그 앞의 약간의 空地 한편에 改服廳을 설치하고 그 맞은 편에 악사들이 앉으면 三絃廳이 설치되어 놀이를 시작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막의 설비는 없고 등장인물은 개복청이 아니면 삼현청으로부터 등장한다. 원래 「산대」란 말은 山棚·綵棚·鰲山 등을 전부 포함한 범칭으로 잡희를 노는 一種 높은 무대배경이나 무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산대도감극」 또는 산대놀이라는 호칭은 한때 나례도감이나 산대도감에 속하고 「산대」라는 공의의 무대에서 놀던 때의 호칭을 물려받은 것이지만 공의로서의 뒷받침이 없어지고 민속극화된 뒤부터는 산대놀이터는 더욱 간소화한 야외무대가 되고 말았다.



경도잡지에서 산대극을 야희로 분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유래된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 (2) 특 징

양주산대놀이는 여타의 한국가면극의 연출형태와 마찬가지로 음악반주에 춤이 主가 되며 거기에 默劇的인 몸짓과 동작(科)과 臺詞로 德談과 才談이라고 하는 辭說(白)과 그리고 노래를 결들인다. 즉 가무적 부분과 연극적(희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좌, 연잎과 눈꼽적이, 왜장녀, 애사당, 소무, 노장, 원숭이, 해산모, 포도부장, 미얄할미역은 대사가 없고 춤과 몸짓(mime)과 동작으로만 연기하지만 그외의 역들은 대사와 춤과 몸짓 및 동작으로 연기한다. 그 대사의 특징의 일면을 들어보면 「덕담은 무당에서의 차용이고 재담은 나왔다는 출생했다로, 셋다를 빚(借金)을 쓰는 것으로, 죽었다를 새평이(莎萍里)쳤다(옛날에는 공동묘지가 사평리에 있었으므로) 곁말을 쓴다든가, 잣골(齋洞)에 먼젓골을 대응시켜 본다든가, 상대자를 부를 때 안갑을 할 녀석, 에밀할 놈아, 도둑놈아의 비어를 쓴다든가」하는 점을 들 수 있다. 凤山탈춤의 대사가 비교적 운문역양을 고집하고 있는데 비하여 양주산대놀이는 평범한 일상회화조의 대사이다. 그리고 음파 취발이의 대사는 이 놀이의 대사 중 白眉로서 관중의 흥미를 끌었고(그러나 취발이 대사는 너무 노골적이었으므로 취발이가 등장할 무렵이면 부녀관객들은 물려가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 말없는 탈의 연기에서는 노장의 웬터마임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시종 대사 한마디 없이 춤과 몸짓만으로 소무와의 파계과정과 弄戯를 훌륭히 한 과장의 놀이(pantomime)로 성립시키고 있다.

노래는 장단을 청하는 짤막한 불림과 그 밖에 매화타령·백구타령·천자풀이·무가 등으로 가지 수가 많지 못하며 그것도 덕담 외에는 첫 허두만 조금 부르다가 곧 재담이나 춤으로 바꿔 버리며 동작의 하나의 轉機的인 역할을 한다.

민속예능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출시간에는 제한이 없어 보통 밤 10시경에 시작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 그때의 흥과 형편에 따라 3~4시간으로 줄이는 수도 있었다. 이것은 주로 산대놀이의 대사가 口傳으로 일정치 않아 전체적인 틀이나 짜임새는 있으나 세부에 들어서는 신축이 자유로운 것과 또 그 춤도 신축이 가능한 데서 오는 것이다. 예전보다 지금은 대체로 줄이는 경향이 많다.

산대놀이의 춤의 반주악기로는 三絃六角 즉 피리 두개, 젓대 하나, 箏琴 하나, 장고 하나, 북 하나로 구성되지만 이 외에 꿩가리를 추가하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리와 장고만으로도 춤을 춘다. 반주악은 찾은 한잎, 삼현영산회상, 緩重한 염불, 리듬이 명확한 타령, 유창한 굿거리곡 등을 사용한다.

산대춤은 봉산탈춤이나 五廣大놀이의 몇 배 기춤에 비하여 비교적 典雅한 맛이 있고 형식미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아마 京畿人의 기질이나 궁중무의 영향 등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더 분석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춤사위의 분류는 어느 탈춤보다도 자세하여 그 속에서 한국민속무의 기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전하는 춤사위는 다음 항에 설명하기로 하고 가면을 설명 코자 한다. 가면은 봉산탈에 비하여 보다 사실적이며 등장하는 배역의 총 인원은 32 인이나 兼用하는 가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가면수는 보통 22개 내외가 된다. 각 가면마다 일정한 圖型을 갖고 있어 그 바탕에 의하여 제작되나 주로 재료가 바가지 이므로 제작자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다 편법화한 그 수법은 朝鮮的인 民藝의 매력과 美를 갖추고 있다. 增補文獻備考 卷 64 鬪條에 보면 仁祖元年(1623)에 궁중에서 나례에 종이가면을 쓰면 비용이 많이 드니 木假面이나 산대탈은 오래전부터 바가지탈이었던 것 같다. 산대탈은 목가면으로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의 23개(鄭台鉉교수의 감정에 의하면 목질은 피나무라고 한다)가 있는데 약 150년전 李乙丑의 제작이 아닌가 추측하나 확실치 않다. 그중 두 개의 목중탈은 하나는 검고 하나는 붉은 색인데 제작 수법이 달라 나무위에 밀가루떡 반죽을 바르고 그 위에 채색한 것으로 이러한 제작법은 오래된 것이라고 하며 가면 이면에 購買者가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 「楊州郡 退溪院里 山臺都監使用 景福宮造營時」라는 銘記가 墨書되어 있다. 이 명기대로 景福宮造營當時에 使用하였던 것이라면 1865年 이래의 것이 된다. 동박물관에는 이 목가면과 별도로 바가지탈이 있는데 이것은 1930년 박람회 공연 후 해산된 楊州山臺놀이의 趙鍾洵翁이 賣渡한 것으로 100여년 전의 申福興이 제작한 것이며 60여년 전 尹台均·李在漢兩人이 제작한 바가지탈을 그뒤 사용하다가 6·25 동란에 소실되었다고 한다.

수복 후 李長順·金星泰兩翁이 金成大씨 후원으로 다시 만든 바가지탈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최근 楊州山臺놀이에 使用하고 있는 바가지탈은 金成다가 제작한 것이다. 이밖에 고려대학교박물관이 40여개의 산대바가지탈을 소장하고 있고 윤호선작이라는 산대가면 一式을 崔常壽씨가 갖고 있다고 한다. 해외에 있는 것으로는 日本 天理大學 參考館에 21개의 산대가면(「박광대 二一面」이라고 대장에 기재되어 있다)이 수집되어 있다. 1933년경에 구득한 것이라고 하며 그 이상의 確實한 대장기록이 없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점검한 바로는 목중 하나의 입과 턱에 걸쳐 「天啓四年月日宮內山臺」라는 銘記가 먹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천계 4년은 仁祖 2년(1624)이 되는데 만일 이 銘記를 믿을 수 있다면 「宮內山臺」놀이의 존재가 確認되는 셈이다. 이밖에 창덕궁 창고에서 목가면 한 개와 다섯 개의 산대탈과 그리고 23개의 산대가면 한 벌과 도구를 촬영한 사진원판이 발견된 바 있다. 이러한 유물로 보아 공의로서 영조 이후 산대회는 停罷된 것 같으나 朝鮮末까지도 斷續的으로 宮中에서 假面戲를 演行시킨 것 같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이 10개의 산대탈을 소장하고 있다(이 역시 경복궁 지을 때 쓰던 것이라고 전한다).

朴俊燮 · 金星泰 兩翁의 말에 의하면 “한번 탈을 쓴 자는 조상의 제사를 못 지낸다는 말이 있으나”(탈에 대한 脱邪觀念에서) 그것은 부형들이 자기 자식들이 산대놀 이를 놀지 못하게 하느라고 이른 말이고 “자기들은 그걸로 인해 제사를 못지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래에 일반이 그들을 천시한 것은 사실이다. 산대탈도 공연 뒤 소각하거나 부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으나(놀이가 끝나면 탈을 불사른 것은 부정을 타지 않게 한다는 뜻과 함께 祈豐과 동네의 무사를 빌기 위하여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는 시사적인 이야기 <鳳山탈춤 演戲者 李根成談>는 유력한 證言이라 할 수 있다) 박준섭翁의 말에 의하면 양주산대탈은 그의 어린 시절(약 60여년 전)에 새젖골에 당집이 있어 그 당집에다 보관하고 해마다 改粧하여 썼고 당집이 없어진 뒤로는 捕盜部將役을 하던 盧益祚집에 보관하여 오다가 그의 별세 후 김성태의 집에 보관하여 왔으며 現在는 柳敬成 기능보유자(가면제작)가 보관하고 있다.

楊州山臺놀이의 科場別은 演戲者들에 의하면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또 현대 연극처럼 첫 장에서 끝과장까지 연속제로 된 드라마가 아니고 主題別로 된 몇 개의 드라마가, 말하자면 「옴니버스 스타일」로 한 테두리 속에 들어 있다. 다만 採錄者들에 의하여 제각기의 관점에서 정리하였음을 본다. 구술자들은 신장수(말뚝이)과장과 취발이과장 을 따로 독립시켜 전 10과장으로 나누었으나 이 두 과장은 그 성질상 노장과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한다. 또 흔히 산대놀이나 凤山탈춤을 더 세분하여 12과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무당굿 12거리, 판소리 12마당과 마찬가지로 12마당으로 맞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세분인 것 같다. 李杜鉉 教授의 採錄本은 다음과 같이 8과장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 <길놀이>

서 막 고사

제 1 과장 상좌춤

제 2 과장 음과 상좌

제 3 과장 목중과 음

제 4 과장 연잎과 눈끔적이

제 5 과장 팔목중

제 1 경 염불놀이

제 2 경 침놀이

제 3 경 애사당 복놀이



석 거 역



고 명 달

## 제 6 과장 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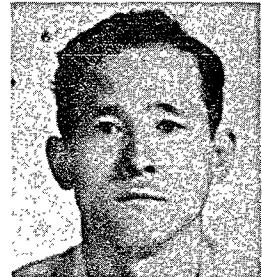
- 제 1 경 목중놀이  
 제 2 경 신장수놀이  
 제 3 경 취발이놀이  
 제 7 과장 샌님  
 제 1 경 의막사령놀이  
 제 2 경 포도부장놀이

## 제 8 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 (종장 굿)

현재 전하는 양주산대놀이의 내용은 산대도감계통극의 공통된 내용으로 朝鮮庶民文學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破戒僧, 몰락한 양반, 무당·社堂·하인 및 기타의 老幼庶民들의 등장을 통하여 현실폭로와 풍자, 好色, 웃음과 탄식을 보여주며 그 주제로는 (1) 辟邪의 儀式舞 (2) 과계승에 대한 풍자 (3) 양반에 대한 모욕 (4) 남녀의 갈등 (5)庶民生活의 곤궁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당시의 특권계급과 형식 도덕에 대한 일종의 반항정신을 구체적으로 연출하는 민중극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민속극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약점이나 時流의 惡弊, 당시의 豪奢를 부리던 계층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패래디 (parody)인 바 이러한庶民文學性은 임진·병자 兩亂 이후 새로 일어난庶民文化의 주류를 이룬 사조로서庶民藝術의 하나인 산대놀이도 예외일 수 없었다. 揚州山臺놀이 대사는 이미 다섯 種類가 발표된 바 있으나 여기서는 故人이 된 朴俊燮·金星泰 兩翁을 상대로 1958年 1月에 녹음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신순봉



김상용



유경성



노재영



함춘길



이명권

## 異見

배역 이견자	상좌	옹	목중	노장	완보	관쓴중	계
朴俊燮 金星泰	1	1	3	1	1	1	8인
金成大	2	1	4	—	1	—	8인

## (3) 山臺 춤

楊州山臺춤 명수로서 楊州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어보면, 첫째 上좌춤으로는 약 150년 전의 盧慶茂, 100년 전의 朴光鉉, 60년 전의 金壽安, 40년 전의 咸俊三·金順奉, 20년 전의 朴奇得·朴湘桓씨를 들 수 있다. 상좌춤은 봄맵시가 예뻐야 하고, 또 상좌춤·음춤·노장춤 세은 특히 산대춤의 기본이 되는 춤으로 그중 상좌춤은 어려운 춤이라고 한다. 노장춤의 명수로는 약 150년 전의 李乙丑, 100년 전의 申福興, 70년 전의 權奉國, 40년 전의 李建植·權晉九, 20년 전의 李學善·金星泰(1962年別世)·李長順(1963年別世)·朴東煥(1965年別世), 生存者로는 高明達씨를 들 수 있다. 음중춤은 150년 전의 劉寅燦, 100년 전의 金達元, 60년 전의 石性默, 40년 전의 朴重哲, 20년 전의 金昌洽, 그리고 朴俊燮(1959年別世)이 잘 추었다. 양주산대놀이의 최근의 명연희자였던 金星泰翁은 특히 노장과 취발이役을 잘 했으며 그의 부친 金盛運은 왜장녀役을 잘 했다. 왜장녀는 애사당 복놀이에 등장하여 허리가 드러난 婦人服에 배를 내놓고 미친듯이 날뛰는 춤을 추는데 이때 배꼽춤을 추게 된다. 金星泰翁의 배꼽춤은 그의 부친과 李昌裕를 본받아 배운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柳敬성이 배꼽춤의 계승자이다. 金星泰翁의 모친은 일명 음팽이 만신으로 양주일대에서 유명한 巫巫堂이었고 그의 부친은 巫巫堂書房으로서 다른 半農半藝의인 演戲者들에 비하여 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그의 사탕방을 산대놀이 집합장소로 제공하여 매일같이 연습하고 초청에 應하여 순회공연도 하여 산대놀이를 주관했다 한다.

이러한 巫業과 산대놀이와의 제휴는 가면제작자의 한 사람이었던 申順弼의 경우에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승냥이만신의 남편이었다. 아직 生存중인 趙英子는 음팽이만신의 神딸이었으므로 金星泰翁과는 수양 남매간이며, 金星泰翁의 아들 金相容은 3대 째 산대춤을 계승하고 있고 특히 목중춤을 잘 추며 그는 趙무녀를 고모라고 부른다. 이밖에 명수로서 약 60년 전의 鄭漢奎는 신하라비역을 잘 했고 李長順의 先親 李允西는 취발이역을 잘 했다. 약 60년 전의 李昌裕는 생님, 목중, 말뚝이역을 잘 했고 특히 배꼽춤을 잘 추었으며, 약 40년 전의 趙鍾洵은 취발이역을 잘 했다. 朴俊燮翁의 말에 의하면 포도부장놀이 끝에 정한규 당시까지 포도부장이 劍舞를 추었는데 그 뒤 배우지 못하여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生存者들의 보유종목은 후술하므로 현재 전하는 산대춤에 대한 설명을 옮겨보자. 楊州山臺춤은 크게 그(거)드름식 춤과 깨끼식 춤의 두 종류로 나눈다.

(7) 그드름식 춤에 속하는 춤사위는 다음과 같다.

伴奏曲은 靈山會上, 긴 염불, 염불곡(6박) 등이다. <①~⑥까지는 긴 염불곡, ⑦~⑩까지는 짧은 염불곡>

염불장단을 청하는 불림：「절수 절수 持花자 절수 조르르……」

#### ① 合掌再拜

상좌중만이 추는 것으로 合掌하여 天神께 고하는 춤이다. 바른손을 차츰차츰 들고 원손도 그같이 들어 험掌柜하는데, 전에는 합장재배에 15분이나 걸렸었다고 한다.

#### ② 四方치기

도포자락 또는 장삼자락을 머리 위에 펴서 두 손으로 잡고 주춤주춤하면서 한 방향 씩 돌아가서 재배하고 또 한 방향씩 돌아가서 재배하는 춤인데 이와같이 동에서 시작하면 남·서·북·동으로 반대로 돌면서 재배하는 것이다.

#### ③ 고개끄덕이

장삼자락을 바른손으로 어깨너머로 넘기고 고개는 좌우로 돌리면서 끄덕끄덕하며 三進三退하는 춤이다.

#### ④ 용트림

장삼자락을 펴서 두 손으로 잡고 바른편 다리를 앞으로 내놓고 원편다리를 뒤로 빼고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와 두 손은 장단박자에 의하여 원편으로 갖다가 다시 그 태도로 제자리로 와서 바른편을 잠깐 보았다가 제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와 같이 사방을 도는 춤이다.

#### ⑤ 돌단춤

장내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추는 춤이며 연풍대와 비슷한 것으로 神場에 잡귀가 범치 못하게 하는 춤이다.

#### ⑥ 伏 舞

老長이 엎드려서 세수도 하고 이도 잡는 동작으로 춤이라기보다 몸짓이다.

#### ⑦ 활개펴기

두 손을 펴서 들고 고개를 끄떡끄떡 좌우로 돌리면서 3보전진 3보후퇴하는 춤이다.

#### ⑧ 활개꺾기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시늉을 하는 춤으로 활개펴기에 준하는 춤이다.

#### ⑨ 팔뚝잡이

바른편 다리를 길게 내밀고 바른 손을 내뻗어서 구부리고 원손은 바른편 팔꿈치를 쥐고 고개를 끄떡끄떡하다가 주춤주춤 뒤로 3~4보 간다. 또 반대로 원편다리를 내놓고 이와같이 한다.

#### ⑩ 너울질

날아 보려고 요동하는 시늉의 춤이다.

#### ⑪ 三進三退

영산회상 염불곡에 맞추어 추는 춤인데 삼현청을 향하여 장삼자락을 후리쳐 돌돌 밀

아 두 손으로 잡고 후리쳤던 장삼자락을 다시 말아 가지고 뒷걸음질로 왔다 갔다 3회를 한다.

(1) 깨끼식 춤에 속하는 춤사위는 다음과 같다.

반주곡은 타령(4박), 잣은 타령(4박)이며, 승무와 검무에는 도돌이(6박), 굿거리곡(曲)이 쓰인다.

타령장단을 청하는 불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李太白이 노던 달아 태백이 飛上天後에 나와 사忤더니……」

「녹수 청산 깊은 골에 청룡, 황룡이 굼틀어졌다……」

「遠山 첨첩 昆山너머 태산이……」

「落日이 欲沒峴山西하니……」

「襄陽小兒 齊拍手하니 檻街爭唱白銅鞮라……」

「금강산은 좋다 말을 風便에 넌짓 듣고서 長安寺 쪽 들어가니 난데없는 검은 중이……」

#### ① 여달이

여달이문을 여는 동작을 비유한 것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가 다시 양 팔을 위로 치켜올리며 전면으로 내펴고 양쪽으로 올리며 다리는 바른편으로 갔다 원편으로 갔다 하면서 전진하는 춤.

#### ② 곱사위

「여달이」춤은 전진하는 춤이고 「곱사위」춤은 후퇴하는 춤이다. 이 손 저손을 어깨너머로 젖히면서 뒷걸음질을 하는 춤이다.

#### ③ 멍석말이

바른편 손과 원편 손을 번갈아 머리위 후두부로부터 전면으로 젖히면서 맴을 도는 춤이다.

#### ④ 팔뚝잡이

그드름식 팔뚝잡이보다 바른편 다리를 좁게 내디딜 뿐(약 8寸가량) 별 차이가 없다.

#### ⑤ 목잡이

두 손으로 뒷목을 잡고 두 다리로 다리춤을 춘다.

#### ⑥ 허리잡이

두 손으로 허리를 잡고 여러가지 궁동이짓 다리짓을 하는 춤이다.

#### ⑦ 갈지(之)자 춤

양편 소무 앞으로 갈지자형으로 춤을 추면서 왔다갔다 하는 춤이다.

⑧ 깨끼리

바른편 다리를 (ㄱ자형)으로 들고 외다리로 서서 삼현장단에 의하여 여러가지 손춤을 추고 또 반대다리를 들고 이와 같이 한다.

⑨ 자라춤

소무만이 추는 춤인데 바른 손을 머리 앞까지 올려서 손뼉(바닥)을 젖혔다 뒤집었다 하다가 내려놓고 또 원손도 이와 같이 하는 춤이다.

⑩ 까치걸음

이편다리 저편다리로 양감질하듯 깡총깡총하고 지면을 보면서 팔짓·다리짓을 하며 까치 걸는 시늉의 춤이다(스킵스텝과 투 스텝의 흡 중간쯤 되는 걸음).

(4) 가면 및 의상과 諸道具

양주산대 가면제작은 전에는 紙面·木面도 있었으나 근래는 바가지 타이 主이며 材料로서 바가지·松皮·韓紙·풀·아교·물감 등을 使用하며 金星泰翁의 말에 의하면 일정한 견본을 본뜨는 것이 아니라 눈에 익은 가면의 영상(생각)에서 만든다고 한다. 이 하에서 言及하는 가면 및 의상과 제도구는 1964년 楊州舊邑에서 사용중이던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① 上佐 2개

(첫 上佐는 도련님역 겸용)

(둘째 上佐는 서방님 겸용)

② 옴(여드름)

③ 목중(또는 먹중, 墨僧) 4개

(첫째 목중, 또는 元목), (둘째 목중, 또는 假목, 또는 代목), (세째, 네째 목중은 假목 또는 代목이라고도 하며, 허드래기 중이다.)

④ 蓮잎

(蓮잎을 天罡星 또는 天神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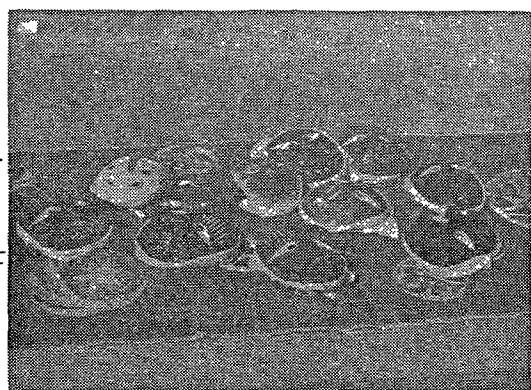
⑤ 눈끔적이

(눈끔적이를 地然星 또는 地神이라고도 한다)

⑥ 完甫(冠�� 중 또는 팔먹승이라고도 한다)

⑦ 新主簿

⑧ 왜장녀(해산어멈<공석어멈>, 도끼누 이를 겸용)



楊州山臺가면

⑨ 老長

⑩ 少巫 2개

(元소무(애사당 또는 당녀겸용, 前에는 애사당 假面은 겸은 머리채를 드리고 따로 있었다) )

(경소무 또는 假소무)

⑪ 말뚝이 (兩班의 下人役이나 신장수와 도끼를 겸용)

⑫ 원승이

⑬ 취발이 (醉發) (쇠뚝이 겸용)

⑭ 샌님 (언청샌님)

⑮ 捕盜部 (捕) 將

⑯ 신할아비

⑰ 미얄할미

### (5) 揚州 別山臺놀이 臺詞

[ 口述 : 人間文化財 朴俊燮 · 金星泰 ]

#### □ 길놀이 (거리굿)

山臺놀이 공연을 위하여 社稷골 堂집에서 假面과 諸道具를 내려다가 假面과 衣裳을 갖추고 동네 集合場所로부터 公演場所까지 行列하는 것을 거리굿 또는 길놀이라고 한다. 行列의 先頭에는 完甫와 옴중이 令欺를 들고 서있고 다음은 목중 하나와 말뚝이가 棍杖을 들고 그 뒤에 樂士가 길軍樂을 연주하면서 뒤따르고 (이때 三絃六角에 호적 · 팽가리 · 징들을 더 보탠다) 다음으로 노장, 소무들, 취발이의 순으로 서고 동네 유자들과 관람자들이 뒤따르며 공연장소로 향한다. 이때 마을에서 찬조를 받을만한 집앞에 이르면 行列을 멈추고 令旗를 세워 놓으면 대개 쌀이나 돈을 찬조한다. 또 각처에서 모여든 각종 상인들에게서 자리세를 받아 비용에 충당한다. 길놀이 일행 외의 연기자와 주최자들은 먼저 공연장소에 가서 改服廳 準備와 告祀 準備를 한다. 길놀이 일행은 공연장소에 이르러 노장과 소무는 改服廳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탈들은 놀이판에서 춤을 추고 나서 改服廳에서 놀이복색을 벗고 道袍 (또는 두루마기)만 입고 고사에 참례한다.

#### □ 서막 (序幕) 고사 (告祀)

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假面을 배열하고 그 앞에 젯상을 마련하고 演戲者 중에서 제판과 집사가 나와 고사를 지낸다. 22개 내외의 가면을 순서로 배열하되 그 중 「신하라비」와 「미얄할미」 가면을 年長탈이라고 하여 제일 윗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노장」과 「연잎」 가면을 놓고 나머지 가면을 차례로 (대체로 出演順) 배열하고 그 앞

에 젓상을 차려놓는데 제물은 祭酒(원래는 조라술이나 지금은 약주로 대신), 소머리 또는 돼지머리와 돼지다리(또는 돼지 한마리), 편·누름적·배·사파·대추·밤·곶감·삼색파일 등과 산자·강정·전어·포·북어 등을 놓고 燒紙 한권을 갖춘다. 제판이 술을 붓고 절을 하고 告祀말로써 순서를 마치는데 연희자와 관중의 무사를 빌고 이때에 燒紙를 올리며 이미 故인이 된 연희자들의 姓을 부른다(假面에 짓들여 있다고 믿는 神靈과 이미 故인이 된 연희자들의 靈魂이 加護하여 주기를 빈다고 볼 수 있겠다.)

#### □ 고사 지내는 말

維歲次年月日 楊州 社稷골에서 여러 선생님네들을 모셔놓고 각종 제물을 진설하고 祭 지내오니 받아 가지고 고이 돌아가시고 탁주 일배라도 잡술고 고이 돌아가소서. 자, 북어, 술 한 잔에다 고사합니다. 高선생이요, 柳선생이요, 鄭선생이요(노랫조로) 各人 각姓에 열에 열명이 왔었드래도 어른, 애, 노인 할 것 없이 맥에 돌아가셔서 궂구경허신 후에 뉘도 없고 탈도없이 도와줍소사.

#### 제 1 과장 상좌춤 (上佐舞)

첫째 상좌가 전복을 입고, 그 위에 또 도포를 입고 紅帶를 띠고, 고깔을 쓰고 개복청(보통 西側에 있다)으로부터 中央까지 걸어서 입장하고 中央지점부터는 총총걸음으로 三絃廳(樂士席: 보통 南面하였고 樂士뒤에 本部席이 마련된다) 약 10보 앞에서면 念佛曲을 연주하여 준다. 念佛曲에 맞추어 그드름춤으로 합창재배를 한다. 고개를 원편으로 향하고 오른손을 차츰차츰 흔들면서 올리고, 또 左手를 左手를 올릴 때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천천히 한데 모아 차츰차츰 허리를 굽히고 굽게 천신께 재배하는 춤이다. 다시 도포자락을 머리 위에 퍼서 두 손으로 잡고 사방을 돌며 사방치기 춤을 춘. 한 방향씩 돌면서 재배를 하고 삼현청 앞으로 가서 도포를 벗고, 상좌가 다시 손뼉을 쳐서(신호로) 타령조를 칭하면 약사들이 연주하는 타령조에 맞추어 상좌는 깨끼춤을 추고 삼현청 앞에 가서 쉰다(둘째 상좌도 염불곡에 맞추어 그드름춤과 팔뚝잡이춤을 추고 타령곡에 의하여 깨끼춤을 춘다. 그러나 현재는 둘째 상좌춤은 생략된다).

#### 제 2 과장 음파 상좌

음: (달음질로 改服廳으로부터 등장하여 5~6보 가량 장중으로 들어와 다리를 벼티고 서서 허리에 손을 짚고) 네에밀할 놈의 데 여러 해포만에 나왔더니 아래가 휘청 휘청하고 어찌 어수선하고나(막대기를 꺼내어 가지고 똑똑 두드린다).

상좌: (삼현청 앞 쉬고 있던 자리에서 뛰어 나와 막대기를 휙 뻐는다)

음: (깜짝 놀라 장삼자락을 휘두르며) 요런 말짱한 도둑녀석 얼굴은 백골천창이 다

된 녀석이 도둑질은 일쑤 잘하는구나. 요녀석이 막대기를 뺏어갈 때야 쇠꼬챙이를 볼 것 같으면 松都末年의 불가사리 모양으로 더 엄청나겠지 (제금을 치면서 장내를 돈다).

상좌 : (제금을 뺏어들고 음의 가슴을 앞 뒤로 탁 친다),

음 : 어 — 안갑을 할 놈이다. 요녀석 이 — 賊反荷杖이로구나 도둑질하고 사람을 쳐? 요녀석, 그러나 저러나 하던 지랄이나 다 했느냐?

상좌 : (삼현청을 향하여 손뼉을 쳐서 타령장단을 청하여 음을 열리는 춤을 춘다)

음 : 요녀석이 어른보다 車包五卒을 더 허는구나. 요런 안갑을 할 녀석 (타령장단에 맞추어 상좌와 춤을 춘다).

(한참 춤추다가 멈추고) 대방에 휘모라옛소.

(장고를 땡—꿍 쳐준다) 맹물은 아니구나 (장삼소매로 상좌를 후려치면 상좌는 삼현청 앞에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서 쉰다).

절수절수 지허자 자르르 (염불곡에 맞추어 용트림과 그밖의 그드름식의 춤을 추고 다시 타령곡을 청하여 깨끼춤 <또는 배기는 춤>을 추고 上佐 옆으로 가서 쉰다).

### 제 3 과장 목중과 음

목중(첫째) : (장중 입구에서 5~6보 가량 中央까지 걸어와서 다리를 벌리고 서서 허리에 손을 짚고 엉덩이를 휘저으면서) 예라 예라 예이러, 여러 하품만에 나왔더니 아래 위가 어찌 휘청 휘청하고 사대육신이 노골노골한 것이……야, 안됐다. 그러나 저러나 예전에 하던 지저귀나 한번 해보자. (장삼자락을 머리위에 가져다가 두 손으로 잡고 삼현청을 바라보며, 소영각하듯 길게 소리를 내어) 어어으 어어으 어 — .

음 : (삼현청 앞에서 「어—」소리를 듣고 벼락같이 일어서 나와 목중의 얼굴을 딱 떠린다)

목중 : (깜짝 놀라 장삼자락을 휘두르며 아프다고 허리를 구부리고 맴을 돌며) 이키 이게 웬일이냐. 아, 이게 어느 놈이 별안간에 사람을 채 나오지도 안해설랑 쳐.

음 : 나오지 안했음 제길헐 놈. 남 대방놀이에 와 육칠월 송아지 풀 뜯어먹고 영각하듯이 어어으 아아, 거 무슨 안갑을 하는 소리야.

목중 : 거 어떻게 하는 말이야. 내가 나오기는 부모 배 밖에 이제 나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대방들이판에 나오길 이제 나왔단 말이야.

음 : 웃—컷다. 네가 배 밖에 나온게 이제 나온게 아니라 대방놀이판에 처음 나왔다 는 말이야.

목중 : 영락없지.

음 : 내것이야.

목중 : 아이구 남의 것이야.

옴 : ( 목중을 딱 때리고 도망 )

목중 : 그러나 저러나 이놈. 치고는 당체 온데 간데가 없으니……사람이라는 것이 궁벵이도 밟으면 짤끔한다는데 황차 사람으로서 無罪間 사람을 치고 간 놈을 불들여서 한번 억살려 주어야지. 내 분이 안풀려서 못 견디겠다. 이놈이 대판절 어디가 사람을 치고 숨어틀어 백혔어. ( 장중에서 옴을 찾아가지고 양손으로 노벙거지를 꽉 잡고 이리 저리 돌리며 ) 이거 야 요놈 여기서 잘 만났다. 너 이놈 잘 만났다.

옴 : 왜 그래.

목중 : 왜 그런게 뭐야? 너 이놈 혼 생각 못해? 너 이놈! 아니야 애!

옴 : 아니야 이!

목중 : 너 그러나 저러나 그 쓴게 뭐냐.

옴 : 쓰긴 네밀할 놈 내가 뭘 써. 日收를 써 月收를 써?

목중 : 아니 이 자식아 어떻게 혼 말이냐. 너 대강이에 쓴 게 뭐냔 말이야.

옴 : ( 목중의 머리를 만져보며 ) 어디 네 대강이를 보자. 어이구 이놈이 병문에서도 놀지도 못한 놈이구나. 병문에서 놀면 허다못해 人力車꾼이라도 벙거지 하나 썼는데 이놈이 맨 상투바람으로 맹기는 여석, 산나룻꾼이로구나.

목중 : 야, 그러나 저러나 너 머리에 그 나불나불 하는 건 무어냐.

옴 : 너 알면 끔찍끔찍하다.

목중 : 야, 끔찍끔찍해도 좀 알고 보자.

옴 : 꼭 알려느냐.

목중 : 아, 영락없지.

옴 : 그래 져어! 으어——

목중 : 앗다 야 이녀석아 오뉴월 송아지란게 강변에 내다 놀 것 같으면 풀이나 뜯어 먹고 영각이나 하지, 남 衆人之視에 보여설랑 대방놀이 하시는데 와설랑 송아지 새끼 모양 영각허느냐……. 그 머리에서 나불나불 노는 게 뭐야.

옴 : 나불나불 한 거 말이지, 저 — 어 大國使臣 들어가실 적에 위에서 상사(下賜?) 하신 御賜花다.

목중 : 허허허 어 송화, 야 이놈 엄청난 놈이로구나. 아주 제 대가리에 쓴 거니깐두루 대길 엄청나게 높게 대는데 그래 어송화? 아 이놈아 어송화를 갖다슬랑 씌워줄 대강이가 없어 네 대강이에다 씌워줬어?

옴 : 나라에서 상사하신 거야. 상사하신 거야.

목중 : 나라에서 상사하신 거야. 더더군다나.

옴 : 이를 말이야.

목중 : 야 그러나 저러나 또 한가지 네 그 태두리는 뭐냐?

옴 : 옥누다 옥누.

목중 : 옥누? 두루미 잡는 거?

옴 : 그건 옥노자 이건 옥누야.

목중 : 그건 옥누고 이건 옥노야.

옴 : 영락없이 이를 말이냐.

목중 : 여! 추!

옴 : 이 당신!

목중 : 앗다! 그놈 제 몸은 정치게 춤네. 너 그러나 저러나 그 전체 대가리에 쓴 게 뒷이냐.

옴 : 그 너 알면 끔찍끔찍하다.

목중 : 야 끔찍끔찍해도 좀 알자.

옴 : 그 네 알면 미쳐 지랄을 해.

목중 : 아주 미쳐 죽드래도 한번 알아보자.

옴 : 꼭 알려느냐.

목중 : 아, 영락없지.

옴 : 그 여러가지다.

목중 : 여러가지면 다 종류가 있겠구나.

옴 : 그 이를 말인가.

목중 : 아, 해 봐라.

옴 : 저→종각 모퉁이에서 늙은 마누라가 수수 한되 띄르르 갈아 가지고 수수菹병 이라고도 허구 녹두 한되 갈아서 우거지 쟁쟁 썰어 넣고서 부친 빈대떡이라고도 허구 또 한가지는 노벙거지라고도 한다.

목중 : 얘 그것 참 이름이 장히 어렵구나 세가지 이름이로구나. 얘, 그러나 저러나 세 가지 중에 한가지는 필요없고 두가지는 필요헌데 내가 저녁 아침 먹은지가 여러 날이다. 시방 대단히 시장기가 나, 허니 너 말대로 빈대떡하고 수수菹병이거던 내가 좀 먹어야 겠다. 으드득(잡고 먹는 시늉을 한다).

옴 : 네 밀할 놈이 광증이 났냐. 衣冠도 먹어 이놈아.

목중 : 네가 의판이라고 그랬냐. 빈대떡하고 수수菹병이건 내가 배고픈 판에 먹을라고 했지.

옴 : 옳쳤다. 내가 수수菹병이라 빈대떡이라 해서 먹는다?

목중 : 아! 영락없지 엇! 중!

옴 : 이 당신!

너 그러나 저러나 이 제밀할 놈이 얼굴이 캉은대자 오치구 장은 자가웃이니 이놈의 얼굴이 어떻게 가로 맹진전가 거꾸로 맹진 놈인가. 그런데 이 대관절 좀 재 봐야겠다.

(목중의 얼굴을 손뼉으로 재껴한다)

목중 : 제 밀할 놈 남 얼굴을 재. 자벌레가 챙을 해 만들었나.

옴 : 자벌레만 재는게 아니라 하도 이상스러워 재 봤다.

목중 : (이번에는 옴의 얼굴을 더듬어본다) 그러나 저러나(노랫조로) 네 얼굴이 우툴두툴하고 또 꿀창꿀창하고 노릇노릇하고 파릇파릇한 것이 웬일이냐!

옴 : 내 얼굴이 누릇누릇하고 푸릇푸릇하고 희끗희끗한 것이 웬일이냐! 그런 말이지.

목중 : 영락없지.

옴 : 저—으아—江南서 나오신 戶口別星이 인물 취신 허실적에 전좌해 계시다.

목중 : (옴의 얼굴을 딱 치면서) 어—애이놈 참 엄청나구나. 강남서 나오신 호구별상에서 전좌허실 때에 너같은 인물에다 전좌하셔?

옴 : 너 어찌 하는 말이냐. 네가 근 모르는 말이다. 호구별상이 나오실 적에 班常之別을 가리지 않고 인물이면 다 허시는 거다.

목중 : 옳겠다. 호구별상께서 방방곡곡 面面村村이 사람의 인생의 인물이면 다 전좌하시는 데 너같은 개똥짜배기 얼굴악지에도 하고 나같은 양반의 얼굴에도 전좌하신단 말이지.

옴 : 거 이를 말이냐.

목중 : 저! 중!

옴 : 왜 그래.

목중 : (옴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보고) 예끼 이 잡놈 같으니라고 어디가 진옴을 친 뜩 올려 가지고 와설랑은 뭐 호구별상이 전좌했느니 어송화니 옥누니 개수작 다하고 이 멀쩡한 알도둑녀석아 어디 가 아주 진담을 올렸구나. 진짜 담을(전신을 긁적긁적 긁으며) 에이쿠 가려워 아이구 가려워.

옴 : 네밀할 놈, 남의 얼굴을 가지고 용천치랄을 하고 뺏다 박았다 개지랄을 허더니 이젠 허다못해 혈 말이 없으니까 이놈, 날더러 옴을 올랐다구? 여봐 쫑!

목중 : 왜 그랴.

옴 : (분해서 소매를 걷고 싸움을 하려 덤빈다) 뭘 올려.

목중 : 옴을 올려.

옴 : 뭘 올려.

목중 : 아이구 얘얘 고만둬라. 아주 이놈이 사람을 잡아 먹을랴네, 아주 옴도 안올리고 대패로 짹싹 밀고 반들반들하다. 그만둬라.

옴 : 그러면 그렇지 네밀할 놈. 내가 옴을 차독같이 올리는데 그놈이 제가 물려서 나더러 빤들빤들 한다네 또.

목중 : 어이 참. 그놈 참 고약한 놈 다 보겠다. 아주 웬 못된 도적녀석을 만나서 아주 오늘 재수 한푼어치 없겠다. 얘 그러나 저러나 너 하던 지랄이나 다 했느냐.

옴 : 어느 제밀혈 놈이 하던 지랄을 해 (불림으로) <금강산이 좋단 말을 풍년에 넌 짓 들고서……명기덕 꿩기덕> (타령조에 맞추어 팔뚝잡이, 깨끼리, 여다지, 곱사위, 명석말이춤을 춘다)

목중 : (신이 나서 처음에는 엉덩이짓, 어깨짓만 하다가 옴과 맞춤을 춘다)

옴 : (허리잡이춤으로 엉덩이짓 고개짓을 하면서 목중을 놀린다. 목중이 후려치니 엄어맞고 삼현청 앞으로 쫓겨온다)

목중 : 아—하. 어 그 참 엄청난 놈이로구나. 어디가 얼굴악지에다 진음을 잔뜩 올려가지고 와설랑 날더러 캐니 뭐니 뭐 별 개수작을 다하고 아—그 참 재수없다. 그러나 저러나 예전에 하던 지저귀 지랄이나 한번 해볼까 대방에 휘모라였소— (장고「떠영 띡」하고 받는다)

목중 : 옛키야 넷장 혈거. 참 맹물은 아니로구나. (불림으로) <저얼수 저얼수 지화 허자 조르르르 명 명 — 꿩 명 꿩> (염불곡에 맞추어 사방치기, 팔뚝잡이, 삼진상퇴, 날개펴기, 꼬덕이춤을 추고 다시 장단을 타령곡으로 바꾸어 깨끼리, 여다지, 곱사위, 명석말이춤을 추고 삼현청앞으로 가서 장삼을 벗고 쉰다)

(이때 2,3,4, 목중들도 차례로 깨끼춤을 추고 등장하여 삼현청 앞 첫목 옆에 가앉는다)

#### 제 4 과장 蓮잎과 눈끔적이

연잎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앞서고 눈끔적이는 장삼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뒤따르며 出入口에서 3,4 보 안쪽으로 들어서면 목중들도 삼현청 앞에서부터 걸어 나와 半圓型으로 서는데 음중은 레에 끼지 않고 레밖에 선다.

옴 : (음중서부터 연잎을 돌아본다. 불림으로 장단을 청한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타하백 (李太伯) 이가 노던 달아 명 명 명기덕 명 명 명덕> (타령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가까이 가서 연잎의 얼굴을 들여다 보며) 이크! 대방이 무섭구나 (놀라서 도망쳐 삼현청 앞 제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목중 (첫째) : 앗다. 이 네밀할 놈이 나가면 기절절사를 해 가지고들 오니 그 뛰이 나왔길래 그래, 사나이 대장부란 것이 여간 앞에 뭐 있다 해도 邪不犯正이지 제에기 밤에 꿈에 뜸물에 맹긴 자식 같으니라구 내 양반 나가서 놀래지 않고 감쪽같이 맨져오는 걸 봐라. (불림으로) <瀟湘斑竹 열두범죽 후리쳐 잡고서……명덕덕 꿩덕덕 명그덕 닐리리리 닐리리 닐리리> (눈끔적이를 돌아보고 놀라서 타령곡에 맞추어 춤을 추며 삼현청 앞 제자리에 물려와 앉는다)

연잎 : (염불곡에 맞추어 중앙에서 부채놀이 춤을 춘다)

눈끔적이 : (목중을 쫓다가 염불장단에 맞추어 돌단 춤으로 연잎을 감싸며 연잎 주위를 2,3회 돌고 개복청으로 퇴장한다)

연잎 : (타령곡으로 장단을 갈아가지고 팔뚝잡이, 깨끼춤, 여다지, 곱사위, 명석말이 춤을 추고, 역시 개복청으로 퇴장한다)

### 제 5과장 팔 목 중

#### 〈제 1경〉念佛놀이

完甫가 개복청으로부터 입장하여 깨끼춤을 추면서 삼현청 앞 여러 목중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상좌 둘, 목중 넷, 음과 완보를 합쳐서 8목중이라고 한다고 하고, 목중 넷 중에 冠쓴 중이 포함된다고도 하고, 또는 完甫와 冠쓴 중은 같은 것이라고도 하며, 또 여러 목중을 가리키는 汎稱으로 팔목이라고도 한다.

완보 : (꽁무니에 껑과리를 쳤다. 목중들이 있는데 와서) 너 모두 명색이 뭐냐.

목중(첫째) : 우리가 중이다.(삼현청을 向하여 8목중들이 半圓型으로 섰다)

완보 : 중이면 절간에서 염불이나 하지 너, 이 땅궁한 데가 당하냐.

목중 : 그래 그렇지 않다. 않은 것이 우리가 걸은 중일지라도 속은 멀쩡한 오입쟁이가 아니냐.

완보 : 옳—겼다. 너희가 걸은 중이라도 속은 오입쟁이라.

목중 : 아, 영락없지.

완보 : 그럼 가사도 할 줄 알겠구나.

목중 : 다 할 줄 알지.

완보 : 그럼 우리 중이니까 염불부터 해봐야 한다.

목중 : 그래 염불허세.

완보와 목중들 : (합창) 나무아미타불, 나무할미타불, 나무어미타불.

목중(관쓴 중) : 나무할미타불.

완보 : 얘 얘 얘.

목중 : 왜 그려, 왜 그려.

완보 : 이게 무슨 안간을 할 짓이냐.

목중 : 아 왜 그래, 난 너 허는 대로 난 불르는데.

완보 : 우린 중이니까 두루 나무에 미타불 하는데 너는 나무할미타불하니 그 네가 反常 하는게 아니냐 佛道를.

목중 : 너 그 몰르는 소리야. 너는 한 道가 얇으니까 나무어멈타불이지 나는 너보다 한도가 높으니까 나무할미타불 불렀어.

완보 : 옳—겼다. 너는 도가 한 층 높다.

목중 : 안잡을 할 녀석아 영락없지.

완보 : 나는 한 층 낮고?

목중 : 그렇지.

완보 : 얘 그럼 그러지 말고 그렇게 허는게 아니다. 우리 중이 여럿이니까 무슨 말이든지 여럿 가는 대로 가야지. 너 혼자 유독 그렇게 아니니깐 너 우선 우리 나무에 미타불을 부르는데 우리축으로 들어오너라.

목중 : 그 너 말대로 들어가 옳겠니?

완보 : 거 이를 말이냐.

목중 : 나 거 들어가기가 쉽은데, 도를 왜 작여 들어가니.

완보 :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건 그렇게 가는게 아니다.

목중 : 얘 그럼 들어보자.

목중들 : 나무에 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에 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목중 : 야 그깐엔 좋다.

완보 : 여부가 있나 그렇게 하는거지.

얘 얘 우리가 중이라 이거 했으니까 우리가 걸은 중이라도 속은 오입쟁이니 우리 가사나 한번 해볼 게 아니냐.

목중 : 아 그 참 우리가 다 배운거니 해 보자.

목중들 : (가사조로) 단풍은 반만 들고 시냇물은 푸르렀다. 방방이 단풍이요 끌끌마다 산국화라.

목중 : 아 이 어떠냐, 참 멋있다.

완보 : 야 팬찮다. 우리가 걸은 중이라도 속은 오입쟁이가 분명하구나.

목중 : 암 분명하지.

완보 : 얘 얘 얘.

목중 : 그랴.

완보 : 우리 그것만 해서 쓸 수가 있느냐. 허니깐두루 우리 옛날 그 백구타령이 있는데 白驅打令을 한 번 해 보자꾸나.

목중 : 얘 그 좋다. 우리 하는대로 해서 한번 더 해 보자.

완보 : 아, 그래 이를 말인가.

완보와 목중들 : (팽파리 치면서 노랫조로)

백구야 껑청나지 마라.

너를 잡을 내 아닌데

聖上이 버리시니 너를 쫓아 여기 왔다.

五柳春光 경개 좋은데

백마타고 花柳갈까.

목중(첫째) : 어느 제밀할 놈이 하루를 가, 이틀을 가고 사흘을 가지.

목중들 : (불림으로) <금강산은 좋단 말을 풍년에 넌짓 듣고서……> (신이 나서 타령곡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목중 하나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간다)

완보 : 얘야 아 무슨 안갑을 할 짓이냐. 우리 중들 두고 네가 혼자 경총 뛰어 나가니 그려질 말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목중들 : (노랫조로)

三清洞 다간 후에 桃花洞 두 동이로다.

慶尙道로 나려서서

모시 닷동 베 닷동,

忠淸道로 올리 달아

광목 닷동 무명 닷동,

사오 이십 스무동을

돌돌 말아서 걸어지고 ,

聞慶 새재를 썩 넘어서니

난데 없는 도적 놈이……

목중 : 난데 없는 도적 놈이 소상반죽 열두마디 후리쳐 담아서……(신이 나서 춤을 춘다)

완보 : (노랫조로) 염불이면 독경이나 하지.

세존님께 자손 창성 發願하자.

어느 자손 발원하나.

상남에도 서방님, 중남에도 도령님.

어깨너머 설동자며 귀한 얘기 길러낼 제,

일년은 열두달 과년은 열석달,

일년 내내 태평이 무사히 ……이—에

(합창) 아호해 에—로구나.

목중 : 야 암만해도 중들이 놀아나서 우리 사중이 좋지가 못하겠다. 시속의 말이 사중이 부족하고 불적시면 부처님 개금 잡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절간이 사무성해야 할 텐데 모두 이렇게 각단이 돼서 안되니깐두루 우리 절에 대해서 德談 한마디를 해야겠다.

완보 : 아 그 좋은 말이지. (팽과리를 친다)

## 목중 : (노랫조로)

海東은 朝鮮國 三十七官 결렸구나.  
 李氏 漢陽 등극적에  
 鳳鶴이 넌짓 걸렸으니,  
 봉학을 눌러라 대궐 짓고  
 대궐 밖에 六曹로다.  
 육조 밖에 五營門  
 각도각邑을 마련할 제  
 往十寺 靑龍이요  
 둉구재 만리재 白虎로다.  
 李氏夫人 마마께서  
 물 아래 출입하옵신다.  
 어떤 배를 박아타나 남구배를 박아타니 남구라고 썩어지고,  
 돌배를 박아타니 돌이 풍당 갈아앉고,  
 흑토선을 박아타니 흑이라고 풀어지고,  
 종이배를 박아타니 종이라고 미어지고,  
 무쇠배를 박아타니 무쇠라고 봉이 솟네.  
 뒷동산을 올라가 연잎 맷잎 쪘르르 훑어,  
 紅貢綬으로 선을 돌려  
 금성지간에 뜻을 달아,  
 앞으로는 앞사공 뒤로는 뒷사공,  
 좌우 옆에는 목사공 한 가운데 화장아비,  
 그는 그대로 하려니와  
 義州 鴨綠江 씩 건너서  
 의주 구경을 나갔네.  
 의주 부인 마마께서  
 子孫昌盛 發願일세  
 어떤 자손 발원인가  
 상남에도 서방님, 중남에도 되련님,  
 하남에 옥동곁은 귀한 애기  
 어깨너머로 설동자,  
 가지 붓듯 오이 붓듯 무력 무력이 자라나,

그 얘기 점점 자라나  
 일곱칠세 되었구나  
 글자를 가르치나  
 어떤 글자를 가르치나  
 千字 幼學에 童蒙先習, 詩傳・書傳・孟子・論語를 다 통하니  
 漢陽城內(합창으로) 만파를 뛴단 말을 바람 風便에 넘짓 듣고,  
 房子놈의 擧動보소.  
 馬廄 삼간 뛰들어가  
 사산나굴 끌어내 솔질을 활활  
 말안장이며 달안장에  
 술구반장 번쩍 띠어,  
 되현님치장 볼작시면  
 동대 피레는 만제작,  
 청사도포 흑사도포  
 흑은걸은 검은머리  
 반달같은 화룡소  
 훌훌솔솔 비껴,  
 전반같이 넓게 따서,  
 궁초 맹기 사각 물며,  
 맵시있게 들여놓고,  
 애기 치장 볼작시면,  
 열두쪽은 마디치마  
 일곱쪽은 동자치마,  
 세폭 네폭은 행주치마,  
 가위밥으로 남은 것은  
 글무꺼정 마련하고,  
 백지를 옆에 끼고  
 시지를 품에 끼고  
 원양 청청 걷는 말,  
 안부당에 집차타고  
 경성 한양 썩 들어서,  
 光化門력을 당도했네 .

광주 분원의 당사기 연적,  
 물 한방울을 떨어뜨려,  
 부용당에 먹을 갈아.  
 黃毛無心방 출두 훌신 줄어,  
 백문설화 잔지상에 이리 저리 그려놔,  
 그 글 한장이 으뜸될 제,  
 어른 광대는 저를 불고  
 아이 광대는 춤을 추고  
 동네 방성 뛰들어오니,  
 예전에 같이 놀던 친구 내다 보고 저런(합창) 경사가 또 어디 있나.  
 (둘째 上佐, 음중, 목중(1), 完甫만이 남고 나머지는 退場한다)

〈제 2 경〉 침놀이

上佐, 음중, 목중(1)이 차례로 깨끼춤을 추면서, 삼현청 맞은 편에 가 선다. 목중(말뚝이)이 入場하여 자식들(상좌, 음, 목중) 있는 곳에 왔다가 完甫를 찾아 가지고 다시 자식들 있는 곳으로 온다.

목중(말뚝이) : 야 너 잘 만났다.

완보 : 왜 그랴.

목중 : 다름이 아니라

완보 : 왜

목중 : 아들 손주 정손주, 내까정 사대가 나왔는데……

완보 : 너까지 사대가 나왔어.

목중 : 그래 명궁하는 바람에 구경을 나왔더니 이 녀석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길래 돈냥이나 돈푼 쳤더니 뭐를 사 먹었는지 관격이 되었는지 이 녀석들이 급살로 죽은 모양 겉으니 너는 아는게 많고 하니 이제 가서 보면 날 듯해서 널 찾지 못했더니 마침내 너를 만났으니 참 다행이다. 허니 너 어찌 좀 허겠느냐. 너 가서 곧 볼 밖에 없다.

완보 : 허허허 거 막연하구나. 너 알멋기 내 뭐 의사니 의술이 있느냐. 혼데 너도 오죽 막막해 나더러 그런 소리를 하겠니. 대단히 급한 모양이로구나.

목중 : 다시 할말이냐.

완보 : 그럼 친구 일 생각 허든지 의리를 생각허든지 안 가볼 수 있니. 대판절 그래 가보자. 죽지는 안했니.

목중 : 죽고 산 것 모르니 네가 담책을 져 주겠으니 네가 담책을 져.

완보 : 아 이 녀석이 경각도 모르고 왔어. 가자 하여간에 (병자들을 다 보고나서)야,

이거 냄새가 나는구나 별씨.

목중 : 그 새 썩었을까.

완보 : 아 글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구나.

목중 : 그 좀 만져봐.

완보 : 얘 얘 얘 (목중을 가리키며) 술 좋아하니 ?

목중 : 술독에 빠져도 원이 없다.

완보 : 술 좋아하지 .

목중 : 영락없지 .

완보 : 그럼 너의 동네에 양조장 있겠구나.

목중 : 양조장 있어,

완보 : 양조장 술독에다 거꾸로 빠져 죽은 자식이다. 거 뻘건것이 죽어도 술이 취했다. 아직 갤 날이 멀었어. 또 얘는 (목중을 가리키며) 얼굴이 아주 周堂熬을 맞고 이거 어째 귀마구니 하고 다 죽어 아주 그냥 五六月 삼복더위에 된별에 내리 썩어 놓은 것 같구나. 얘 너의 동네 찬칫집 있니 ?

목중 : 찬칫집 있지 .

완보 : 너희 동네 초상집 있니 ?

목중 : 아 이 사람 많은데 초상집 찬칫집 없을리가 있나 ?

완보 : 얘 찬칫집에 가서는 주당살을 맞고 초상집에 가서는 아주 웬 못된 상문인 동해설랑 壊門熬을 맞았어. 얘가 아주 두가지 병에 다 걸려 죽었는데 이거 아주 고개를 흔들어 보니깐두루 뭐 아주 굳은 지가 오래다. 이건 그렇고 얘 얘 요거 참 ! (상좌를 가리키며) 얘 나이 몇 살이냐 ?

목중 : 열댓살 됐다.

완보 : 열댓살 됐어 ? 음통했겠구나.

목중 : 그거야 알 수 있느냐.

완보 : 야 요놈이 요 새큰새큰하는 바람에 요즈음 마당병이 들어 죽었구나. 아주 앤죽은지 여러 백년이 되었다. 얼굴이 백호천창이 된 것이 아주 뼈다귀만 허옇게 되었구나.

목중 : 그렇게 널 불렀어.

완보 : 허 이것 큰 일 났구나. 거 얘들이 혹 신명하다 빠져 죽지 안했을까.

목중 : 그러게 널 부른 거지. 신명풀이나 한번 해 봐라. 살면 여행이고 죽으면 할 수 없지.

완보 : 허 이것 참 큰 일 났구나. 나야말로 내가 실없이 큰 예거리를 만났구나. 얘 그러면 얘들이 혹 나와설랑 명구덩 하는데 신명에 미쳐설랑 혹 신명에 체했을런지 알 수 없으니깐두루 내가 백구타령 한마디만 해서 거기 좀 살아날 가망이 있으면 내가 차차 다 하구,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나도 헐 수 없다. 다른 방침으로 놀아 보자.

목중 : 글쎄. 그럼 얘들이 죽으면 네가 담당해야 해.

완보 : (팽파리치며 노랫조로) 백구와 껑청 나지마라 너 잡을 내 아닌데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쫓아 여기 왔당.

五柳春光 景概 좋은데

백마 타고 花柳갈까.

목중 : 어느 제밀할 놈이 하루를 가, 이틀을 가지 사흘 나흘 가지. (불림으로) <녹수 청산 깊은 골에 청룡 황룡이 꿈틀어 지구서……> (춤을 추려고 한다)

완보 : 얘 얘.

목중 : 왜 그래.

완보 : 난 물라. 난 모를 것이, 야 이 자식아 너도 낫살 헷먹은 자식이지. 그래 네 머一代 二代 三代 四代 나와서 몇-뚱에 자식들을 머 이렇게 죄 죽여 놓구 너도 막막해서 나를 청하려 와서 나하구 둘이 의논껏 살려 내자고 허는 자식이 내 백구타령하는데 왜 미쳐 뛰어 나가니. 왜 이 자식아 어찌고 어쨌어 ?

목중 : 그 네가 모르는 말이다. 헛갓 쓴 놈 노인복도 있는데 그 놈은 죽은 놈은 죽었거니 난 신이 나서 뛴다.

완보 : 오 신이나 !

목중 : 영락없지.

완보 : 신명이 취핸 전 분명 헌데 말이지, 쫌짝쫑짜 저 끝에서부터 허더니 다시 안 죽어 버렸다. 난 허는 수 없어.

목중 : 야 그래도 혈 수가 있나. 네가 어떻게 살려봐라.

완보 : 내가 또 살려 봐? 아 이런 제질할 놈. 내가 이거 머. 얘 그럼 한 좋은 수가 있어.

목중 : 어떤 수란 말이냐.

완보 : 뭐 난 그 위엔 더 혈 수 없구. 여기가 시방 젯골이라고 하는 동네다. 이 젯골에서 살다가 먼짓골로 이사해 간 신주부가 계셔. 헌데 그 의술이 방불하구 아주 용허단 소문이 굉장히다. 경성시내꺼정 다 퍼졌어. 헌데 시방 가도 그 양반이 몸이 빌는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여간 가봐야 하지 않니? 거길 가서 신주부를 모셔 가지고 올 것 같으면 나하고 의논껏 해설당 저 자식들 살려낼테니 너 갔다 오너라.

목중 : 거 가봐야 옳을까.

완보 : 아 가봐야지. 그럼은

목중 : 갔다가 만일 없으면 어떻거노.

완보 : 아 이런 제밀 어떻게 이런 놈 처음 보겠네. 잔 봐야지 하여간에 .

목중 : 거 헛걸음이나 안할까.

완보 : 글쎄 가 봐야지.

목중 : 나 냉겨 음세.

완보 : 냉겨 와.

목중 : ( 신주부를 모시려 간다. 장내를 여러번 돌고서 ) 잿골서 살다가 먼짓골로 넘어가신 신주부 맥이 어디냐?

악사 : ( 나무하는 아이 말로 ) 네 조리 가 봐라.

목중 : 얘얘 내 거 안간다.

완보 : 왜 안가?

목중 : 잿골너머 먼짓골너머 가다가 한 산비탈에서 나무하는 아이 하나 있길래 그 아이더러 신주부 맥이 어디냐 깐두루, 요 아랫 동네 가 물어 봐라 하니 그 날더러 그놈이 해라를 하니 해라를 듣고는 자식이 죽드래도 나는 안간다.

완보 : 허허 이런 바닥이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이놈아 해라가 아니라 널 따귀를 치며 개들이 가르켜 주드래도 거길 가야지 자식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 좀 보자 이런 빌어먹을 자식, 맨 상투바람으로 땡기니 너 어른인 줄 알겠니 아이로 알지. 그야 조그만 아이두 같은 저동문들 알고설랑 너두 욕한거 아냐. 너 나 좀 볼련?

목중 : 가봐라, 네가 어디.

완보 : ( 장내를 몇번 돌고 ) 얘얘 잿골서 살다가 먼짓골로 이사가신 새로 났다고 새신자(字) 신주부맥이 어디냐?

악사 : ( 아이소리로 ) 아 조리 넘어 가 보십시오.

완보 : ( 목중보고 ) 자 어떠냐 봐라 난 분명한 어른이거든 의관도 쓰고……

목중 : 그럼 이걸 내가 다시 또 가봐야 할까.

완보 : 가 봐.

목중 : 내 냉계 음세.

완보 : 냉계 와.

목중 : ( 가다가 다시 와서 완보에게 ) 거 헛걸음이나 안했으면 좋겠는데.

완보 : 갔다 와 봐야지.

목중 : 내 냉겨 음세. ( 한참 가서 ) 신주부—

신주부 : 어느 제에 밀 불을 놈이 신주부야.

목중 : 어찌 하는 말이요. 성이 신씨가 아니라 새로 났다고 새신자(字) 신주부요.

신주부 : 왜야.

목중 : 그런게 아니라 신주부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四代가 구경을 나왔다가 일석들이 모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 鍼醫術이 용허다는 말씀을 듣

고 신주불 찾아 왔으니 신주부가 가서 좀 살려주우.

신주부 : 너 사대가 나왔어 ?

목중 : 네.

신주부 : 그래 너가 사대가 나왔으면 난 五代祖가 분명하구나 너여가 내 침 아니면 너인 걸손했다. 가자 가자 ( 두 사람이 병자있는 곳으로 와서 ) 그래 재들이 어디 드러 누웠단 말이냐 ?

목중 : 번소가 여기요.

신주부 : 뭐 ?

목중 : 번소가 여기요. 당신이 제밀 불들고 기왕 왔으니 당신이 책임을 지구 내장근 하든지 에미를 불든지 허오. 난 모르겠소.

신주부 : 이게, 이놈이 뭘 만났구나. 내가 얘얘얘

목중 : 왜 그러세요.

신주부 : 요것 봐라, 아유 깜찍히 죽었다. 온색이 나이 열댓살 된 녀석인데 산천 무조개 용두질이 재려서 요녀석이 음마정병이 들었다. 이건 용한 의사라도 못 고친다. 아이구 그놈의 자식 얼굴은 광대뼈하고 잘 생겼는데, 얘가 술을 먹을 줄 아는구나. 술이 잔뜩 취해서 뒤졌어. 허니깐두루 오리나무 장승 제물 취색해논 것 같다. 이 얼굴빛 봐라. 아이구 이 한 놈 이놈은 흥 ! 큰 일 났다. 이 얼굴빛이 질부댕이빛 같으니 이놈이 초상집이나 잔칫집에 가설랑 주당살이나 重服煞을 맞아 죽었다. 이건 별 재주 없어 . 고치는 수 없다. 난 간다.

목중 : 가진 네에밀 불을. 사람을 죽여놓고 가 ? 당신이 갖다 물든지 생각해 하오.

신주부 : 이거 큰일 났구나.

목중 : 맥시나 어디 좀 보오.

신주부 : 맥슬 봐야 그렇다. ( 목중의 증손자인 상좌의 새끼 손가락을 불들고 맥을 본다 ) 이놈을 어디 줄까 .

목중 : 네에밀 불을 것 어딜 줄줄 알면 내가 주게 목심데길 찔르려무나 이놈아. 네 밀일지이지 삼지혈을 준다드구만 이놈은 새끼손가락부터 주면 어떻게 살리는 거야.

신주부 :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야. 얘가 죽은지가 여러 수십년이 돼서 온 신의 몸의 피를 한데로 몰아가지고 삼십삼단 방방곡곡에 찔려야 이놈이 대변에 사는 거다.

목중 : 옳겠다. 의술은 각각이니까 네가 살려만 봐라. ( 신주부가 뒤에 가서 차례로 침을 찌르면 깜짝놀라 한 놈은 발림을 하고 나가고, 한 놈은 불림으로 <금강산>을 부르고 자진거리를 추고 나가고 또 한놈은 깨끼리를 추고 나간다. 신주부도 깨끼춤을 추면서 退場한다. 목중과 完甫 兩人도 맞춤을 추고 퇴장한다 )

〈제3경〉 애사당 복놀이(법고놀이)

목중들(상좌 2명, 목중 4명, 음중, 완보)이 개복청으로부터 입장하여 三絃廳을 향해 일렬로 서고 완보가 팽파리를 요란하게 치고 목중 하나가 법고를 치면 왜장녀가 장삼을 걸어지고 미친년 날뛰듯이 춤을 추면서 애사당을 데리고 입장하여 애사당은 남쪽으로 가서고, 왜장녀는 팔목중들에게 와서 얼굴을 때린다.

목중(1) : (왜장녀에게) 이게 무슨 양갑을 할 짓이냐.

왜장녀 : (목중에게 아는 체를 한다) <애사당을 가리키며 제 딸인양 한다>

목중 : 이 네밀할 년 또 딸 그런 것 너의 집 있니.

왜장녀 : (아이구 우리집에 있는데 두 몇이 다라는 시늉을 한다)

목중 : 아이구 이 집팔아 먹을 년아, 가 빨리 데려 오너라. 돈은 만냥 주마.

왜장녀 : (그래, 데려오마고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애사당 앞에 가서 손짓 몸짓으로 돈을 닷냥 준다고 같이 가자고 한다>

애사당 : (싫다고 머리를 흔든다)

왜장녀 : (돈 열냥을 애사당에게 준다)

목중 : (왜장녀에게) 가 술상을 채려오너라. (애사당에게) 자 이자리를 꿈쩍말라.

(노랫조로) 열시구 절시구(합창) 경기가 좋구나 아아— 좋구나.

왜장녀 : (술상은 복, 술잔은 팽파리로 대용하여, 복을 들고 나와서 술을 팽파리에 다 따르고 자기가 먼저 마신다)

목중 : 이년아 네가 먼저 먹어 육시를 할년아.

왜장녀 : (酒床을 치우고 나면 상좌 둘과 목중 둘은 퇴장하고 왜장녀는 장단에 맞춰 깨끼춤을 추고 나서 퇴장한다)

애사당 : (법고채를 들고 나와서 음중과 목중이 들고 있는 법고를 치며 법고춤을 한창춘다.)

목중(1) : (별안간 애사당에게 달려들어 법고채를 뺏으며) 앗다 요년 요런 배라 먹을 년 같으니라구, 요년 벅구(법고)치는 것이 벅구채를 잡아도 못 본 년이지. 벅구치는 년이 그저 조고리, 치마, 단속곳, 너른속곳, 그저바지, 죄입고 뛸 전복까지 결들여설랑 요런 벼락을 맞다 죽을 년(애사당은 쫓겨간다) 앗다 요런, 아이 고년 쫓겨 들어가는는데는 걸음 걸는 소리가 고 사투리에 뒷물은 어찌 안했던지 그저 걸음 걸는대로 예전 줄쌈지 찢는 소리가 짜악 짜악 짹 나는구나. 아이구 고런 배라먹을 년 요년 어른 벅구치는 걸 봐라. 벅구라는 것이 베얼거 벅구서 한번 멋있게 치지 고개 무슨 양갑을 할 것이냐(딱하고 복치는 소리) 똑똑 들어맞지. 애 요것 봐라. 어떠냐 맛이.(딱) 요렇게도 쳐보구(딱) 요통게도 쳐보구 자 멋이 어떠냐. 앗다 제밀할 년 고년 배라먹을 년 아이구 저년 뛸 콩콩 콩콩 녹두녹두녹두 아이구 고년 아양, 저런 개같은 년.

완보 : (달려들어 목중과 옴이 들었던 법고를 빼앗는다. 목중(1)은 헛손질을 한다.  
목중과 옴은 이때 퇴장한다) 았다 그 제밀할 놈 남 벽구치는 걸 흥보더니 그놈 벽구 잘 친다. 꽤니 아침을 안먹었나 헛손질을 하게.

목중 : 아 그 무슨 안갑을 할 짓이야.

완보 : 왜 그래.

목중 : 아 오문 온다구 기별을 허구 오지.

완보 : 네밀할 놈 벽구 못친다고 남의 흥을 보기에 벽구 잘 치는 줄 알았지.

목중 : 아서라 그러지 말구 북을 한 번 잘 들어라. 내 고르게 칠게.

완보 : 그래 !

목중(딱 ! 딱 ! 딱 ! 딱 ! 이때 완보가 북을 낮게 내리면 북채를 헛친다)

완보 : (계속 북을 낮게 내리고 있다)

목중 : 이걸 어떻게 치겠느냐?

완보 : 저거 무슨 안갑을 할 북치는 거야. 아 이놈아 이걸 못 쳐.

목중 : 거 못치겠다.

완보 : 아 이놈아 물구나무를 서 못쳐.

목중 : 오오 물구나무를 서 한번 쳐 봐라.

완보 : 물구나무를 서 못쳐.

목중 : 얘 아서라. 그러지 말고 잘 들어 봐라(완보가 법고를 높이 듦다) 아 이놈아 높아서 치겠느냐?

완보 : 아 이놈아 사다리를 놓고 못쳐?

목중 : 아서라 그러지 말고 잘 들어 봐라. 한번 잘 해 보자(법고를 완보 등에다 지운다)

완보 : 그래(노랫조로) 허언 가마솥 동박이려 허언 가마솥 동박이려. (목중이 烹아가 법고를 땅 친다) 네밀할 놈 남의 물건이 있는데 物各有主라 각각 임자가 있는데 남의 물건을 덮어 놓고 와 건드려.

목중 : 야 그 제밀할 게 그게 이름이 뭐냐?

완보 : 이름이 여러가지다.

목중 : 여러가지면 이름이 다 있겠구나.

완보 : 영락없지.

목중 : 거 좀 알아보자.

완보 : 넌 알면 미쳐 지랄해 못안다.

목중 : 그래 좀 알아 보자.

완보 : 그래 이게 애명은 북이요. 자는 법구다.

목중 : 그래.

완보 : 이거 한번 땅 칠 것 같으면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구 웅장해서 네가 이 소릴 들 군 미쳐 지랄해 뛰어 나가. 그러면 못쓴다.

목중 : 애 그래 대단히 좋다. 한번 쳐보자꾸나.

완보 : 아 그래 정 치고 싶어?

목중 : 치고 싶다.

완보 : 미쳐 지랄을 해도?

목중 : 좋다. 미쳐 지랄을 해도 좀 쳐 보자.

완보 : 그래 (땅! 하고 한번 쳐 보이고) 어떠냐?

목중 : 따는 좋다.

완보 : (목중이 치려고 하니까 법고를 짊어지고 동쪽으로 간다)

목중 : (법고를 치려다가 못치고 헛손질을 한다) 아이 제 밀할 놈 거 무슨 안갑을 할 짓이냐 그리가게.

완보 : 나도 네 밀붙을 걸, 신이 나니깐 그리 갔다.

목중 : 얘애애 너 이녀석아. 동쪽으로 갈 것 같으면 넌 그렇고 그렇다.

완보 : 동으로 가면 왜 그래.

목중 : 동으로 갈 것 같으면 넌 네 에미를 네가 붙어.

완보 : 동으로 가면 내가 네 에미를 붙는단 말이지.

목중 : 그래.

완보 : 동으로만 안가면 팬찮지.

목중 : 영락없지.

완보 : 그래 ! (목중이 법고를 치려고 하니 완보가 서쪽으로 돌아선다. 목중이 또 헛 손질을 한다)

목중 : 아 이게 무슨 안갑을 할 짓이냐.

완보 : 왜 그래.

목중 : 아 이놈아 동으로 가면 맹세한다고 그려 잖았니.

완보 : 그래 서로 갔어.

목중 : 오, 동쪽으로 가면 맹세했으니깐 서쪽으로 갔단 말이지.

완보 : 영락없지.

목중 : 얘 이놈 참 잡뱅이 입고 댄님 칠 놈이로구나. 꽤 꽂꽃현데. 네 그럼 동쪽으로 가두 네 어밀 날 주구 서쪽으로 가두 너 어밀 날 얹지루 맬긴다.

완보 : 오 동서로 갈 것 같으면 너 어머니를 날 갖다 얹지로 맡기구, 그래 동서로만 아니 가면 팬찮단 말이지.

목중 : 앗다 그랴.

완보 : 그래 ! ( 법고를 젊어지고 남쪽으로 돌아간다 )

목중 : 아 이거 무슨 제밀 불을 짓이냐 ?

완보 : 아 이 제밀할 놈 어떻게 허는 말이냐. 네가 동서로 맹세를 했으니깐 남으로 갈 밖에 있나.

목중 : 옳지 . 동쪽 서쪽은 맹세했고 남쪽은 맹세 안했으니깐 남쪽으로 간다 그 말이지.

완보 : 영락없다.

목중 : 아이구 그놈 참 영악도 하다. 너 동쪽 서쪽 남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너 집안 식구나 다 갖다준다.

완보 : 오 동서남을 헐 것 같으면 네가 네 에미를 날 줘 ?

목중 : 그랴.

완보 : 앗다 그래라. 동서남만 안가면 괜찮다.

목중 : 아 그려 ( 법고를 치려고 하는데 완보, 북쪽으로 돌아간다 ) 아 이게 무슨 제밀 불을 짓이냐 .

완보 : 아 제밀할 놈 동서남으로 했으니깐 난 북으로 갈 수 밖에

목중 : 오 세군덴 맹서하구 한군덴 맹서 안했으니깐 그렇게 간단 말이지 .

완보 : 영락없지 .

목중 : 얘 이놈 안되겠다. 암만해도 이번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가면 그렇다.

완보 : 동, 서, 남, 북을 다 가면 그렇단 말이지 .

목중 : 그랴 !

완보 : 그럼 안가면 괜찮겠구나.

목중 : 영락없지 그래 .

완보 : ( 법고를 지고 맴을 돈다 )

목중 : 아 이거 무슨 제밀할 짓이냐 .

완보 : 네밀할 놈 어떻게 한 말이냐. 동서남북을 맹세했으니 난 갈데가 없으니깐 뻥 뻥 돌았지 .

목중 : 오 동서남북은 다 맹세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깐 뻥 뻥 돌았단 말이지 .

완보 : 영락없다.

목중 : 너 뻥 뻥 돌아도 네 에밀 불을 놈이다.

완보 : 뻥 뻙 돌아도 그래 ?

목중 : 그래 .

완보 : 그래 ! ( 목중이 법고를 치려는데 법고를 벗어 버린다 .)

목중 : 이거 또 무슨 지랄을 허는 거냐 ?

완보 : 네 밀할 놈 뻥뻥 들아도 그렇다니깐 두루. 난 노물밖에 난 짚어지지 않았으니깐 괜찮겠지.

목중 : 아주 북을 내려놨단 말이지.

완보 : 영락없지.

목중 : 얘 이놈 안되겠다. 네 이놈. 발 꽉 모으고 서라. 너 요놈 세워놓고 설랑 뻥뻥 발그림자가 나도록 새겨야겠다. (완보를 쁨짝 못하게 발 주위에다가 금을 긋구서) 구두 요령계 논 것처럼 요령계, 너 이렇게 허문 금안에서 놀아야지 금밖에 만일 나갔다면 네 에밀 불을 놈이다.

완보 : 여보, 여러분, 갓에서 구경하신 손님들 다 구경하오. 그래 이놈이 금밖에 나갔소 어연놈이 금밖에 나갔소.

목중 : 허허허 자 할 수 없다. 이놈은 꽤 팽팽한 놈이야. (불림으로)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룡이 굽트러지구서 뒤틀러지구서……> (목중과 완보 둘은 타령곡에 맞추어 맞춤을 추고서 함께 퇴장한다)

### 제 6 파장 노 장

#### 〈제 1 경〉 파계승놀이

목중들이 한 사람씩 깨끼춤을 추면서 입장하여 삼현청 앞에서 출입구를 향하여 늘어선다. 노장이 상좌(둘째)를 앞세우고 등장한다. 노장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등장한다. 목중들은 입구에 들어선 노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움부터 차례로 하나씩 춤추고 가서 보면 노장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질만 한다. 움이 먼저 춤추며 노장한테 갔다가 깜짝 놀라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른 목중이 또 노장한테 갔다 놀라서 제자리로 도망쳐 나온다. 여기 나온 목중들이 모두 이렇게 한다.

완보 : 예끼! 못난자식 얼굴은 다 썩었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그리 놀래느냐. 이놈들아 사내 대장부가 사불법정이지 무엇이 그리 무서워서 그리 야단이냐. 내가 보고 오마 (타령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노장 앞에 가서 노장을 본다)

완보 : (껄껄 웃으며) 신님 다라나 계시오.

노장 : (좋아서 고개를 끄떡끄떡하고 부채를 퍼서 부치며 너울질 한다)

완보 : (모든 중을 나무라며) 老僧께서 절간에 계시다가 내려와설랑 요지부동인데 너희들은 철없는 자식들이지 말씀 한 마디 분부면은 어느 지경에 갈지 모르는 것인데 웬 뭐이 좋다고 껌총 뛰느냐. (노장한테 가서) 그러면 백구타령 일판을 죄다 해. 또 르르 맞아설랑은 양귀에다 콩 막아 줄 것 같으면 비위에 맞겠습니까?

노장 : (좋다고 고개를 끄떡인다)

완보 : 아이구 그건 좋아서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는구랴. 그럼 백구타령 일판을 해드릴테니 안심하시우.

목중들 : (노랫조로) 백구야 경청 나지마라

오류춘광 景 賞觀대

백마금련 花柳 갈까

옴(중) : (백구타령을 하다가 신이 나서 춤을 추고 나오며) 어느 제에 밀혈 놈이 하루를 가 이틀 사흘 나흘을 가지. (불림으로) <금강산을 좋단 말을 풍년에 넌짓 듣고 서……> (노래에 신이 나서 춤을 춘다)

완보 : 얘야 이 미친 자식아. 너도 철없이 낫살이나 먹은 자식이 시방 스님이 내려 설랑 별짓을 다해 디려 모실려 해도 당체 요지부동이신데 뭐 넌 좋아 껑청뛰느냐 허니 암만 신명이 나도 참아라.

옴 : 네 밀혈 스님은 암만 노해도 난 신명나서 그런다.

완보 : 오 신이 나드래도 참아라.

목중들 : (다시 노래를 부른다)

三清花 花開洞에

桃花洞도 동이로다.

동소문 밖을 썩 나서서

안암동도 동이로다.

경상도로 나려가서

모시 닷동 베 닷동,

충청도로 올리 달아

광복 닷동 무명 닷동,

사오 이십 스무동을

돌돌 말아서 짊어지고,

문경 새재를 썩 나서니

난데없는 도적놈이……

옴 : (신이 나서 불림으로) 난데없는 도적놈이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황룡이 ……> (다시 춤을 춘다)

완보 : 얘야 이 미친 놈아. 역시 아까 타일려도 또 마찬가지란 말이다.

옴 : 난 신이 나서 그래, 암만 노승이 노해도.

완보 : 얘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 허니 야 모실 수밖에 없다.

노장 : (부채로 완보 얼굴을 치며 음을 가리킨다)

완보 : 술령수우.

목중들 : 예 —이—

완보 : 얼굴 검붉고 노병거지 쏟 놈 잡아들여라.

목중 : 예이 잡아들였소. (옴을 잡아들인다)

완보 : 그놈을 까 엊어라.

목중 : 예이 까 엊었소.

완보 : 그놈을 혈장 허구두 대매 물고를 올려라.

목중 : 예 지당한 분부을시다(옴을 엊어놓고 곤장 몇대를 친다) 대매에 물고를 올렸습니다.

완보 : 자 이제 우리가 연평 조개잡이를 가자.

목중들 : 거 좋지(팽과리를 치며 배노래를 부른다)

여기야 저기야 강화로다

어흐야 어흐야 강화로구나

야할, 야할, 야할, 야할, 자 대라.

보리 동냥갈까. 대라

보리 동냥을 갈까 밀 동냥을 갈까 대라.

(노래를 부르며 노장을 장중으로 모신다. 노장을 장중으로 모시는 것을 연평바다에서 큰 고기를 잡아오는 것으로 비유했다. 노장을 삼현청 앞에다 엊어놓고 그 주위를 맴을 돋다)

완보 : 얘얘얘 이거 큰 일 났구나. 큰 고기 잡았구나. 이거 우리가 조기잡일 갔드니 여 용왕께서 우리 먹으라고 생선을 내리셨구나. 얘 이거 불가불 우리가 여럿이 노나 멱이 하자. 혼데 요 대가리는 누가 먹으려느냐.

상좌 : (노장 머리를 만지며 먹겠다고 한다)

완보 : 앗다 요녀석아, 魚頭鳳尾라니 드루 요 죄교만 녀석이 앙큼스럽게 네가 맛있는걸 먹어(중간 토막은 음중, 아래 토막은 완보가 먹는 시늉을 하고 나서 노장을 둘러싸고 춤을 추고 상좌로부터 전부 개복청으로 퇴장한다)

노장 : (목중들이 모두 퇴장하고 나면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눈꼽도 빼고 이도 뒤는다. 의복은 남루하며 지팡이를 두 손으로 짚고 일어나려 하다가 한번 쓰러진다. 다시 일어나려다 반쯤 쓰러지고 나중에 간신히 일어난다. 그리고 주춤주춤 여러번 맴을 돌다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부채는 바른손에 들고 장삼자락으로 염불장단에 맞추어 그드름춤을 추고 다시 타령장단으로 바꾸어 명석말이, 곱사위, 화장무 등을 춘다)

소무 : (이 때 소무 둘이 등장하여 노장을 가운데 두고 자라춤을 춘다. 노장은 대부분 소무 사이를 갈지자춤으로 왕래하면서 한 소무 앞에 가서 고개를 끄떡이면서 흡족해 한다. 또 다른 소무에게도 그렇게 한다. 노장이 한 소무의 입도 빼어먹고 겨드랑이도 빼어 먹으나 소무가 이를 막아한다. 또 다른 쪽 소무 앞으로 가니 가슴을 떠밀며 막아 한다. 노장은 노하여 송나을 벗어버리고 장삼을 찢어버린다. 그리고 장중에

서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한다. 돈을 잃고 화가 나서 공기도 놀아보고 여러가지 짓을 한다. 소무들이 노장이 벗어버린 장삼을 들고 다시 오라고 손짓한다. 노장은 거절한다. 다시 한번 소무들이 노장을 청하니 노장은 찾아가 장삼을 입고 춤을 추며 같이 논다. 허리띠를 끌러서 소무 하나를 동여매고 연도 날려보고 갖가지 놀이를 하다가 염주로 소무들의 목을 걸어 가지고 세 사람이 장내를 돌다가 삼현청 앞 원쪽에 가 앉는다)

### 〈제 2 경〉 신장수놀이

신장수(말뚝이) : (원숭이를 보재기로 써워 업고 등장하여 물건 파는 소리를 된다)  
진피 발막에 부녀신 사려 —

노장 : (신장사 앞으로 가서 부채를 휘 쳐서 얼굴을 부채꼭지로 툭 치고 물려선다)

신장수 : 이키! (깜짝 놀라며) 에키머니야 이게 뭐냐 아침에 해장술 석잔을 먹었더니 얼굴이 지지비얼거니까 남산 독수리란 놈이 고기 쫑뎅인줄 알고 설탕은 채갈려고 하니 깨먹혔다가는 이판에 왔다가는 얼굴 잊어버리겠다. (다시 장사외는 소리로) 진피 발막에 꽂당혀 사려 —

노장 : (다시 신장사 앞에 와서 부채를 휘 편다)

신장수 : 옳겠다. 雁隨海 蝶隨花 解隨穴이라 게가 궁글을 찾지 궁글이 게를 찾으라 물건 팔녀석이 살 사람한데로 오너라 이런 말이로구나. (보재기에 쌈 원숭이를 내려놓고 노장 앞으로 가서 채죽으로 땅바닥을 탁치며) 어째 불려 계시오.

노장 : (부채를 번쩍 들어보인다)

신장수 : 네, 물건을 사시려구요? 물건을 살 것 같으면 몇치 몇치 쓰시렵니까?

노장 :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를 가리킨다)

신장수 : 네 여섯치는 당신 할머니 신키구 다섯치는 당신 어머니 신킬려고 그러시오.

노장 : (부채와 머리를 가로 흔든다)

신장수 : 네 그럼 다시 알아 모십니다. 여섯치는 당신 큰 마누라를 신키구 다섯치는 당신 작은 마누라를 신킬려고 그러시오.

노장 : (고개를 끄덕거린다)

신장수 : 이 안갑을 헐 녀석아 네 비위에 맞는 건 좋아서 아주 돼지 대가리 흔들 듯 흔드느냐. 몇치 몇치 쓰시렵니까?

노장 : (부채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뺏는다)

신장수 : 이런 제밀 붙을 자벌레가 중때돼서 만들었소. 제기는 왜 재오 예예 알아 들었소. 대관절 값은 언제 주실려오.

노장 : (부채를 번쩍 들고 손으로 가리킨다)

신장수 : 네, 윤, 동짓달 스무 초하룻날이요? (땅바닥을 치며 결결 웃는다. 벌떡 일어

나면서 장중에다 대고) 세상에 여려분이 여기 남녀노소없이 많이 계시지만은 윤동짓  
달 스무 초하룻날도 있습니까? 이런, 도적 녀석을 만났구나. 오늘 이거 어찌 물건 많  
이 팔 줄 생각했더니 아주 이녀석한테 큰 도둑 맞겠다. 대판절 가 짐이나 풀어야지.  
(원숭이를 탁 때린다)

원숭이 : (보재기 속에서 발딱 일어난다)

신장수 : 얘 내가 물건을 팔랴구서 저어 건너 조그만한 기와집이 있는데 그 뒤에 후  
정으로 돌아가면서 물건을 도부칠 때에 그 담이 무너져 담무너진데로 고개를 기울여  
보니깐두루 계집들이 앉어서 뭘 허는지 허는데 하나는 그저 그럴듯 허구 하나는 어깨  
가 광파증하고 궁뎅이가 둥글납작직한 것이 아주 절묘하더라. 허니 너 그 계집을 네 수단대로  
가서 빼면 가지고오면 너두 홀애비고 나도 홀애빈데 나는 밤에 자다가두 그렇게 허구. 밥먹다  
가도 생각이 나면 그렇게 허구, 또 우리 부모가 돌아가설랑 친구헌데 조상발다가도 그 생각만  
나면 들어가 그렇게 허구, 뺄래도 해서 매일 깨끗하게 좋은 새옷 입고 너는 밥먹다가도 못허구  
뺄래두 생전 못해 입어. 깍쟁이풀 허구 넌 좋지도 모두 못하는 걸루 일이다. 허니 너 가 수단  
껏 잘 빼오너라. 헌데 내가 너를 좀 공부를 시켜야 겠어. 허니 너 나 하라는대로 글 좀 배워야  
겠다. (원숭이의 양발을 갈라 세우고, 양팔을 허리에다 짚게하고) 나 허라는 대로 해라.

원숭이 :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발발 떤다)

신장수 : 앗다 요녀석아 멀지말아라. 야 요녀석아. 겨울 동지 설달 만났느냐 멀진 왜  
떠느냐. 멀지말고 나하란 대로 잘 공부나 해 잘배애(노랫조로) 곤지 곤지 고고온지,  
짝짜꿍, 짹짜꿍, 쥐암 쥐암 쥐쥐암, 질라래비 훨훨, 대양푼에다 갈비찜 소양푼에도 엉  
계찜, 용햇닭이며 광햇닭이며 두메꿩, 대양푼에도 갈비찜 소양푼에도 엉계찜…… (멀  
고 있는 원숭이를 보고) 앗다 이거 멀지말아. 왜 요렇게 떠느냐. 아 고녀석 설명은 하  
다 재주는 좋아 정신은 좋구. (노랫조로)봉지 봉지 봉지요 깨소금 봉지도 봉지요, 후  
추봉지도 봉지요, 고추봉지도 봉지요, 계수나무 요본틀 네어미 셉에도 내 쫓탕…… 아  
요녀석아 네에미 셉에 내 쫓탕도 좋아. 요녀석이 아이구 고녀석 좋은 것두 많다. 헌데  
자식이 세명하게 생겼어. 눈깔허구 아주 정신 좋게 생겼어. 얘 그만허면 쓰겠다. 허니  
너 아까 일른대로 가설랑은 그 계집을 빼오너라.

원숭이 : (손바닥으로 장단 신호를 치면 타령장단이 나온다. 장단에 맞추어 명석말  
이 춤을 추고 소무를 유인하려 간다. 홍쾌자 자락을 후리쳐 얹고 소무당 앞뒤를 둘다  
가 소무당의 어깨에 손을 얹고 뺨을 대보고 다시 외설한 시늉을 한 춤을 추며 신장사  
앞에 와서 신장사의 얼굴을 탁 친다)

신장수 : 그래 가서 어떻게 대판절 허구 잘 냉겨 왔느냐.

원숭이 : (곱사춤을 추면서 몸짓으로 제가 가서 먼저 그 계집을 숙국을 질르고 왔다  
고 한다)

신장수 : (원숭이를 때리며) 네가 먼저 가설랑 숙국을 질르고 왔어? 그래 나는 대관절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난 옹색하니깐 두루 너라도 엎어 놓고 벽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허니 어서 엎데라. (원숭이를 엎어놓고 그 장난하다가 채죽으로 불기짝을 훼 칠진다)

원숭이 : (깜짝 놀라며 명석말이 춤을 추면서 개복청으로 퇴장한다)

신장수 : (역시 타령장단에 맞춰 춤추면서 개복청으로 퇴장하고, 노장과 두 소무는 그대로 삼현청 앞에 남아있다)

### 〈제 3 경〉 취발이 놀이

취발이 : (귀름가지 껴어 들고 장중에 등장하여 출입구에서 5,6보 걸어와 선다) 예이 네 — 밀털놈의 데를 나오니깐 괴상한 내가 난다. 상내가 코를 쿡쿡 찔르니 이게 웬 상내야, 워려, 이이익!

노장 : (취발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부채를 훼 편다)

취발이 : (놀라서 물러 서면서) 네밀힐 것 술 서너잔 먹어 얼굴이 지지버얼거니깐두루 상봉독수리가 꾸미자반인 줄 알구 후후 넘나들구 이거 깨딱하다간 얼굴 잃어 버리겠다. (사방을 기웃 기웃하면서 독수리를 쫓는다. 노장 앞에 가서) 오려—이—익!

노장 : (부채를 다시 훼 편다)

취발이 : 솔개미 곁으믄 벌써 달아났을텐데 이게 무슨 괴상한 일은 착실히 났구나. (손을 이마에 대고 노장 근처에 가서 바라본다) 허허허 얘 네밀 불을, 절간 중놈이 인가에 뇌려와서 계집 하나도 아닌데 계집 둘씩 데불구 농탕치구. 이런 허무한 세상 봐라. 이놈아 저거 네가 될 일이야.

노장 : (부채를 훼 펴서 소무를 가려준다)

취발이 : 아 이놈아 날 보구 내우시켜.

노장 : (소무의 손으로 자기 배를 문질게 한다)

취발이 : 이놈아 거위배 앓느냐, 네밀할 놈의 배를 문질르게. 얘 네겐 그게 다 당치 않다. 승속이 可異어든 중놈이 절간에서 천수천원 觀自在菩薩 광대음마 대다라니나 불르고 있지, 인가에 내려와서 네가 계집 데리고 농탕치니 저거 될 일이냐. 저 놈을 어령결까 네겐 당치 않아. (노랫조로)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나비 나(녀)두 가자.

구시월 세(새) 단풍에

된서리 맞아 낙엽져……

연한 물동데미를 붕부나무를 들어가거니와 네가 당하냐. 너하고 나하끌랑은 만첩창산 깊숙현 굴속에 들어가 둘이 눈깔이 부옇두룩 서로 치기나 하다가 한세상 보내자.

노장 : (싫다는 봄짓을 한다)

취발이 : 아 그건 싫여. 저런 안갑을 헐 놈 보게. 저놈을 금강산으로 놀리나 潛湘班竹으로 놀리나. (불림으로) <소상번죽 열두 매디 후르쳐 잡고서……> (춤을 춘다)

노장 : (타령조에 맞추어 취발이와 맞춤을 춘다. 취발이 허리잡이 춤을 추는데 노장은 부채족지로 취발이를 후려친다)

취발이 : 아 얘 딴은 중놈이 억세기는 억세다. 그러니까 두루 계집 둘 씩 데리고 놀지. 그렇잖음 제가 계집 하나도 어려운데 참 억세다. 이놈 내 너한테 한번 맞기는 맞았다마는 참새가 죽어두 짹 한다구 한번 해 보자.

노장 : (장삼을 벗어 뒤에다 찬다)

취발이 : 아이구 저놈 보게. 날 잡아 먹을려나, 나를 때리고 쫓더니 벗어 에라 이놈 너두 벗으니 나도 벗어 보겠다. (창웃을 벗어 땅에다 놓고서) 이놈 馬山이 무너지자 平澤이 깨지나 어디 해보자. 참새가 죽어두 짹한다구 내 이놈 너한테 한번 맞구 쫓겨 갈 리가 있느냐. (관중을 향하여) 여보 여러분 구경하신 손님네 여기서 봄 조심하는 이는 피허우. 여기서 깨딱허믄 살인 나오. (불림으로) <綠水青山 깊은 골에 靑黃龍이 꿈트려 지구서……> (춤을 춘다)

노장 : (취발이와 맞서 같이 깨끼리 춤을 춘다)

취발이 : (노장 옆으로 가서 등을 탁 치니)

노장 : (소무 가랭이 밀으로 쭉 들어간다)

취발이 : 옳다, 제밀헐 놈이 한번 맞드니 아주 거거무신이로구나. 저거 둘 다 내 계집이 되고 알았다. <절수 절수……> (하며 춤을 추고 한쪽 팔을 어깨에다 메고 들어가니)

노장 : (소무 가랭이 밀에서 고개를 쭉 내민다)

취발이 : (깜짝 놀라 돌아선다) 이건 무슨 짓이요, 산중 짐승이 점잖은 짐승이 이 부정한 인간엘 뭐 하러 나왔단 말이요, 돌아가시지요. 쉬이 쉬이 쉬이.

노장 : (소무 가랭이 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고개를 내민다)

취발인 : 저게 저하고 나하고 노자네. 저런 안갑을 할 놈, 쉬이 쉬이 쉬이……(들었던 나무가지로 땅을 친다)

노장 : (드디어 소무 하나를 데리고 퇴장한다)

취발이 : (퇴장하는 소무를 보고 놀린다) 저년은 중서방 해간다. (남은 소무하나를 데리고 춤을 추며 논다. 불림으로)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황룡이 꿈트려지구서……> (취발이는 까치결음춤 소무는 자라춤을 춘다)

취발이 : (소무의 어깨에 팔을 얹으며) 할머니——아 이건 네에 밀 불을 이게 무슨 안갑을 허는 짓이냐. 할머니라니 이런 망발이 있나. 이 망발을 털어야겠군. 사람이 점잖

온 사람이라도 계집한테 눈이 어두워 노면 헤는 수가 없어. 英雄烈士도 소용없단 말이야. (다시 나와서 춤을 추고 들어가서 팔을 들면서) 어머니——아 이거 망발이지 이럴 수가 있나. <금강산은 좋단 말을 풍년에 넌짓 듣고……> (춤을 추고 다시 들어가서 소무를 끼고서) 마누라! 그러면 그렇지 제밀 불을 것 이제야 물 부어 샐틈이 있겠나. (소무앞에 드려눕는다) 네가 절간에서 중놈허구 낚잡이나 잤지 너 이런 오입쟁이 만나 가지고 니가 가사야 들어 봤겠느냐. 너 가사 한번 들어 보려느냐. (가사조로) 乾坤이 不老月長在하니 寂寞江山이 今百年——. 어떠냐(일어나서 춤을 추고 머리가 풀어진 것을 보고) 이런 제밀할 내가 계집한테 훌려서 머리풀구 놀았으니 남이 보면 부모상이나 당한 줄 알겠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상투를 찬다) 상투가 이 벤장할 것 아흔아홉 번을 넘어가도 남는구나. 머리가 어떻게 좋은지. (상투 잡고서 노랫조로) 상투 아 권투요 기집애, 하 죠 기집애 시다마다 자라춤 쳐라 철철철이 절시구 (춤을 추고 나서 소무의 뒤치마를 들고 치마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때 살아도 베밀헐 것 후정 구경을 못했어. 어디 후정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후정은 따는 좋진 좋다. 육동땡이도 앉아 하겠다 어찌 넓은지. 아구 요런 안갑을 할 년 봐라. 중놈허고 어찌 낚잡만 차서 뒷물은 생전 안해서 고린내가 삼년 묵은 조기것 썩는 내가 나는구나 울르르르!(약간 토한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아까는 뒤 후정을 구경했지만 시방은 앞정을 내정을 구경 한번 하자. (앞치마를 들고 들여다 보고) 아이구 얘이 네밀 불을 찬솔발보다 웬땡이로구나. 요걸 뺏아가지고 해금쟁이나 주었으면 해금집도 넉넉히 하겠다 아이구 요런 안갑을 할 년 같으니(손가락을 넣어 털을 빼 가지고 나와 한손에 쥐고) 얘 이 거웃이 어떻게도 긴지 이것을 다른 해금잽이 출데니 해금줄을 해서 아무쪼록 장단 잘 맞추되 이렇게 맞추어라. (노랫조로) 깡깡 깡깡 끼가깡깡 꽁꽁 꽁꽁 깡깡……(손을 소무의 치마밑에 넣고서 소문 속에다 손가락을 넣어 휘둘러 보니 그 속에서 공알이 까딱하는 것을) 얘 요거 무슨 개의 어금니 모양으로 옥니가 달렸는지 아주 손가락을 박아 당기는 맛이 거기 사람이 감출 맛이 있어 죽을 지경이로구나. (소무 치마 밑에 고개를 넣었다가 빼고)울르르르!(토한다. 춤을 추고나서) 어디 한번 방아를 짹어보자. 이 제밀 불을 방아가 뾰드붓허게 잘 걸렸다. (노랫조로) 열력지 방하야 고등어 준치 방아야, 야하 다리 바지 저고리 熟絲 두잘망군(소무가 살짝 넘어진다) 아 요런 맹랑스런 년 같으니 어쩐지 방아가 싱겁더라니 그러니깐 거 무슨 맹랑스런 짓이야. (귀룡가지를 사타구니에 끼고 소무의 뒤에 가서 개 훌레하듯 한다) 동넷집 훈개 훌레하오 끼잉 끼잉 끼잉.

소무 : (소무가 해산하려고 진통을 시작한다. 쥐발이가 해산모를 부른다)

해산모 : (해산제구와 童子를 싸 가지고 깨끼춤으로 입장한다. 소무의 배를 문질러 주고 소무는 애를 낳았다. 아이의 삶을 가르고 목욕을 시켜서 포대기에 싸서 뉘어놓고 곧 깨끼춤을 추며 개복청으로 퇴장한다)

취발이 : (이때 까치걸음으로 장중을 돌면서) 이 육신힐년아 어서 빨리 해산 빨리 시켜라.  
머리를 짚어 디더라, 등두 문질러라, 배두 문질러라. (애〈아들〉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허! 이거 봐라. 살신 제왕이 나 어려운 줄 알고 한별 일습을 다 해 내보냈구나. 그러  
믄 그렇지 그리 안할 수가 있나. (노랫조로)

거지 거지 거지야,  
굴레거지 저구리 바지 행전 포시,  
고무신꺼정 몽주리 신었구나.  
아 그러믄 그렇지 대판절 이름을 무얼루 짓노  
이건 마당이라 지을 수 밖에 없네, 마당에서 났으니

취발이 : (자기가 아이소리로) 아버지(1人 2役이다)

취발이 : 왜

취발이 : (아이소리로) 나 좀 업어 주.

취발이 : 그래라. 이건 어린앤 가꾸루 낳아서는 가꾸로 업어야 체증이 떨어지는 법이  
야(거꾸로 업고 노랫조로) 아강 아강 우지마라

제발 덕분 우지마라  
너의 어머니 굿에 가서  
멱 받아 오면 출께 우지 마라.

네 아버지 장에 가서  
엿사오면 출께 우지 마라  
만첩청 산 높으둥이  
은을 준들 너를 사며,  
금을 준들 너를 사랴.

일가에는 화목둥이  
형제에게 우애둥이,  
나라에는 충신둥이  
부모에게 효자둥이

취발이 : (아이소리로) 아버지

취발이 : 왜

취발이 : (아이소리로) 글을 좀 배워야겠소.

취발이 : 아, 그렇지. 그 이를 말이냐. 글을 배워야지. 글을 배워야 입신양명한다.

취발이 : (아이소리로) 그래 글 좀 가르쳐 주우.

취발이 : (아이를 땅에다 놓고 글을 가르친다) (노랫조로)

하늘천이면 따라지

가마솥에 누른밥,  
득득 굽어서  
선생님은 개밥궁에다 한사발  
나는 두사발 먹겠소

예끼 이 안갑을 할 녀석 너는 두사발 먹고 난 개밥궁으로 한 사발 먹어. 예끼 요 바 닥애들녀석(아들을 탁 친다).

취발이 : (아이소리로) 아버지

취발이 : 왜

취발이 : (아이소리로) 피안도를 좀 배워야겠소.

취발이 : 어 양서, 그렇지 그걸 배워야지(언문을 가르친다). (노랫조로)

기역(ㄱ) 니은(ㄴ) 이면 지근(ㄷ) 이을(ㄹ)

기역자로 집을 짓고

지근지근 사잤더니

가이없는 이내 몸이

거지없이 되었구나

그렇지 가엽슨 말이다.

취발이 : (아이소리로) 아버지 젖좀 먹었음.

취발이 : 그래라. 여—어머니 여보 마당어머니, 애 젖좀 먹에주. (소무는 젖을 먹이지 않고 손으로 아이를 탁 친다. 취발이가 아이를 주워들고) 요런 망상스런 년 같으니. 너 혼자 만든거 아니고 둘이 좋아 만들어 가지고 왜 젖을 안 뺏여. 탁 치는데 너 팔시하는데 나는 팔시 안하랴. (아들을 집어 팽개치고 <녹수청산……> 을 부르고 깨끼춤을 추며 퇴장하고, 소무도 자라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 제 7 과장 샌 님

#### 〈제 1 경〉 依幕使令놀이

말뚝이 : (샌님, 서방님, 도령님을 모시고 등장하여, 남쪽 가에 삼현청을 향해 선다.

쇠뚝이 내외는 미리 삼현청 앞에 나와 앉아있다) 의 막사령—의 막사려영—

쇠뚝이 : 어느 제밀할 놈이 남 내 근하는데 와 의 막사령해.

말뚝이 : 네밀 불을 놈, 내 근하다니 사람이 인성만성하고 만산편야 한데 내 근해.

쇠뚝이 : 네미 불을 어찌하는 말이냐. 사람이 인성만성하고, 만산평야 했더래도 두 내 외가 앉았으니 내 근하지.

말뚝이 : 오을켰다, 너희 두 내외가 앉아 있으니까 내 근해.

쇠뚝이 : 영락없다.

말뚝이 : 얘 제밀할 놈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구나.

소뚝이 : (별떡 일어서며 인사하다) 아나야이 !

말뚝이 : 아나 이 ! 네밀할 놈 너 만나본지가 경증경증하구나. 쇠풀(소죽풀)에 지프라  
기 같다. 족통이나 아니 봤느냐.

쇠뚝이 : 아이구 내것이야.

말뚝이 : 얘 그러나 저러나 내가 옹색한 일이 있다.

쇠뚝이 : 뭐가 옹색하단 말이냐.

말뚝이 : 우리 댁 샌님과 서방님, 도령님께서 科日이 당도해서 과거를 보려 올라오시  
다가 평공하는데 구경에 미쳐서 날 가는 줄 모르셨어. 그래 의막을 날더러 정하라고 하  
시니 내가 여기 强近之親 없구 아는 친구 없구 이 繁華 지시에 밤은 들구 하는 수가 없  
어 대단히 곤란하다가 너를 마침 만나니 천만의다 허니 너 날 의막을 하나 정해다오.

쇠뚝이 : 얘 그 제밀할 놈들이 그래 구경에 미쳐설랑 의막을 정해 달라고. 그래 그래  
네가 참 대단히 옹색하겠다 내가 그래보마 (의막 정하려 나간다고 장내를 여러번 돌  
고 말뚝이 앞에 와서) 자 의막을 정했다.

말뚝이 : 너 어떻게 정했느냐.

쇠뚝이 : 뻥 뻥 둘린 말장을 박고 허리띠를 매고 물을 하늘로 냈다.

말뚝이 : 거 네밀 불을 시방 셋집채 양옥집 같구나.

쇠뚝이 : 영락없지.

말뚝이 : 그럼 그놈들이 들어가려면 물구나무를 서 들어가야겠구나.

쇠뚝이 : 영락없지.

말뚝이 : 그럼 돼지새끼 같구나.

쇠뚝이 : 영락없지.

말뚝이 : 얘 얘, 저 샌님이 바깥에 서 계실텨니가 좀 나가서 모셔 들일 수밖에 없다.

쇠뚝이 : 내가 그 제밀 불을 놈들을 그 왜 모셔들인다는 말이냐.

말뚝이 : 그래, 그래도 그렇지 않다. 너허구 나하구 사귄 본정으로 해두 그래 그렇지  
않으니깐두루 니가 모셔들일 수밖에 없다.

쇠뚝이 : 오옳겠다. 너 하구 나하구 사귄 본정으로라도 그래 네 사정을 봐서 그렇구나.

말뚝이 : 영락없지.

쇠뚝이 : 그래라.

(쇠뚝이는 앞서고 말뚝이는 채찍을 들고 뒤에서 그 사이에 샌님, 서방님, 도령님을 넣  
고 채찍을 휘두르며 「두우두우 구을구을구을」 하며 중앙 돼지우리간으로 모셔 들인다)

샌님 : 말뚝아.

말뚝이 : 네이 .

샌님 : 네 이 의 막을 누가 정했느냐.

말뚝이 : 소신은 정한게 아니구 강근지척두 없구 변화지시에 알 수가 없어서 쇠뚝이란 놈을 아니깐두루 그놈더러 정해 달랬더니 그놈이 정해 주었읍니다.

샌님 : 그렇겠다. 얘 대단히 정갈스럽고 깨끗해 좋다.

말뚝이 : 그런데 아래 웃간을 정해서 서루 양반의 자식이니깐두루 담배질을 허두래 두 아래 웃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두 칸을 정했읍니다.

샌님 : 그래.

쇠뚝이 : (말뚝이에게) 넌 그래 그액 뭐냐.

말뚝이 : 난 그액 청직이다.

쇠뚝이 : 이놈아 어디보자 청직이가 平涼일 썼어?

말뚝이 : 아니다 그런게 아니다 그액 出系다.

쇠뚝이 : 옳겄다 네가 출계(庶出을 뜻한다고 한다) 야.

말뚝이 : 그러면 얘 너 들어가 샌님을 좀 뵈어라.

쇠뚝이 : 그 제 미불을 내가 왜 그 놈들을 뷔단 말이냐.

말뚝이 : 그래도 그렇지 않다. 그 양반이 벼슬을 시작할 것 같으면 사닥다리 기어올라 가듯 한다. 그럼 너도 뭐든지 한다.

쇠뚝이 : 그래 네 말도 그럴 듯하다. 그놈의 음성을 들어 보니 용생〈상〉이다. 총을 치(베실〈麻絲〉) 같다.

말뚝이 : 벼실 영락없지, 가 뵈어라.

쇠뚝이 : (타령조에 맞추어 양반 일행 앞뒤를 돋다) (샌님을 보고는) 제길 양반의 자식인줄 알았더니 양반의 자식커녕 잡종이로구나. 두부 보자기를 쓰구(儒巾을 말한다) 화선을 들구, 도포를 입구, 전대띠를 뗐으니 이게 화랭(花郎)의 자식이로구나. (서방님을 보고는) 관을 쓰기는 썼다마는 도포입구 이놈두 화선을 들구 전대 띠를 뗐으니 이 것두 화랭이 자식이로구나. 나쁜 자식들이구나. (도령님을 보고는) 이놈이 사당보를 뒤집어 쓰구(幞巾을 말한다) 전복을 입구 전대띠를 매구 이놈두 부채를 들어서 이놈두 양반의 자식은 맥률도 안됐다. (말뚝이에게 와서) 얘 가보니깐 그놈들이 멍쩡한 화랭이 자식들이지 어디 양반의 자식들은 아니더라.

말뚝이 : 그래 그럴듯 하다. 네가 그럴 듯하다마는 그 띱이 잔고허셔서 세물전에 가의복을 세를 해(내) 얼어 입으라고 구색이 맞지 않아 그렇다.

쇠뚝이 : 옳아 따는 그것도 그렇겠다마는 그 양반의 자식들은 아니더라.

샌님 : 말뚝아.

말뚝이 : 네이.

샌님 : 네 이놈 어디 갔더냐.

말뚝이 : 샌님을 찾으려고요.

샌님 : 어두루.

말뚝이 : 네이, 서산 나귀 솔집하여 호피안장 도두 놓아 가지고요, 앞 남산 밖 남산 쌍계동 벽계동으로 해서 칠패팔패 돌모루 銅雀일 년짓 전너 남대문안을 써억 들어서 일간장, 이먹골, 삼청동, 사직골, 오궁터, 육조앞으로 해서요, 칠관안, 팔각재, 구리개, 십자작, 아이머리 다방골로, 어른머리 감투전골로 해서요, 언청다리를 건너 소경다리를 건너서 배우개 안내거리 써억 나서서 아래위로 치더듬고 내더듬어 보니깐두루 샌님의 새끼라곤 강아지 애들 녀석 하나 없길래 아는 친구 다시 만나서 물어 보니깐 명꽁하는 데로 갔다 하길래 여기 와서 발랑발랑 찾아 여기를 오니깐두루 내 증손자 외아들 놈의 샌님을 예 와서 만나 봤구려.

쇠뚝이 : (그 소리를 듣고) 얘얘얘 그 양반을 발안들여 놀려고 했다가 그 뭐하니깐두루 이담에 청편지 한장을 맞더래도 내가 문안할 밖에 없다.

말뚝이 : 그래라.

쇠뚝이 : 샌님, 나무종 쇠뚝이 문안 들어가오. 잘못 받으면 육시처참에 송사리뼈도 안남소(샌님에게 문안하려 들어간다. 양손을 앞에 모으고 오른쪽 다리만 내놓고 껍죽껍죽 하면서 들어간다) 아 샌님, 아 샌님, 아 샌님, 소인——(샌님은 아무 말이 없다. 인사를 드리고 말뚝이에게 와서) 얘 그 보니깐두루 양반은 분명한 양반이더라, 진중하시더라.

말뚝이 : 아 점잖은 양반이구 여부가 있느냐.

쇠뚝이 : 그래 대관절 그놈의 집 가문이 어떻단 말이냐.

말뚝이 : 그놈의 가문이 이삿날이든 사당문을 열고 새끼 한발을 꼬아 가지구 운운이 짐지를 꿰 가지고 한끝을 주욱 잡아당기면 주루룩 따라 나와서 개밥궁에서 한발을 들여놓고 한발은 내놓고 모두 여러 놈이 쪽쪽거리는 그런 가문이다.

쇠뚝이 : 거 돼지로구나.

말뚝이 : 영락없다. 너 서방님한테 가 봐라.

쇠뚝이 : (서방님께 문안갔다) 아 서방님, 아 서방님(잠자코 있는 서방님을 보고) 소인——(말뚝이 앞에 와서) 참 분명한 양반이더라.

말뚝이 : 샌님한테 문안드려도 개 얼렐레 같구 아니 드려도 아니 드려도 개 얼렐레 같구. 서방님한테 문안을 더려도 개 셉구녕 넌덜머리 같은데 저—끝에 계신 종가액 되령님이신데 그 되령님한테 문안을 착실히 잘 해야지. 만일 잘 못했다가는 육시처참에 넌 송사리뼈도 안 남는다. 가 봐라.

쇠뚝이 : 거 네말이 그럴 듯하니 가 볼밖에 없다.

말뚝이 : 이왕 양반집에 거론하기가 불찰이지.

쇠뚝이 : (도령님에게 문안 간다) 아 되련님, 아 되련님, 소인——

도령님 : 고이 있드냐.

쇠뚝이 : (말뚝이 앞으로 와서) 얘 그 양반은 분명한 양반이더라. 거 우리네가 인사 를 할 것 같으면 네 에미 애비 셉덜이나 잘 하느냐 할텐데 아주 고이 있더냐 하는 걸 보니 점잖은 양반이다.

말뚝이 : 거 이를 말이냐.

쇠뚝이 : 얘애 그렇지만 나가서 다시 문안 드릴 밖에 없다.

말뚝이 : 어떻건단 말이냐.

쇠뚝이 : 한잔도 못 먹는 날은 뜰을 아래 웃들을 돌아다니며 멀쩡히 청결하고 한잔 먹고 두잔 먹어 석잔쯤 먹어 얼굴빛이 지지벌건다면 아래 윗댁으로 냉기며 조개란 조개는 둑은 조개 햅조개 할 것 없이 일수 잘 까먹구. 영해 영동 고등어 · 준치 · 방어 · 소라 애들놈 일수 잘 까먹는 남의 종 쇠뚝이 문안이오 그래라.

말뚝이 : 얘 그 제에 밀 불을 문안이 사설이구나 엎음 영락없다.(샌님을 보고) 여보 샌 님 남의 종 쇠뚝이 문안디려 달랍니다. 잘못 받으면 육시처참에 송사리뼈도 안 남소. 한잔도 못 먹는 날은 아래 · 윗댁으로 냉기며 뜰을 멀쩡히 청결하고 한잔 먹고 두잔 먹어 석잔쯤 먹어놓아 얼굴이 지지벌건다면은 아래 · 윗댁으로 냉기며 조개란 조개 둑은 조개 햅조개 할 것 없이 치까고 내리까고 소라 애들놈 일수 잘 까는 남의 종 쇠뚝이 문안드려 달랍니다.

샌님 : (부채를 휙 펴들고) 여봐라 지놈!

말뚝이 : 예 예 —

샌님 : 삼노고상(三街街上?) 하던 양반더러 過言妄說하고 과도한 짓을 허니 그런 네 에 미썹을! 혈 놈들이 어디 있느냐. (정좌하고) 말뚝아.

말뚝이 : 예.

샌님 : 남의종 쇠뚝이 잡아 디려라.

말뚝이 : (안 가겠다는 쇠뚝이를 억지로 거꾸로 잡아 끌고 온다) 네 잡아 들였읍니다.

샌님 : 그 베밀할 놈이 얼굴은 정주 난리더를 갔단 말이냐.

말뚝이 : 그놈이 그런게 아니라 그 놈의 얼굴을 볼 것 같으면 샌님 댁 대부인 마나님 이 기절절사 할까봐 가꾸로 잡아들였소.

샌 님 : 그럼 그놈의 모가지를 빼다가 꽉 박아라.

말뚝이 : 꽉 박았소(홱 돌려 놓는다)

샌 님 : 그 뒤에서 품지락 품지락 하는 건 뭐냐?

말뚝이 : 네, 밤이면 샌님 댁 대부인 가지고 노시는 거요.

샌 님 : 여봐 지놈!

쇠뚝이 : 제 밀 불을 내가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날더러 누가 이놈이라고 그래.

센 님 : 예 센님이 부르기가 적당하오. 아당 아자(字)에 번개 번자(字) 요.

센 님 : 아당 아자 번개 번? 아당 아자 번개 번? 양반이니 한두루 하늘천 따지 감을 현 누르황 배우구는 천지현황을 붙여 부른지 않우 이것 두 붙여 불려요.

센 님 : 번아.

쇠뚝이 : 왜 이건 바로 붙이지 가꾸로 붙이우.

센 님 : 애 그 제 밀 할 놈의 이름 대단히 팽팽롭다. 아아아.

쇠뚝이 : 이건 지랄을 허오, 붙여요 어서 십년 석달 불러도 소용없오.

센 님 : (하다못해) 아버지! (아번)

말뚝이 : 왜 ——

센 님 : (자기집 하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분해서) 남의 종 쇠뚝이는 허하구 사해 주구 내종 말뚝이 잡아 디여어라!

쇠뚝이 : 예 지당한 분부을시다. (말뚝이의 패랭이를 뺏어 쓰고 채찍을 뺏어 들고) 이놈아 여봐, 이놈아 니가 양반의 집에 맹진다고 세도가 분명허구 허더니 이놈아 势無十年에 花無十日紅이다. 이놈아 경쳤다.

말뚝이 : 아니 술취했다.

쇠뚝이 : 술이 이놈아 무슨 술이야. 가자 가자. (말뚝이를 끌고 들어간다) 센님 분부대로 잡아들였소.

센 님 : 그놈을 엎어놓고 마라. 대매에 철장허거 두 대매에 그놈 물고를 올려라.

쇠뚝이 : 예 센님 지당한 분부요. (흔잣말로) 눈잘허구 보니깐 어른애 가진 돈도 빼앗겠.. 그놈 무슨 죄겄소 엎어놓라게 (때리려고 하니 말뚝이가 돈을 줄테니 살살 때리라고 한다. 쇠뚝이 머리를 꼬덕거린다)

센 님 : 여봐라 지놈!

쇠뚝이 : 예.

센 님 : 너희 두 놈이 네밀 셉들을 허자고 공모를 했느냐.

쇠뚝이 : 아니 올시다. 그런게 아니라 저 놈이 센님眼前에 이 매를 맞고 보면 죽을 모양이니 혈장해 달랍디다, 혈장해 달래.

센 님 : 아니다.

쇠뚝이 : 아니면 뭐란 말이요, 이거 죽을 지경이네.

센 님 : 아니야.

쇠뚝이 : 그래 그런게 아니라 저놈이 혈장을 해주면 돈 댓냥 준답디다 댓냥.

센 님 : 아니야.

쇠똑이 : 열냥 춘답디다 열냥. 아니 틀림없이 열냥이 올시다.

센 님 : 아니다.

쇠똑이 : 아 이걸 어떻게 그럼내가 맷냥을 보태서 죄해서 열랫냥이 올시다 열랫냥.

센 님 : 열랫냥?

쇠똑이 : 그럼 귀에 구수허우?

센 님 : 야 이놈!

쇠똑이 : 예.

센 님 : 저 끝에 앉아계신 이가 종가댁 되련님이신데 봉치 받아 논지가 석 삼년 열 아홉해다. 열넉냥 아홉돈 구푼 오리는 백으로 봉상허구 그 남저지 있는 건 가지구 나 가다가 술 한잔사서 병수에 타서 마시구 화수분 설사에 됹지 설달 무시뚱 깔기듯 허 구는 된 급살이나 맞아 죽어라.

쇠똑이 : 예에 센님 지당한 분부요. (센님 일행은 삼현청으로 퇴장한다)

말뚝이 : (일어서면서 불립으로) <녹수청 산 깊은 골에 청황룡이 굽틀어졌다……>  
(말뚝이와 쇠똑이 맞춤을 추고 퇴장한다)

### 〈제 2 경〉 포도부장

포도부장은 미리 삼현청 원편에 와 앉는다. 센님이 첨인 소무를 데리고 중앙으로 입장하면, 포도부장은 삼현청 오른쪽 가로 걸어가 선다.

센님 : (홍안백발이 되었어도 말벗으로 젊은 계집을 소실로 데리고 사는데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소무를 달랜다) 여 우리 두 내외 이렇게 재미스럽게 안락한 생활을 하고 사는데 혹 이동네두 못된 부락청년이 있어서 내게 대해설랑 오쟁이나 안 잊을까 (지을까)? 쳐라! (세마치 장단에 맞추어 까치결음을 추며 돌아다니다가 소무 등뒤에 다가 가서 앉는다)

소무 : (센님이 춤추는 동안 한 자리에서 자라춤을 춘다.)

포도부장 : (난데없이 튀어나와 센님과 계집의 등을 양손으로 쥐고 갈라 놓는다.)

센님 : (깜짝 놀라며) 내 그러믄 그렇지 일상 의혹이 나더라니 이눔! 고약한 놈아 못된 놈아(소무의 거드랑 밑으로 고개를 넣었다 떼면서,) 내 그저 일상에 의심이 나, 젊은 계집을 늙은 놈이 얹어 사니깐두루 일상의 심이 나더니 아니나 다를까. (소무에게) 허니까 아무주룩 자네는 그저 나를 하늘곁이 바래고 살면 괜찮아. 이 고대광실 높은 기와집이 다 자네거지. 내야 살든 몇해 사나. 허니 아무주룩 마음 변치 말고설랑 날 하늘같이 알아줘. 일상에 젊은 계집은 늙은 냄편을 얹어 살든 저절로 우대를 받는 거야. 허니 그러지 말아 응. 나 아무주룩 마음 변치 않게 마누라 마음 변치 마라 쳐라!  
(세마치 장단에 까치결음을 춘다.)

포도부장 : (춤을 추며 다시 뛰어들어 소무의 양손을 쥐고 윈다리 바른 다리를 서로 걸면서 홍겹게 논다)

샌님 : (분해서 마누라를 부르고 이리뛰고 저리뛰다가, 부채꼭지로 포도부장의 잔등을 떠다민다)

포도부장 : (일시 쫓겨 제자리로 달아난다)

샌님 : (소무를 끼고 서서) 그게 무슨 맨망스러운 것이야. 내가 일상에 타이르길 뭐라고 타일렸어 응? 허니 그러지 말랬더니 그저 젊은 사람은 젊은 놈이 좋아서. 내 일상에 일렸지. 그러지 마라. 마누라허구 정리를 논질허구 볼 것 같으면 삼간산이 들락날락허구 내가 길에 지나가다가 혹 콩이 한개가 떨어진 걸 눈에 띠면 그걸 집어서 먼지를 흑흑 불어서 벌레먹은 쪽은 마누라 입에다 넣구 성현 쪽은 내 입에 넣구 이렇게 우리가 노나 먹는 정리에 그거 무슨 짹에 그렇게 마음이 그 동안에 변해. 그러지 말아. (소무와 춤을 추며 노는데 포도부장이 다시 와서 샌님을 떠다민다) 아 이놈이 또 왔구나. 이런 주릴 틀 놈이 또 왔어. (장단을 쉬게 하고 소무에게) 내가 암만해두 안 돼. 잠시 보니깐두루 그놈이 그래두 뼙다귀 있는 집 자식이야. 얼굴이 번지구르 혼자식이 그래도 점잖은 집 자식인데 내가 가설랑은 그놈한테 타일르구 와야지. 그냥 두고는 안될테야. 허니 한번 늙은 사람이 가 일을 것 같은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지. 허니 내 그놈의 집에 갔다 올테니 마누라랑은 아무쪼록 혼자 적적하더래도 집 잘 보구 있으라고. 쳐라! (세마치 장단에 까치결음 춤을 추고 가다가) 암만해두 젊으나 젊은 계집은 크나큰 집속에 두고 가니깐두루 마음이 조금도 안 뇌인다구. 그러나 사람이 한번 한 말을 갔다 와야지. 행보가 짧지만 내가 갔다 와야겠다. (춤을 추며 포도부장에게 간다. 포도부장의 얼굴을 부채로 딱치며) 이 개자식아 어디 계집이 없어서 늙은 사람이 소첩 하나 얻어가지구 동지설달 긴긴 밤에 혹 잡이 깨서 잡이 안 올 것 같으면 말벗이나 허구 잔등이가 가려우믄 등이나 굽어 달라 혈라구 소일거리로 계집 하나 얻은 걸 그저 신방뜰에 내 신발만 없는 짹을 보면 나 없는 줄 생각허구 그저 뒤 후정 담을 훌훌 넘어들어 와서 날 오챙일 지구 지구 허니이 우라질 자식아 응 너 이놈 다시 내가 타일르구 간다마는 또 다시 생각않고 내 집에 발길을 헐 것 같으면 네 이놈 네 에밀 네가 불느니라. (다시 춤을 추며 소무 앞에 와서 얼르고 겨드랑밀을 끼고 들어가) 그동안 잘 있었냐, 그래 어디 갔었냐.

소무 :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칸킨)

샌님 : 오 하늘로 별따려 갔었어. 마누라하구 나하구 정리를 논지허구 볼 것 같으면 강뚱이 서말이면 겨울에 탱탱이 얼찍이면 내가 마누라 長札을 주었다가 내년 봄에 해도해서 원두 참외를 심을 때가 되면 내가 똥을 장리해 받는 정리 아닌가. 내 오죽했길래 장리해 받았지. 그러는 가까운 정리야. 그러니 아무쪼록 마음 변치 말고 날만 바

라구 살아. 어저께 밤에 두 이불 속에서 마누라 손을 내 배꼽에서부터 쳐억 내리 더듬어 설랑은 내 엔장망태를 쥐고서는 그저 조물락 조물락 허면성 햅시다 햅시다 허거만 내가 워낙 근력이 없어서 당칠 못하겠으니까 고만 안해 주었더니 거기 그만 배심해서 그랬지?

소무 : (언청센님 멱살을 잡고 원뺨을 때리며 바른발로 발길질을 하면서 한 손으로 포도부장을 손짓해 부른다)

포도부장 : (아주 이제는 내 계집 되었다는 생각으로 출통을 뽑고 갓을 제껴쓰고 양두루마기 자락을 제비날개처럼 짹 벌려들고 활발하게 춤을 추고 소무 손을 양손에 갈라쥐고 한데 열려 춤춘다)

센님 : (이제는 영 자기계집을 뺏기는구나 싶어서 「마누라」를 부르고 갈팡질팡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포도부장에게서 소무를 되찾으려 하나 힘이 모자라 어찌 하지 못한다. 다시 들어가 일시 포도부장을 내쫓고는 소무를 옆에 세우고 한숨을 길게 쉬며) 혈수 없구나. 낭기라도 고목되면 오던 새도 안 오구 그심으로 내가 나이가 늙구 너는 젊었으니깐 젊은 놈이 좋아 그러니깐 두루 아무쪼록 네 좋두룩 해 준다. 얘 그러니까 마지막 네 손목이나 한 번 만져보자. (소무가 손목을 내밀지 아니하고 어느새 포도부장이 와서 대신 손목을 내민다. 센님은 그 손목을 쥐고 울다가 고개를 들어 보고 포도부장의 손인 것을 알고) 애다 이 육실허구 죽을 녀석아. 어느 틈에 와설랑 옆에 섰다가 네가 손목을 내밀어. 너하구 나하구 이눔 웬쑤진 놈인데 내가 네 손목을 쥐고 울었다 말이냐. (포도부장을 떠민다)

포도부장 : (쫓겨 나간다)

센님 : 그려믄 그렇지, 그래두 여러 수십년 동거허구 설랑 내외지간 절허구 사던 정리에 내가 한마디 그렇게 손목을 내밀라구 했다구 한마디에 내밀 수가 있나. 그려믄 그렇지. 그리게 내가 서로 품에 끼구 눌던 내외지. 그러나 사람이 장부일언 중천금이지 칠을 뺏다 박을 수가 없어. 그러니 젊은 년은 젊은 놈이 좋은 건 정한 이치, 내가 남의 운기를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 아무쪼록 젊은 놈 얻어 가서 잘 살아. 마지막 손목이나 한번 주어.

소무 : (손을 내민다)

센님 : 이젠 짜장 정말 마누라 손목이라 아이구 마누라 손목이구나. 에이그 이그 이그(운다) 내가 사내 대장부가 한마디 했으면 그대로 혈 것이지 내가 두마디도 안 할 테야. 허니 아무쪼록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얻어가서 자손창성 부귀공명해서 아들 딸낳고 아기자기 시집보내고 장가들이고 며느리보구 손자보구 해설랑은 이 세상을 아주 안락하게 지내라구 봄 - (침을 뱉고 소무에게 수세로 저고리 앞자락 끝을 베어 주면서 맹세해 보낸다) (세마치 장단을 청하여 까치결음 춤을 한바탕 추고 개복청으로 들

어간다)

소무 : (포도부장의 춤<검무>과 맞서 한참 춤을 추고 나서 퇴장한다)

### 제 8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

신할아비가 중앙까지 입장하면 미얄할미가 뒤쫓아 입장하고 신하라비는 장중을 들면서 노래를 부른다. 도끼 남매는 삼현청 앞에 나와 대기하고 있다.

신할아비 : (노랫조로)

아이들아 아이들아  
산더大구경을 가 보았나  
팔십노인 나도 가 보았네  
올려다 보니 만학천봉  
내려다 보니 백사지라  
이팔 청춘 소년들아  
늙은이 망녕 웃지마소  
나도 어제 청춘이드니  
홍안백발 다 되었네.

(미얄할미가 옆에 섰다가 바스락 바스락 하니까 돌아다 보고) 여보 마누라, 이건  
뭘하려 쫓아 나왔어. 청개구리 밑에 실뱀 따라 땅기득히 눈물을 조르르 흘리구, 콧물을  
질질 흘리구, 지팡막대 걸터 짚구 뭘하려 쫓아 왔누. 그런데 솔개 부등가리나 동두라  
진 순갈은 다 엊다 두었나.

미얄할미 : (잠방이를 번쩍 들어 가리킨다)

신할아비 : 그렇겠지, 워낙 마누라가 찬찬하니깐 두루 우리 그러나 저러나 자네도 팔  
십세요 나두 구십당년 늙은이니 우리 이별 한번 해볼까.

미얄할미 : (그렇게 하자고 수긍한다)

신할아비 : (노랫조로)

노랑머리를 박박 긁구  
두손뼉 탁탁 치면서  
긴 양대 배우에 놓구  
제발 덕분 너 죽어라  
唐明皇의 楊貴妃도 죽었거늘

하물며 草露人生 아니죽고 무엇하나

미얄할미 : (이 노래를 듣고 걸어 나가 죽는다)

신할아비 : (죽은 줄 모른고 마누라를 찾으러 나간다) 한 솥의 밥 준 개가 나가도

찾는다는 데 수 삼십년 동거하던 우리 마누라를 아니 찾아갈 수가 있나. 찾아 볼 수 밖에 없다. (노랫조로)

마누라

만수산 너머 松林村 갔다.

옛날 초페왕과 병사를 의논차 갔나

酒中天子 李太白과 술추렴을 갔다

商山四皓 네 노인이

일점이점 탕탕놓는 바둑 훈수 갔다

穎川水 맑은 물에

濯足하러 갔다

(시체를 보고 깜짝 놀라며) 에크! 사산이 이거 거리부정 났구나. (살펴보니까 자기 마누라이므로) 여보 마누라 일어나오. 요거 무슨 성미야. 나는 정에 겨워 그랬는데 요전 가랑잎에 불붙는 성미라 그래서 죽었으니 이거 무슨 짓이여. 날 죄이라구. 안속아 내가 일어나 마누라. 아이구 이거 보게 긴 양牒 배 우에다 놓구 아주 뻘뻘 허이 코 밑에 손을 대 보니까 찬김이 도는구나. 죽었구나 어찌하나, 이걸 懸鶴百結 팔십 늙은 놈이 거리 街中에서 이 모양을 했으니(잠깐 덮어놓고) 이거 어찌하잔 말인고 아들놈 하나 있는데 난봉의 자식이라 복간도 철로 볼 때 나갔는데 벌세 수삼년이 됐으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뛴데 난봉의 자식이니깐 혹시나 여기 왔을런지도 알 수가 없어, 허니 어디 아들이나 불러 볼밖에 없다. (노랫조로) 도끼야— 도끼여 어— 왔을리가 있나. 이 놈이 난봉 자식이 왔을 리가 없어. 도끼야— 도끼여 —

도끼 : 왜 그리요. (삼현청 앞에서 뛰어 나온다)

신할아비 : 아 니가 도끼야?

도끼 : 내가 까뀌요.

신할아비 : 네가 도끼야?

도끼 : 까뀌예요.

신할아비 : 도끼야?

도끼 : 그래 도끼요.

신할아비 : 도끼 이 자식아 너 어디 갔더냐.

도끼 : 똥누려 갔었어요.

신할아비 : 이놈아 화수분 설사야 뒹지 설달 무시뚱 갈기듯 하느냐. 몇 삼년을 두구 똥을 누어 이놈아.

도끼 : 아 그런 것 아니라요, 아버지가 저 건너 김동지집 월수돈 셋냥 쓴 것 갖다 짚으라고 설랑은 송아지 폭타래 팔아설랑 나 돈 준거 있지 않소.

신할아비 : 그래.

도끼 : 그래서 내 그 돈을 가지고 설랑은 김동지 집으로 향해 가는데 중간에 수양버드

나무 밑에서 팔구십 당년한 노인네들이 골꽤를 가지구 골꺽째기를 하는데 말이요 거 험직협디다레. 돈이 시를 시글헌데 그때 그때나 이때나 돈 싫단 사람이 있소. 해서 그 돈석 낭을 가지구 전 새낄쳐서 떨까 하고는 노인네 하는 중이니까 원몫도 못 들어가구 어깨너머서 부탁해 죄 웟어버렸지요. 웟어버리구 설탕 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아버지현테 엉덩이뼈가 부러져 죽을 모양이니까 아주 그길루 그만 달아나 버렸소.

신할아비 : 그 애 달아나 버리면 어떻건단 말이냐. 애 애 그러나 저려나 그건 그렇게 됐거니와 그건 그만두구 너 어머니가 식은 방귀 쪘다.

도끼 : 아 어머니가 식은 방귀를 쪘어 ?

신할아비 : 냄새가 났어.

도끼 : 아 그럼 아주 올라감세

신할아비 : 숟가락을 났다면 그만이지 뭐.

도끼 : 그저 내 일상 나가두 염려는 했소. 그저 어머니가 시집온지 그 몇십년에 그아버지 잔소리에 참 불쌍하오. 돌아가시긴 팔자 좋게 잘 돌아가셨소마는 노중에 객사했다니 좀 불쌍하오. 아버지 잇빨이 조령계 깍쟁이같이 옥니가 달렸으니 집안식구 어찌 안 잡아 먹을 수가 있소 인젠 어여커우.

신할아비 : 그말 저말 할거 뭐 있느냐. 이왕 일을 당해 놓은 거니 너의 뉘가 젯풀서 살다가 먼짓골로 갔다 하니 가서 네 뉘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장사지내자.

도끼 : 허허허 이것 제밀 불을 팔자 봐라. 머릴 풀구있는 상제더러 제 누이현테 計音 갖다 전하라구 그래. 이 동네 사람도 이렇게 없나. 거 헐 수 있소. 내 갔다 오너라.

신할아비 : 땡겨 오너라.

도끼 : 거 가문 있겠소 ?

신할아비 : 가 봐야 알지.

도끼 : 아 그 보청할 년이 그전엔 서방질을 나다녔는데 집에 있을까.

신할아비 : 글쎄 가 봐라.

도끼 : 그럼 내 갔다 오리라.

신할아비 : 땡겨 오너라, 빨리 오너라.

도끼 : 그 그전처럼 잘 산답디까 ?

신할아비 : 글쎄 시방 삼년째 소식이 없다.

도끼 : 그럼 아버지.

신할아비 : 왜 그랴.

도끼 : 그래 그동안 편지를 했소.

신할아비 : 애 ! 이자식아 아비더러 편질 했소가 뭐냐.

도끼 : 앗다 우리집은 다 그렇지 별 수 있소.

신할아비 : 에 키 잡자식 그려지 말아라.

도끼 : 그럼 내 갔다 오리다.

신할아비 : 냉겨와, 입대 안갔느냐 이놈아.

도끼 : (누이를 데리러 삼현청 앞으로 간다) 누니-임, 누니-임 !

누이 : 거 누구냐 ?

도끼 : 나 도끼 왔소.

누이 : 까귀 ?

도끼 : 도끼 왔어요.

누이 : 대짜 ?

도끼 : 아이구 귀꺼정 먹었구랴. 도끼가 왔어요.

누이 : 오 ! 끌.

도끼 : 아이구 도끼가 왔어요.

누이 : 오옹 도끼가 왔어.

도끼 : 네에.

누이 : 네가 이제 오긴 또 왔다마는 내가 당권(鐺口?)까지 쟁취 놓구 저 건너 김동 것 집에 가서 보리방아 품팔아다가 이젠 근근득생 살구 혈 수가 없어 내 동명치마 입구 허다가 하니깐 할 수 없어. 그전엔 니가 돈냥 돈백두 뜯어가구 니가 또 뜯으려 왔다마는 이젠 니는 와야 소용 한푼 없다. 어서 빨리 돌아가라.

도끼 : 아 누님, 내한테 속구 속았으니깐두루 그렇게 말하는 것두 당연하오. 허나 이건 거짓말이 아니요, 실체요. 그런데 내가 전처럼 누님 잘 살 땐 뜯어다가 옛방뱅이 밑천두 내버리구 했으니깐두루 속구 속아 그런 말을 하기가 싫소.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 어머니가 새평이(莎評里)를 쳤다오.

누이 : 어머니가 식은 방걸 꿰어 ?

도끼 : 어머니가 아주 올라감사 했어.

누이 : 네가 그렇게 말을 해두 난 콩을 가지구 매주를 춘대두 난 말 안 듣는다.

도끼 : 아니 그렇게 아니오. 그런게 아니라 아버질 좋아설랑은 그 산대 논다는 멘 아버지가 나오시니까 뒤를 쫓아 구경오니까 아버지가 아마 구박을 좀 했나 봅디다. 허니까 그만 어머니가 서러워서 긴양멸 배위에다 엮고 열손 배위에 엮고는 아주 그만 쭉 뻗었구려. 허니 누님 알다시피 아버지 뭐 있어. 저런 짹쟁이 성질에 사람도 안붙고 쇠만 붙으오. 헌데 나두 역시 난봉으로 돌아댕기다가 참 천륜이란게 뭔지, 아버지가 그 지경을 당해 가지구 내 이름을 불르구 웨는데 아 첫말에 아버지 음성이 귀에 있었으니깐두루 가까이 가 보니까 아버지가 부르길래 썩 들어가 아버질 만나니 웬일이요 하니

깐두루 어머니가 이리 해 돌아갔다구 하니 어떻거요. 그래서 날더러 누님한테 가설랑 부고를 가지고 가서 누님 테리고 오라고 그랬어. 하니 내가 아무리 난봉일지라두 달리 내 핑곗 대고 누님한테 뜯우믄 뜯어가지 돈이래 두 어머니 부모 돌아갔다고 핑계허는 그런 난봉 불효자식이 어디 있소. 하니깐 거짓 말 아니니 누님 가서 어머니 장살 지냅시다.

누이 : 그 네가 암만 말을 그렇게 구수하게 혼다마는 네 말이 밀엄성이 없어. 하니 깐두루 난 마땅치가 않다.

도끼 : 아이 그렇지 않소. 그러나 저려나 매부 어디갔소.

누이 : 너어 매부 나간지는 석삼년 아홉해에 내가 시방 혼자 죽을 지경이다.

도끼 : 아이구 이거 참 아주 때는 내가 좋은 기회로구랴. 그때 대관절 매부 나간지 석삼년 아홉해면 그동안 응색한 일 많이 치냈겠구랴.

누이 : 이 동네 개평 여러번 뗐다.

도끼 : 아이구 그 개평이면 날 좀 주지. 사방 대볼랴오.

누이 : 에라 이 잡자식, 형제간에 그렇게 허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애 내가 쫓아갔다가 혀탕을 하면 …… 니가 갔다가 만일 이 늙은 년을 남의 집 설렁탕집 같은 데다 국밥집에다 팔아 먹구 더 고생시켜 놓으면 어떻거느냐.

도끼 : 아니요, 그렇지 않소. 아이구 뭐 시방 젊은 계집이라구 ……

누이 : 니가 돈에는 눈깔이 헷됨이니깐두루 열냥을 받아두 구만, 백냥을 받아두 그만이지만 내몸은 맡기기는 거 아니냐.

도끼 : 아니 그렇지 않소, 갑시다.

누이 : 너 거짓뿌렁이면 뭐냐?

도끼 : 거짓뿌렁이면 내가 누님허구 나하구 살겠소.

누이 : 헹 ! 이자식 명길셈은 제밀 붙게 있네. 그래라 어디 가자.

도끼 : 갑시다.

누이 : 가자.

도끼 : (미알할미 누운 데로 와서) 여기요.

누이 : 여기야?

도끼 : 예.

누이 : 아버진 어디 가셨니 ?

도끼 : 아버지 어디 간지 알우. 아이구 난 그 짹쟁이, 아버지라두 알미워 죽겠소.

누님.

누이 : 왜.

도끼 : 빈소방이 여기에요.

누이 : 여기가 빈소방이야?

도끼 : 좀 보우.

누이 : 아이구 네가 약 한첩 못 써 봤구나. 아주 얼굴이 이거 추상살 맞아 죽었구나.

도끼 : 말 마우.

누이 : 아이구 콧물도 누가 씻어 추지도 못했구나. 아버지허구 너허구 있었으니 이  
령에 헐수야 있느냐. 콧물 눈물이 죽어서 씻지 못하고 가니 저승에도 잘 못 갔겠다. 허  
니 약 한첩 못써보구. 약이나 좀 써 보자. 약을 쓰니 살지 못하겠구나. (신하라비한테  
가서 인사를 한다)

누이 : 그런데 아버지.

신할아비 : 왜

누이 : 그런데 이 전신의 맥을 내가 죄 다시 보았소.

신할아비 : 그랴.

누이 : 보니깐두루 전신이 아주 죄 죽었소. 죄 죽었는데 .....

신할아비 : 죽었겠지.

도끼 : 이왕에 나 누님 맹길려구 아버지두 옹색풀던 구녁은 시방 입때 살았어.

신할아비 : 뭐 거기 살았어. 어디 만져보자 어디 만져봐.

도끼 : 살았어. 왜 그걸 만지려고 야단이요, 내가 먼저 만져봐야지.

신할아비 : 거 네가 만져보겠느냐.

도끼 : 거 만져보니깐 살았소.

신할아비 : 예라 이자식아.

도끼 : 지금이래도 마지막 옹색 페테면 피우. 나 있어도 괜찮우.

신할아비 : 이 자식아 네 누이한테 가깝게 하지 마라. (누이에게) 넌 이리 오너라.

내 앞으로 닥아오너라. 저 놈현테 가지 말아라.

도끼 : 그러나 저러나 어서 장사나 지낼 생각을 하오. 어서.

신할아비 : 그래라. 장사나 지내보두록 하자. 도끼야!

도끼 : 네.

신할아비 : 별 수가 있느냐. 거리 노중에서 이 모양을 당했으니 집에서 있으면 시왕  
도 갈라주구 陳胡鬼·三成두 해출텐데 그것 저것 헐 수가 없으니 우리 넋이나 풀  
어 주자.

도끼 : 예 그럼 좋지요. 허니 우리 집안이 넉넉힐 것 같으면 무당집에 부탁해서 尊  
物을 많이 주어 시킬텐데 그렇지 못하고 허니까 어머니 이름이나 갈기시리 지노기를  
집안끼리 험시다. 누님을랑 무당되구, 아버진 장구치구, 샘현육각을랑 굿거리장단  
에 샘현 나오시오 날랑은 또 춤추리다 그대루.

누이 : (무가를 부른다) 넋이야 넋이로구나아

녹양심산 첫 넋이여어

넋을랑 넋반에 담고

신의 신천 관에 담어

올려다 보니 만학천봉

내려 살피니 백사지랑

누이 : (공주를 준다) 얘 이 가망 저가망 조라(神酒)란 전물이라, 어린 망제 물한  
박샘물에 거룩히 놀구 가시오.

여기 여러분 손님, 오신 손님, 자, 뉘도 없구 털도 없구 그저 이중이 다 태평무사하  
게 도와 주구 어린 망재 다 거룩히 놀구 가시오. 굿이나 하고 갑시다. 평기 평기 평더  
꿍, 평 평더꿍. (넷이 對舞하며 퇴장한다)

〈 1982년 현재 楊州 別山臺놀이 技能保有者와 擔當役割 〉

서정주 : 지휘

이병권 : 상좌, 목중

신순봉 : 소무, 말뚝이

석종관 : 음중, 쇠뚝이

석거억 : 목중

유한란 : 애사당, 목중

고명달 : 노장, 눈꿈적이

이상근 : 말뚝이, 목중

함춘길 : 장고

고종원 : 목중

유경성 : 소무, 왜장녀, 미얄할미

김순홍 : 소무

박교웅 : 샌님, 말뚝이, 완보

김준희 : 해산모

김상용 : 연잎, 포도부장,

신해춘 : 도령님

오재용 : 쥐발이, 신주부, 신할아버지

목중

김금산 : 해금

홍상현 : 목중

염종원 : 서방님

유경섭 : 원숭이

고희정 : 피리

[ 資料 : 韓國假面劇 (李杜鉉) ]



楊州 別山臺 전수회관 전경

## ② 楊州 소놀이 굿

### (1) 序 言

楊州 소놀이 굿은 牛馬崇拜와 農耕儀禮인 「소메이놀이」에 기원을 두고 巫俗의 帝釋<sup>1)</sup> 巨里와 마마 拜送 굿에서 자극받아 형성된 演戲인 것이라고 하며, 그 가사는 장편 서사 가사로서 대단히 세련되어 있어 民俗藝術의 한 장르<sup>2)</sup>로서 연극적인 측면 뿐 아니라 文學的인 측면에서도 民俗儀禮에서 民俗藝術로 승화 형성된 한 예로 귀중한 존재라고 하겠다.

재래에 이 놀이의 분포를 보면 주로 기호 해서지방에서 演戲되어 왔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해서지방의 사정은 알 길이 없고 기호지방에서도 楊州郡 一圓에서만 신곡맞이의 경사 굿으로 제석거리에 이어 행하여지는데 그 내용은 單純한 農耕儀禮나 巫俗에서 벗어나 무당과 원마부 결마부와의 對話와 가사(타령)로 진행되는 연희인데 그 연희 保有者들이 모두 50 대와 60 대의 年老者들로서 이 놀이가 不遠 湮滅의 위기에 놓이게 될 지경이어서 그 保全의 對策이 時急하다.

### (2) 由 來

人類가 牛馬를 家畜化한 年代는 諸說이 구구하여 일정치 않으나 定住農耕이 일찍始作되었던 古代 오리엔트<sup>3)</sup>에서는 紀元前 6,500年 頃에 이미 보리栽培와 牛馬의 飼育이始作되었고 이라크(Iraq)의 자르모(Jarmo)에서 발견된 소의 뼈는 約 5千萬年前의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소의 飼育과 利用에 대하여는 2千萬年前에 소가 飼育되었고 農耕과 肉用으로 利用되었다고 한다. 소와 더불어 이루어진 農耕儀禮는 高麗 成宗7年(西紀 988)에 中國의 토우의례를 받아들인 記錄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토우가 목우로 바뀐 例도 보인다.

「關北俗 是日作木牛 自官府達于 閭里 遍出于路 蓋倣出土 牛之制 而所以示 勸農祈年之意也」(東國歲時記立春條) 中國 全土의 農民들이 立春에 행하는 습속으로 토우를 때려 나중에는 그것을 깨뜨려서 水害의 災를 占치고 酒餚<sup>4)</sup>로써 土神을 제사지내는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打春 鞭牛라 하고 봄의 復活을 맞이하고 豊饒力의 상징인 토우를 잡는 呪術<sup>5)</sup>的 性質을 가진 행사이며 널리 東亞의 각지에 분포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습속에는 濟州道에서 50 餘年 前까지 행하여졌다는 立春굿이 있는데 역시

1) 의당이 신봉하는 신(제석)을 위하여 제석풀이 때 무당이 하는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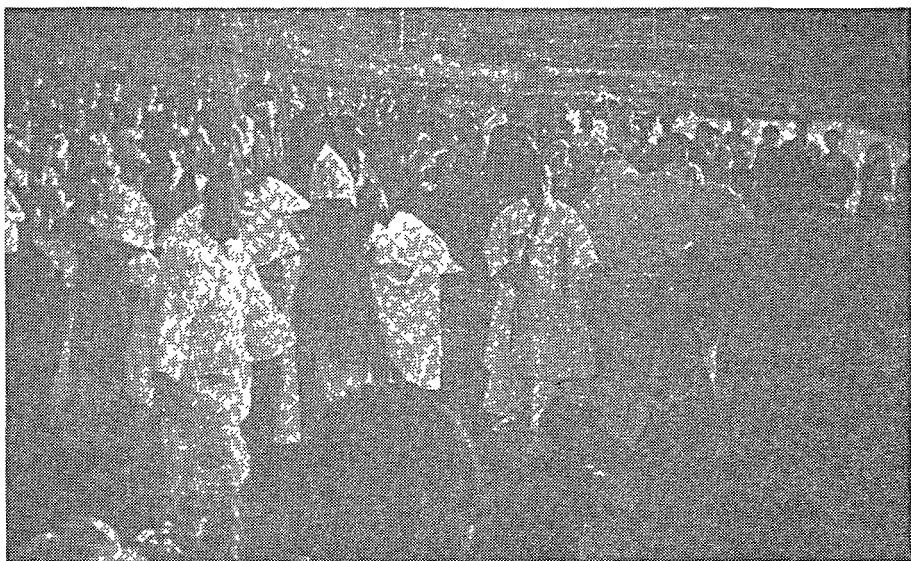
2) 藝術의 部門, 種類, 樣式, 形態 등의 뜻으로 쓰는 말로 특히 文學用語로서 文學形態의 種別을 뜻함.

3) 지중해 동방 및 동남방의 諸國(東洋)

4) 술과 안주(酒肴)

5) 超自然的인 存在나 神秘的인 勢力を 빌어 여러 가지 現象을 일으켜 吉凶을 占하고 禍福을 가져 오려는 것.

목우를 썼었다고 한다. Frazer 「金枝篇」에 의하면 獨逸 Thuring 地方의 예를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 군데에 우리의 「소놀이」와 類似한 놀이를 들고 있는 데 그것은 모두 소의 形態를 취한 穀物靈(cornspirit)에 관한 의식 놀이로 보고 있다. 日本의例로는 牛神祭가 있는데 특히 廣島와 鹿兒島의 牛祭 牛舞는 模擬牛를 만들어 모내기 의식에 놀리는 일종의 예축 행사이다. 유럽의 예나 中國의 土牛, 日本의 牛祭등 모두 우리의「소놀이굿」과 같은 範疇에 드는 놀이라고 하며, 특히 우리의 소놀이굿이 신곡맞이의 경사굿에 놀게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놀이도 穀物靈과 관계가 깊다고 한다.



楊州 소놀이굿

### (3) 特徵

楊州 소놀이굿은 “소놀음굿” “소굿” “쇠굿” “마부타령굿” 등으로 불리며 경사굿의 일부로 제석거리에 이어 하나의 새로운 祭次로 행하여진다. 韓國巫俗의 機能을 司祭, 占卜豫言, 巫醫, 娛樂藝能의 넷으로 나눈다면 “소놀이굿”은 그중 娛樂藝能的 機能에 속하며 의례(Ritual)에서 演戲로 발전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特徵을 살펴보면 제석거리에 이어서 놀이를 始作한다.

무당은 제석거리 복색 그대로 마루에서 안마당을 向해서 서고 재비(樂土)들은 무악연주를 위하여 역시 안마당을 향해 마루에 앉고 이 놀이의 주인공들인 원마부와 결마부는 마루앞 봉당에 선다. 앞마당에는 명석을 뒤집어 쓰고 고무래를 짚으로 싸서 머리를 만든 가장한 소가 송아지를 메리고 선다. 이와같이 첫째 무대가 이제까지의 굿의 주 무대였던 마루에서 봉당과 앞마당으로 옮기고 主役이 또한 무당으로부터 마부로 바뀐다. 소놀이굿의 進行은 무당과 마부와의 對話, 馬夫의 타령, 唱, 德談, 馬夫의 動作과 춤, 소의 動作 등으로 엮어지며, 演戲로써의 構成을 갖추었다. 巫儀와 賦소리가 形式

上 거의 무당이나 廣大의 獨演 形態인데 비하여 소놀이굿은 馬夫와 무당과의 對話形式으로 進行되며, 무당과 樂土 ‘馬夫와 道馬夫’ 가장한 소의 主要配役과 많은 구경꾼의 參加로써 이루어진다. 馬夫가 부르는 소리는 雜歌의 一種으로 볼 수 있고, 극히 세련된 平民歌詞體의 노래이다. 「소놀이굿」의 소리 대목을 大略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 |             |              |             |
|-------------|--------------|-------------|
| ① 누가 나를 찾나  | ② 馬夫路程記      | ③ 보물타령      |
| ④ 馬夫 대령인사   | ⑤ 소의 머리 치례   | ⑥ 절(寺) 타령   |
| ⑦ 소뿔(角)치례   | ⑧ 소귀(耳)치례    | ⑨ 소눈(目)치례   |
| ⑩ 소입(口)치례   | ⑪ 소이(齒)치례    | ⑫ 소혀(舌)치례   |
| ⑬ 소꼬리(尾)치례  | ⑭ 소다리(足)치례   | ⑮ 소굽(蹄)치례   |
| ⑯ 소모색(毛色)치례 | ⑰ 소군 가르치기    | ⑱ 馬夫 服裝 치례  |
| ⑲ 소의 굴례 치례  | ⑳ 신곡(新穀)타령   | ㉑ 소 흥정하는 대목 |
| ㉒ 말뚝 타령     | ㉓ 소장사 마누라 타령 | ㉔ 성주 풀이     |
| ㉕ 祝願 德談     | ㉖ 살 풀이       |             |

위의 소리대목 分析에서도 짐작이 가듯이 巫歌와의 密接한 關係와 그 영향을 볼 수 있으나 그 소리 內容과 進行形式은 巫儀 특히 제석거리에 종속된 일부가 아니고, 獨立된 하나의 演戲임을 認定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석거리의 연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독자의 형식을 본 “소놀이굿”이라는 놀이가 경사굿의 제석거리와 組曲되어 지금과 같은 演戲形態를 갖추기에 이른 것 같다.

#### (4) 使用되는 資料

##### 1. 소(큰 소)

- 가. 材料는 고무래 종이 명주 또는 광목 짚신 또는 고무신 짚 멍석 등을 사용한다.
- 나. 소 머리는 고무래에 짚을 싸서 輪廓을 잡고 소 얼굴모양을 白紙에 그려 붙인다. 귀와 혀는 짚신이나 고무신 바닥으로 하며 고삐는 명주, 또는 광목으로 한다. 소 몸뚱이는 큰 멍석을 반으로 접고 그 안에 5~6人이 들어간다. 뿔은 짚을 꾀아 만든다.

##### 2. 송아지

- 가. 사용되는 資料는 同一하다.
- 나. 製作方法도 큰 소와 마찬가지다. 다만 칫수가 작을 뿐이다. 그리고 송아지는 한 사람이 짚 멍석을 뒤집어 쓰고 고무래로 만든 소머리를 듈다.

##### 3. 원마부

- 검은 전립과 남색 전복을 입고 흥띠를 띠고 오른손에 삼신부채를 들고 左手에 소의 고삐를 잡는다.

##### 4. 道馬夫

- 원마부와 같은 服飾이다.

보통은 약식으로 복색을 갖추지 않고 원마부를 따르며 원마부와 교대하여 소놀 이를 하게 되며 손에 채찍을 듈다.

### 5. 무 당

제석거리에 입은 복색대로 흰 고깔을 쓰고 흰 장삼에 오른손에 흰 제석부채를 듈다.

### 6. 助巫 樂士는 보통 巫儀의 복식과 다름이 없다. 伴奏 樂器로 장고, 피리, 해금을 사용한다.

#### (5) 楊州 소놀이굿 順序와 臺詞 및 歌詞

現在 전해오고 있는 “楊州 소놀이굿”의 順序를 臺詞 및 歌詞와 함께 옮겨보면,

가. 경사굿(慶事) 열두거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洞里 堂山에서 簡素한 山致誠을 드리고 다음으로 집에서의 무의로 옮긴다. (그러나 실지 무의에서는 행추물림부터始作하였다.)

첫거리로 <행추물림>은 大門 바깥마당에서 행하고 이 때 사용한 서낭기(삼거리에서 만들어 온다)는 동 헛간이나 마당가에 끊어 놓는다.

둘째 거리 <부정>은 집안으로 옮겨 마루에서 행한다. 마루 위 北, 東, 南, 三面에 시렁을 매어 「사위삼당」이라고 하는 열두 神을 위한 堂을 設置하고 마루 안쪽(北向)으로 主床인 산신상(산대감상)을 마련하였고, 각 거리마다의 젓상은 그 때마다 바꾸어 내 놓는다.

세째 거리 <불사맞이>는 안마당에서 행하고 이 때 불사신과 함께 따라 들어오는 神을 호구, 말명, 신장, 대감, 창부, 걸립신들인데, 이 신들의 거리도 간단하게 진행한다.

네째 거리 <본향>부터는 다시 마루로 옮겨

다섯째 거리 <초가망>

여섯째 거리 <조상>으로 進行하는데 조상거리에서는 그 집의 죽은 조상의 亡靈들이 차례로 들어와 넋두리를 한다.

일곱째 거리 <대감놀이>인데 이 거리 끝에 창부타령을 한다.

여덟째 거리 <성주받이>에서 신이 내린다는 「성주받이」라 하여 뒷결 등 집터를 둘러보고 다시 마루로 들어와 굿이 끝날 때까지 안치해 둔다.

아홉째 거리 <상산>

열째 거리 <별상>으로 별상거리에서 신 마누라 노래가락을 座巫와 함께 唱한다.

열한번째 거리는 <신장>으로 五色旗로써 占卜한다.

열두번째 거리는 <산대감>인데 <대감거리>와 같다.

열세번째 거리는 <제석>으로 마루에서 帝釋請拜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立巫만 제석상 앞에 白米一斗를 놓고 그 변죽을 밟고 제금을 치면서 공수를 내린다. 다시 마루로 나와 중타령 및 바라타령을 하고 제석노래가락도 한다.

나. 이 제석거리의 계속으로 〈소놀이굿〉을 한다.

불사맞이床을 帝釋床으로 사용하되 장고앞에 木斗에 콩을 수북이 담고 볶어 한 마리를 꼬리를 밑으로 하여 꽂아 놓는다. 마당을 향하여 樂士와 助巫(장고를 맡음)가 앉고 소가 들어오기 전에 서주(장고, 피리, 해금)가 굿거리 장단으로 올리면 흰 고깔을 쓰고 흰 장삼을 입은 主巫가 오른손에 흰 제석부채를 들고 마루 끝에 나와 선다.

먼저 송아지가 춤추며 들어와서 이리저리 고개를 옆으로 갸웃거리며 마당을 둘다가 굿청에 뛰어들어 巫女의 입을 맞추어 장난을 하고 뛰어 나간다. 나갔던 송아지가 다시 들어와서 먼저보다 빠른 動作으로 기웃거리며 마당을 둘다가 나가면 무당이 馬夫를 부른다.

무당：마부우, 소장수우, 소장수우(송아지가 大門을 向해 돌아서서 馬夫와 소를 引導해 들이는 시늉으로 뒷걸음질쳐 들어온다. 원마부가 전립과 전복에 흥띠를 띠고 오른 손에 삼신부채를 들고 원손에는 소의 고삐를 잡고 천천히 들어온다. 소의 고삐는 명주나 무명으로 만들었고 결마부는 보통 복색을 갖추지 않고 원마부를 따르며 채찍을 듈다)

마부：야, 소장수가 뭐냐? 소장수 서방님이라고 해라. (소와 송아지가 서로 맞비비다가 송아지가 뒤로 돌아서 앞으로 나와 선다. 소와 송아지 꿈틀꿈틀한다)

무당：소장수 서방님.

마부：(원손에 고삐를 잡은 채 타령조로) 箕山 頸水 別乾坤 巢父 許由가 나를 찾나? 天下文章 김생원이 風月을 하자 나를 찾나? 수양산의 伯夷叔齊 採薇 차로 나를 찾나? 商山四皓 네 老인이 바둑을 두자 나를 찾나? 晋代 風流 자랑코자 竹林七賢 나를 찾나?

<sup>②</sup> 보충가사：富春山 嚴子陵 諫議大夫를 마다하고 七里桐江 일사중 함께 가자 나를 찾나? 설중의 기렴 명호연이

<sup>①</sup> 보충가사：상마(매차) 허자 나를 찾나? 일월호우 파군신이 모금을 가자 나를 찾나? 南陽草堂 臥龍先生 병서를 읽자 나를 찾나? 楚漢時 敵 張子房이 통소 부자 나를 찾나? 唐明皇 楊貴妃가 구벼화전(후면화개) 너른 꽃밭 물을 주자 나를 찾나? 원통하다 서러운 정, 육황님이 있으시고 구원코자 나를 찾나?

<sup>①</sup> 보충가사：晋나라 진시황은 萬里長城을 싸신 後에 아방궁에 높이 앉아 육국제후를 전공받고, 三千宮女 시위할 제 함께 놀자 나를 찾나? 진양 초당 백낙천이 비파 듣자 나를 찾소?

<sup>①</sup> 보충가사：서여군사(서역원사) 백마호우 견우직녀 찾으려고 황포로 지나면서 함께 가자 나를 찾나? 風風雨 옛 천지에 날 찾을 이 없건마는 어떤 정든 님 나를 찾나?

<sup>②</sup> 보충가사：어느 아가씨가 나를 찾나?

<sup>③</sup> 보충가사：무당의 잡년이 나를 찾나?

무당 : 소장수 서방님, 으쩐 잔소리가 그렇게 많소?

마부 : 여자는 맹추라 듣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기도 잘 하니 똑똑히 알라고 여러 말 한거요.

무당 : 그러면 소장수 서방님 이름이 뭐요?

마부 : 내 이름을 알랴거든 똑똑히 들어라.

무당 : 그럼 한마디 해 보시오.

마부 : (타령조로) (禹龍辰의 경) 황성(산상) 폐하의 임금 우자는 성자가 되어 있고, 東海 水宮에 용통자는 가운데 자 되어 있고, 천상 옥경에 병진 자는 우룡진이 분명하니 仔細히 똑똑히 알겠느냐?

무당 : 그 소가 어디서 온 소요?

마부 : 저 하늘 끝단 데서 왔어요.

무당 : 하늘 끝단 데가 어디란 말이요?

마부 : 충청도 지방이요.

무당 : 게기가 하늘 끝 닿았에요?

마부 : 그럼요.

무당 : 그 으께 하늘이 그렇게 끝이 닿은 거 그리 가깝소?

마부 : 거 한 두 십린 줄 아우? 거기두 멀우. 그 산 넘어가면 또 하늘 있고 또 하늘 있어.

무당 : 그건 남의 하늘이지 우리 하늘 아녜요.

마부 : 아 그럼니까? 그럼 얘길 들어 보오.

(타령조로) 忠淸道 內浦로 소를 사가지고 三南에 三道를 다 구경해 京畿道루 치치 달아, 정월 보름 달맞이요, 꽃이 피면 꽃맞이요, 잎이 피면 잎맞이, 칠월 칠석에 칠석 맞이, 시월 상달에 新穀맞이, 온갖 精誠을 다 드린다지만 장단대로 나려서서 일년 허구 열두달 과년은 열석달 사월 삼백육십일에 일년농사를 잘 지었다구 소놀이 精誠을 드린다기에 구경차로 가는 길에 그저께 어저께 의정부 장을 들고 서산의 동명 돌아드니 五營門 수억수에 각영문 吹打 벌여놓고 명기덩기 덩덩더쿵 잽이 소리에 명(命)타자니 명 못타고, 복을 타자니 복 못타고 웬수같은 時를 타서 이택 가중에 들어올제 이운지고 시년져서 놀고가자 들어왔네.

<sup>④</sup>

보충가사 : 內浦에서 소를 사가지고 올라 오는데 꿈틀꿈틀 땀내장은 징그러서 소 못팔고, 어깨너머 뒷길장을 돌아섰다 소 못팔고, 코 풀었다 흥내장은 코 풀다가 소 못팔고, 방귀겼다 구린내장은 구린내 나서 소 못팔고, 왔다 갔다 가래비장은 往來하다 소 못팔고, 의관철파 갓바위 장은 갓이 없어 소 못팔고, 이택 가중 문턱을 마침지나려 五營門 취태소리가 清天에 떠서 들리는 바람에, 이 소에다가 은산에게 은을 뜨고 스물천냥을 잔뜩 실고 들어 왔으니 이 소는 이운지고 시운진 소니 이택 가중에서 사Њ.

무당 : 그 소가 이년지고 시년져서 들어 왔다니까 거저 들어 올리는 만무고 보물을 많이 실고 들어 왔으니까 인자 보물을 타령으로 잘 올려주우.

마부 : 남의 집 財產을 搜探하지 말우. 만약 없어지는 경우에는 재물쇠 천 방으로 갈 사람은 당신밖에 없소.

무당 : 그런 거 아니예요. 난 팬城市管理으로 잘 타령으로 하우.

마부 : (타령조로) 檀君千年 箕子千年 二千年 이룩허니 三角山에 起峰하여 凤鶴이 넘짓되었구나. 凤의 머리에 턱을 닦아 鶴의 등에 大闕 짓구 大闕 앞에는 六曹로다. 여기저기 五營門 십이대장 결진하고 아랫 大闕을 이룩허니 웃大闕 없을소냐? 各道各邑을 마련하니 각 동네들 없을소냐? 존이에 집간을 마련허니 병자 소임이 없을소냐? 이택 가중 진연에서 互家 성주도 이룩을 허고 대가 성주도 이룩힐체, 千金山의 금을 뜨고 萬金山의 은을 뜨고 命山에 가명을 뜨고 福山에 가선 복을 뜨고 재수산에 가 사망 뜨고 삼신산에 재수를 받아 은자보물은 수물천냥 한쪽엔 달이 돋고 또 한 쪽에는 해가 돋아 일광이면은 월광이요, 월광이면은 일광인데 일광 월광 단월광에 아무색 가중에 진연이요.

무당 : 그렇게 많이씩 들여왔으니 그 소가 어여쁘고 암전하구 똑똑허구 소두 좋으니까 원마부도 待令하구 결마부두 待令했소?

마부 : 예, 마부 待令했소.

무당 : 그럼 타령으로 한번 들려주우.

마부 : (타령조로) 원마부도 待令을 허고 결마부도 待令했소. 各道各邑各馬夫 어떤 馬夫를 섬기리까? 外事部에 待令馬夫, 內事部 앞엔 馬夫 左便 右便에 평마마부, 주유 대유에 竹散마부, 官公 앞에는 駐車馬夫, 신랑 앞에는 말마분데 어느 마부를 섬기리까? 원마부 결마부 待令했소.

무당 : 그러면 그 소가(와) 그렇게 원마부 결마부가 잘 들어왔으니 그 소 마부색을 한번 물어봅시다.

마부 : 소 마부색이라니요?

무당 : 소가 어떻게 생겼나 말이예요?

마부 : 소가 소같이 생겼지 어떻게 생겨요?

무당 : 아 그 머리를 타령으로 옮겨 주오.

마부 : 그럼 들어 보시겠소?

(타령조로) 龍大旗 우에는 용두머리 남사당패 꼭두머리 남산으로 누군머리 용산 삼개 (麻浦)는 돌머리요 양근 지평에 용머리, 인력거여에는 상고머리요, 꼬불꼬불은 꽁수머리

<sup>①</sup> 보충가사 : 아이 머리는 더벅머리 西洋 사람은 노랑머리

마부 : 너울너울은 조바머리, 구시월이 돌아오니 울긋불긋 단풍머리, 칠십老人의 흰 머리나, 늙은 마누라 췇머리나, 낭자 쪽도리 큰머리나, 만신 마누라 엉덩머리나, 釋迦

世尊의 공덕 머리냐.

<sup>①</sup> 보충가사 : 동삼 석달이 다 지나고 돌아간 봄이 다시오니 파릇파릇은 잔풀머리, 이십  
안 처녀는 누에머리

마부 : 어떤 머리를 섬기리까?

<sup>⑤</sup> 보충가사 : 잎이 피면 잎머리, 꽃이 피면 꽃머리요, 이마가 벗겨져서 대머리, 더벙추  
도가머리.

무당 : 그중 한 머리를 섬기면 셈겼지, 왜 만신마누라 응덩머리를 왜 섬기오?

마부 : 응덩머리를 아니 넣을 수가 없소.

무당 : 왜요?

마부 : 제일 소중한 게 그 응덩머리요.

무당 : 그 으째 응덩머리가 소중해요?

마부 : 그 응덩머리는 원두 나구 사또두 나구 대통령두 생기구 국회의원두 생기구 시  
체 병장두 생기구 깡패두 생기구 여러가지가 생기는데, 그 응덩머리를 아래 위를 툭 잘  
라 버리고 응덩머리만 해도 값이 쇠머리 값보단 많소.

무당 : 아 잘라버리면 사람이 사나요?

마부 : 발을 두면 도망을 가고 대가리를 두면 밥을 먹으니까 아래 위를 잘라 버리고  
가운데만을 두지요.

무당 : 그럼 썩어 빠져서 어떻게 해요?

마부 : 아 그런가요?

무당 : 이 집이 이년지고 시년져서 들어 왔으니까 대청 성주허구 서로 사귀여서 인사  
를 드려야겠으니 들이 숙배 내 숙내 삼숙배 절을 섬기오.

마부 : 절의 내력을 한 번 들어 보시려오?

(타령조로) 고령으로는 보광사 절이요, 佛谷山으로는 白華庵寺, 수락산으로는 石  
林寺, 도봉 망월사 天竺寺 백운대 너머는 圓通寺요, 경성 시내는 覺皇寺, 협(합) 천하  
고도 海印寺 절, 金剛山의 榆帖寺, 묘향산의 普賢寺요, 果川 冠岳山 三幕寺요, 慶尙道  
梁山의 통도사 절인데, 어느 숙배를 섬기리까?

<sup>②</sup> 보충가사 : 염불암도 절인데 어느 절을 물으시오?

<sup>①</sup> 보충가사 : 창동 위에는 각심절이요 장안사 절도 절이요, 경태사 절도 절이요, 장단으  
로는 화장사요, 감박산은 鳳岩寺요, 전안청에는 큰 절인데, 어떤 숙배를 섬기리까(절  
타령을 부른 다음에 성주에게 인사를 시키기 위하여 봉당에 서 있는 구경꾼을 비껴서  
게 하고 마루 대청을 向해 소가 절을 세번 하게 한다)

무당 : 대가리가 그렇게 찬란하고 좋을 때는 뿐도 좋을테니 그 뿐의 타령을 한 번 잘  
을 려주우.

마부 : 그럼 들어 보겠소?

(타령조로) 우각뿔이면 작박뿔이냐? 쌍쌍 올려라 사족뿔(발), 별백인 노구거리  
黑角 비나는 물소뿔이요, 대천 바다의 새우뿔 人蔘鹿茸은 사슴의 뿔이요, 정월 보름 훅  
불인데 만신 마나님 쥐뿔이나 아느냐? 무슨 뿔을 섭기라오?

<sup>①</sup> 보충가사: 둘둘 말아라 방석뿔, 天地造化는 번갯불, 여울여울이 해태뿔, 떡가루치는  
쳇불이며 오여름 염천 모깃불, 만신 아주머니 고뿔인데, 어떤 뿔을 섭기리까?

<sup>⑤</sup> 보충가사: 전방진 놈 중뿔, 못된 송아지 응덩이뿔이고, 우슨것은 노우뿔, 天地造化  
번개뿔, 人間造化 전기뿔.

무당: 뿔이 참 좋군요. 그렇게 좋은 뿔을 얼른 아르켜 주지 않아서 감갑하오.

마부: 뿔 좋다고 빼 가지 마오.

무당: 그건 빼다 될해요?

마부: 등잔 밑에다가 매달지요.

무당: 아 참 그런가요? 그럼 뿔도 찬란하고 좋은데 귀도 좋겠지요.

마부: 귀야 좋구 말구가 있에요? 넓적한게 참 좋습니다.

무당: 타령으로 한번 들려주오.

마부: 그리시요.

(타령조로) 열귀냐, 떨어진 귀냐, 나무로 올라 잎사귀, 잎사귀 밑에는 가장귀. 가장귀 밑에는 토막(木枕)귀, 토막귀 밑에는 뿌렁귀, 나뭇군의 수건귀냐? 총각되령님 唐只귀, 아주먼네는 초마귀요, 상제님네는 頭巾귀, 외발가지는 돌쩌귀냐? 두발 가지는 까마귀, 세발 가지는 풍농귀, 네발 가진건 당나귀요.

<sup>②</sup> 보충가사: 세발가진 삼발귀, 네발가진 당나귀.

<sup>⑤</sup> 보충가사: 목화밭의 씀바귀, 포전밭의 사라귀, 선비님의 유건귀.

마부: 앵무 공작이 지저궐 때 들던 토끼의 귀데, 무슨 귀를 섭기리까? 만신 아주머니의 결래귀는 알고도 아니하오.

무당: 결래귀란 무슨 말이오?

마부: 종로 한 마루턱에서 신사 洋服을 입구서 왔다 갔다 하는 洋服쟁이 넥타이귀 같이 축 늘어진 결래 있지 않아요?

무당: 여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듣기 쉽소. 그만두오.

마부: 그럼 다른거나 합시다.

무당: 뿔도 그렇게 좋고 귀도 그렇게 좋고 다 좋으니까 그 눈도 좋겠죠? 소눈이 무슨 눈인지 한마디 들려주시오.

마부: 그럼 시다.

(타령조로) 산중의 英雄 병의 눈 보들띠기는 가재미 눈이요, 발살에는 티눈이요.

<sup>②</sup> 보충가사: 발사이에는 티눈이요.

마부: 꽁무니 백힌 풀두기눈 뜨고도 못보는 해태눈이요, 천하 명산승지간에 경개 보

던 토끼의 눈, 赤兔馬를 제껴 타고 조승상을 죽이갈 때 부릅뜨던 범의 눈인데, 어느 눈을 섭기리까?

<sup>(5)</sup> 보충가사: 관운장의 봉의 눈, 휘휘 둘러 물래눈, 내려 달힌 것은 거적눈, 꽁무니에 박힌건 오징어눈, 옆 냉이에 박힌 것은 가자미눈, 슬금슬금 겟눈, 정이 깊어 속눈, 그 름칠야에 잘 보는 것은 올빼미눈.

무당: 그 소 눈도 그렇게 좋고 하니 입은 어떤 입인지 들어 봅시다. 타령으로 잘 한번 해 주시오.

마부: 그럼 들어보시오.

(타령조로) 楊柳 清天의 버들입이냐? 사시장춘의 솔입이냐? 들락날락은 들입이냐? 주영같은 용마의 입이냐? 雨水 驚蟄이 돌아오니 떨어졌다 개구리입, 넓적허다고 미여기입이요, 키가 크다 난초입이요.

<sup>(1)</sup> 보충가사: 키큰 것은 파초입이요.

<sup>(5)</sup> 보충가사: 들락날락은 出入이요. 병긋병긋 웃는 입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고, 생글생글 웃는 입은 노총각을 희롱하고, 병글벙글 웃는 입은 꽃같은 시약시를 연애하고, 노기 등등 성난 입은 대자 두치나 나와 있고, 희색이 만면 웃는 입은 얼굴이 베꽃같고, 두 입을 한데 모면 새입도 생긴다. 네 허연 갖은 백입이요, 상제님의 방 입이요 검정 갖은 양입, 산초 茲草 모란화 꽃 따 먹던 토끼의 입인데 어느 입을 섭기리까? 입 맞추지 말오, 범종 여자되오.

무당: 입이 그렇게 좋으니 이는 어떻게 됐소? 이의 내력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부: 그러시오.

(타령조로) 흙을 이뤄 지어낸 이 土金으로 지은 이냐? 돌을 때려 뽑아낸 이 石金으로 지는 일까? 東·西洋의 나온 金은 合成金으로 지은 이냐? 제삼시 점지하니 만복없는 옥니로구나, 이이 저이 다 저쳐놓고 천하명산 승지간에 꽃 따먹던 토끼의 이인데, 어느 이를 섭기리까?

<sup>(6)</sup> 보충가사: 변적 떠는 앞니고나, 앞니곁에 어금니, 어금니곁에 송곳니, 송곳니 곁에 붙은건 덧니구요, 안으로 수굿한건 옥니구요, 장사꾼의 大利, 본전 합해 곱장이, 쇠불 알에 진드기, 개불알에 도앵이, 누습한 방 베룩이.

마부: 이가 좋다고 玉齒라고 있소. 빼다가 齒科에 팔아먹지 말우.

무당: 그것 왜 빼 가요?

마부: 그렇다면 모르지.

(타령조로) 여보 만신 들어를 보려오? 쇠(舌)의 내력을 들어를 보오. 경상도(황해도?) 載寧쇠냐? 전라도 우비철 상철 토찰애에 유기방짜(당철?) 그런 쇠가 아니오며 수풀 밑에는 배암의 쇠요, 산지고 앉은 거북의 쇠요, 비록연에는 미륵쇠요, 인도 옥연엔 난간쇠요, 절궁수에는 나사쇠요, 각 대장간의 기인 혼데 우리 소 쇠는 짚신

짝 쇠니 이 쇠 저 쇠를 다 버리고 육쇠(肉舌)라고 지으리오.

<sup>(5)</sup> 보충가사 : 잠근 문엔 열쇠구요, 열린 문엔 자물쇠, 안성유기 놋쇠구요, 누른 것은 주석쇠, 겹붉은건 황철쇠고 기차엔 장철쇠요, 다리난간 虹霓쇠요, 금은동철이 전부 쉴데 어떤 쇠를 섭기리까?

무당 : 꼬리는 어떤 꼬리인지 타령으로 섭겨보오.

마부 : (타령조로) 앓은 고리는 동고리요, 선고리는 문꼬리. 조화 많은 용의 꼬리냐? 나는 꼬리는 꾀꼬리, 나뭇군의 지겟고리, 총각 되현님 당기꼬리, 아주먼네는 초마꼬리, 석가래 祖宗은 가재미 꼬리, 神農氏의 백초약 이슬 떨던 토끼의 꼬리인데, 어느 꼬리를 섭기리까?

<sup>(2)</sup> 보충가사 : 있고도 없는 노루꼬리.

무당 : 거 꼬리 참 좋습니다.

마부 : 그 꼬리가 그렇게 좋으니 잘라다 총채 만들지 말우.

무당 : 여보 산 소 꼬리를 누가 자른단 말이요? 그런 말씀 허지두 말우.

마부 : 아 그럼 안심하겠소.

무당 : 그 소가 그렇게 찬란하고 좋으니 다리와 굽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좀 빼놓지 말고 섭겨주오. 이번엔 다리가 그 무슨 다린지 다리를 좀 타령으로 올려 봅시다.

마부 : 그럼시다. 만신 들어보시오, 다리 타령을 할 것이니 잘 똑똑히 들어 보시오.

(타령조로) 동대문 밖으로 북차다리냐? 동대문 안으로 두다리, 종로로 올라 방충교 다리냐? 육조앞으로 추정다리, 무화관으로 석다리요, 무학고개로 칭칭다리, 남대문 밖으로 썩 나서서 염충교도 다리요, 한강으로 내달아서 철물교 인도교 다리요.

<sup>(3)</sup> 보충가사 : 남문 밖으로 썩 나서서 굴레방다리도 다리요.

마부 : 남문안으로 도로 들어 오줌을 누었다 수표다리냐? 빨래를 헌다 마전다리 앞을 못보아서 소경다리에 깨끗치 못한 五間水다리. 네다리 내다리 사다리인데 어느 다리를 섭기리까?

<sup>(2)</sup> 보충가사 : 다리를 불작시면 건너 뛰어 징검다리, 응기종기 둘다리, 가로 누운 의나무다리, 허공에 떠서 구름다리, 경성시내의 염충교다리, 청계천 다리도 다리요.

<sup>(1)</sup> 보충가사 : 목을 매여 톡 떨어졌다 자수궁다리도 다리요, 새문 밖으로 정구다리, 무학고개를 썩 넘어서서 금바위다리도 다리요, 남대문을 돌아들여 등글등글 수박다리, 일락서산의 대다리요, 장작골다리도 다리인데 만신 아주머니두 다리요.

<sup>(5)</sup> 보충가사 : 동수문안 들어가서 백토산을 모아다가 놓은 흙다리도 다리구나. 사해 용왕이 놓은 구름다리도 다리구 오줌을 누는 수표다리도 다리구요, 각 맥하님 모여 설렁빨래 허다 놓은 麻田 다리도 다리구요, 만신 집에 가서보면 귀한 아들 명다리요 좁은 돌창(도랑창)에 외나무다리. 큰 개천에 공굴다리(콘크리트), 용산 삼개 노들다리,

팔도 장님이 놓은 소경다리도 다리요, 만신 다리는 두다리, 소장수 다리도 두다리요,  
우리 소 다리는 두다린데 송아지 다리는 여덟다리.

무당: 다리가 그렇게 좋으니 굽도 좋겠군요, 굽의 타령을 한번 들려주시오.

마부: 한번 들어보오.

(타령조로) 북두칠성은 일굽이요, 당명황의 양구비요, 관창서기의 월굽이냐? 신  
랑신은 나막신굽.

<sup>①</sup> 보충가사: 적벽대전 난분 중 분주하다 말굽, 광주 분원의 사발굽; 칠십노인의 눈굽  
이냐? <sup>②</sup> 만신 마나님 배꼽이냐? 어느 굽을 섬기리까?

<sup>③</sup> 보충가사: 정쟁이 우에 총지굽이요, 한가운데 배굽이요, 한달월굽이 봉굽이요 날마  
다 받는 건 일굽이요, 잘허면 상굽이요, 못하면 벌굽이요, 경마장 말굽이요, 군인병사  
계굽이요, 진날 실는 나막신굽, 팔년풍진 초한시에 분분히든 말굽인데 어떤 굽을 섬기  
리까?

무당: 아 참 굽 좋소이다. 만신 마누라 배꼽을 왜 계다 넣소?

마부: 그게 웃음거리로 한 마디 하는 거라오. 노여하지 말우.

무당: 다리와 굽이 그렇게 다 좋으니 색은 무슨 색인가? 대관절 색을 한번 좀 들어  
봅시다.

마부: 그러시오.

(타령조로) 옥동도화 滿四春에 가지 가지 봄빛이요, 녹음방초 다 지나가고 구시월  
이 돌아오니 울긋불긋은 단풍빛, 사월남풍 大麥黃 동서사방의 누른 빛, 청산의 보은 대  
추빛이요, 구년지수 비을 적에 원수같은 햇빛이냐? 칠년대한 가드는데 보기 싫은 벌  
이로구나. 어느 빛을 섬기리까? 우리 소의 빛은 황색이요, 황색을 모르건 누령소란  
말 똑똑히 들어 두시오.

<sup>⑤</sup> 보충가사: 꽃이 피면 꽃빛이요, 동지설달 설한풍에 천지가 눈빛이요, 메빛 참빛 열네  
빛 구년지수 비 오는 날의 반갑구나 햇빛, 오동추야 긴긴 밤의 동창의 달빛, 유상앵 비  
편편금에 날라드는 황금빛, 앞내 벼들은 유록빛, 뒷내 벼들은 초록빛, 앞·뒤동산 도  
라지꽃에 초록빛이 찬란한데 어떤 빛을 섬기리까?

무당: 소가 말귀가 그렇게 밝다니 글도 잘 배우?

마부: 잘 배죠. 가르쳐 주는 대로는 다 알오.

무당: 그럼 어디 한 마디 가르쳐 보시오.

마부: 들어보시오.

(타령조로) 子時에 생천을 하니 구후청청의 하날천(天)

(소에게 대사로) 번쩍 들어라. 웃지(소가 머리를 듣다)

(타령조로) 축시에 생지하니 만물장성은 따지(地)

(대사로) 내려 수그려. 옳지 (소가 머리를 수그린다)

(타령조로) 춘풍세우 호시절에 연주 남낭 감을 현(玄)

(대사로) 누은단 말이야

(타령조로) 동서사방의 몇 만리냐, 중앙황토는 누른 황(黃)

(대사로) 소 입맞추라는 격이야

(타령조로) 법중 율(律) 법중 여(呂)자. 춘향아 술부어라 넘쳐간다 기울 책  
(辰)

(대사로) 자꾸 하니깐 고만 하라구.

무당: 여보 소장수 서방님 소도 그렇게 똑똑한 걸 가지고 땅길 적에는 의복도 똑똑히 입었을게구 의양도 똑똑하니까 잘 채렸을 터이니, 채림채림을 타령으로 한번 들려주시우. 들어봅시다.

마부: 예 어렵겠소. 죽어서 무당의 입도 빌어 허는데 살아서 내 입으로 허는거야 못 하겠소? 들어보시요.

(타령조로) 백공단 바지냐, 법단 저고리 왜단 조끼 떨쳐입고 법수화주 마고자에 거영나니 속버선에 봉고 삼승 텃버선을 모양있게 신었구나. 찬포단 댄님을 하나 일자로 제껴매고 남대단 허리띠는 무릎아래 느즈매고 허리 불쑥 염탕에는 쪽 삼끈이 제격이오. 홍공단 주머니에 북두칠성에 수를 놓아 주홍방단의 열매듭은 모양있게 졸라매고, 백수화주 두루매기에 남갑사 전복을 떨쳐입고 남전댕이 띠를 띠어 타풀치 미투리에 나 꼬리들메 제격이요, 의열낭금은 쥐꼬리당줄, 개미상투는 산호 동곳 호박 풍잠 달았구나.

안올림 벙거지 밀화파양에 藍日光綵으로 안을 받쳐 수문갑사 너른 끈을 양귀 밑으로 졸라매고 소상반죽 육렬채찍 오른 손에 널짓 들어 미려 툭쳐 놀아가니 구군복이 제격이라.

무당: 참 잘 채리셨읍니다. 뉘집 서방님인지 남의 속 많이 췌였겠소.

마부: 그런줄 알고 당신도 반하지 마시오.

무당: 그렇게 좋고 찬란할 제는 굴래도 잘 깼을 테고 판자도 좋을 테고 허니 타령을 한 마디 잘 들려 주시오.

마부: 그럼시다.

(타령조로) 의령 미명 전폭에다 삼색 물감을 갖추 들여 보기좋게 어울려서 양산겹당모겹에 양귀밑에 쌍열베며 느름나무 꼬뚜레에 판자 치장을 볼적이면 명주 팔사 십이겹을 보기 좋은 은 장식은 술상모(象毛)물렸구나. 듣기 좋은 풍경소래 양귀밑에 달았구나.

무당: 굴레를 잘 짜서 보기 좋습니다.

마부: 여보 훔쳐가지 말우. 애들 색동저고리 해 입힐려고 끌려가지 말오.

무당: 그런데가 어디 있어요. 남의 소 굴레를 끌려가요?

마부 : 그러기 말이오.

(타령조로) 느름나무 길마가지에 물푸레나무 송이가지에 벼드나무 등우리에 왕굴  
숙배 작은치며 반목삼에 제격이요 삼장 언쪽 길마를 지고 함경 쇠나무 깽거리에 양며  
리 당모차가 숙배 때를 매여노니 수만석시 끌어 들여도 마사 비룡이 천리행이라.

<sup>②</sup> 보충가사 : 길마로 불작시면 산골길마는 곱창길마 대체길마는 손길마 직업으로 들어  
서서 학생으로 책보길마, 장돌림뱅이 잠보길마, 장님으로는 북길마, 무당으로는 장고  
길마, 농사군에는 팽이 호미가 길마다. 풍경으로 불작시면 금풍경이면 고대광실 높은  
집에 네귀에 풍경 달고 광풍이 널짓 부니 웅그렁 쟁그렁 풍경이요, 전라도 소로 호사  
풍경, 경기도 소는 중쇠 풍경, 평안도 소는 죽빛 풍경, 황해도 소는 대자풍경.

무당 : 소가 그렇게 좋은데 말도 잘 듣겠지마는 농사를 좀 잘 지어봐야 할텐데, 무신  
곡식을 심었나 잡곡 농사 씨타령을 한번 들려주오.

마부 : (타령조로)

여주 이천은 자채(自蔡) 베냐

김포 통진의 밀다리(密多里) 베

청산 보은의 대초(大叢) 베냐

드메 양반의 양화베냐

허연 백발 노인베냐

일락서산에 저문베냐

마당 쓰레기 검불베냐

우물 앞에는 새암베

의전 앞에는 상모찰이요

삼수 갑산의 수머조

삼에 용강의 모래조

천군 만병 오조냐

짝짝 발아진 팽이월 차조냐

익어도 펴련 건 청차조

꽁치가 몽뚝 박달차조

천군 만병에 오조냐

만리 타국의 왜강낭콩

이팔청춘의 푸르대콩

초감 포수의 깜장콩이냐

무안을 보았다 불구대 콩이냐

참깨냐 들깨 드들깨

영창같은 아주끼리  
혹두 작두는 개파리 동부  
잔뜩 싣고 들어왔네

<sup>(2)</sup> 보충가사 : 미력(련?) 하다고 들충벼, 어진 일에 쌍토찰, 껴意见反馈, 알뜰살뜰은 까투리찰, 시집못간 각시찰, 안성유기는 양푼찰, 알록달록은 피마자콩, 체수가 적다고 취눈이콩.

<sup>(1)</sup> 보충가사 : 양원분원의 사발벼, 많이 먹어라 등터지기, 목이 짚어서 석베기며, 목이 길은 이른 일출, 떨어지지 않아서 외찰벼, 톡톡 뛰어라 벼룩조며, 뭉게뭉게는 개똥차조, 짹짜 벌어져 외발차조, 어떤 두태를 심으실까. 혼자 됐다고 호래비콩이요, 내충스런 걸푸르대, 쌀쌀한 거는 과부콩이요, 빛이 좋아 적두팥이냐, 맛이 좋은 가래팥, 장에 못가는 양반팥이요, 각도 각읍 온 골동부며, 앞을 못봐서 소경수수, 무안을 봤다붉은 수수, 풍창몽창은 목딱수수, 포도군사에는 육모보리, 육조판서는 녹보리, 심이 좋은 청보리며, 덧부치기는 귀리리오, 맨승맨승은 밀이로다. 떴다 보아라 갱피로다. 허잘 것 없는 것 귀리로다.

무당 : 그 소가 그렇게 찬란하고 좋으니 이집 성주에서 소를 받겠다고 하니 흥정을 해서 사고 팔읍시다.

마부 : 그럼시다. 데리고 대니기도 구찮고 맥일 수도 없구 들어보시오. (타령조로) 소주천이 몇 천냥에 이룩천 여기로다. 소주천 몇 백냥에 진주천 몇 천금 이천냥 납으시고 저리 천냥 납으시고 수십천냥의 뼘리 미어.

<sup>(2)</sup> 보충가사 : 큰 소 값은 오천냥이고 송아지 값은 칠백 이른 네냥, 두바리 값에 한테 합쳐 오천칠백이른네냥이요. 우리가 없어도 아니 팔고 귀가 떨어져도 아니 파니 부르는 대로 내놓으시오.

마부 : 여수 장마에 비퍼붓듯 대천 바다에 물밀듯이 무럭무럭 늘으는 재산 수십백석 되었구나. (무녀가 그집 주인을 내세워 콩을 담은 목두(木斗)에 꽂은 볶어에 명주끈으로 된 고삐를 걸어주게 하고 소 값으로 돈을 마부(馬夫)에게 주게 한다)

마부 : 여보 만신 들어를 보오  
말뚝의 내력을 아뢰리다  
십리 밖에는 시므나무  
십리 안에는 오리나무  
한 다리 절뚝 전나무냐  
마주 셨다 은행 나무  
입을 맞치여 쪽나무냐  
아흔아홉에는 백자나무

열아홉에 시므나무  
 낮에 보아도 밤나무냐  
 동에 가서 두 복나무냐  
 앞뒤 없는 대나무  
 그런 말뚝은 다 제쳐놓고  
 원산 말뚝을 대령하오

(진행하는 동안에 술을 먹게 되면 이때 「뜸풀타령」을 부른다)

<sup>(3)</sup> 보총가사 : 졉쌀뜸풀에 입쌀뜸풀 그린 뜰풀은 다 싫고 막걸리도 싫고요 이바지 약주만을 잡수시오. 무슨 안주를 찾으시나. 꺽꺽 푸드득 평도 싫고 돼지옹만 주면 잘 먹소이다.

무당 : 소장수 서방님의 부인이 몇이나 되우?

마부 : 넷이요.

무당 : 넷이면 이름 성명이 무어까요?

마부 : 일려줄께 들어보오.

(타령조로) 도화만발 점점홍 보기좋구나 화선이냐, 환국방토 돌아오니 떨어졌다 목엽이냐, 동지설달 설한풍에 변치 않을 손 송죽이며, 네째 부인은 당신인데 고깔 장삼제격이라.

무당 : 이름을 들어보니 그렇게 좋은데 입히기는 뭘 입혔는지 의복치장이나 해주구려.

마부 : 그럼 들어보우. 나는 경제세상이 돼서 겨울살이를 뜯어 가지고 여름에 두벌을 쓰는 목적으로 겨울엔 여름살이요 여름엔 겨울살이요 이렇게 입혀 질르오.

무당 : 마누라를 넷씩 두고 설라믄 그렇게 입힐게 없드란 말이오.

마부 : 살자구 그러니깐 살지 내가 역지로 불들어온 아니오.

무당 : 그럼 의복치장이나 해 보오.

마부 : 그럼 들어보오.

(타령조로) 한산 세모시 백의 고쟁이 안주 당황나 너른 바지주 불란사 덧초마에 봉모사 어깨걸이 뒷판조끼 속적삼에 견화양산 덧적삼은 비추연풍 달았으니 맵씨있게 입었구나. 유두분면에 풀머리단장 비추비녀 석류자매 서북장계 화장 꽂았으니 모양만 질질 깔기누나. 곧은 폭버선에 비단 마른 신에 보기좋게 신었구나. 중등푸리를 볼 양이 면은 남수인 허리띠에 홍공단 주머니에 술상끈 넌짓달아 금북 은북 연통귀불 타례 안경집 채집까지 갖추갖추 달아차고 오른 손에는 영미소며 원손에는 양산을 들고 구명(후명?) 화초 구경가니 춘홍 적적 난만 개요 봉학 펄펄 날아드는데 부부(보보?) 香風 굿는 바람 홍도화 박화진다.

무당 : 그럼 이집 치장이나 해 보오.

마부 : (타령조로) 성주 本鄉 어드메냐, 慶尙道 安東 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 제비원에 솔씨를 받아 소평 대평 던졌더니 그 솔이 점점 자라 소부동 되었구나. 소부동이 점점 자라 대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 점점 자라 청장목이 되었구나. 청장목이 점점 자라 황장목 되었구나. 황장목이 일취월장 도리기둥 되었구나. 그 재목을 내려 할제 서른 세명의 역군을 들여 소산 대산을 찾아갈 제 소산 대산 올라가면 고사 精誠이 없을소냐. 원소머리 받쳐놓고 통폐지 잡아드린 精誠 至誠으로 祝願하니 고사 정성을 마친 후에 금도체 은도체로 동을 올려 서를 찍고 서를 올려 북을 비어 어지끈 뚝딱 베어멩겨 궁글 뜰너 떼를 물제 원근 산천에 힙을 끊어 양구 양천 흐르는 물에 어리둥실 떠여다가 이치모 하을 적에 갖은 편수가 모였는데, 김편수냐 이편수냐, 두 편수의 거동을 보소. 목자 먹통 손에 들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대단히 바쁘게 시키누나. 이 집을 이룩할 제집터 한번을 뉘아보자.

좌자오향쇠를 놓아 사방으로 둘러보니 壱 山川을 바라보니 필봉산 솟았는데 오봉산 오형제요, 필봉산은 壯元及第 열일이 날 자리라. 좌좌오향의 주추를 놓고 仁義禮智 기둥 세고 三綱五倫 대들보를 얹고 외(外)천지 무궁무궁에다 응천상지 마룻대여 선하子孫은 서까래요 友愛知心은 평부대며 암기와 숫기와는 아귀로 물렸구나. 용두머리 막새집에 은자추녀 되었구나. 소로 벽부 分明하니 문치장이 없을소냐 영창 가창에 열미 달이 완자(丸字)창에 가로달이 국화물림 좋을시고 내우분합 물린 후에 외우 황토 초적하고 시토 시새 새벽후에 황분지 초배하고 백능화 정배후에 쳐다보니 소라반자 내려다보니 각장장판 소란병풍 둘렀는데 천하명화 좋은 그림 여기 저기 붙었구나. 右便을 바라보니 위수의 강태공은 무왕을 보려하고 곧은 낚시를 물어 넣고 어련히 앉은 모양 역력히 그려있고, 左便을 바라보니 酒中天子 李太白이 포도주를 취캐먹고 물밑에 비친 달을 전지랴하는 양을 역력히 그려있고, 또 한편을 바라보니 商山四皓 네 老인이 바둑판을 앞에 놓고 黑棋 白棋 두는 양을 역력히 그려있고, 또 한벽을 바라보니 한 종실 유 황숙은 남양초당 와룡선상 찾아 가느라고 걸음 좋은 적토마를 뚜벅뚜벅 빗겨 몰아앞에는 장비 관우 남양초당 풍선중에 지향없이 가는 모양 역력히 그려있다.

안방 치장을 볼 양이면 육간대청에 너른 마루 뒤주 쌍쌍 찬장 쌍쌍 탁자까지 놓였구나, 마루 선반을 바라보니 全羅道 죽반이며 저장반이 쌓여있고 네귀백이 잔목판에 두리목판 쌓였구나. 부엌으로 잡아드니 ? 器皿이 분명하다. 온반상에 금반상 광주분원에 사기반상 가득 소복히 쌓여 있다. 솔치장을 볼 양이면 全羅道 곱돌솔 구리솥에 복창으로 무쇠가마 여기 저기 걸려있다. 부엌치장도 그만하니 노적이나 돌아보자. 뒤로 돌아뒷노적, 앞으로 돌아 앞노적 명에노적 쌓였는데, 윗노적에는 짜이 나고 아래노적엔 꽃이 피니 춘화작작 난만개 봉황이 펄펄 날아든다. 업죽제비가 뉘였느니 이런 경사 또 있느냐? 이집 이같이 지였으니 立春인들 없을소냐? 대문전을 바라보니 龍水保虎逐災 뚜렷이 볼

였구나. 사랑기둥을 바라보니 願得三山不老草 拜獻高堂 白髮親 뚜렷이 불였는데, 마루 기둥을 바라보니 우여명호는 만인수며, 마사이령이 현리행 완연히 불였구나. 광문기둥 바라보니 錦衣玉食이 倉庫滿이요 仙風道骨이 우상직 광문전 바라보니 掃地하니 黃金出 開門하니 萬福來라 뚜렷이 불였구나. 마루대청 기둥을 보니 碧桃春桃는 백성대, 家和人和는 萬事成 뚜렷이 불였는데 마루대청을 바라보니 應天上之三光이여 備人間之五福이라 완연히 불였구나. 방문기둥을 바라보니 堂上 학발이 천년수요 슬하자손 만세영 (榮)이라 완연히 불여있고 부역문전을 바라보니 삼일은 입국하여 시수는 작강탕 완연히 불었다. 이만 허구서 사는 집에 사랑 앞에다 연못 파고 연못 가운데다 섬을 모아 섬 가운데 육모정 짓고 이색 가중에 주인대주 사방 네귀에 풍경달아 풍경소리를 운을 맞차 五絃琴 빗겨안고 남풍시를 화답하니 그런 경사 또 있느냐. 이만 허고 사는 집에 명과 복을 발원인데 石崇에 복을 빌고 강태공의 나이를 빌어 상팔십 후팔십에 발원이로다.

무당 : 집도 잘 짓구 富貴功名으로 사는데 子孫두 많이 낳았을 테니 그 科舉 풀이나 한번 해 보오. 이만하고 사는 집에 아들 子孫이 나면 공부도 잘 시켰을텐데 공부에 따라서 그집 아들이 잘 되어 과거하고 벼슬하여 잘 살다 죽었다는 과거풀이를 해 보오.

마부 : 그럼 들어보려오?

(타령조로) 이집 가중에 어린아기 한 두살 세살 네살 삼사인 자랄적에 오이 붓듯 가지 붓듯 일취월장 잘 자라니 글이나 한번 읽어보자. 천자한권 읽은 후에 시전 서전에 論語, 孟子, 四書三經을 다 배우니, 筆法은 王희지요, 풍채는 杜牧之요, 李太白의 文章이라. 이때하면 어느 때냐. 國態가 民安하고 時和가 年豐하니 나라에서 泰平과 貴인 단 말 풍년에 년짓 듣고 科場기구를 차릴적에 장장 창 머리채를 반달열레로 설설 가려 보기좋게 엎어따서 갑사당기를 끝 물렸다. 오복수 저고리에 백공단 바지에 법단 조끼 펼쳐입고 백수화주 마고자 고양난이 속버선에 뭉고 삼승 덧버선은 모양있게 신었구나. 한포단 맨님은 고무례 丁자로 제겨 매고 도리볼수 행전에다 오복수 두루매기 남갑사 전복이며 술띠를 늘려 띠고 머리에는 겸은 갑사 복전에다 준주 늘림 얹었구나. 서산 나귀 솔질하여 송구안장 지어타고 앞에는 설동자 뒤에는 밀동자 주야배로 올라가 한양성내 도달하니 의성문이 여기로구나. 백포 채일은 구름같고 팔도 선비 다 뇌였다. 글씨를 講論한다. 시지를 펼쳐놓고 黃毛無心筆 덤뿍 풀어 龍硯에 먹을 갈아 백능설화 간지상에 일필휘지 선장하니 서시관 보시고 高聲大讀으로 呼名한다. 호명소리 반겨듣고 御殿에 복지하니 실내를 재촉힌다. 머리에는 어성화 몸에는 금폭대청동 쌍개를 앞세우고 허리에는 이병요호 손에는 옥흘을 쥐고 금안백마에 높이 앉아 청동 쌍개를 앞세우고 장안하고 대도상에 완완히 실내하니, 끌목 끌목 뵈인 사람 人山人海 허였구나. 三日遊街를 마친 후 본택(택)으로 돌아와서 선산에 소분하고 부모님 전에 배양(알)하니 이런 경사 또 있는가? 원근지족 모아다가 大宴을 배설히고 삼사일 쉰 후에 다시 상경을 허였구나.

한림학사 다 지내고 승지 참판 되었다가 내직으로 계셨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 또 있느냐?

무당: 소장수 서방님 여태 헌 일도 많지마는 이 집 祝願이나 한번 잘 들이시우.

마부: 그래 봅시다.

(타령조로) 國態民安 법률전 세화년풍 돌아든다. 왕씨 낭군 이후로구나. 이씨가 한양에 登極하니 삼각산 기봉하야 鳳鶴이 되었구나. 鳳의 머리에 터를 닦아 鶴의 등에다 大闕 짓고 大闕 앞에는 六曹로다. 여기 저기 五營門 십이대장이 결진하고 삼각산 왕심 이는 무학천(청)통이 되었구 동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sup>①</sup> 보충가사: 은하는 결립자 사바는 서교로다. 남서를 부주잡고 양주같은 대모관 연천 같은 소읍이며, 근구근명 양위부처 근시일시 동락으로 한 오백년 늘어갈 제 백대천손 하옵시고 아나검사 부인마마 상남에는 서방님

마부: 한강이 수궁마다 동적강이 되었으니 조옹남산의 중앙대, 해동유명의 朝鮮國은 정기 요진의 한양외다. 삼십육중의 대모관 면례도 대면례며 동중도 대동중에 이택 동중 들었구나. 서주를 바라보니 큰 명자 서방님 곤명에도 부인마마 근구근명의 양위부처 근시일시 동락으로 태조백년 늘어갈 제 한 두살이라. 금년생 열 스물의 중남자손 이삼십이라 근구근명 여자 얘기 수명 장수를 축수로다.

무당: 월액 따라 삼재팔난 살풀이나 해서 살이나 막어주구 그만듭시다.

마부: 한마디 들어보시오.

(타령조로) 지나갔던 幸運年은 꿈결같이도 갔건마는, 올같이 험한 時節에 이 집의 살을 풀어보자. 산으로 올라 산신살, 들로 나려 적용살, 용마루에는 용충살이요, 안마당의 벼락살이요, 마루대청의 성주살, 안방으로는 삼신살, 거름방으로는 공방살이냐? 부엌으로 주앙살, 부뚜막에는 주앙각씨, 아궁이에는 겸덟귀신, 사릉에는 땅그렁각씨, 굴뚝에는 굴대장군, 물독에는 龍女婦人, 자루속에는 부녀각씨, 쌀독에는 제석 만명, 이 살 저살 휘몰아다가 방畋이 맞은 복어 한개 탁주 일퀴 안동하여 의주 월강 소멸하니, 만조옹노 여귀에 富貴榮華를 누리노라 살을 풀어보자.

<sup>①</sup> 보충가사: 시년 해를 접어들어 몽수대살이 시다하니 몽수대살 풀고 가자. 입다 굴려라 청궁살다리 굴려라 지동살, 오르내려라 요신살, 거리노전에 흥(횡)액살, 썰물에도 서 낭살, 내색조색 서낭살, 이머퉁 저머퉁 서낭살 은하는 그일차 사바를 서교로다. 온갖 액을 다 풀어서 금일고사 원강천리에 소멸하니 그런 경사가 또 있느냐?

제석거리에 이어 「소놀이굿」이 끝나면 慶事 굿의 巫儀는 다시 계속되어 열네번째 거리로 〈호구거리〉를 논다. 마마배송과 관련이 있는 〈호구거리〉와 〈제석거리〉사이에 「소놀이굿」을 노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다. 〈호구거리〉의 제물로서 콩 한 사발 팔 한 사발을 놓는다. (저녁때에 시작된 굿이 「소놀이굿」 다음으로

〈호구거리〉까지 進行되니 時間은 이미 子正이 지나 婦女子들이 무감을 서고는 就寢하게 된다. 이튿날 아침에 다시 굿은 계속되어 열다섯째거리 〈성주〉를 마루에서 논다. 이때는 「만수받이」와 성주노래 가락을 창한다. 물론 이러한 時間割當은 그때 그 때의 形便에 따라 變更될 것이다(대부분의 경우 「소놀이굿」은 밤늦게 놀게 된다). 열여섯째로 〈산거리〉는 아홉째 거리 〈상산〉과 같고 열일곱째거리 〈창부〉는 〈성주거리〉와 같으며 끝으로 〈뒷전〉으로 안마당에서 〈제면각시〉 〈터주건립〉을 놀고 대문밖 바깥마당에서 〈구능〉 〈구능대감〉 〈서낭〉 〈영산〉 〈산문〉 등의 거리가 進行된다.

#### (附記)

소놀이굿 順序와 臺詞 및 歌詞의 前後에 說明한 巫儀節次는 1967年 7月 3日과 4日에 白石面 梧山里 단촌에 있는 禹龍辰 家에서 巫堂 趙英子가 행한 慶事굿과 禹龍辰의 소놀이굿에 의한 것이다. [資料：第14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出演案內] (서울大學校 李杜鉉博士 資料提供에 의한 京畿道 案內冊子)

#### 演 戲 者

1969年 基準

姓 名	性別	生年月日	保有種別	本文에서 의 配役	經 歷	住 所
禹龍辰	男	1904. 2. 6	馬 夫	馬 夫	彭壽天에게서 배워 30年	白石面梧山里(단촌)
高寬成	男	1911. 6. 20	"	보충가사①	"	南 面 龜岩里 177
吳福三	男	1902. 11. 18	결 마 부	보충가사⑤	"	南 面 湘水里
趙萬奉	男	1909. 7. 14	"		禹龍辰에게서 배워 3年	廣積面 佳納里 (능내동)
金春成	男	1901. (1967) 死亡	"	보충가사③	20歲前後에 彭壽天에게서 배움	南 面 神岩里
趙英子	女	1906. 5. 30	巫 堂	巫 堂	40年間 巫業에從事	州內面 維陽里
金完孫	男	1909. 4. 26	해 금	보충가사④		隱縣面 仙岩里
池命千	男	1918. 8. 18	피 리			白石面 梧山里
梁達順	女	1936. 11. 27	巫堂및장고			白石面 梧山里
李錫烈	男			보충가사②		

## 2. 道指定文化財

### 1) 有形文化財

#### ① 指空禪師浮屠 및 石燈

指定番號：地方有形文化財 第 49 號

所 有：檜岩寺

位 置：檜泉面 檜岩里

크 기：높이 3.5 m

材 料：花崗石

時 代：高麗末



指空禪師浮屠

天寶山 기슭에 위치한 檜岩寺의 東側稜線에 指空, 懶翁, 無學 3 和尙의 浮屠가 차례로 서 있는데, 이 浮屠는 제일 뒤에 있고 그 앞에 石燈이 있다. 浮屠의 構造는 八角圓堂形을 基本으로 하여 8角下基石이 놓여 있으며 中臺石은 鼓腹形으로 8角을 이루고 있으나 각면에는 아무런 彫刻이 없어 單調롭다. 上臺石은 8角小櫛形으로 되어 基壇部를 이루고 있다. 塔身은 球形이고, 8角屋蓋石의 屋表에는 隅角을 向하여 뻣은 降起線이 있을 뿐이고 屋蓋面의 傾斜는 急하고 추녀는 두꺼운 便으로 隅角에 이르러 顯著한 反曲을 이루고 있다. 相輪部에는 覆鉢이 없이 5個의 寶輪과 寶珠를 連結하여 彫刻한 것이 特異하며 屋蓋石과 相輪部는 約 10°程度 左側으로 기울어져 있다.

前面에 위치한 石燈은 아래 基壇이 方形이고 4角下臺石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위에 4角竿石이 4角臺石을 받쳤고 火舍는 2個 火窓을 이룬 것이 特異하다. 4角屋蓋石은 傾斜가 緩慢하여 네 귀가 들려 있다.

指空和尚은 元나라 順帝 때 高僧으로 이름은 禪覺이다. 印度 摩竭提國의 사람으로 高麗 25代 忠烈王 末年に 高麗에 들어와 머물다가 金剛山 法起道場을 비롯하여 長湍, 楊州, 梁山 等各地를 遊歷한 後 元으로 다시 돌아갔으나 高麗僧과의 接觸이 자주 있었다.

#### ② 懶翁禪師浮屠 및 石燈

指定番號：地方有形文化財 第 50 號

所 有：國有

位 置：檜泉面 檜岩里

크기 : 高 3.5 m

материал : 花崗石

시대 : 高麗末

天寶山 기슭의 檜岩寺 東側稜線 指空禪師浮屠 바로 아래 位置하고 있는 이 浮屠는 8角圓堂形의 地臺石을 基礎로 하고, 그 위에 2個로 된 8角下臺石이 놓여 있으며, 中臺石은 鼓腹形으로 8角을 이루고 있다. 또한 上臺石은 8角小楂石으로 되어 基壇部를 이루고 있으며, 塔身은 球形이고 8角屋蓋石의 屋表에는 隅角을 向하여 뻣은 隆起線이 있을 뿐이고, 屋蓋의 傾斜는 比較的 緩慢하다. 相輪部에는 相輪 받침이 두터우며, 覆鉢없이 3個의 寶蓋와 寶珠를 함께 彫刻하였다.

前面에 位置한 石燈은 아래 基壇이 方形으로 되어 있으며 그 위에 4角下臺石을 올려 놓았다. 다시 그 위에 竿石이 아무런 무늬가 없는 單調로운 4角臺石을 받치고 있으며 2個의 火舍石이 屋蓋石을 받쳐 自然火窓을 이룬 것이 特異하다. 屋蓋石의 傾斜는 매우 緩慢하여 中央에는 蓮花寶珠가 있다.

懶翁禪師는 高麗 31代 恭愍王 때 王師로 俗姓은 牙, 雅號는 懶翁·江月軒. 閩慶大乘寺의 了然大禪師에게 가서 중이 되었고, 西域 印度의 指空和尚을 따라 國法의 正脈을 받아왔다. 그 後 1376年(禡王 2年) 王命을 받고 密陽瑩原寺로 가던途中 神勒寺에서 入寂했다.

### ③ 無學大師碑

指定番號 : 地方有形文化財 第 51 號

所 有 : 國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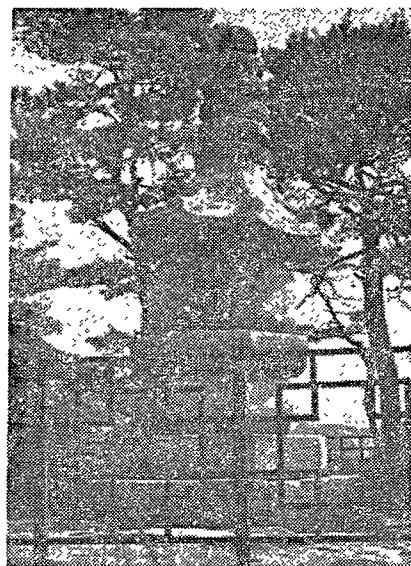
位 置 : 檜泉面 檜岩里

크기 : 3.7 m

材 料 : 花崗石

時 代 : 朝鮮朝 初期

無學大師碑는 天寶山 기슭의 檜岩寺 東側稜線 懶翁禪師의 浮屠 바로 前面에 位置하고 있다. 地臺石 위에 比較的 높은 碑座를 얹고 碑



懶翁禪師浮屠



無學大師

身을 세웠다. 그 위에 기와지붕 모양의 屋蓋石을 덮어 碑身을 保護케 한 것인데,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碑石으로서 無學大師의 碑額은 「檜岩寺妙嚴尊者塔碑」이고 太宗 10年(1410)에 建立되었다. 純祖 28年(1828)에 重建하였는데, 碑文은 春亭 卞季良이 撰하고 孔俯가 隸書體로 글을 쓴 것이다.

碑文의 字徑이 約 2cm나 되어 判讀이 容易하다. 無學大師는 高麗末 朝鮮初期(1327 ~ 1405)의 高僧으로서 俗姓은 朴, 이름은 自超, 號는 無學으로 三岐郡 사람이다. 18 歲에 出家하여 龍門寺에서 慧明國師에게 佛法을 배운 後 恭愍王 때 燕京에 가서 指空을 찾고 이듬해에 法天寺에 있는 懶翁을 찾았으며 五臺山 等地를 巡禮한 後 西山 靈岩寺에서 懶翁과 같이 머물다가 恭愍王 5年(1356)에 돌아왔다. 李太祖에게 불려 松京에 가서 王師가 되고 檜岩寺에서 살았다. 太祖로 하여금 새로 都邑을 漢陽으로 옮기도록 하는데 큰 役割을 하였다. 太宗 5年(1405) 金剛山 金藏庵에서 78 歲로 入寂하였다.

#### ④ 檜岩寺址浮屠塔

指定番號：地方有形文化財 第 52 號

所 有：國有

位 置：檜泉面 檜岩里

크 기：높이 6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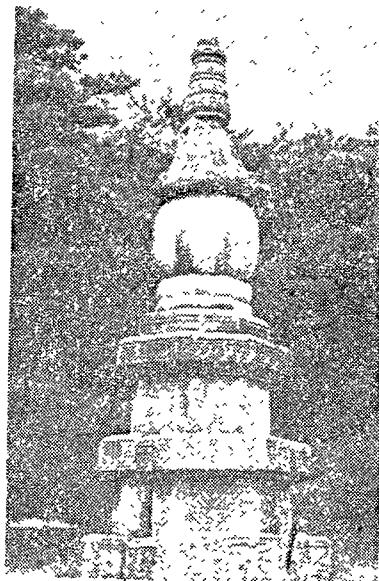
材 料：花崗石

時 代：朝鮮朝 初期

檜岩寺址內에 있는 이 浮屠는 8個 板石으로 된 8角基壇 위에 4個로 된 8角下臺石으로 되어 있는데, 各面에는 龍馬 무늬가 鮮明하다. 그 위에 두 개로 된 8角下中臺石 各面에는 蓮唐草文이 彫刻되어 있으며 그 위에 다시 唐草무늬를 두른 中臺甲石이 있고 8部神主 무늬가 彫刻된 上中臺石이 두 개로 된 8角上臺石을 받치고 있는 것이 特異하다.

3層으로 된 塔身반침 위에는 球形으로 된 塔身을 올려놓고 다시 傾斜가 急한 屋蓋石을 덮었는데 現在 左側一部가 破壞되어 있다. 相輪部는 蓮花무늬의 覆鉢 두개의 寶輪, 8角의 寶蓋, 寶珠로 되어 있다.

浮屠가 언제 設立되었으며, 누구의 것인지는 正確히 알 수 없으나 大略 檜岩寺가 繁昌하던 全盛期인 朝鮮期 初期가 아닌가 推測되며 浮屠의 規模로 보아 朝鮮朝 第11代 中宗의 繼妃 文貞王后的 篤信을 받던 普雨의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檜岩寺址浮屠塔

## ⑤ 御射臺碑

指定番號：有形文化財 第 82 號

所 有：國有

位 置：州內面 維陽里（舊官衙遺址 後便）

材 料：花崗岩 및 大理石

時 代：正祖 16 年(1792)

州內面 維陽里 舊官衙터 後便 언덕 밑에 位置하고 있다. 材料는 花崗岩(龜趺)과 大理石(碑身)으로 되었으며, 規模는 龜趺가 높이 45 cm, 幅 80 cm, 길이 140 cm이며, 碑身의 높이 137 cm, 幅 54.5 cm, 두께 23 cm이다.

오랜 歲月이 지나는 동안 龜趺 下端 뒤쪽 一部가 埋沒되었으며 6.25 事變때 彈痕으로 몇 군데가 剝落되어 있다.

朝鮮朝 第 22 代 正祖가 光陵에 거동할 때 오가는 길에 楊州官衙에서 留宿하고, 이 곳 활터에서 활 몇 巡(五矢가 一巡)을 쏘고 近侍와 差員에게 命하여 차례로 활을 쏘게 한 후 饗宴을 내리었다고 한다. 御射臺碑는 이를 紀念하기 위하여 當時 楊州牧使 李敏采가 正祖 16 年(1792)에 建立하였다. 碑文의 内容은 다음과 같다.

正祖 16 年 壬子 九月上旬에 임금께서 光陵에 거동하실새 沿路에 橋梁을 架設하는 弊端을 덜기 위하여 동쪽 길을 버리고 북쪽 길을 취했으며 오가는 길에 그 고을 官舍에서 留宿하시고 三日만에 돌아왔으니, 대개 백성의 負擔이 무거워질 것을 念慮하신 至極한 뜻이었다.

楊州官衙의 옆에는 옛날부터 활터가 있었는데 거동하시던 날 저녁 무렵에 활터에 올라 활 몇 巡을 쏘시고 近侍와 差員에게 命하여 차례로 활을 쏘게 하신 후 인하여 饉宴을 내리셨으니 참으로 거룩한 일이었다. 이에 고을은 더욱 빛이 나고 활터는 더욱 이름이 높아 훌연히 여러 사람의 尊仰하는 바가 되었다.

大駕<sup>1)</sup>가 돌아옴에 미처 京畿監司 徐鼎修가 열줄(十行)의 細音<sup>2)</sup>을 淨書하여 楊州官衙의 壁에 걸었는데 대개 典謨<sup>3)</sup>와 비슷했으니 우리 백성을 위한 너그러운 恩惠 아



御射臺碑

1) 임금의 行次

2) 임금의 말씀이니, 「禮記」繙衣篇에 王言如綸이라는 데에서 나왔음.

3) 聖人의 教訓

님이 없었으며, 이어서 몸소 활을 쏘는데 대한 古風詩를 臣에게 내려 주셨다.

몸소 활을 쏜 內譯은 작은 柳葉箭으로서 무릇 十巡을 쏘았는데, 그중 命中한 것이 四十九矢요 分數<sup>4)</sup>는 七十二分이었다. 縫巡의 第四矢에 이르러서는 말씀하시기를, 『五十矢을 모두命中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하시고 이에 맞히지 않았으며, 第五矢는 관혁의 복판을 또命中하였다.

조금 후에 長이 一尺 남짓하고 廣이 二尺가량 되는 작은 관혁을 세우고 五矢를 모두命中했는데, 무릇 經巡에 한 화살을 일부러命中시키지 않은 것은 더우기 聖明의 謙讓하는 뜻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삼가 古風詩一首를 細音의 편액 우편에 거니, 盛德과 神藝가 左右에 나란히 빛나게 되었다. 활터도 또한 表識이 없을 수 없으므로 碑石에 御射臺라고 새겼으며, 또 邑誌에 실려 千秋萬代에 紀念을 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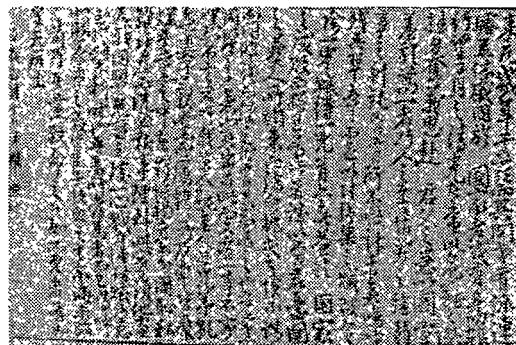
楊州牧使 臣 李敏采는 백번 절하고 삼가 씀

正祖十六年(1792) 壬子 十二月 日에 세움

#### 御射臺碑(裏面)

上之十六年壬子九月上旬 幸光陵以輿梁省弊舍東路而取北路 出還皆經宿干楊州衙三日乃徵蓋爲民意也治之傍舊有射臺 駕臨之夕 御老射若干巡命近侍暨差員升射以次仍宣饌式燕甚盛拳也於是乎地益勝而臺崇屹爲羣望之宗 駕還道臣徐鼎修書揭十行 細音於州壁與典謨相表裏而無非吾曠絕之惠也繼有 御射古風 判下於賤臣 御射柳箭小的凡十巡而其中四十九矢其分七十有二粵若終巡第四矢則有 教若日五十矢皆中不可乃不中第五矢又貫中旋以長尺餘廣倍尺之小革五矢俱全終巡之勉強闕一尤可以仰見 聖意之攸在謹狀古風一本揭于 細音之右 盛德神藝左右炳烺則臺亦不可無識乃勒之石日御射臺 又載之邑誌以作億萬年之觀之爾  
楊州牧使臣李敏采百拜謹記

崇禎三年 壬子十二月 日立



## 2. 紀念物

### ① 權慄將軍 墓

指定番號：地方紀念物 第2號

所 有：私有(權五英)

位 置：長興面 石峴里

權慄將軍의 筆蹟

4) 화살을命中한 成績의 點數

### 크기:

時代: 朝鮮朝 宣祖 32年(1599)

이 墳墓는 壬辰倭亂中 陸戰의 名將 權慄將軍을 모신 幽宅으로서 墓制는 特徵이 없고 床石 1個, 文武石은 左右에 각各 1基, 神道碑 1基가 있다.

將軍은 1582年(宣祖 15)에 科舉에 及第하고 禮曹佐郎等의 벼슬을 거쳐 1592年(宣祖 25)壬辰倭亂 때 光州牧使로 軍兵을 募集하여 防禦使 郭山榮의 摩下에 隸屬되었다. 龍仁싸움에서 官軍이 敗하여 將軍은 다시 光州에 가서 千餘名의 軍兵을 募集하여 南原싸움에서 敵을 大破하고 羅州牧使가 되어 赴任 전에 全羅道巡察使로 陞進되었다. 全州에서 兵士 萬餘名을 引率하여 水原 禿山에 와서 陣을 치고 敵의 西進을 막았다. 王이 이 소식을 듣고 劍 1領을 下賜하여 軍律을 嚴正하게 하였다. 幸州山城大捷의 功으로 6月에 都元帥가 되어 全軍을 指揮하였다.

1596年 忠淸道觀察使가 되고 다시 都元帥가 되어 宣祖王으로부터 말 한 匹을 下賜 받았다.

### ② 李暉光 先生 墓

指定番號: 紀念物 第 49 號

所 有: 宗中(李喜泰)

位 置: 長興面 三下里 山 90

크 기: 높이 144 cm, 直徑 46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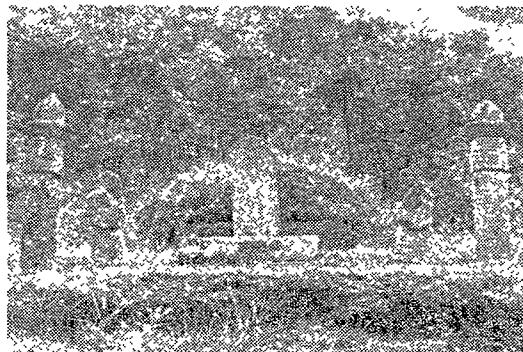
時 代: 仁祖 6年(1628)

平凡한 墓制로서 封墳 앞에 墓碑, 床石, 香爐石 各 1基와 左右에 文人石, 望柱石 各 1雙씩이 있다.

護石은 埋沒 혹은 毀損된 탓인지 正面에 1枚石만 남아 있다. 墓碑는 6.25 事變때 彈痕으로 識別이 어려울 程度로 毀損이 심하다.

墓域에서 前方 約 100m 地點에 光海 5年(1613)에 象村 申欽이 撰하고 南窓 金玄成이 碑文을 쓰고, 仙源金尙容이 碑머리篆字를 쓴 神道碑 1基와 仁祖 10年(1632)에 月沙 李廷龜가 撰하고, 竹南 吳竣이 碑文을 쓰고 仙源 金尙容이 碑머리篆字를 쓴 神道碑 1基와, 曾孫 李玄錫이 碑文을 쓴 神道碑 1基 等 모두 3基의 神道碑가 있다.

芝峰 李暉光 先生은 朝鮮朝 中期의 文臣이다. 宣祖 15年(1582)에 進士가 되고 宣祖



李暉光先生墓

18年(1585) 別試文科에丙科로及第하여修撰,持平,校理等을거쳐吏曹佐郎이 되었다. 宣祖 25年(1592)壬辰倭亂때慶尙右道防禦使趙徽의從事官으로出戰했으나黃潤에서敗戰한뒤義州에王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6世紀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性理學 기능의變化는朝鮮後期의政治와思想에도 많은영향을주었다. 性理學의지나친觀念論화와그結果로서의禮學의발달은尊華攘夷思想의強化,綱常의階層倫理極大化,大義名分 중심의價值論強調등을가져왔고,그것이士林派勢力이中央政界의主導權을쥐게되는16世紀後半期 이후에는그들의支配論理와연결되어黨爭을발생시키고심화시키는구실을하였다.

### ③ 해유령 전첩지(蟹踰嶺戰捷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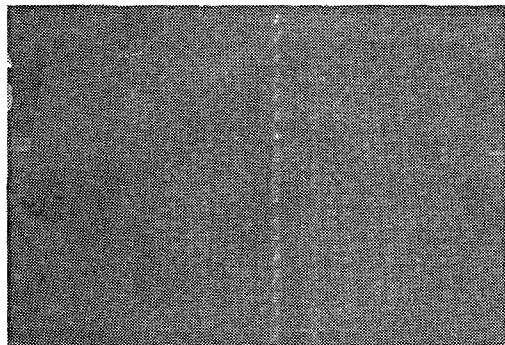
指定番號: 地方紀念物 第39號

所 有: 郡有(楊州郡)

位 置: 白石面 蓮谷里山 28

時 代: 朝鮮朝 宣祖 25年(1592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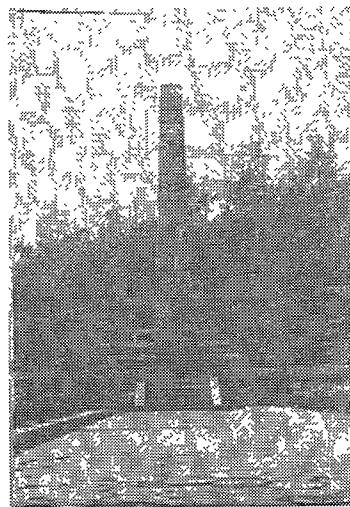
西紀 1592(宣祖 25)年 4月 15 日 侵略의 元兇 日本의 도요도미 히데요시의命을 받은 15萬名의倭軍이 9陣으로 나뉘어 釜山浦에 上陸하므로서 國家的인亂을 맞기에 이르렀다. 破竹之勢의日本軍이 釜山에上陸하자마자 그날로 釜山에서 침사 정발(鄭撥)



戰 捷 記

이 싸우다 戰死했고, 東萊에서는 부사  
송상현(宋象賢)이 孤軍奮戰하다가 戰死

하였다. 日本軍은 그후 거의抵抗을 받지 않은 채 梁山, 密陽을 거쳐 大邱, 조령, 尙州方面으로進入했다. 朝廷에서는 우의정 이양원을 수성 대장으로 삼아 城廓을 修築하고 전북병사 김명원(金命元)을 都元帥로 기용하여 漢江을 수비케 했으나, 宣祖는 서울



해 유령戰捷碑

을 이미 떠날 생각으로 영의정 이산해와 議論하여 백금등을 사들이고 있었으니 民心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었다. 그려던중 각 곳에서는 敗報만이 殺到하니 宣祖는 여러 大臣들과 議論한 결과 잠시 平壤까지 亂을 避하고 명나라에 援兵을 請하여 수복을 피하는 한편 王子들을 各道에 보내어 軍事를 모으도록 했다.

그리하여 장자 임해군을 咸鏡道로 보내고 제2차 순화군을 江原道로 보냈으며, 이양원, 김명원등은 그대로 머물러 서울을 지키게 했으나 日本軍이 금명간에 서울에 들어온다는 報告를 받고는 王과 世子로 책봉된 光海君의 일행은 어둠을 타고 宮闕을 떠나기로 이르렀다. 이때 비빈(妃嬪)도 도승지 이항복의 선도로 피난길에 올랐고 이들을 따르는 백관은 이산해, 유성룡등 겨우 백여명밖에 없었다. 王이 宮闕을 떠나자 난동이 일어나게 되어 난민들은 장례원과 형조에 放火하여 노비문서를 불사르고 내고에 난입하여 금전과 재물을 헤쳐버렸으며, 경복궁과 창덕궁 등에 불을 놓으니 역대의 보기와 홍문관의 書籍, 춘추관의 歷代實錄, 타고에 소장된 사초며, 승전원일기등이 모두 타버렸고 또 임해군과 흥여순의 집에 방화하니 서울은 입성하기도 전에 이미 난장판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추풍령을 넘어 온 구로다등의 일군이 서울에 이르렀을 때 漢江防禦를 責任진 都元帥 金命元은 지례 겁을 먹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하니 군사들도 烏合之卒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양원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敗해 後退하기에 이르렀으며 김명원 휘하의 副元帥 신각將軍은 兵士들을 督勵, 敵과의 일전을 벌였으나 不利한 戰勢로 逆不足, 不可避 後退를 감행 楊州로 군사를 집결 이양원과 함께 전비를 점검하며 일전의 장소를 물색하기에 이르렀다. 楊州郡 白石面 연곡리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고개로 속칭 계님이 고개라 불리는 곳이 있다. 올라보면 멀리 天寶山脈이 南北으로 길게 뻗어있고 옥야백리의 기름진 들판이 한눈에 바라보이는데 능히 敵을 포진 요격 할만한 戰術的 요지라 판단되었다. 蟹踰嶺이라 불리는 이 고개를 적이 북진의 길로 택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후방의 임전수습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신각장군은 적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때를 같이하여 함경병사 이흔의 부대를 만나게 되니 서로 합세하여 倭軍을 격파하기로 작전을 세웠던 것이다. 이윽고 1592年 4月 15日 적이 부산에 상륙한지 1달이 지난 이날! 멀리 먼지를 일으키며 뱃의 모양을 한 긴 일본군의 행렬이 시야에 비쳤다. 그동안 海戰에서는 聖雄 李舜臣 將軍이 용맹을 떨쳐 연전연승으로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실로 陸戰에서는 이렇다할 싸움 한번 못해보고 敗하기만 하던 병사들은 이제 신각장군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몇 번의 후퇴로 얻은 치욕을 씻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눈은 빛나고 있었고, 손엔 땀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쥐죽은 듯 조용한 蟹踰嶺 고개에 이른 일본군은 아군이 매복해 있는 줄도 모르고 연속된 승리에 도취되어 기분이 들떠 있는 상태로 닥아오고 있었다. 신각장군의 우렁찬 돌격명령과 함께 눈 깜짝할 사이, 함성소리와 함께 이미 적의

선두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적의 장수들은 말 아래로 굴려 떨어졌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右往左往, 실로 기습공격은 성공적이었다. 각처에서 적의 비명소리가 들렸으며, 적은 도망가기에 바빠 武器마저 놓아버렸던 것이니 壬亂 이후 육전에서는 처음으로 승리하였으며, 적의 예봉을 깨고 참살한 적군만도 70餘名이 넘었으니 아군의 사기는 용솟음 치듯 충천하였다 것이다.

그러나 북으로 옮진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모르고 있을 뿐더러 수도를 버리고 황망히 도주했던 비겁자 김명원은 신각장군이 자기와 같이 행동치 않고 이양원과 함께 후퇴하지 않은 것을 구실로 하여 허위 보고서를 宣祖께 올려 아군의 궤멸과 수도 서울의 함락은 신각의 명령불복 때문이라고 責任을 轉嫁하고 모함하니 우의정 유홍이 이 말을 믿고 宣祖께 아뢰어 신각장군을 참형에 처하라고 하였다. 옛 格言에 「비겁한 자는 여러번 죽는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은 오직 한번 죽는다」는 말이 있다. 천추에 빛날 전공을 세우고도 억울한 죄명을 쓰고 선전판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으니 하늘과 땅이 모두 슬퍼하였다 한다. 나중에야 신각장군의 功勳과 戰勝을 알리는 蟹踰嶺 快捷의 정식 보고가 조정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사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급히 사자를 보내 형을 거둘 것을 명했으나 선전판이 형장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참형을 집행한 후였던 것이다.

보라!

偉大한 人物치고 어디 억울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將軍의 명성과 공훈은 千秋萬代에 이를 것이다. 회고천대 피를 흘릴 줄 모르는 民族은 亡하고 만다. 壬辰倭亂은 우리 民族이 절대로 亡하지 않는다는 歷史的 教訓을 남겨 주었다.

신각장군의 蟹踰嶺戰捷은 바로 宣祖實錄과 壬亂日記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도 피가 많이 흘러 들어간 마을이라 하여 “피난말”, 敵軍이 기겁을 하며 냅다 도망을 갔다 하여 「냅대마을」, 敵의 시체와 수많은 말을 함께 묻었다는 「말무덤」등의 史蹟地名의 유래를 들을 수 있으며, 냅대마을은 현재의 흥숙리로, 피난말은 연곡리 난곡부락으로 발전되었다 한다.

이제 勝戰의 옛 장소에는 늦은 감이 있진 하나 1977年 4月 21日에 地域 人士들의 뜻으로 蟹踰嶺戰捷碑가 세워지므로서 억울하게 비명에 숨진 장군의 넋을 위로하게 되었고, 歷史에 길이 빛날 전공이 드러나게 되어 京畿道 地方 紀念物 第39號로 指定되니 이는 民族正氣 繼承을 위한 國防 遺蹟地로 活用되고 있는 것이다.

戰捷碑가 建立된지 3年後인 1980年 5月 19日 地域 住民들의 성의로 蟹踰嶺 戰捷 추모제향을 들이게 되어 매년 이날이 되면 蟹踰嶺의 戰勝을 紀念하는 추모제를 드리니 國家와 民族을 위하여 賈충보국(竭忠報國)하신 거룩한 선열의 충혼이 千秋에 빛나도록 한다.

#### ④ 白仁傑 先生墓

指定番號：地方紀念物 第 58 號

所 有：私有(水原白氏宗親會)

位 置：廣積面 孝村里 山 26

時 代：朝鮮朝 中宗 32 年

白仁傑 先生(1497~1579)은 朝鮮朝 中期의 儒學者이며 清白吏로서 趙光祖의 門人이다. 字는 士偉 號는 休庵이다.

1519 年(中宗 14) 己卯土禍때 스승과 동지를 모두 잃고 마음아파하며 金剛山에 入山하였다가 돌아와 同王 32 年(1537 年) 式年文科에 丙科로 及第하여 성균관에서부터 檢閱禮曹佐郎, 南平縣監, 戸曹正郎, 持平, 獻納 等 여러職을 歷任하다가 1545 年(明宗元年) 乙巳土禍때 尹元衡등 小尹의 세력으로 파면되고 安邊으로 유배되었다.

宣祖때 直提學, 吏曹參判, 大司諫, 大司憲을 거쳐 工曹參判이 되고 다시 大司憲이 되어 權臣들을 논핵하다 辭職했다.

1579 年에 東西分黨의 폐단을 論하였고 軍備強化를 강조했다.

楊州牧使로 있을때 善政을 베풀어 “백결가”로 유명하다.

清白使에 오르고 學文에도 뛰어났다. 시호는 文敬이다.

神道碑는 宋時烈이 글을 짓고 宋浚吉이 글을 쓰고 金壽恒이 篆字를 썼다. 이웃 部落에는 住民들이 建立한 善政碑가 있다.

### 3) 民俗資料

#### ① 檜岩寺址 맷돌

指定番號：民俗資料 第 1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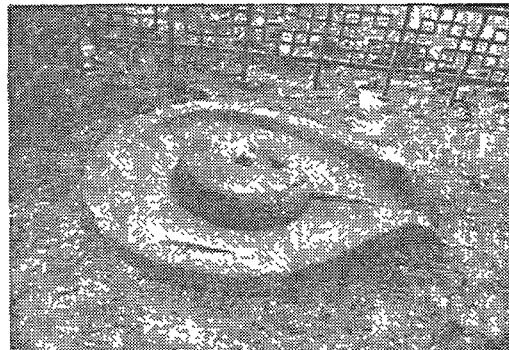
所 有：檜岩寺

位 置：檜泉面 檜岩里

時 代：未詳

材 料：花崗岩

材料와 規模가 비슷한 2基의 맷돌이 있다. 花崗岩一枚石에 매합지와 맷돌이 함께 彫刻되어 있다. 規模는 1基는 花崗岩 가로 151cm, 세로 173cm, 높이 34cm, 두께 12cm, 半徑 33cm이며 다른 1基는 가로 140cm, 세로 168cm, 높이 48cm, 두께 12cm이다. 이 2基의 맷돌은 彫刻樣式이 相異한데 1基는 숫맷돌과



檜岩寺址 맷돌

함께 凸→凸形이며 다른 1基는 숫맷돌이 앉은 자리가 陰刻된 凹→凹形이다. 이 2基의 맷돌 중 1基는 암맷돌이 없어졌는데, 1基는 암맷돌이 있다. 이 암맷돌은 半徑 31.5 cm, 두께 24 cm로서 맷손을 품던 자리가 中心部에 彫刻된 것이 特異하다.

이 맷돌은 檜岩寺址 右側 오솔길 바로 밑에 巨岩一枚石으로 된 2基의 맷돌이 石槽와 함께 露出되어 있다. 一般家庭에서 使用하던 맷돌의 材料는 보통 단단하며 곰보치 럴 깊은 틀로서 맷손자루도 암맷돌옆에 박아 使用하게끔 만든 것이 常例인데 이 2基의 맷돌은 1枚의 巨石(花崗岩) 매함지와 맷돌을 함께 彫刻하였고 또한 매함지를 돌로 만들고 맷손을 암맷돌 中心部上에 품게 만든 것이 特異하다.

이 2基의 맷돌 中 숫맷돌이 매함지와 함께 彫飾된 1基는 아마도 거친 가름을 하던 것으로 생각되며 또 1基 즉 암·숯맷돌을 함께 올려 놓게 彫飾된 맷돌은 고운 가름을 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使用上에 있어서도 혼자는 操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2人以上이 제자리에 앉아서 마치 2人用 톱으로 나무를 자르듯이 밀고 당기고 하여 操作하였다 것 같다.

檜岩寺의 創建年代는 確實치 않으나 高麗末에 인도僧 指空에 의하여 建立된 것으로傳해지고 있으나 指空開基 以前에도 그 前身寺刹이 있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그 後 懶翁和尚과 世祖妃에 의하여 重·三創되어 麗末鮮初에 있어서의 最大規模를 갖는 寺刹로서 繁華했던 것이다. 明宗朝 普雨大禪師가 失脚함으로써 衰退하기始作하여 19世紀初에는 이미 完全히 廢墟로 된 寺刹이다. 이 檜岩寺의 來歷과 이 2基의 맷돌의 規模를 살펴볼 때 아마도 彫刻年代는 檜岩寺가 가장 繁華했던 朝鮮朝初期가 아닌가 생각된다.

## ② 檜岩寺址 단간지주

指定番號 : 非肯定

所 有 : 檜岩寺

位 置 : 檜泉面 檜岩里

時 代 : 朝鮮朝 中葉(推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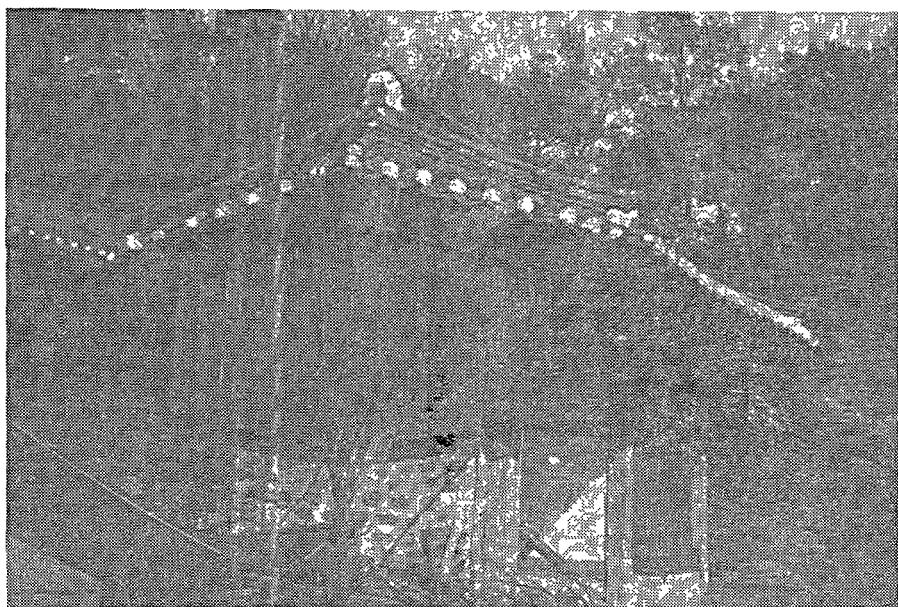
材 料 : 花崗岩

檜岩寺에 있는 단간지주는 年代와 位置는 알 수 없으나 左側 15m 담장 지대석 밑에 스러져 땅에 묻혀 있는 것을 1981年 9月에 발굴 복원한 것이다.

이 단간지주는 아마도 배개(2 쌍)인 듯하나 現在 1個는 발굴하지 못했음.

朝鮮朝 中葉때의 作品으로 推定하고 있다.

## 第5章 旌 門



## 1. 忠 臣

### 1) 권절정문(權節旌門)

권절은 1422년(세종 4)부터 1494년(성종 25)까지 생존한 인물로 조선 왕조의 충신이다. 자는 端操, 호는 栗亭 또는 醉翁亭이라 했고 世稱 生六臣이라 불린다. 시호는 忠肅, 본관은 안동이다.

고려 말 당대 九封君으로 전무후무한 名聲을 날린 文正公 永嘉府院君 權溥의 5대손인 권절은 1447년(세종 29) 친시문과에 급제, 承文院 正字로 出仕,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多才多能하여 문장은 물론 弓馬에도 뛰어나 당시 南怡와 더불어 絶人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때문에 세종은 권절을 총애한 나머지 그의 文武를 기리어 곧이어 司僕寺 直長으로 선임하는가 하면 승문원 博士, 호조 정랑에 임명했고 1455년(단종 3)에는 集賢殿 校理로 經書進講에 힘썼다.

바로 이때는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金宗瑞·皇甫仁 등이 首陽에게 까닭없이 참살당한 癸酉靖難이 있은 직후요, 이미 國權은 수양에게 넘어가 단종은 有名無實한 존재가 됐고 드디어 韓明渾·權撣 등이 禅位를 강요하여 왕위가 수양에게 넘겨지고 단종은 上王으로 물려 앉은 史上 汚辱의 해였다.

이듬해인 1456년엔 成三問·朴彭年 등 이른바 死六臣이 단종의 復位를 꾀하다 발각되어 誅戮됐고 이로 인해 1457년 단종은 魯山君으로 降封, 강원도 寧越로 유배되는 몸이 됐으며 이를 보다 못한 錦城大君이 또 다시 복위를 꾀하다 賜死되는 몸이 되어 단종은 다시 庶人으로 내려지고 마침내 17세란 젊은 나이로 자살을 강요당해 한 많은 孤魂이 됐다.

이같은 王權篡奪劇에 권절은 동지 金時習·南孝溫과 함께 不事二君<sup>1)</sup>의 충절로 분연히 일어나 세조에게 抗拒했다.

莊陵志 및 朝鮮名臣錄에 따르면 세조는 권절을 회유하기 위해 누차 집까지 찾아와 설득했지만 거짓 벙어리 시늉을 하면서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脅迫이 심해 長姪 權晏의 집으로 가 일체의 신분을 숨긴 채 檢束을 피했다고 한다.

세조는 그의 才器를 아끼나마지 다시 剑知中樞府事까지 내렸으나 거짓 狂人행세를 하며 끝내 불응했으며 오직 한 임금을 따라 寧越에서 단종의 파란 많은 종말을 손수 지켜본 후 隱居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의 온거지는 확인되어 있지 않으나 그의 부친 權審의 묘가 州內面 廣沙里 雲鶴洞에

1)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

있고 권절의 묘 또한 別內面 德松里 沙洞 모친 묘 아래 봉분된 점, 그리고 직계 자손과 玄孫 權潔의 묘까지 권절 묘 부근 또는 廣積面 遇古理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주 지역내일 것으로 추정된다.

1698년(숙종 24) 단종이 복위되어 廟號<sup>2)</sup>가 追贈되면서 숙종은 1703년(숙종 29) 권절에게 節義가 높다 하여 生六臣으로 명하고 「忠臣權節之旌門」을 내리고 그를 追贈했다.

정문은 현재 廣積面 遇古里 450번지에 있다.

寧越莊陵 八賢祠에 배향돼 있으며 栗亭亂稿가 있다. 忠臣門 추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贈資憲大夫 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  
摠管世子左賓客行集賢殿校理 贈謚 忠肅公 權節之門 [ 1703 (숙종 29) ]

## 2) 여영원 정문(呂榮元 旌門)

呂榮元은 1595년(선조 28)에서 1627년(인조 5)까지 산 조선의 무신이며 본관은 威陽이다. 인조 때 무파에 급제하여 訓練院 前正을 지냈다. 1627년(인조 5) 丁卯胡亂 때 後金이 쳐들어 오자 대신들의 천거로 要衝인 碧潼 수비의 책임을 맡았다. 현지에 가자마자 적군이 쳐들어 오니 手下에 변변한 군사도 없이 官卒 수백명으로 성두에 올라 혈전하여 적군 300여명을 베고 나니 화살이 다하고 시위가 끊어져 白兵戰을 하다가 마침내 대세 불리함을 깨닫고 “적을 다 베지 못하고 죽음이 한스럽다”하고 자결했다.

1796년(정조 20)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1745년(영조 21)에 충신정문을 내리고 1796년(정조 20)에 시호를 襄壯이라고 내리니 풀이하면

전쟁에 수고가 많으니 양(襄)이라 하고

전쟁터에서 죽으니 장(壯)하다고 한다.

甲冑有勞曰 襄

死於原野曰 壯

시호를 받은 문중에서는 즉시 절차를 갖추고 儒林에 널리 알려 延謚宴<sup>3)</sup>을 베풀고 祝賀詩를 지었으니 한 예를 들면

진경의 절개요 휴양의 충성이여

온은한 깃발은 정문 빛속에 휘날리도다

장한 기운은 직접 연나라 변방 달을 찌르고

---

## 2) 임금의 謚號

## 3) 조상의 시호를 받으면 이를 맞이하는 잔치

영특한 소리는 아직도 암록강 바람에 진동하네  
 칼 끝에 간 자취는 천추에 희고  
 상감의 은혜는 한 떨기가 붉었더라  
 빛나는 포상이 없이 어찌 다 기록하랴  
 해동 오늘 날에 호걸스런 영웅을 알았도다.

眞卿之節睢陽忠

隱隱旗旌暮雨中

壯氣直衝燕塞月

英聲猶振鴻江風

劒頭往蹟千秋白

天上恩綸一紅

不有華褒那得著

海東今日識豪雄

(平山后人 申鳳朝)

충신정문은 桧泉面 鳳陽里 881 번지에 있었는데 6.25 사변에 燒失되고 旌門垈地는  
 軍事基地로 되었으며 묘는 坡州郡 汶山邑 當洞里에 있다.

忠臣旌門額書

有名 朝鮮國 忠臣 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謂襄壯公行嘉  
 善大夫碧潼郡守碧潼鎮兵馬僉節制使 呂榮元之門

英宗 21年 乙丑 11月 日

命旌

正宗 20年 丙辰 10月 日

賜

## 2. 孝子 및 孝女

### 1) 남궁 조(南宮 鉉)

隱縣面 龍岩里 산 62 번지에 南宮鉉의 효자 정문이 있다.

남궁 조의 자는 聖立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모친 병환이 위독하매 의대를  
 한번도 풀지 않고 시탕하며 밤마다 복두칠성에 기도하여 자신이 대신 죽기를 축원하였  
 으며 상을 당하여 애절하게 3년을 마치니 나라에서 정문을 내리고 조봉대부 동동교관  
 을 증직하였다.

## 2) 남궁 지(南宮 墤)

隱縣面 龍岩里 산 83 – 7에 南宮 墤의 효자 정문이 있다.

남궁지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성심껏 모시고 상을 당하여 3년을 하루같이 애통해 하였다. 효행이 과인한 소문이 나라에 알려지자 효자 정문을 내리고 조봉대부 동몽교관을 증직하였다.

## 3) 이병(李炳) 효자정문(孝子旌門)

處士 李炳은 효성이 지극하여 그 소문이 조정에까지 들려 1716년(숙종 42)에 효자 정문이 예조에서 내려졌으나 장소는 미상이다.

## 4) 이옥(李煜) 효자정문(孝子旌門)

通德郎 李煜은 효성이 지극하여 그 소문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1716년(숙종 42)에 예조에서 효자 정문을 내리었다 하나 위치는 미상이다.

## 5) 이원중(李元中) 효자정문(孝子旌門)

李元中은 司馬 聰祚의 아들로서 天性이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여 어려서도 부모의 말씀을 조금도 어김이 없었고 9세에 부친이 사망함에 예를 따라 초종을 치르고 號哭함이 어른과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3년간을 侍墓하며 하루같이 슬퍼하였으니 이 소문이 조정에까지 들리어 예조에서 嘉善大夫 童蒙教官을 증직하고 효자정문을 내리었다.

정문은 白石面 梧山里 小梧山에 있어 오랫동안 어린이 교훈에 귀감이 되었으나 6.25 사변에 주택과 함께 소실되어 아직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 6) 이후성(李后成) 효자정문(孝子旌門)

李后成은 副知中樞府事로 효성이 지극하여 그 소문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1716년(숙종 42)에 예조에서 정문을 내렸다. (三綱錄)

## 7) 임일기(任日箕) 정문(旌門)

桧泉面 栗亭里에는 孝子 任日箕의 정문이 있다.

임일기의 자는 白輝이고 호는 沙隱이니 본관은 豊川이다.

천성이 효성에 지극하고 충성심이 깊어 조정에서 朝奉大夫 司憲府 持平을 증직하고

정문을 하사하였다.

또 시문에 능하여 일세를 풍미하였는데 남긴 시 한 귀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월대에서]

양주 길손 송경을 지나니  
만월대는 비었는데 옛 성만 남았고나  
쳐 량타! 사백년 윙업이  
두견새 소리 속에 사라져 갔네

[題遊於滿月臺]

維楊行客過松京  
滿月臺安繞古城  
淒涼四百餘年業  
盡人風土杜字聲

#### 8) 최규석(崔圭錫) 旌門

廣積面 遇古里 佳佐洞에는 효자 崔圭錫의 정문이 있다.

최규석은 모친 병환에 위독함에 단지하여 회생케 하였고 또 經史에 널리 통하고 학행이 있어 벼슬이 가선대부 동지 돈령부사에 이르렀다. 1833년(순조 33)에 왕이 근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풀어 참여하니 83세의 노령이었다.

1894년(고종 31)에 조정에서 효자정문을 하사하였다.

#### 9) 최제(崔濟) 孝子旌門

崔濟는 1659년(효종 10) ~ 1723년(경종 3) 때 사람으로 자는 汝楫이고, 본관은 忠州이며, 前知中樞 運亨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여 6,7세부터 의복·음식을 어른보다 먼저 하지 않고 11세에 모친상을 당함에 슬퍼하고 죽먹는 예절이 어른과 같았다. 아버지 운형이 객지에서 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구걸하여 侍湯을 하고 대변을 맛보아 길흉을 징험하며 주야로 축원하여 회춘케 하였다.

그 후 부자가 같이 병이 나서 부



崔濟의 孝子旌門

친이 위독하니 斷指하여 위급을 면하고 읍내에 가서 약을 지어 가지고 돌아오는데 장마가 져서 개울을 건널 수 없는지라 양천통곡하며 하늘에 빌고 물에 뛰어드니 물이 훌연 알아져서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 뒷 사람이 그것을 보고 따라 건너려 하니 물은 여전히 많아 건너지 못하였다 한다. 첨추공이 96 세의 장수를 누리고도 기력이 강왕함은 공이 효성으로 봉양한 까닭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또 계모를 40년간 봉양하는데 한 번도 뜻을 어김이 없어 生母와 다름이 없었다 한다.

1715년(숙종 41)에 많은 선비들이 楊州 本營에 진정하여 조정에까지 들리니 1716년 겨울에 특히 褒賞하고 復戶<sup>4)</sup>의 恩典을 하사하고 朝奉大夫 童蒙教官에 추증되었으니 그 사실이 禮曹 孝烈錄에 기록되어 있다.

1854년(철종 5)에 旌門을 세우라는 예조의 지시로 1855년에 廣積面 遇古里 佳佐洞 232에 정문을 세웠다.

#### 10) 최혁(崔赫) 旌門

崔赫은 1778년(정조 2년)부터 1838년(현종 4년)의 인물로 字는 文伯이라 하고, 본관은 忠州이며, 濟의 현손이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純和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의복과 음식을 부모보다 먼저함이 없고 9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서는 애통하고 호곡하여 사람들이 차마 보지 못하였으며, 자라서 노모를 섬길 때에는 “돌아가신 뒤에 만반진수 차려놓고 애통지통하는 이보다는 살아 생전의 따뜻한 봉양이 더 옳다”하여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음식을 준비하여 爲<sup>5)</sup>을 들이듯이 하고 출타하여 맛있는 것을 얻으면 비록 먼곳이라 할 지라도 도포소매에 간직하여 가져다 드리었다 한다.

1809년에 친산을 緬禮<sup>6)</sup>하는데 호곡하기를 초상때와 같이 하고 또 3년 복상을 하니 어려서 집상하지 못한恨을 느낀 까닭이다.

모친 병환에 8~9개월을 侍湯하는데 잠시라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밤마다 北斗七星에게 “이몸이 대신 가더라도 모친의 병환이 꽈차하시도록” 축원을 하고 약의 쓰고 독함을 맛보아 드리고 대변을 맛보아 길흉을 짐작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넣어 회생케 하였다. 마침내 公이 병이 나서 갑자기 더하여 위독하여지니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모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뢰기를 “소자의 병이 회생할 수 없아오니 원컨대 어머님께선 남은 생을 강녕히 보내소서”하고 탄원하더니 별안간 일어나

4) 충신이나 효자들에게 부역을 면하여 주던 일

5) 장사지내기 전에 영전에 음식을 차려놓는 의식

6) 무덤을 옮기고 다시 장사지냄

가묘(家廟 … 사당)에 참배하직을 고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사당쪽을 바라보기 두어번에 다시 누워 자식들에게 유언하기를 “너희들은 어머님 모시기를 나 살아 있을 때와 같이 하라”하고 숨을 거두니 享年이 61이다. 모친은 80 노인으로 참변을 당하니 “이 몸을 살려 놓고 어진 자식을 잊었다”고 탄식하며 “네 장례 후 나도 따라 죽어 지하에 가서 효도를 받으리라” 하더니 3년 후 禪祭<sup>7)</sup> 날 저녁에 終命하였다. 이는 사랑과 효도가 다 지극한 것이라고 士林들의 發議로 진정하여 조정에서 1869년에 旌門을 내리고 1870년에 童蒙教官을 追贈하였다. 그 후에 또 嘉善大夫戶曹參判氣同知義禁府事를 추증하니 그 사실이 禮曹孝行錄에 기록되어 있다.

旌門은 廣積面 遇古里 佳左洞 232에 있다.

### 3. 烈女 吳 孝婦

#### 1) 효부 신씨 정문(孝婦申氏 旌門)

吳斗柄의 처 신씨는 효성이 지극하여 시부모 봉양에 하루도 게으름이 없었기에 그 소문이 조정에까지 들려 예조에서 1716년(숙종 42)에 정문을 내리었다. 위치는 미상이다.

#### 2) 효부조씨 정문(孝婦趙氏 旌門)

州內面 於屯里 286번지에는 효부 증 정부인 한양 조씨의 정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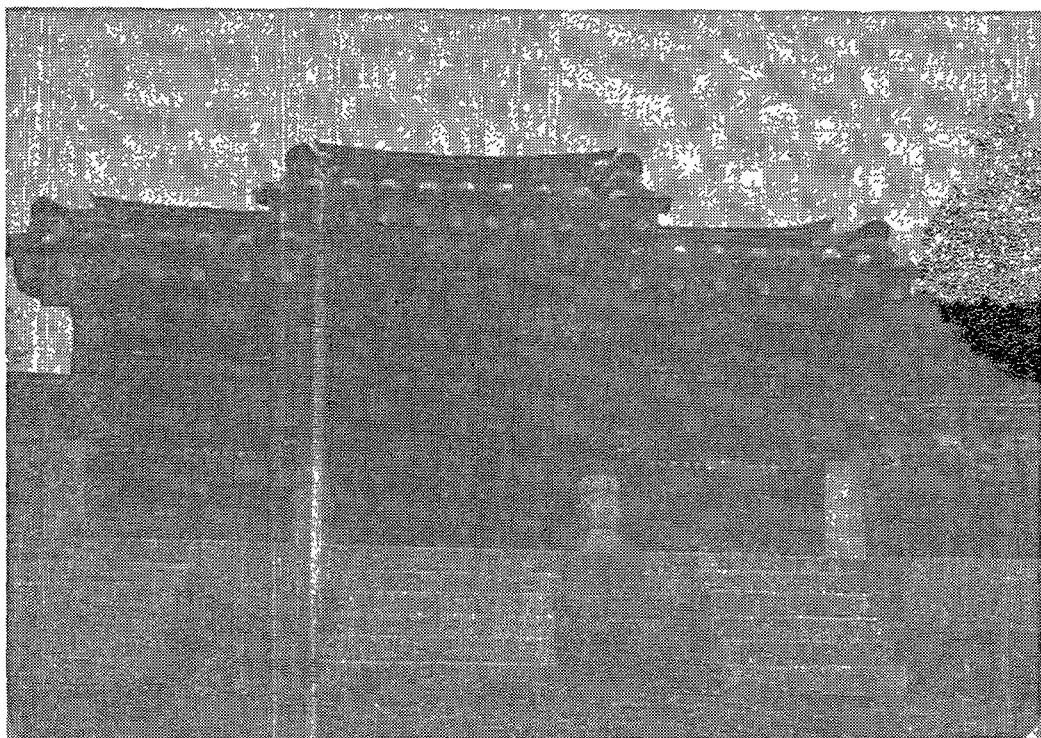
조씨는 17세에 홍문관 교리 李允謙에게 출가하여 시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시부모 병환이 위독하여 운명하려 할 즈음에 단지하여 회생케 하였고 늦도록 시부모를 봉양하고 우애가 돈독하여 세인이 여자중의 증삼(증자)이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1832년(순조 32)에 조정에서 정문을 하사하였으나 6.25 동란에 소실되고 주춧돌만 남아있다.

7) 대상을 지내고 그 다음 다음달에 지내는 제사

## 第6章 建物



## 1. 사우(祠宇)

### 1) 남양부 부인별묘(南陽府夫人別廟)

南陽府夫人 洪氏는 襄節公 韓確의 부인이다.

부인은 南陽의 望族으로 名閥의 韓氏家門에 出家하여 3男6女를 두니 德宗대왕의 왕비 昭惠王后의 母親도 된다.

부인은 公侯卿相의 어머니로서 夫君에게는 婦道를 다하고, 子女에게는 賢母가 되었으니 그 淑德懿行이 一世에 자자하였다.

부인의 墓와 別廟는 隱縣面 龍岩里에 있는데 墓의 현황은 神道碑, 墓碑, 文臣石 등이 있고 神道碑는 弘治<sup>1)</sup> 10年(1497)에 建立되었으며 別廟는 近年에 세워졌다.

### 2) 송질(宋軼) 사당(祠堂)

隱縣面 仙岩里 山 39(능골)에 있다.

正面 2間 側面 1間 맛배지붕 건물로 墓, 碑와 함께 있다.

### 3) 윤근수(尹根壽) 사당(祠堂)

檜泉面 玉井里에는 尹根壽의 祠堂이 있었으나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있다.

尹根壽의 자는 子固이고 호는 月訂이며, 본관은 海平이니 領議政 尹斗壽의 아우이다.

1558年(明宗 13)에 별시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자 聖節使가 되어 明나라에 다녀왔고 宗系辨証의 공으로 光國功臣 1등에, 그리고 해평부원군에 봉해졌다.

鄭澈 문제로 삭직당하였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다시 예조판서로 등용되어 問安使, 遠接使, 奏清使 등으로 明나라와의 外交를 擔當하여 廣寧에는 3번, 遼東에는 6번이나 다녀와 國難克服에 힘썼고 호종공신 2등에 봉해졌다.

性理學에 밝고 문장과 글씨가 뛰어났으며 시호는 文貞이다.

### 4) 조영무(趙英茂) 별묘(別廟)

白石面 蓮谷里 山 25~1에 있다.

趙英茂는 高麗末 朝鮮初期의 文臣으로 시호는 忠武이며 본관은 漢陽이다. 太祖 李成

1) 明나라 효종의 연호(1488 ~ 1505)

桂가 革命할 뜻을 세우고 人材를 求할 때 趙仁沃의 추천으로 포섭되어 李成桂를 추대하여 朝鮮開國의 공을 세우고 判殿中寺事에 올라 開國功臣 3등으로 漢山君에 봉해졌다.

太祖 3년(1394) 商議中樞府事를 거쳐 1398年 芳遠의 휘하에서 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定社功臣 1등이 되었다. 定宗 2년 都督中外諸軍事都鎮撫로 병권을 장악하여 제2차 왕자의 난에도 방원을 도왔고 參判三軍府事에 진직되어 領中樞府事에 兵曹典書를 兼하였고 右政丞判吏兵曹事를 거쳐 1408年 漢山府院君에 진봉되고 訓練觀都提調領三軍府事が 되어 사직했다.



休巖(趙英茂)廟

太宗의 극진한 총애를 받아 1414年(太宗 14)에 병이 위중하자 太宗이 친히 문병하려고 행렬이 이미 시작되었을 때 計報가 들려 행차를 그만 두었다 하며 그 墓에 親臨하여 吊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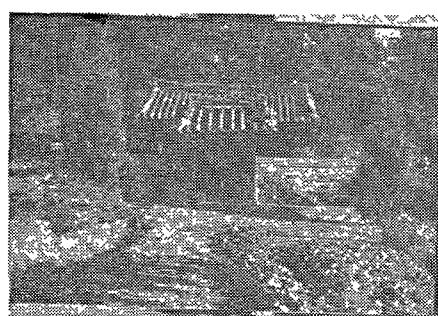
후에 太宗의 廟庭에 배향되었다.

### 5) 흥해(洪海) 사우(祠宇)

隱縣面 下牌 1里에 唐城尉 洪海와 淑慎翁主의 祠堂이 있다.

唐城尉 洪海는 崇德大夫 唐城尉 唐城君 忠清道節制使를 지낸 太祖의 부마이다. 淑慎翁主는 太祖의 둘째 翁主로 唐城尉 洪海에게 下嫁<sup>2)</sup>하였다.

唐城尉와 翁主의 墓所는 抱川郡 青山面 德屯里에 있고 下牌 1里에는 위패를 모신 祠堂집이 있다.



唐城尉 洪海祠堂

2) 公主나 翁主가 一般人과 結婚하는 것.

## 6) 남양홍씨(南陽洪氏) 사당(祠堂)

隱縣面 下牌 1 里 15 (송천)에 있다.

南陽 洪氏의 祠堂으로 正面 2 間, 側間 1 間, 막배지붕으로 建坪은  $19.8m^2$  (6坪)이며 주위에 20m의 曲垣이 있다.

## 7) 회암서사(晦巖書社)

檜泉面 栗亭里 山 2番地에는 晦巖書社가 있었다.

晦巖書社는 豊川任氏의 一門三世四賢이라고 세상에서 稱頌이 자자하여 경기 10 향교의 사림들이 통문을 둘려 1855年(철종 6)에 발의하여 1857年에 晦巖書社를 創建하여 4賢을 배향하였다. 4賢이란 昭簡公 任由謙과 그의 아들 관찰사 任樞 및 그의 아우 貞憲公과 任權의 아들 貞簡公 任虎臣을 말한다.

처음에는 이 4賢을 위하여 創建後 다시 文忠公 月沙 李廷龜와 진사 揚浦 崔灝 등 2人을 추배하여 도합 6명을 배향하였다.

사람들의 통문으로 6賢을 제향하여 오다가 대원군 回社令 때에 철剔된 후 復舊되지 않았다.

## 8) 회와 영정각(晦窩影幀閣)

晦窩는 尹陽來의 호다. 朝鮮朝 현종·영조 때의 문신으로 1708年에 文科에 급제, 주서에 초임되었는데 글씨를 빨리 써서 飛注書라는 별명을 들었다. 경상우도 암행어사,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冬至兼奏清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청나라에 가서 경종의 질병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죄목으로 甲山에 圍籬安置<sup>3)</sup> 되었다. 1725年 老論의 집권으로 풀려나와 공조참판, 대사간, 한성판윤을 역임, 형조·공조·호조판서를 거쳐 판돈령부사에 이어 봉조하가 되었다. 글씨와 시문에 능하였고 시호를 翼獻이라 내렸다.

州內面 於屯里 샘말에는 영정각이 있고 그 뒤에는 웅장한 墓와 비석, 장명등, 양마석 등 石物이 있는데 影幀閣은 불타버려 없고 附屬建物만 남아 있다.

3) 流配刑의 한 가지로 집둘레에 가시가 많은 행자나무를 둘리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두는 것인데 죄가 무거운 者에게 적용되었다.

## 2. 정자(亭子)

### 1) 금화정(金華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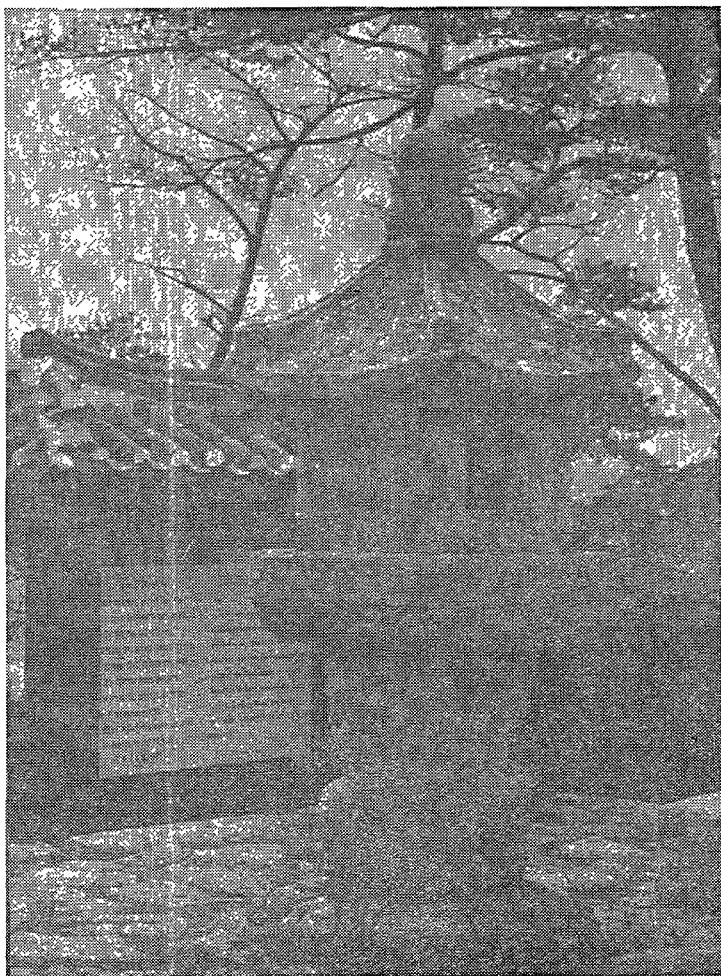
州內面 維楊里 佛谷山 南麓 아래 한 亭子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金華亭이다.

바라보니 울울창창한 것은 佛谷山 절경이고 그림같은 정자가 날아갈 듯 솟은 것은 金華亭의 모습이다. 폭포가 飛派直下하니 九天에서 銀河水가 쏟아지는 듯하여 여름철 비 온 뒤면 장관 중에 장관이다.

이 亭子를 지은이는 미상인데 옛날 楊州牧使가 政暇를 틈타 休息하기도 했던 곳이다.



## 第7章 石造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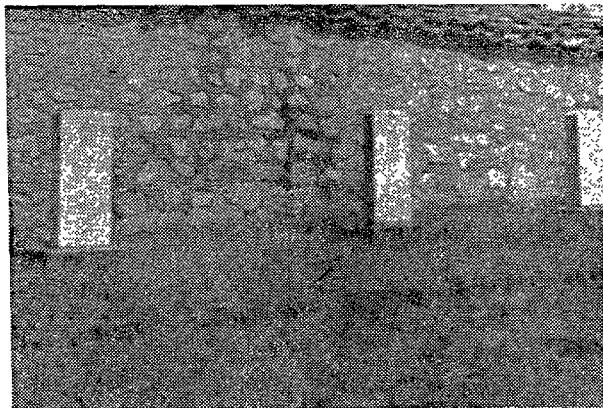


## 1. 단소(壇所)

### 1) 삼충단(三忠壇)

隱縣面 上牌 1里 沙川部落에는 세조의 왕위찬탈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충신 3位 遷庵 閔伸, 白村 金文起, 楊州 趙貫의 호패비가 있다.

遷庵 閔伸은 出生은 未詳이나 1453年(단종 1)에 참살당하였는데 본관은 驪興이다. 문종 때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하였고 首陽大君이 明나라에 갈 때 副使가 되었으나 병을 평계로 가지 않았다. 1453年(단종 1) 癸酉靖離 때 顯陵 碑役을 監督하고 있던 중 三軍鎮撫 徐遭에 의해 김종서의 일파라 하여 비역소에서 斬殺당했다. 정조때 復官되고 시호는 忠貞이다. 이 곳에 「遷庵閔先生 位」라고 쓰인 조그만 호패비가 서 있다.



三忠壇

(세종 8)에 式年文科에 급제하여 檢閱, 正言, 咸吉道 都觀察使를 거쳐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456年(세조 2) 단종 복위의 모의에 가담하였다가 붙잡혔다. 고문에 굴복하지 않다가 李愬 등과 함께 殺害되었다. 영조 때 9대손 鼎九의 원통한 송사로 復官되고 지혜의 炎溪書院에 제향되었는데 시호는 忠毅이다. 「白村 金先生 位」라고 호패비에 써 있다.

楊州 趙貫은 호는 楊州이고 본관은 漢陽이니 司評 賚의 아우이다. 집현전 교리를 지내고 1430年(세종 12)에 刑內贍寺事로 種馬管押使가 되어 明나라에 다녀오고 1448年(세종 30) 中樞院副使에 승진하고 1450年(문종 즉위) 謝恩副使로 다시 明나라에 다녀왔다. 1453年(단종 1) 癸酉靖難 때에 안평대군의 일당으로 몰려 이듬해 남해에 귀양갔다가 1468年(세조 14)에 풀려 나와 송록대부에 올랐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양주에 은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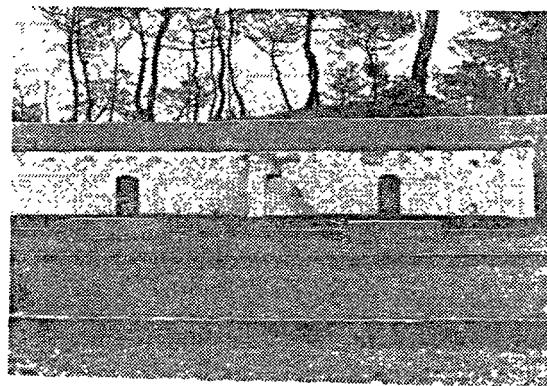
비문에는 「楊州 趙先生 位」라고 써 있다.

三忠壇의 規模는 가로 9.6m, 세로 7.2m의 곡담이 사방으로 둘러져 있고 정면에 출

입문이 있다. 1932 年 壬申年 9 月 후손 金恒權이 양주군 유림의 協調로 세웠으며 해마다 춘추로 終丁日을 택하여 60 여 유림의 주관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 2) 정절사(旌節祠)

肅宗 38 年 (1712)에 창건되어 正祖 8 年 (1784)에 賜額되었으며, 고려의 參知門下 南乙珍과 按廉使 平簡公 趙狷을 奉祀하고 있다. 隱縣面 凤岩里 山 50-1에 있다.



旌 覺 祠

## 第 8 章 園 과 墓

### 1. 원(園)

#### 1) 소령원(昭寧園)

白石面 靈場里 山 1~1番地에 있다. 昭寧園은 英祖의 私親인 淑嬪崔氏의 墓所이다. 본관은 首陽이니 증 영의정 孝元의 딸이다.

1670年(현종 11)에 출생하여 7세에 궁에 들어가 淑媛, 淑儀, 貴人을 거쳐 淑嬪에 책봉되었으니 곧 內命婦 정 1품이다.

淑嬪은 입궁하여 세 왕자를 낳았는데 두번째 왕자가 영조이다.

1725年(영조 1)에 사망하니 廟號를 毓祥이라 하고 墓號를 昭寧園이라 하였다.

墓碑는 1744年에 영조가 친히 썼다.

碑石全面에는 「有明朝鮮國後宮淑嬪崔氏之墓」라 하였고 비각내의 비석 전면에는 「朝鮮國 和敬淑嬪昭寧園 淑嬪海州崔氏昭寧墓」라 쓰여 있다.

墓의 現況은 다음과 같다.

1. 제각 1	5. 장명등 1	9. 해태석 2
2. 비각 3	6. 망 주 2	10. 곡 담
3. 재실 1	7. 문관석 2	
4. 상석 1	8. 양마석 4	

#### 2) 수길원(綏吉園)

白石面 靈場里 山 1~1番지 소령원 부근에 있다. 綏吉園은 영조의 後宮이고 진종의 私親인 靖嬪李氏의 墓이다.

靖嬪李氏는 順化坊 彰義宮에서 1719年(숙종 45)에 영조의 제1왕자 眞宗을 낳았다. 眞宗은 1724年(경종 4)에 敬義君을 봉하고, 1725年(영조 1)에 王世子로 책봉, 1727년에 입학하고 冠禮를 행하였으나 1728年 10歳때 승하하였다.

1776年 정조 즉위와 동시 진종대왕으로 추존되었다.

園에는 墓碑, 床石, 망주 등 石物이 있다.

## 2. 묘(墓)

### 1) 도평군(桃平君) 묘역(墓域)

隱縣面 仙岩里 山 1番地는 桃平君 李末生의 墓域이다.

桃平君은 朝鮮 제 2대 정종대왕의 12 男으로서 이름은 末生이고, 벼슬은 領宗正, 卿府事를 역임하고 恭昭라고 시호를 받았다.

墓域에는 正義大夫 壽城君, 影善大夫 伊城君, 全羅監司 石城君, 明善大夫 唐海君 등  
의 墓所가 함께 있다.

桃平君 墓所에는 석물 및 석등이 있으나 신도비는 임진란 때에 없어졌다 하며 그 아래대의 墓所는 자좌오향으로 繼葬되어 있고 27 정보의 宗山이 保護되고 있다.

桃平君 墓所는 西向으로 되어 있으며 蘇羅山主峯의 西麓이다.

### 2) 팔각비(八角碑)

南面 神岩里 紺岳山 栢積峰에는 八角壇 위에 세워진 八角碑가 있어 이채롭다.

碑 前面에 보면 「孝子通訓大夫務安縣監朴峻墓」라 써 있다.

朴峻의 자는 子瞻이고, 호는 歸田이며, 천성이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父親 府使公이 중풍으로 몸져누우니 畫夜로 하늘에 기도하고 御醫<sup>1)</sup> 許浚을 모시려  
하나 원래 이름이 높은 명의라 약지으려 오는 사람이 문을 메워 그 얼굴조차 볼 수 없  
었다. 이에 공이 매일 닦이 울면 일찍 가서 문을 두드리고 울며 애원하니 許浚이 효성  
에 감동하여 약을 지어주었다. 이리하여 回春하게 되니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후에 친환이 재발함에 손가락을 잘라 입에 피를 흘려 드려 다시 賴유케 하였다. 후에 부  
사공이 사망하니 장사와 제사를 禮에 따라 行하고 3年을 죽 마시고 상옷을 벗지 않으  
며 侍墓에 조석 성배를 하루도 결함이 없었다.

하루는 산불이 일어나 바람을 타고 墓에까지 범하려 하자 몸을 던져 울며 불을 끄면  
서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으니 홀연히 바람이 반대로 불어 불이 그쳤다 한다.

이러한 효행을 鄉校에서 천거하여 조정에서 효자 정문을 내리니 이 사실이 삼강행실  
록에 실려 있고 그후 孝廉<sup>2)</sup>으로 무안현감을 제수하니 백성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  
이 하여 세상 사람들의 稱頌이 높았다. 보통 碑와 다른 八角碑는 御命이라고 전하여 온다.

1) 궁중에서 임금의 병을 다스리던 의원

2) 부모를 잘 섬기고 또 절조를 지킴.

### 3) 조완규(趙完珪) 설단비(設壇碑)

白石面 蓮谷里 山 25에 있다. 成均進士 趙完珪는 충무공 趙英茂의嗣孫으로 지조가 굳고 학문이 깊어 성삼문·박팽년·황보인·김종서·정분 등이 벗으로 예우하였다. 首陽大君은 端宗 2年인 1453年(癸酉)에 前朝부터 내려오던 원로신하들을 처치하고 政權을 잡았는데(계유정란) 이때 안평대군은 賜死되고 김종서·황보인 등 首陽大君의 反對勢力으로 지목되는 지조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화를 있었다. 趙完珪도 이때 변방으로 안치되었다가 이듬해인 甲戌年 8月 19일에 禍를 당하였다. 正祖 15年(1791)에 寧越莊陵에 있는 朝土壇에 安配되고 司憲府持平에 증직되었다. 設壇碑는 1963年 後孫들에 의하여 建立되었다.

### 4) 모현비(慕賢碑)

州內面 維陽里에 있다. 이 碑는 牧使 趙鼎九의 頌德碑다. 1862年(철종 13)에 태어나 1926年에 죽었다. 朝鮮 고종때의 대신, 자는 米卿, 본관은 豊壤, 판서 凤夏의 손자, 흥선대원군의 둘째 사위, 1880年(고종 17)에 문과에 급제, 부승지, 제학, 대사성, 이조참의, 예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의정부 찬성을 거쳐 判敦寧府事에 이르렀다. 홍문학사 기록소비서장을 거쳐 宮內部大臣에 재직중 한일합방이 되어 男爵<sup>3)</sup>을 주었으나 거절하고 合邦詔書와 教諭文을 찢어 버리고 자결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質乾面 思陵里에 옮겨 출입하지 않고 스스로 月波居士라 稱하였다. 金剛山 般若庵에 가서 세상을 마치려다가 1919年 고종의 許音<sup>4)</sup>을 듣고 서울에 돌아와 因山<sup>5)</sup>을 치르고 中國에 건너가 7년 동안 지내다가 歸國하여 죽었다.

목사 재직중 탁월한 수완과 자비로운 정치로 백성을 다스리며 선현을 추모하고 綱常을 바로 잡아 선정을 베푸니 그 때 사람들이 城主의 誠心에 감동하여 慕賢衛道之碑(선현을 사모하고 도를 지키는 비)를 향교 입구에 세우고 송덕하였다.

### 5) 박응천(朴應川)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

州內面 維陽里에 있다.

朴應川의 자는渾仲이고, 본관은 潘南이니 사간 紹의 아들이다.

3) 봉건시대에 5등급(公侯伯子男)의 작위중 5번째, 周나라 때부터 내려온 제도

4)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

5) 왕, 왕비 등은 국장

1543年(중종 38)에 성균시에 합격하여 왕자 사부가 되었다. 이에 태인 현감, 호조 정랑, 대구 부사, 한성 서윤을 거쳐 양주 목사로 와서 선정을 베풀었다. 원래 양주는 雄州巨牧으로 복잡다단한 곳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니 온 백성이 親父母와 같이 따랐다. 瓜滿<sup>6)</sup>이 지나 세상을 떠나니 백성들이 선정불망비를 세워 공을 기리었다.

동생 應順의 딸은 선조의 비가 되니 곧懿仁王后 朴氏다.

#### 6) 비석거리(碑石巨里)

南面 庚申里에는 크고 작은 호패비 3기가 오랜 세월을 風雨를 견디며 서 있다.

제일 오래된 碑는 觀察使金公箕晚永世不忘碑인데 1849年 10月에 세웠고 또 하나는 行縣監吳侯慶延永世不忘碑로 1850年 5月에 세워졌다. 나머지 하나는 行縣監玄侯濟昇永世不忘碑인데 1876年 4月에 세워졌다.



庚申里 碑

#### 7) 일문삼세사현(一門三世四賢)

檜泉面 栗亭里에 世居하던 전 豊川任氏 문중에 三代동안 四賢이 나타나 稱頤이 자자하였다. 세칭 四賢이란 任由謙, 任樞, 任權, 任虎臣을 말한다.

任由謙은 1456年(세조 2)에 출생하여 1527年(중종 22)에 사마한 조선의 문신이니 자는 叔讓이고 본관은 풍천이다. 沃의 아들로 1489年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교검이 되고 감찰을 거쳐 正朝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춘추관, 기주관이 되어 성종실록편찬에 참여하고 병조참판을 지냈다. 1505年 사은부사로서 명나라에 가서 조선漂流民을 데려왔으며 1506年 동지증추부사가 되고 이해 請承襲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14年에 경기도 판찰사가 되고 형조판서와 한성판윤을 거쳐 우빈객을 역임하고 지증추부사가 되었다. 시호는 昭簡이다.

任樞는 1482年(성종 13)에 출생하여 1534年(중종 29)에 사망한 문신이다. 자는 士均이니 판서 由謙의 아들이다. 1507年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을 거쳐 현납, 교리 등을 지냈다. 그 후 우승지, 형조참의를 거쳐 경상도 판찰사, 한성부 우윤이 되었다. 1533

---

#### 6) 벼슬의 임기가 다 됨.

年 호조참판으로 동지사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 도중 병사했다.

任權은 1486年(성종 17)에 출생하여 1557年(명종 12)에 사망한 문신으로 자는 士經이니 판서 由謙의 둘째 아들이다. 1513年에 문과에 급제하여 겸열, 교리, 이조정랑을 거쳐 세자시강원 輔德등을 역임하여 직제학에 올랐다. 그 후 예조참의와 병조참의 등을 거쳐 동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544年에 예조판서가 되고 지춘추판사, 우참찬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다. 시호는 貞憲이다.

任虎臣은 1506年(중종 1)에 출생하여 1556年(명종 11)에 사망한 문신으로 자는 武伯이니 관찰사 樞의 아들이다. 1531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說書에 이르렀다. 1533年 동지사인 아버지의 서장판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봉교가 되었으나 金安老에 의해 황간현감으로 쫓겨났다가 직제학 도승지, 한성부 좌윤, 경상도 관찰사 등을 거쳐 동지 춘추판사로 중종실록편찬에 참여했다. 1551年에 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1555年에 형조판서가 되었으나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고 지돈령부사로 죽었다. 청백리에 농선되고 시호는 貞簡이라 내리어졌다.

3 세 4 혼의 묘소는 栗亭里 山 2番地에 있다.

昭簡公 묘소에는 용재 李荇이 지은 신도비가 있고 貞憲公 묘소에는 양곡 蘇世讓이 지은 신도비가 있으며 貞簡公 묘소에는 인재 洪暹이 지은 신도비들과 기타 석물이 있다.

#### 8 ) 정민시(鄭民始) 비(碑)

州內面 山北里에 있는 鄭民始[조선 英祖 21年(1745)~正祖 24年(1800)]는 文臣으로 字는 會叔, 本貫은 溫陽이다. 順朋의 후손으로 昌師의 아들인데 昌俞에게 입양했다. 조선 英祖 49年(1773)增廣文科에 급제하였으며 修撰兼 強善으로 世孫(正祖)을 輔導했고 奎章閣 直提學, 吏曹參判, 宣惠廳堂上, 平安道觀察使, 兵曹判書, 大司諫等을 지냈는데, 오랫동안 宣惠廳에 있으면서 三南에서 進上할 藥材를 半減케 하고, 米穀 運搬과 租稅수납 사무를 통일하는 등 백성의 부담을 덜고 王을 보필하여 당시 文物의 개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우의정에 追贈되었으며 謂號는 忠獻이다. 碑는 正祖의 親筆로 傳하고 있으며 方形石碑臺에 烏石碑身을 세우고 팔각지붕모양의 屋蓋를 얹었으며 원래 碑閣이 있었던 듯 네개의 長礎石이 둘레에 있다.

#### 9 ) 송질(宋軼) 비(碑)

隱縣面 仙岩里 山 15(능골)에 있는 墓, 祠堂과 함께 있으며 碑의 높이는 3.1m, 폭은 60 cm이고 두께는 25 cm이며 1967年에 碑 주위를 정화하였다.(人物編參照 p.1004)

#### 10) 남을진(南乙珍)묘비(墓碑)

隱縣面 鳳岩里 24(書院洞)에 있다. 1841年에 建立된 碑로 高麗時代의 南乙珍의 墓이다. 南乙珍은 고려 恭愍王때의 忠臣으로 조선이 開國했을 때 벼슬을 버리고 은거했는데 조선 太祖는 沙川伯이라 호칭하였다. 碑는 높이 2.8m, 폭 70cm, 두께 16cm이다.

#### 11) 백인걸(白仁傑) 신도비(神道碑)

廣積面 孝村里 184에 있는 土石混築 담장內에 있는데 碑臺는 方形石이며 龍首는 龍紋과 花紋으로 꾸며졌다. 碑文은 宋時烈이 지었고 宋浚吉이 썼으며 金壽恒이 篆했는데 높이는 2.2m, 폭은 90cm, 두께는 30cm이다.

#### 12) 윤자운(尹子雲) 신도비(神道碑)

白石面 弘竹里에 있는 조선 成宗때의 文臣으로 神道碑는 墓부근에 있으며 높이 2.5m, 폭 84cm이다. 徐居正이 지었고, 鄭蘭宗이 썼다.

#### 13) 최성모(崔聖模) 묘(墓)

長興面 石峴里 385의 6에 있다. 崔聖模(1873~1936)는 獨立運動家로서 33人中의 한 사람이다. 1962年 大韓民國 建國功勞勳章 복장이 수여되었다. 現在 墓 1基와 향로석 1個, 복돌 1個와 墓碑가 있는데 이 碑에는 正面에 己未獨立朝鮮民族代表 月塘 崔聖模之墓라 쓰여 있고 이면에는 略歷이 기록되어 있다.



崔聖模 墓

#### 14) 최제(崔濟) 효자비(孝子碑)

廣積面 佳納里 揪橋部落 揪橋川 언덕에 있다.

崔濟는 효심이 지극한 孝子이었다. 하루는 친환이 위중하여 용한 의원을 찾아 약을 구하여 돌아오다가 마침 큰 비가 내려 추교천이 범람하여 건너갈 수가 없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통곡하니,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 건널 수 있었다. 崔濟가 건너는 것을 본 동리 사람들이 또 건너려 했으나 물이 여전히 넘쳐 건너지 못하였다. 이것은 崔

濟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케 한 것이라고 전하여 조정에서 효자 정문을 내리었다.

그 후 面民이 越川한 그 자리에 崔濟의 孝子碑를 세워 효심을 선양하여 오년 중 50여년 전 乙丑年 흥수 때 매몰되었다 한다.

### 15) 외비암(外比岩)과 려양진씨 유적(驪陽陳氏 遺蹟)

廣積面 外比岩里는 驪陽 陳氏가 世居한 곳이다.

이곳은 노고산성의 일맥이 西南으로 뻗어 내려 江陵 金氏의 先祖가 開拓했다는 三峴洞과 다시 落脈이 돌아서 사방으로 병풍처럼 둘려 천봉유곡에 산자수려한 자연부락이 형성되었는데 여기가 外比岩이다. 北에는 坡州 葛谷嶺이 되고, 東에는 三峴고개가 된다. 南으로는 맑은 시내가 유유히 흐르는 한적한 山村이다.

이 부락은 忠州 池氏 선조가 350年前에 입주했다 하는데 青龍白虎가 이중심으로 웃깃처럼 여며져 면산이 조공하는 듯 得水得破가 상합되는 남향으로 된 명당에 驪陽 陳氏先祖墓가 있다. 그후로 이곳은 驪陽 陳氏의 世葬之地로 되었으며 후손들이 世居하는 곳이 되었다.

始祖는 高麗 睿宗때 대장군인 驪陽府院君 瓮厚로 이곳에는 그의 후손인 형조참판 陳仲誠과 弘文館 副提學 知製教 兼 經筵 參贊官 春秋館 修撰官 陳寔의 墓가 있는데 陳滿鉉 前 양주군수의 선조이다.

이곳에 있는 여양군 후손의 묘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陳寔 墓

陳寔은 본관이 驪陽이며 高麗睿宗때 驪陽君의 후손이다.

陳寔은 벼슬이 弘文館 副提學 知製教 兼 經筵 參贊官 春秋館 修撰官을 역임했다.

#### (2) 陳仲誠 墓

陳仲誠은 본관이 驪陽이며 고려 예종때 대장군으로 驪陽君에 봉한 瓮厚의 후손이다.

陳仲誠은 무관으로 벼슬이 龍驤衛 副護軍兼刑曹參判에 이르렀었다.

#### (3) 陳猷 墓

陳猷은 고려 예종때 대장군으로 驪陽君에 봉한 瓮厚의 후손이다.



陳寔의 墓碑

공은 천성이 강개하여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벗들에게는 밀음이 있어 세인의 촉망이 컸었다. 벼슬은 별좌로 시작하여 산음현감이 되었는데 정치는 밝고 형벌은 너그러이 하여 칭송이 자자하였다.

#### 16) 동창위(東昌尉) 권대항(權大恒) 묘(墓)

檜泉面 高岩里에 있다.

權大恒은 1610年(광해군 2)에 출생하여 1666年(현종 7)에 사망한 선조대왕의 駙馬이다. 1657年에 선조대왕의 제 10녀 貞和翁主(溫嬪 韓氏 소생)와 결혼하여 자의 대부 동창위에 봉하여졌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호종하여 금병 부총관이 되었고 성품이 충성스럽고 검소하며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있어 향당의 추양을 받았다.

貞和翁主와 합장하여 묘에는 허미수가 지은 신도비와 기타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 17) 홍명형(洪命亨) 묘(墓)

南面 湘水里 芒碭山 남록에 있다.

홍명형은 1581年(선조 14)에 출생하여 1636年(인조 14)에 사망한 조선의 문신이다. 자는 李通이고, 호는 無適堂이라 하며, 본관은 南陽이니 판찰사 命元의 아우다.

1609年(광해군 1)에 진사가 되고 1612年 式年文科에 장원급제하여 1618年 鏡城判官을 거쳐 正言, 掌令을 역임했다. 형조참의를 지내고 1634年(인조 12)에 동지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는데 중국에서 私的으로 副撫兵程龍과 만났다 하여 파면되었다가 1636年 승문원 부제조가 되었다. 이 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江華로 피난하였다가 적병이 다다르자 金尙容과 함께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 그속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義烈이라 내려졌고 강화의 忠烈祠에 제향되었다.

묘는 신도비를 비롯하여 장명등 기타 석물을 갖추고 있다.

#### 18) 독립투사(獨立鬪士) 송능식(宋能植) 묘(墓)

州內面 山北里에 있다.

宋能植의 자는 聖初이고, 호는 抗日이고 본관은 鎮川이었다.

평소에 애국심이 투철하고 여기(簷氣) 충천하여 3.1 운동 당시 손수 태극기를 만들 어 忠北槐山郡 沼壽面民에게 나누어 주고 決死義勇隊 500명을 모아 면사무소와 경찰관 주재소를 포위하여 당시의 면장과 주재소 수석(일본 사람)을 비롯하여 면서기와 순사

들까지 참가시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게 하였다. 이러한 항쟁 끝에 왜경에 불들려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오랫동안 獄苦를 치렀다.

#### 19) 황사영(黃嗣永) 묘(墓)

黃嗣永은 1775(영조 51) ~ 1801(순조 1) 때 사람으로 천주교도였으며 자는 德召, 본관은 창원, 丁若鉉의 사위였다. 1790年(정조 14)에 전사가 되고 처가의 인도로 천주교도가 되었으며 1794年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神父 周文謨에게 師事하고 「알렉산드르」라는 교명을 받았다. 1801年 辛酉迫害 때는 제천배론의 산중에 피신, 토굴 속에서 주문모 입국 후부터 신유박해에 이르기까지의 教勢 및 박해의 상황, 외세를 빌어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널리 펼칠 방책등을 명주비단에 적어서 동지 黃沁 玉千禧로 하여금 가을에 떠나는 冬至使 일행을 따라 북경의 주교 「구베아」에게 전달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황심등과 함께 체포되어 같은 해 3인이 모두 사형당했다. 이 밀서를 黃嗣永帛書라 한다. 이 사건후 천주교에 대한 당국의 박해가 한층 심해졌다.

長興面 釜谷里에 묘가 있다.

#### 20) 송인(宋寅) 묘(墓)

隱縣面 仙岩里(局潭洞)에 있다. 宋寅[中宗 11年(1516)~宣祖 17年(1584)]은 조선의 學者로 字는 明仲, 號는 頤庵, 鹿皮翁, 본관은 砈山으로 영의정 宋軼의 손자이며 之翰의 아들이다. 中宗 21年(1526) 中宗의 세째庶女 貞順翁主와 결혼하여 砈城尉가 되고 明宗때 砈城君에 봉해졌으며 여러 要職을 거쳐 都撫管에 이르렀고 詩文에 能하여 當代의 碩學들과 교유했으며 만년에는 宣祖의 諮問役割을 했다. 楷書를 잘 써 山陵의 誌와 궁전의 領으로부터 士大夫의 碑碣까지 많은 글을 썼으며 필적으로는 橫刊한 것이 전해지고 있고 謚號는 文端이다.

#### 21) 남희(南瞎) 묘(墓)

隱縣面 道下里 山 16에 있다. 조선 世宗때 忠臣으로 兵曹參判을 지냈고 功을 세워 折衝將軍의 칭호를 받았다고 전하며 墓와 墓碑(높이 90 cm, 폭 46 cm, 두께 20 cm), 床石, 望柱石 2基가 있다.

#### 22) 홍지(洪智) 묘(墓)

南面 湘水里 山 55에 있다. 고려때의 충신으로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

시와 글로 세상을 보냈다.

「有明朝鮮國宣務郎行司宰監直長洪公諱智之墓安人開城王氏祔在公墓前七步」라고 판墓碑가 세워져 있다.

#### 23) 이해수(李海壽) 묘(墓)

南面 閑山 2里에 있다. 李海壽[조선 중종 31年(1536)~선조 31年(1598)]는 文臣으로 字는 大仲, 號는 藥圃, 敬齋이고 本貫은 全義이다. 영의정 鐸의 아들로 明宗 18年(1563) 生員으로 謁聖文科에 급제, 檢閱, 說書, 奉教를 거쳐 大司諫, 兵曹와 工曹의 參議를 역임하고 都承旨가 되었으며 鄭澈의 建儲問題에 연루되어 鐮城에 유배되었다가 임진왜란으로 풀려 王을 호종했으며 大司成을 거쳐 禮曹參議가 되었고 弘文館副提學에 이르렀다. 성격이 강직하고 단아했으며 詩와 署書에 뛰어났다. 吏曹判書에 追贈되었다. 碑가 있다.

#### 24) 정렴(鄭礪) 묘(墓)

州內面 山北里 山 92(신양동)에 있다. 墓域에는 墓碑 1, 床石 1, 望柱石 2基가 세워져 있는데 墓碑는 조선 正祖 3年(1779)에 세운 碑이며 碑文은 「有明朝鮮國 北窓先生 鄭公諱礪之墓」라고 되어 있다.(人物編參照 p.1114)

#### 25) 이소이(李昭夷) 묘(墓)

廣積面 隅古里(효가동) 山 35에 있다. 定宗의 王子 茂林大君 李昭夷의 墓로 50年前 忠淸道 지방에서 이곳으로 이장되었다 한다. 夫人과 따로 매장되어 있다. 墓域은 50坪(約 165 m<sup>2</sup>)으로 床石 1, 碑石 1, 望柱石 2, 石燈 1基가 세워져 있다.

### 3. 其他 遺蹟

#### 1) 면우지(綿右池)

州內面 晚松里는 원래 松浪里와 回晚里를 합병하여 晚松里가 되었다.

약 250년전 安光宅이라는 이가 살았는데 자는 明仁이고 호는 綿右며 본관은 竹山이며 延昌尉 安孟聃의 후손이다.

천성적으로 효심이 깊고 지조가 端雅하여 평생에 조금도 옳지 않은 일을 함이 없었다 한다. 친환이 위독함에 손가락을 끊어 피를 흘려 넣어 회생케 하여 出天大孝라고 향당에 감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先祖 연창위 사당앞에 못을 파고 못이름을 綿右池라고 불렸다. 그 못이 오랫동안 있어 漑灌用도 되고 경치도 좋았었는데 일제말에 매몰하여 논을 만들었다. 지금도 그 옛날을 말해주듯 安氏의 號가 못 이름이 되고 못이름이 동네이름이 되어 전하여 오고 있다.

## 2) 왜골 절터

州內面 維陽里 왜골은 일명 玉流山이며 혹은 佛谷山이라고도 한다.

중턱 아래에는 火葬場이 있었고 이 곳에서 상봉으로 올라가면 원쪽 아래 절터가 있다. 법당자리는 묘지가 되어 있고 여러가지 유적이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오층탑이 있었으며 부근에 옥수같은 찬샘이 있어 여름이면 인파가 빈번하였다 한다. 향교옆 시내를 끼고 올라가면 중간 지점에 또 절터 하나가 나오는데 기왓장, 주춧돌 등 여러가지가 눈에 띄나 규모로 보아 암자였던 것 같다.

## 3) 미륵골

州內面 於屯里 159番地 계곡은 대모산성 동쪽이고 좌우 모두 산이 서로 둘러싸여 바람이 막혀 아늑한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데 이곳이 속칭 미륵골이다. 옛 절터라고도 하는데 밭을 갈면 기왓장도 나오고 주춧돌도 나온다. 주위 전답이 약 3,000 평 가량 되고 깨어진 미륵 2基가 있다.

하나는 세동강이 난 미륵인데 윗 봄통은 땅에 누워있고 아래는 서있으며 머리는 구령에 떨어져 있다. 세동강을 조립한다면 길이가 8척, 너비가 4척이 된다.

또 하나는 두동강이 되어 있는 미륵인데 머리와 봄통이 각각 굴러 떨어졌다. 이것을 조립하면 길이가 7척이요 너비가 3척이 된다.

## 4) 교현리 요지(橋峴里窯址)

長興面 橋峴里(동이점골)에 있다. 고려자기의 破片이 散在하여 있다. 이곳에서 동이(항아리)를 구워오던 장소라 하여 동이점골이라고도 한다.

### 5) 율정리 사지(栗亭里 寺址)

檜泉面 栗亭里에 있다. 自然石으로 조성한 높이 1.2~1.5m의 石壇이 남아있고 陶器 및 기와

### 6) 노고성 봉수지(老姑城 烽燧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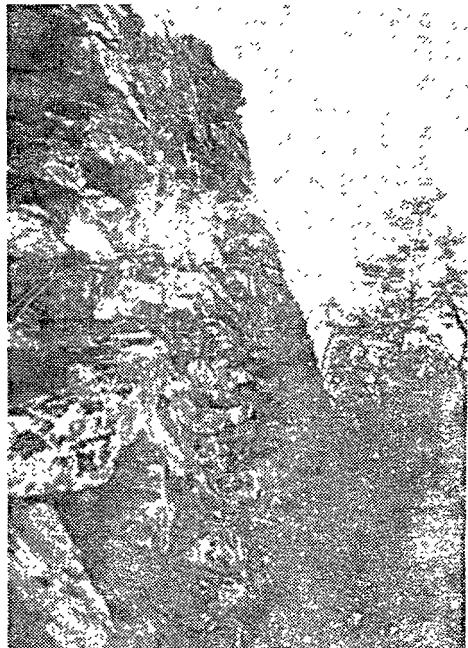
廣積面 德道里와 遇古里에는 파주와 경계가 되는 壯山이 있다. 서쪽으로는 雌雄山을 접하고 남쪽으로는 蟹踰嶺에 잇닿은 紺岳山落脈으로 구불구불한 산세가 굽이굽이 뻗어내려 일대 장성을 이루었다.

그 중 제일 높은 봉우리에 老姑城이 있으니 이 성을 노고할미가 쌓았다 한다. 城勢를 보면 웅장하지도 않고 어찌보면 봉화대와도 같이 보인다. 방어용으로 쌓은 듯하다.

옛날 남쪽 해유령과 노고성을 중심으로 큰 흥수가 났을 때 게떼(蟹隊)가 노고할미를 쪼어서 노고할미가 노하여 게떼를 해유령으로 쫓아보내니 지금도 고개너머 파주는 계의 소산지요, 고개 이쪽 양주에는 계가 일체없이 밤의 소산지가 되어 파해양률(披蟹楊栗: 파주는 계가 나고 양주는 밤이 난다)이라는 전설이 있다.

또 가뭄이 심하면 성터에서 관민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린다고 한다. 지금은 군대 주둔지가 되었다. 북쪽의 車踰嶺과 남쪽의 蟹踰嶺이 이 산 낙때으로 연한 봉우리다.

老姑城 烽燧址는 흑은 山城으로도 불리어 오고 있는데 441m의 노고봉 정상에 있다. 잡석으로 쌓여진 높이 3m, 둘레 25m의 石築인데 20평 정도의 면적이다.



老姑山烽燧址

### 7) 교현리 봉수지(橋峴里 烽燧址)

長興面 橋峴里 山 50에 있다. 年代未詳으로 넓이 약 660m<sup>2</sup>(200坪), 상층부분 약 330m<sup>2</sup>(100坪), 높이 약 300m에 開城 方向으로 양지쪽에 호를 만들었다.

## [参考文獻]

1. 京畿道鄉土教育資料誌
2. 南都洙 : 韓國史, 역사의 고전장(동아일보 1976.9.30)

## 4. 官 地

## 1) 매학당(梅鶴堂)

州內面 維陽里 507番地는 梅鶴堂이 있던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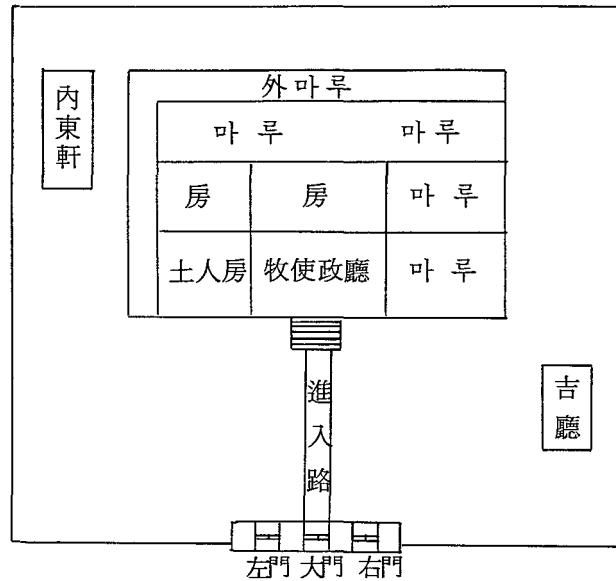
梅鶴堂은 삼층석대 위에 높다란 건물로 목사가 거처하던 곳이다. 구조는 목사의 방이 두 간, 옆에는 토인 방이 두 간, 넓은 마루 네 간과 전후의 마루로 되어 있다. 또 동편에는 外東軒과 內東軒이 20여간 있으니 外東軒은 목사가 政務를 보면 곳이고, 內東軒은 그 가족이 생활하던 곳이다.

이 당의 출입문을 삼문이라 하는데 중앙은 太極大三門이고, 左門, 右門이 있다. 그밖에 門路가 있는데 문로는 돌기둥 위에 다락을 짓고 다락에는 큰 북을 달았으며 다락밑은 통로로 되어 있다. 아침 저녁으로 북을 치며 대평소와 소리를 불어 시간을 알렸다 한다.

## 2) 기포중영(譏捕中營)

州內面 維陽里 504番지 일대는 譏捕中營자리다.

譏捕는 강도나 절도를 탐색하여 체포하던 일로 五軍門<sup>1)</sup>・捕盜廳에서 관장하였는데 지방관서에서는 목사가 중영장이 되고 장병이 300명이었다. 병정중에 가족이 자기 급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구읍내에 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주택을 마련해 주었고 독신자는 중영에서 숙식을 공동으로 하였는데 驛屯穀으로 급식하였다.



1) 훈련도감 · 금위영 · 어영청 · 수어청 · 총융청의 총칭

병정의 훈련은 교관이 지휘하며 연병장은 지금의 유양국민학교 자리이다. 중영 북쪽에 육간대청이 있어 중영장인 목사가 연중 몇 차례씩 열병식을 거행하여 정예병정을 양성하였다.

중영창고에는 화살, 활, 창, 총, 화약 등 무기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執事廳에는 사무를 처리하는 무관(지금의 尉官級) 약 30 명이 항시 집무를 했다.

활터는 과녁을 세우고 상시 궁술을 익혔던 곳인데 지금은 전답으로 혹은 민가로 변하여 유적조차 살피기 어렵다.

### 3 ) 길청(吉廳)

州內面 舊邑官衙址에는 옛날 吉廳이 있었는데 吉廳은 官衙에서 아전이 일하던 곳이다. 관아에는 吏房, 戶房, 禮房, 兵房, 刑房, 工房 등 여섯 명의 아전이 있었다.

당시 楊州에는 33 個 面이 있었는데 約正도 33人이었다. 거의가 舊邑에 사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는데 옛날에는 납세정신이 희박하므로 약정이 호별방문하여 징수하였다. 지금과 같이 국세·도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거두어서 상납을 하고 남은 錢糧으로 목사 이외의 관리들의 祿米(봉급) 등으로 쓰였는데 약정들의 부정으로 遷缺(공금의 횡령으로 결손을 냈을 때)을 내면 지방장관인 목사가 책임을 지고 과만(瓜滿)전이라도 左遷당하는 일도 있었다 한다. 당시의 세금행정은 勢道家는 특전으로 제외되고 庶民들에게만 해당되니 약정들의 횡포가 대단하였다 한다.

### 4 ) 고읍리 관아유지(古邑里 官衙遺址)

州內面 古邑里에는 官衙遺址가 있다. 지금은 기름진 전답으로 변해 있으나 땅을 2자 가량만 파면 주춧돌·지대석·기와조각 등이 수없이 나온다. 흔적은 있으나 규모와 경계는 알 길이 없다. 성황당 샘의 맑은 물은 옛 관아에서 사용했으며 지금은 농로가 돼버린 紅門<sup>2)</sup> 거리는 출입하던 문터가 분명하고 獄배미 논은 옛날 죄인을 가두었던 감옥자리였다.

### 5 ) 포청과 관아유지 (捕廳과 官衙遺址)

州內面 維陽里 508番地 부근에는 捕廳이 있었다.

捕廳은 도둑등 범죄자들을 잡아 다스리는 관청으로 이 곳에서는 당시 양주 33개 面

---

2 ) 홍살문의 춘말

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처리했다. 捕廳에는 15 명의 捕校가 있어 죄인을 잡아오면 목사의 裁量으로 처형·하옥·방면등 生殺之權을 행사했다. 捕校들은 勢道家들에게는 國事犯이 아니면 간섭도 못하고 庶民들에게는 秋霜같이 무서운 관원이라 33個面을 횡행하며 악행도 많았다.

사형수는 捕廳앞에 雙松나무가 있어 이곳에서 絞首刑을 당한 뒤에 현재 주내검문소 부근 佛谷山 下麓 남향진 곳에 있던 「식목소」라는 곳에 매장됐다.

하옥된 죄수에게는 칼<sup>3)</sup>을 써우고 着錮<sup>4)</sup>를 채워 옥중에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 6) 사천현 관지(沙川縣 官址)

隱縣面 上牌 1里에는 官址가 있다.

원래 隱縣面은 默隱面의 隱자와 沙川, 縣內面의 縣자를 따서 일제시대에 隱縣面으로命名되었다. 縣內面이었던 上牌 1里에는 沙川縣 관아자리가 5,6年前까지도 지대석이 남아 있어 관터라고 불려오던 것이 소지명이 되었다. 또 서쪽에는 옥담불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으니 관아 근처에 죄인을 다스리는 옥이 있던 자리인 것 같다. 옥자리에 돌담불이 쌓였으니 옥담불이라 불리었다.

이 옥담불자리가 지금은 군사기지로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

또 근처에는 釜淵洞이라는 10여호 되는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가마소 옆에 쇠던 오리나무만 남아 있다.

옛날 沙川縣자는 沙川里라 부르고 소지명으로는 관터라 전하여 온다.

### 5. 院 地

#### 1) 광수원지(廣水院址)

院은 고려~이조 때 출장하는 관리들의 숙박소·공용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宿食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각 要路나 인가가 드문 곳에 원을 두었는데 그 維持費로서 고려 공민왕 때에도 이미 院位田<sup>5)</sup>을 주었으나 이것이 어느 정도 정비되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부터였다. 1445年(세종 27)에는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중에서 뽑아 院

3) 널판지를 두 쪽으로 내고 목이 들어갈 만한 오목한 곳을 판 행구

4) 나무토막 틈에 죄인의 두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게 된 행구

5) 원주가 경작하여 원 유지비에 충당하는 토지

主로 삼고 이를 관리케 하였다. 經國大典<sup>6)</sup>에 의하면 원주에게는 大路면 1結 35負(結은 100負) 中路면 90負, 小路면 45負를 주어 원을 유지하게 하였다. 원은 한 때 크게 변성하였으나 그 사용자가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기에는 점차 쇠퇴해졌다.

南面 神岩里 222番地는 紺岳山 南麓이고 북으로 통하는 대로변이다. 고려 이래 북선으로 가는 큰길이다. 이곳 廣水院은 子坐午向으로 자리를 잡았고 규모를 살펴보면 碩石이며 기와 조각 등이 散在한 것을 보면 수백칸이나 될 듯하다. 여러 군데 원터를 조사했지만 광수원같이 큰 규모는 처음이다. 물론 義州로 가는 통로가 이밖에는 없고 薛馬馳嶺의 始點인 요지이니 당시 부속창고터인 듯하다.

원래 광수원 옛터는 현장소이나 神岩川이 紺岳山 유곡에서 흘러 이 부락을 貫流하므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오른쪽은 광수원 부락이고 왼쪽은 신암부락이다. 그리하여 옛 원터는 신암리이고 광수리는 莘山里에 있다. 이 평야는 당시 병사 白樂莘의 밤밭으로 清日戰爭때 대군이 이곳에서 숙박을 하고 복진한 곳이기도 하다. 또 전주이씨 중시조 全城君이 심은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樹齡은 450年, 높이 28m, 둘레 8.8m의 巨木이다.

이 늙은 느티나무는 이 동네의 수호신이 되고 광수원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 2) 상수역(湘水驛)

高麗末 李成桂와 同官이었던 洪智 直長公이 太祖年間에 卒하니 太祖는 전일 同官이었던 舊情으로 당대의 유명한 地師 無學大師를 명하여 山地를 잡게 하였다. 無學大師는 여러 날을 두루 踏山한 끝에 지금의 芒碭山에 이르러 천하의 明堂을 잡았다. 그런데 그 墓地形局이 완연히 王字形體라서 王運을 피하고 富貴만 누리도록 分金을 하였다. 그리고 보니 이제는 火山이 미쳐 그것을 막기 위하여 동리이름을 「물수자」가 든 湘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다. 과연 그 墓를 쓰고 領議政, 王妃, 大官들이 많이 나와 500여년간 화려한 門闕을 이루하였다. 洪瑞鳳 墓의 남쪽에는 北韓으로 통하는 옛날 國道가 있다. 그리고 남쪽 양지마을은 驛村이라고 하며 湘水里 43番地에는 驛站이 있었다.

옛날에는 人家가 밀집하여 間村까지 연결되었으며 이곳에서 「房谷」이니 「말미」등 여러 곳으로 연결이 되었었다. 지금도 논밭에서는 기와조각·주춧돌 등이 여기저기 있어 옛 자취를 엿볼 수 있다.

6) 이조 때 정치의 기준이 된 法典으로 세조때 崔恒 盧思慎등에게 명하여 1460年에 戸典, 1461年 刑典, 1469年에 나머지 4典을 撰進함으로써 완성하였다. 朝鮮制度史研究에 없어서는 안될 貴重한 根本資料이다.

### 3) 곳집탄과 원터밭

廣積面 德道里 大棗洞은 老姑山 낙맥이 굽이굽이 돌아 들어 尹雪樵의 명묘지가 되고 좌우로 龍勢가 갈라져서 마치 天獄도 같으면서 藏風之地로 되었다. 이곳을 곳집탄이라고 부르니 곳집탄은 「옛 창고터」란 뜻이다.

어느 시대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길 옆에 돌절구가 있었고 조그마한 돌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으나 산재한 기왓장과 깨어진 그릇조각 등으로 미루어 보아 창고를 지키던 사람이 살던 옛터인가 한다.

또 조금 떨어진 곳에 「원터밭」이 있는데 이곳은 대로변이다. 여기서 파주 원터와는 약 8km 거리인데 지금은 과수원이 되어 있으나 무수한 기와조각이 나오고 1km 떨어진 곳이 湘水驛이라 불리니 지난 날의 要地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곳집이 있었던 옛 동명은 「곳집탄」이 되고 옛 원이 있었던 곳은 「원터밭」이 되고 옛 상수역은 「역말」이라 불린다.

또 부근에 형제바위가 있는데 여기서 아들 냉기를 비는 사람은 아들을 냉는다 한다.